

2018 제21권

ISSN : 2635 - 5604

STUDENT COUNSELING CENTER
HANSEI UNIVERSITY

학생생활연구



한세대학교 학생상담센터
HANSEI UNIVERSITY STUDENT COUNSELING CENTER

학생생활연구

제 21권 <비매품>

발 행 인	김 희 수
편 집 인	신 미 경 · 장 각 자
발 행 처	한세대학교 학생상담센터
발 행 일	2018년 8월 27일
우 15852	경기도 군포시 한세로 30 한세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연락처	031-450-5173
E-mail	seahim68@naver.com
ISSN	2635 - 5604

학생생활연구는 한세대학교 학생상담센터의 기관지로서 연 1회 간행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상담분야의 연구논문과 신입생 실태자료를 게재한다. 학생생활연구는 무료로 배부된다. 구독관계는 학생상담센터 T(031-45-5071)로 문의하기 바란다.

본 학술지는 21권부터 신입생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학생생활연구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2018학년도

학생생활연구

제 21 권

한세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인 사 말

우리 한세대학교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의·진리·사랑의 대학’을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미래형 교육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한국 속의 세계대학’이라는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세인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하여 그 분야에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학생상담센터에서도 한세인의 학교생활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도록 헌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전문적인 자기 계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시 위주의 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쳐 온 대학생들이 자신의 직업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대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에 학생상담센터에서는 한세인들이 자신의 성격적 특성과 적성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진로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심리적인 불편함을 갖고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회복하여 학생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정신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생생활연구지는 그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심리상담에 도움이 되는 학술 논문과 한세인의 신입생 실태조사와 상담소의 이용실태를 정리하여 엮었습니다. 본 학술연구지가 해가 거듭될수록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문들과 조사 연구들을 수록하여 전문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에도 더욱 알차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세인들의 학생생활과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18. 8. 27

한세대학교 학생상담센터장 김 희 수

목 차

인 사 말	학생상담센터장
-------------	---------

I. 연구논문

독서치료를 활용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발달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김 은 주 · 김 희 수 / 1
성비행 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적응력과 자기 인식의 관계성 연구.....	송 언 섭/ 15
정적인 아버지특성이 초등학생들의 자기효능과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성취동기의 매개효과	전 윤 주 · 김 희 수 / 34
동기강화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입원 알코올 중독자의 고위험음주 상황인식과 스트레스반응에 미치는 효과	정 중 현 · 김 희 수/ 52

II. 신입생 실태조사 보고서

2018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보고	장각자 · 손영임/ 68
--------------------------	---------------

<부 록>

2018년도 신입생 설문 조사서	234
2017년도 학생상담센터 활동 보고.....	239
2018년도 학생상담센터 운영 계획.....	245
학생생활연구 발간 규정	247
학생생활연구 투고 규정	248

독서치료를 활용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발달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김 은 주

김 희 수†

한세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 6학년을 대상으로 독서치료를 활용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발달과 자아탄력성에 효과가 있는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여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기도 K초등학교 방과 후 독서논술 수업을 하는 독서수준이 비슷한 6학년 26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13명씩 배치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진로발달과 자아탄력성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에는 2015년 7월 3일부터 8월 21일까지 매주 1회씩 8회기에 걸쳐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진로발달과 자아탄력성에 대한 사후검사는 프로그램 종결 후 2015년 9월 4일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집단 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진로발달 검사에서 유의수준 $p < .001$ 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므로 초등학생의 진로발달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진로집단 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자아탄력성 검사에서 유의수준 $p < .001$ 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므로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독서치료를 활용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발달과 자아탄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주요어: 독서치료, 진로집단상담, 진로발달, 자아탄력성

* 본 연구는 김은주(2015)의 한세대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독서치료를 활용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발달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를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김희수, 한세대학교 상담심리학 교수, E-mail : kimhs@hansei.ac.kr

I. 서 론

지식, 정보화 사회인 21세기는 직업세계에 있어 빠른 변화와 다양성을 요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5,000 여 개의 직업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직업이 꾸준히 생성·소멸되고 있다(한국직업사전, 2014). 이와 같은 변화는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이므로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진로교육은 중요하다. 진로발달 주요 이론가들은 초등학생은 성인 진로발달의 모체가 되는 중요한 성장기이며 진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및 태도를 형성하는 단계라고 하였다(이종범, 2005). 초등학교시기에 습득한 진로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진로발달 과정에 기초가 되므로 이시기에 적절하고 효율적인 진로상담을 통해 바른 진로인식 성립과 진로계획 결정 등 전반적인 진로발달에 초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시기는 진로인식의 첫 단계이므로 초등학교 때 진로교육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때 이후 진로에 대한 건전한 성숙과 발달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진로발달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자신감을 아동기에 길러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의 측면에서 개인의 잠재적인 긍정적 측면의 자아탄력성, 주관적 안녕감, 행복 경험, 만족감 등이 관심을 받고 있다(김지영, 2008). 특히, 자아탄력성은 진로발달 과정에서 겪는 역경과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건전한 적응 능력을 포함하는 것이라 추

정된다(허정선, 2012). 이에 진로 발달과정에서 겪게 되는 진로에 대한 고민과 좌절에 노출 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주는 자아탄력성은 진로발달과 함께 초등학생에게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최근의 진로집단상담은 개인의 진로결정을 단순히 개인의 적성과 직업과의 통합행위가 아닌 하나의 발달과정으로 간주하게 되면서 개인의 적성, 학업, 여가 등이 그 주요 관심사로 여겨지고 있다. 즉 진로집단상담은 개개인의 의미가 부여된 생산적인 일을 통하여 개인이 현실과 접하고, 이를 유지해 가는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심리적 방법의 하나를 구성해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회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수단을 제공하는 것임이 강조되고 있다(신세연, 2009). 한국교육개발원(1982)은 진로집단 상담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흥미를 개발 발전시키고, 지역사회의 각 산업체 및 여러 기관, 단체들이 하는 일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다양한 직업이 갖는 의미를 통해 직업의 소중함을 느끼며 직업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장래 올바른 직업인으로서의 포부를 갖는다.

진로발달은 인간 발달의 개념을 진로라는 측면에 도입한 것으로 진로발달을 개인의 전체적인 발달의 주요한 측면으로 보는 입장이다(김충기, 1995).

Ginzberg(1972)의 발달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서로 다르게 진행되어 가듯이 직업에 대한 지식, 태도, 기능도 일련의 단계를 거치며 전 생애를 통해 발달해 간다고 설명하고 있다. Super(1957)는 직업발달이라는 개념을 인

간의 전체 발달과정의 일부로 보고 있으며, 특히 자아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진로발달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Super는 자신의 이론이 개인적 요인과 환경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통합적 접근법이라고 하였다.

Tuckman(1974)은 자아인식, 진로 인식 및 진로의사결정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8단계의 진로발달 이론을 제시하였다(손복권, 2007:재인용). 학생들의 진로발달을 위한 교육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며 기능훈련을 제외한 진로교육의 모든 측면을 광범위 하게 내포하고 있다. Gottfredson(1981)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기 이미지에 필적하는 직업을 원하기 때문에, 직업 발달에서 자기 개념은 직업선택의 핵심요인이라고 한다.

초등학생의 진로발달은 개인이 점차적으로 성숙되고 그가 접한 환경과 자신에 대한 인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다면적으로 구조화된다고 하였다. 또한 진로발달의 하위요인을 진로인식, 진로탐색, 진로계획 등으로 보았을 때 저차원 특성이 변화하면서 발달양상이 바뀌게 되는 위계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하였다(이중범, 2005). Ginzberg(1972)의 진로발달이론에 의하면 초등 고학년은 환상적 직업 선택과 시험적 선택단계의 초기단계인 흥미단계로 시험적 직업선택의 시기에 해당되며 이들은 자신의 흥미에 입각해서 직업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Super(1957)의 진로발달 단계에 의하면 초등 고학년은 흥미기에 해당되며 자신의 흥미를 더 잘 알게 되고 흥미는 포부의 강력한 결정인자가 되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며 욕구와

충동을 직업적 선호로 전환시킨다. Tuckman(1974)은 진로 발달이론의 8단계 중 1단계~5단계까지를 초등학교 학생의 진로발달 수준과 과업에 초점을 맞춰 이시기의 진로의식이 예상외로 성숙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초등학생의 진로발달 수준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초등학생의 진로교육이 진로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Miller(1977)는 직업에 관한 지식, 직업에 대한 자아인식에 대해서 전국의 9세 아동 2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를 한 바 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생 시기에는 직업 활동과는 직접 관계는 맺지 않았지만 자신의 능력과 흥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초등학생의 진로 발달 수준에 관한 연구 이론을 종합하여 볼 때, 초등학생은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로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아탄력성의 개념은 스트레스나 역경, 혹은 위협적 환경과 같은 외부 자극에 대해 자기 스스로 자극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탄력성이라 할 수 있다. 즉 스트레스에 대해 건강하게 적응해가는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심리학적 개념이다(이진오, 2008).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동으로 하여금 잘 자라게 하는 개인, 가족, 환경적 특징과 관련된 것이 탄력성이다. 개인은 저마다 서로 다른 다양한 스트레스를 다뤄야하며 변화하는 생활에 적응해야만 한다. 그 중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 어려움을 더 효과적이고 만족스럽게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탄력적

(resilient) 혹은 탄력성(resilience)을 지닌 사람이라고 한다(김순복, 2007). 자아탄력성은 조절과 관련된 개념으로 환경적 요건에 대처하는 개인의 자아통제(ego-control)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이다. 높은 자아탄력성은 상황의 변화 또는 우발적인 사건에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적응하는 것이며 상황의 특성과 개인행동 사이의 적절한 분석력과 통찰력을 의미한다(서보업, 2011). 초등학교 고학년은 청소년으로 전이되는 시기로 심리 및 정서적으로 불안한 시기이다. 또한 학년이 점차 올라감에 따라 학습량이 증가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가중 되면서 스트레스 상황에 자주 직면하게 된다. 생활환경 역시 가정과 이웃에서 학교와 지역사회로 확대되며 규칙적인 학교생활습관을 익히게 되고 학교와 또래 관계에서 사회적인 적응을 해나가기 시작해야 하는 때이다(김윤희, 2008). 이에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기술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신념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에 자아탄력성은 초등학교의 진로발달 및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초등학교에게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중요하다.

독서치료는 학자 또는 포함하는 범주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독서치료의 사전적 의미는 '책 읽기를 통한 심리치료'를 의미한다.

독서치료(Bibliotherapy)는 그리스어의 책이나 문학을 의미하는 'biblio' 과 '도움이 되다.' 또는 '의학적으로 돕거나 병을 고쳐준다.'라는 뜻의 'therapeia' 가 결합된 말이다. 근본적으로 독서치료는 문학을 사용하여

정신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의미를 갖는다(김희선, 2011). 용어에서 의미하듯이 독서치료는 책과 문학이 치료적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치료적 힘을 심리·정서·부적응의 문제를 해결하고 돕는데 전문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독서치료 원리는 첫째, 동일시원리이다. 동일시란 타인에게 애정을 느껴 자기와 타인과 일체를 생각하도록 하는 자아의 자각과정이다. 일반적 치료과정에서 볼 때 대상자는 치료자에게 감정적인 애정을 느껴 일체감(동일시)이 이루어지지만, 독서치료의 경우에 있어서의 동일시란 책속의 등장인물의 성격, 감정, 사고, 행동, 태도를 이상 상으로 하여 그것을 자기의 내면에 섭취하여 그와 같은 감정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둘째, 카타르시스의 원리이다. 카타르시스란 감정정화, 정동해발이라고도 한다. 치료적인 면에서 볼 때는 대상자의 내면에 쌓인 욕구 불만이나 심리적 갈등, 불안 등을 언어나 행동으로 표출시켜 충동적 정서나 소수적인 감정을 발현시키는 요법을 말한다. 독서치료에서는 등장인물에 대한 감상의 고백이기 때문에 다른 심리요법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저항의 빈도가 낮다. 또한, 글이나 말로 감상과 감정을 표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식적인 억제나 억압이 서서히 약해져서 등장인물에 대한 간접적인 감상표현이 현실 생활 중의 인물에 대한 직접적인 감상표현 형태로 바뀌어 나가게 된다. 셋째, 통찰의 원리이다. 통찰은 카타르시스의 다음에 나타나는 것으로 자신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확보를 의미한다.

Hynes 와 Hynes-Berry(1994)는 독서치료의 과정을 인식, 고찰, 병치, 자기적용의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인식이란 자료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참여자가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고찰은 첫 단계인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관련된 문학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는 활동이다. 독자는 작품을 읽은 후 작품의 일부분에서 받은 충격의 결과로 인식하게 되고, 인식을 고찰하게 되면 그 주제에 대한 추가적 인상이 생겨나는 데, 추가적 인상은 독자가 처음에 가졌던 처음의 반응에 수정과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독서치료에서 고찰은 참여자로 하여금 대상이나 경험에 대한 두 가지 인상을 나란히 놓고 비교, 대조해 보게 하는 병치를 이끌어 낸다. 이렇게 작품을 통해 인식되고 고찰되고 병치되었던 느낌과 개념은 자기적용의 경험으로 진전된다(김현희, 2010).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확보하고 다르게 해석하여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독서치료에서의 통찰은 계속적인 치료 과정을 통해 책 속 등장인물의 행동을 스스로 깨닫도록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동기 조성이나 욕구를 달성할 수 있는 카타르시스를 동반한 감정적 통찰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이영식, 2008)

본 연구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황매향(2013)은 ‘독서를 활용한 진로교육의 가능성 탐색’ 연구에서 진로교육 목표달성을 위한 독서활동의 적용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독서활동이 교육과정 속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하며, 진로독서 교육을 위한 도서개발과 도서목록 정리의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정아(2011)는 ‘진로독서프로그램이 여고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성숙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진로 독서 프로그램 중 독서치

료를 활용한 여고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 성숙에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하였다.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다양한 접근과 효과적인 실시를 하여 한국도서관협회 등에서 상황별 도서 매체의 목록과 그에 따른 가이드 북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안인희(2010)은 ‘독서토론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발달과 성취동기에 미치는 효과’에 관하여 도서매체를 선정하여 집단 상담을 통해 자유롭게 토의·토론하는 방식으로 연구한 결과 진로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통제집단에 비해 진로발달과 성취동기에 있어서 유의미한 향상을 발견하였다. 진로독서상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진로발달과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고, 통계 결과 진로정체감과 직업가치관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이상애와 조현양(2007)은 ‘진로를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집단 간의 각각에 대해서 사전사후 점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진로태도 성숙의 하위요인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 차원에서 도움이 되었으며,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집단 간의 진로태도의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를 통해 독서치료를 활용한 진로 집단 상담을 받은 집단은 상담을 받지 않은 집단 보다 자아개념의 증진,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진로태도성숙, 가치관 형성 등 진로발달에 있어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독서치료를 활용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진로상담과 진로교육의 중요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독서치료를 활용한 진로상담은 지속적인 책

읽기를 통해 자신의 강점을 찾아가고, 직업 가치관을 정립해 가면서 직업 수행에 필요한 인성 발달까지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진로 교육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독서를 통하여 진로 멘토를 정할 수 있어서 진로 탐색과 진로 준비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진로 교육 단계마다 독서를 연계한 활동은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진로발달에 도움을 주며, 진로독서는 자신의 삶의 방향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내적동기를 강화시킨다고 한다(정철영, 1999). 이처럼 독서치료를 통해 자신과 사회에 대한 이해와 탐색 과정을 또래와 함께 나누면서 자고 발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초등학교 고학년 진로 집단 상담에서 독서치료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생의 진로발달과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해서 독서치료를 활용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을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독서치료를 활용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생의 진로발달을 증진시키는가?

연구문제 2. 독서치료를 활용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생의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한 K초등학교 방과 후 독서논술 수업을 하는 6학년 26명으로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는 방과 후 독서 논술 수업을 6개월 이상한 학생으로 독서수준이 비슷한 학생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대상 학생 수는 실험집단 13명, 통제집단 13명으로 하였다. 실험집단에는 2015년 7월 3일부터 8월 21일까지 8주간 매주 1회씩 8회기에 걸쳐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 방과 후에 실시하였으며 1회기의 시간은 100분으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종결 후 사후검사는 2015년 9월 4일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실험설계는 독서치료를 활용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진로발달과 자아탄력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본 프로그램은 사전-사후 검사 통제집단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의 방법을 사용하여 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처치하는 실험집단과 프로그램을 처치하지 않은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실험하였다.

2. 처치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활동목표와 내용은 조은나(2014)가 개발한 독서치료를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김미숙(2009)이 개발한 고학년용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참고하였다. 자아탄력성 영역으로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생의 성취동기와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김정민, 2010)’, ‘초등학교 고학년의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개발(심일수, 2011)

등을 참고하여 본 프로그램에 응용하였다. 위의 프로그램들을 토대로 초등학교 6학년에 맞게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연구자가 재구성 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에게 독서치료를 활용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진로발달과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선행연구에 활용된 프로그램을 재구성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첫째,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자기 탐색 활동을 또래와 나누게 하고, 직업 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미디어 활용과 과제를 제공하도록 구성하였다. 둘째,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영역으로는 자아탄력성, 진로인식, 진로발달 계획으로 크게 세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탄력성 향상을 위해 감정조절, 낙관성, 호기심 영역을 프로그램 초반에 진행하도록 구성하였다. 넷째, 진로발달검사에서 측정하고 있는 하위변인들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활동이 포함되도록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자아탄력성, 진로인식, 진로발달계획으로 크게 세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내용 타당도를 입증하였다.

3. 측정도구

진로발달검사

본 연구에서는 진로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이종범(2005)이 개발한 진로발달 검사지를 일부 수정 보완한 ‘초등고학년 진로발달검사지’(김미숙,2009)를 채택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수정·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고학년 진로발달검사지(김미숙,2009)에서 자아인식 척도를 제외한, 학업직업탐색, 진로계획의 2개의 척도와 6개의 하위영역(학업성취인식, 진로정보이해 활용, 의사결정 과정 이해, 삶과 일에 대한 설계, 진로계획 과정이해, 진로목표 설정)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문항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표 1〉 처치프로그램의 회기별 목표와 활동

회기	제목	회기별 목표	활동내용	독서자료	
1	소중한 나의 진로	프로그램의 목적과 자기 탐색	- 프로그램의 목적 및 진행개요 설명 - 서약서 쓰기 - 소중한 나 - 장점을 찾아 별칭 짓기	『나는 특별하단다.』	자 아 탄 력 성
2	자신감 필요해	도전과 용기를 통한 다양한 세계 바라보기	- 새로운 것에 도전할 용기 갖기 - 다양한 세계에 대한 관심과 흥미 갖기	『뛰어라 메뚜기』	
3	나의 흥미와 적성은	흥미를 알아보고 진로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 나의 적성과 재능을 이해하고 적절한 직업을 탐색할 수 있다. - 진로관련 나의 특징을 알아보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100만 번 산 고양이』	

4	합리적인 진로 의사 결정	합리적인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	◆ 주인공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직업선택의 중요성 이해하기 ◆ 나의 의사결정 유형을 통해 가치관에 대해 알아보기	『행복한 청소부』	진 로 인 식
5	진로를 위한 준비	진로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 갖기	◆ 주인공과 비슷한 경험 이야기 나누기 ◆ 직업이 무엇인지? 역할 생각해 보기 ◆ 직업 편견에 대해 생각해 보기 ◆ 직업이 왜 소중한지 생각해 보기	『그래 멋진 직업을 찾고 말테야』	
6	와! 이렇게 많은 직업이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탐색	◆ 직업 연결 게임 ◆ 독서매체에 관련하여 이야기 나누기 ◆ 직업군 나누기 ◆ 직업카드 만들기	『직업 옆에 직업』	진 로 발 달 계 획
7	그래! 결정 했어	자신의 특성을 통해 구체적 직업군 탐색	◆ 자신의 특성을 이해한다. ◆ 자신의 특성에 적합한 직업을 탐색한다. ◆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결정하는 연습을 해 본다.	『조앤 롤링』	
8	미래를 그려봐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계획 프로그램 소감 정리	◆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를 통해 자신이 이루 싶은 꿈과 구체적 계획세우기 ◆ 나의 꿈 노트 만들어 보기 ◆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변화된 점, 새로 알게 된 점, 느낀 점 나누기	『어린이를 위한 꿈꾸는 다락방』	

‘초등학교 6학년 진로발달검사지’ (김미숙, 2009)의 신뢰도는 0.955이고,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진로발달검사지의 신뢰도는 0.7475로 나타났다.

III.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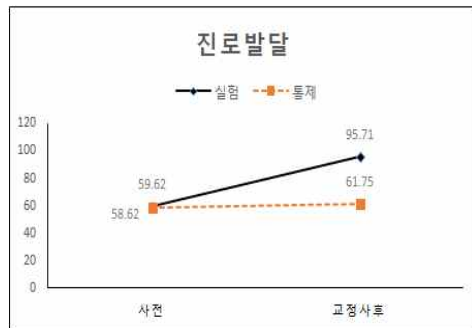
독서치료를 활용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진로발달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전-사후검사 통제 집단 설계를 이용하였다.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 측정도구별 사전검사와 사후검사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사전-사후(진로발달, 자아탄력성) 척도 득점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기술하였다. 집단의 사전능력 수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집단의 사전능력의 평균이 동일해지도록 사전점수는 공변량으로 하였으며, 프로그램 실험-통제유무에 따른 사후능력 변화에 대한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진로발달의 변화 분석결과

본 프로그램은 실험-통제에 따른 두 집단으로 나누고 프로그램의 전·후의 진로발달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표 2에 따르면 실험집단의 사전 ‘진로발달’ 평균 점수는 59.62점이며, 사전 점수를 통제된 교정사후 평균 점수는 95.71점으로 사전 평균 점수보다 상승하였다. 반면 통제집단의 사전 평균점수는 58.62점이며 사전 점수를 통제한 교정사후 평균점수는 61.75점으로 실험집단에 비해 3.13점 상승하였다.

표3에 보듯이 공변량인 사전 진로발달을 통제하였을 때, 실험집단에서 진로발달은 사전보다 교정 사후에 통제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F=234.44$, $p<.001$).



[그림1] 진로발달 사전-교정사후 비교

2. 자아탄력성의 변화 분석결과

본 프로그램은 실험-통제에 따른 두 집단으로 나누고 프로그램의 전·후의 자아탄력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4와 같다. 실험집단의 사전 ‘자아탄력성’ 평균 점수는 59.31점이며, 사전 점수를 통제한 교정사후 평균 점수는 74.98점으로 사전 평균 점수보다 상승하였다. 반면 통제집단의 사전

평균점수는 58.31점이며 사전 점수를 통제한 교정사후 평균점수는 61.25점으로 실험집단에 비해 2.94점 상승하였다. 표 5에서 보듯이 공변량인 사전 자아탄력성을 통제하였을 때, 실험집단에서 자아탄력성은 사전보다 교정 사후에 통제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F=182.52$, $p<.001$)



[그림2] 자아탄력성 사전-교정사후 비교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26명으로 대상으로 실험집단 13명에게 진로집단 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진로발달과 자아탄력성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 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앞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집단 상담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실험처치를 받은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진로발달 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냄으로써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발달에 유의미

한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진로집단 상담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실험처치를 받은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자아탄력성 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냄으로써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나타냄으로써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발달과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를 연구하고자 구안한 독서치료를 활용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발달과 자아탄력성에 효과가 있는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여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를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와 관련 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진로발달 향상을 위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은 진로발달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집단 상담이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안인희, 2010 : 박보라, 2010 : 김미영, 2012)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이다. 진로발달의 하위요인인 학업직업선택과 진로계획에 있어서 책에 소개된 다양한 직업세계 속에서 펼쳐지는 주인공의 삶을 통해 진로준비 과정의 중요성과 올바른 의사결정이 진로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었으며, 의사결정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생각해 봄으로써 직업 및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여 진다. 둘째,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 향상을 측정한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킨다는 선행 연구(이실숙, 2013 :이경선, 2011) 결과와도 상당부분 일치한다.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과 ‘긍정적 미래 지향성’ 에 있어서 자기 탐색을 통한 흥미·적성 및 긍정적 사고 지향이 미래에 대한 긍정적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진로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독서치료를 활용한 진로집단상담을 통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소질을 신장시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진로계획과 삶에 대한 설계를 통해 진로발달에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에 대한 탐색과 이해과정을 통해 자심감과 자기 존중감 향상으로 자아탄력성에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업 세계와 관련된 것을 또래 집단원과 함께 주도적으로 조사하고 나누어 봄으로써 바람직한 직업가치관을 내면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급속히 변하는 직업세계를 책과 미디어를 통해 접하면서 자신의 직업 세계의 영역을 넓힐 수 있었다. 이는 앞으로 진로에 대한 계획을 보다 폭 넓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경기도 K초등학교에서 독서수업을 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각각 13명으로 구

성하였다. 이는 실험연구에서 자료를 처리할 때 일반화하기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따라서 추후에 다른 지역 학생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연구를 통해 더욱 일반화된 통계적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진로집단 상담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검증은 보다 세분화하고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대상별, 연령별, 성별 등을 구분하여 초등학생의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단기간 내에 진로발달과 자아탄력성에 대한 짧은 회기의 성과보다는 단계별로 향상 시킬 수 있는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8주 동안 8회기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진로발달과 자아탄력성의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으나, 프로그램이 단기간에 집중된 경향이 있고, 지속적인 추후관찰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하위요인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그 효과를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에 있어서도 추구 검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발달 검사지와 자아탄력성 검사지는 자기보고식 검사지이다. 이 검사지들은 신뢰도 검증은 되었지만, 응답자의 주관적 반응과 판단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자기보고식 검사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심층면접이나 질적 연구 방법등 다양한 방법의 검사에 관한 연구 및 검증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순복 (2007). 낙관성 향상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희 (2008). 해결중심 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식 및 대처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민 (2010).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성취동기와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 (2008). 초등학생이 지각한 자아탄력성, 주관적 안녕감과 스트레스 지각수준 및 대처양식과의 관계. 연세대학교석사학위논문.
- 김충기 (1995). 미래를 위한 진로교육. 양서원.
- 김현희 외 공저 (2001). (한국독서치료학회) 독서치료. 서울:학지사.
- 김희선 (2011). 독서치료를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학습부진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동일 (2007). 청소년의 가정건강성, 학교생활건강성 및 자아탄력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보라 (2010). 독서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진 (2006).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학습부진아동의 진로성숙

- 과 성취동기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고용정보원 (2014). 한국직업사전. 한국고용정보원
- 서보업 (2011).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해결중심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복권 (2007). 독서치료가 중학생의 진로 의식 성숙에 미치는 효과.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세연 (2009). 활동중심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태도와 성취동기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일수 (2011). 초등학교 고학년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인희 (2010). 독서토론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발달과 성취동기에 미치는 효과.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애, 조현양(2007).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2), 97.
- 이실숙 (2013).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주관적 안녕감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식 (2006). 독서치료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학지사.
- 이종범 (2010). 초등학생 진로발달 검사지의 개발 및 타당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진오 (2008). 청소년의 여가활동 참가에 따른 자아탄력성이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철영 (1999).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국진로교육학회.
- 조은나 (2014). 초등학교 고학년의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독서치료활용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교육개발원 (1999).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한정아 (2011). 독서와 영화를 활용한 진로지도프로그램이 고교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효과 비교.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정선 (2012)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집단 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매향 (2013). 독서를 활용한 진로교육의 가능성탐색. 33(2), 55-71
- 워크넷 <http://www.work.go.kr>
- Ginzberg, E., Ginzberg, S. W., Axelrad, S., & Herma, J. L. (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inzberg, E. (1972). Restatement of the theory of occupational choice.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20, 169-176

- Gottfredson, L. S. (2002). *Gottfredson's theory of circumscription, compromise and selfcreation*.
In D. Brown & L. Brooke (Eds).
- Hynes, A. M., & Hynes-Berry, M. (1994). *Biblio/Poetry Therapy the Interactive Process : A handbook*. St. Cloud, MN : North Star Press of St. Cloud.
- Miller, J. (1997). *Career development needs of 9-year-olds : How to improve career development programs* Washington, DC : National Advisory Council for Career Education.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 Haper & Row
- Tuckman, B. W. (1974) An age-grade model for career development educ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2)

〈Abstract〉

The Effects of a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by
using Bibliotherapy on Career Development and Ego
resilience for Elementary Schoolchild

Kim, Eun-ju

Kim, Hee-Sue

Hansei University

This research, targeted to wards 6th grade students, is designed to prove that whether or not group career counseling session through biblio-therapy has effect in elementary student' s career development skills and ego resilience. In order to measure group career counseling session' s effect, we allocated 26 6th grade students who are attending K elementary school in Kyeong-ki-do. All students participated in afterschool biblio-therapy program and had similar reading skills. We divided them into two groups one experiment group and the other control group. Each group consisted of 13 students. Before executing group career counseling session on experiment and control group, they went through preliminary test on career development skills and ego resilience. Experiment group went through eight group career counseling sessions from July 3rd, 2015 to August 21st, 2015. Experiment and control group were post-tested on career development skills and ego resilience on September 4th, 2015, after all sessions were finished. The research showed following results. First, the research proved that group career counseling session had 99.9% substantial effect on student' s career development skills because experiment group, who went through group career counseling session, represented higher career development skills than control group. Second, the research proved that group career counseling session had 99.9% substantial effect on student' s ego resilience because experiment group, who went through group career counseling session, represented higher ego resilience than control group. Therefore, research proved that group career development session through biblio-therapy had positive effect on elementary student' s career development skills and ego resilience.

Key words : Reading Therapy, Career Group Counseling, Career development, Ego resilience

성 비행 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적응력과 자기인식의 관계성 연구

송 언 섭*

한세대학교

본 연구는 성 비행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적응력과 자기인식의 관계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한 청소년 204명을 대상으로 그 중 성 비행 청소년은 89명, 일반 청소년은 115명으로 일반적 특성에 관한 설문지, 사회적응력 검사, 자기인식 검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t-검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구하였다. 그 결과 성 비행에 따른 사회적응력과 자기인식의 차이는 성 비행 청소년들이 사회적응력 전반에 대해서 일반 청소년 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자기인식의 사적 자기인식은 성 비행 청소년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청소년의 사회적응력과 자기인식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기인식의 공적 자기인식과 사회적응력의 적응성, 충동성, 책임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부적 상호작용을 함으로서 자기인식이 높을수록 사회적응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비행 청소년은 사적 자기인식이 대인관계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 청소년은 사회적 불안이 충동성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사회적응력이 자기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전체 청소년은 적응성과 책임성 및 대인관계가, 성 비행 청소년은 책임성과 대인관계, 일반 청소년은 적응성과 대인관계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시사점과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성 비행, 성 비행청소년, 일반청소년, 사회적응력, 자기인식

* 저자 : 송언섭, 한세대학교 박사과정 재학

Tel : 010-8770-8753, E-mail : thddjstjq@naver.com

I. 서 론

청소년기는 한 개인에 있어 성인이 되기 위한 도정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갔을 때 자신에게 맞는 적합한 역할이 무엇인지 충분히 탐색을 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능력을 신장하고, 이를 위한 한 개인으로서 자신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지각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청소년기는 부모와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마음의 세계가 생기며 심리 신체적인 이별이 ‘짜증’의 형태로 나타나며 부모에 대해 양가적이 되고 또한,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을 바꾸며 다른 이성을 좋아한다. 청소년기는 신체의 성인화, 임신능력의 생성과 같은 생물학적 성장으로 신체적, 정신적 재구성이 요청되며, ‘자기 성애적 단계’를 극복하고 ‘대상선택적 관계’로 나아가며 부모가 아닌 다른 대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이러한 심리적 재구성이 여러 심리적 활동을 촉진시킨다(S. Freud, 1905, 김현수, 2016, 재인용). 청소년기는 다시 분리 개별화를 이루어내야 하는 시기이며 이시기의 문제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재출현을 통해 가족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시기이고 새로운 방식의 대상선택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추구한다(Peter Blos, 1973, 김현수, 2016, 재인용). 청소년기에 몸에 대한 부족한 이해가 성적인 환상에 집중함으로써 성 인식에 대한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 성폭력가해청소년의 경우, 성 역할 집중화 현상을 경험하면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더 많이 습

득하고 왜곡하는 것으로 보인다(김영자, 2012). 따라서 청소년의 성문제는 심각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성 비행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접촉을 모두 포함하는 범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감정, 신체적 손상,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한다(김은주, 2011, 한국성폭력상담소, 1997, 재인용). 성 비행은 형법에 따른 성폭력처벌법(약칭, 2조)에 의하면 음행매개, 음화반포 등, 음화제조, 공연음란, 추행, 간음, 성매매, 성적착취,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이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 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 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추행이다(법무부, 2017). 따라서 법적으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하는 행위 및 성행위를 유발시키기 위해 선정적 언어로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형별로는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성매매, 음란물 소지 및 제작 배포, 공연음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폭력 등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성범죄의 상당 부분은 청소년 가해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대상은 또래 집단 여학생이거나 자신의 가족이나 친족 혹은 이웃 여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김하

나, 2009). 범죄백서(2016)에 의하면 소년범죄의 범죄유형별 현황에서 2007년부터 2016년 4대 강력범죄(흉악/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에서 살인은 소폭 감소, 강도는 대폭 감소, 방화는 다소 감소하였다. 반면에 성폭력은 2007년 46.8%에서 2016년 85.6%로 대폭 증가하였다. 성폭력 사건은 2007년의 834건에서 2016년 2860건으로 3.5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2017년 국회 보고 자료에는 2016년 성폭행 소년범 수가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7월까지 1763명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청소년의 성 비행 상황을 볼 때 청소년기의 성 비행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성 비행 청소년의 특징을 살펴보면 청소년 성 비행의 경우 대부분이 낮은 자존감, 공격성 및 충동성, 공감능력 부족이라는 심리적인 특성을 보인다. 또한, 관계형성 능력의 부족, 장기 조망 능력의 부족, 가치관의 혼란, 문제해결 능력 부족 등의 개별적 특징과 문제적인 부모, 학교에서의 부정적 경험이라는 사회적 특성을 나타낸다(김영자, 2012). 성 비행 청소년의 특성 중 특히 학교에서의 부정적 경험에 기인한 사회적응력은 청소년 성비행과 연관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사회적응력이란 인간이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과정과 자기 자신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 모두를 포함한다. 즉 그가 속해 있는 사회 환경과 조화되어 어울리는 능력이며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습득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능력이다(이현주, 2004). 청소년의 사회적응력을 자존감, 자기효능감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자기 통제력을 통해 충동성을 조절하며,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등의 사회기술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또래, 교사, 어른과 건강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양미진, 지승희, 2006, 박미정, 2016). 따라서 청소년기의 사회적응력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변화하는 환경과 여건에 적합할 수 있게 자신의 욕구를 조절해나가는 적응능력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하겠다.

한편, 자기인식은 한 개인의 자기에 대한 이해로, 종종 자기개념이나 자기존중감이라는 용어로 사용된다. 여기서 자기개념은 구체적으로 자기평가로서 자기에 대한 영역-특정적 평가를 의미하고, 자기존중감은 자기가치나 자기상 같은 자기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의미한다(장휘숙, 2008). 자기인식(self-awareness)은 자기 자신의 내적 사고와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상으로서 자기를 인식하며, 다른 사람들에 의해 평가된다는 것에 대한 우려나 타인들의 존재에 대한 불편함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인식은 세 가지 영역 즉, 사적 자기인식, 공적 자기인식 사회불안으로 구성된다. 사적 자기인식은 자기 인식에 대한 심리적인 내적 과정으로 자기의 기분이나 동기 등을 인식하거나 자기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사적 자기인식이 높은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자신의 의견 태도를 자각하기 때문에 태도와 행동

에 일관성이 높다. 공적자기인식은 자기 자신의 겉모습이나 행동의 형태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타인에게 부여하는 인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을 말한다. 공적 자기인식이 높은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평가에 민감하다. 사회적 불안은 사회적 대상으로서 자기를 인식할 때 수줍어서 불안을 느끼기 쉽고 또한 다른 사람 앞에서 불안, 긴장, 수치심 등을 느끼는 것으로 자기인식이 지나친 경우를 말한다(Feinstein, 1975; 은혁기, 2001, 재인용).

자기개념의 명확성이 높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기와 관련된 부정적 정보에 덜 몰입하고, 사회적 상황에서 위협을 덜 느끼므로 인해 심리사회적 적응도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이화명, 김영미, 2017). 사회적응력은 인터넷 중독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고, 중독집단이 비 중독 집단에 비해 적응성과 책임성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송수민, 이희경, 2004). 청소년 성비행과 관련하여 위의 사회적응력과 자기인식을 살펴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 비행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사회적응력과 자기인식에 대한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성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사회적응력과 자기인식은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2. 성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사회적응력과 자기인식은 상관이 있는가?
- 연구문제3. 성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각각에게 사회적응은 자기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 전체 청소년은 총 20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 성 비행 청소년은 경기 지역의 법무부 산하 보호기관 위탁생으로 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89명 이었으며, 일반 청소년은 서울, 경기 지역 내 중·고등학생 총 115명이다.

2. 연구절차

성 비행 청소년은 법무부 산하 보호기관의 허락을 받아서 위탁생들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에 걸쳐서 보호기관에 위탁되어 있는 동안 위탁생이 받아야 하는 프로그램 중에 검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청소년은 각 학교의 사전 허락을 받아서 2016년 12월 서울지역의 중학교와 경기지역의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고 검사를 실시하였다. 각각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설문지와 사회적응력 척도, 청소년용 자기인식 척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성 비행 청소년은 94부를 실시하였고, 일반 청소년은 133부를 실시하였으며 총 227부 중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23부를 제외하였다.

3. 측정도구

1) 사회적응력

사회적응력검사 척도는 정원석, 김호원의 성격검사(1995)와 전미향의 연구(1997)에서 사회성과 관련된 문항들을 추출하여 이현주(2004)가 수정 보완한 검사이다. 본 척도

는 48문항으로 구성되며 적응성, 충동성, 책임성, 대인관계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전 주의 연구에서는 내적일치도(Cronbach's α)가 .91이었다.

본 연구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 전체는 .920으로 적응성 .803, 충동성 .870, 책임성 .859, 대인관계 .799로 나타났다.

〈표 1〉 사회적응력 하위척도

하위 척도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적응성	6, 7, 8*, 10*, 11, 13*, 14, 15, 16, 17, 32, 33*, 34*, 35, 36*, 37, 38, 43	18	.803
충동성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3	.870
책임성	39*, 40, 41, 42, 44, 45, 46, 47, 48	9	.859
대인관계	1, 2*, 3, 4, 9, 12*, 31 5*	8	.799
합계		48	.920

2) 청소년용 자기인식(Self-Awareness)

자기인식 척도는 Fenigstein 외(1975)의 자기 인식검사를 向山 외(1989)가 아동과 청소년에 맞게 재 작성한 일본판 자기 인식 검사와 이주일(1988)이 대학생들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구한 한국판을 참고하여 은혁기(2000)가 청소년으로 신뢰도와 구성타당도를 다시 검증한 것이다. 총 20문항의 자기 보고식 검사로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

인식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사적 자기 인식, 공적 자기 인식, 사회적 불안 세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는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은혁기(2000)의 연구에서는 내적일치도(Cronbach's α) 전체는 .74였고, 본 연구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 전체는 .792로, 사적 자기인식 .831, 공적 자기인식 .720, 사회적 불안 .789로 나타났다.

〈표 2〉 청소년용 자기 인식 하위척도

하위 척도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사적 자기인식	1, 4, 9*, 12, 15, 17, 18, 20, 19	9	.831
공적 자기인식	2, 5, 7, 10, 13	5	.720
사회적 불안	3*, 6*, 8, 11*, 14*, 16*	6	.789
합계		20	.792

4. 자료분석

성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사회적응력과 자기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사용하였으며, 전체 청소년과 성 비행 청소년, 일반 청소년으로 나누어 사회적응력과 자기인식의 Pearson 상관분석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전체 청소년과 성 비행 청소년, 일반 청소년으로 나누어 사회적응력과 자기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PSS/Win ver 23.0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Ⅲ. 결 과

1. 기술통계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징은 성 비행청소년의 평균나이는 16.17세(sd=1.54)였으며, 일반청소년은 15.44세(sd=.59)로 나타났다. 성 비행청소년의 경우 89명 모두 남학생이며, 일반 청소년은 남학생 48명, 여학생 6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 비행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학교 재학 비율이 낮고, 학교에서 징계 비율이 높다.

성 비행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부모의 결혼상태가 복잡하고, 양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이 낮으며,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의 양상이 다양하다.

〈표 3〉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징

구분	구분	구분		전체
		비행 청소년	일반 청소년	
성별	남자	89 (100.0)	48 (41.7)	137 (67.2)
	여자	-	67 (58.3)	67 (32.8)
학력	재학 중	58(65.2)	115 (100.0)	173 (84.8)
	학교 유예	6(6.7)	-	6(2.9)
	자퇴	12(13.5)	-	12(5.9)
	강제 전학	6(6.7)	-	6(2.9)
	퇴학	3(3.4)	-	3(1.5)
	기타	4(4.5)	-	4(2.0)
치벌	없다	44(49.4)	80 (69.6)	124 (60.8)
	1회	17(19.1)	15 (13.0)	32 (15.7)
	2회	10(11.2)	5(4.3)	15(7.4)
	3회	6(6.7)	5(4.3)	11(5.4)
	4회 이상	12(13.5)	10(8.7)	22 (10.8)
부모 결혼 상태	결혼	46(51.7)	102 (88.7)	148 (72.5)
	동거(사 실혼)	9(10.1)	4(3.5)	13(6.4)
	별거	22(24.7)	8(7.0)	30 (14.7)
	이혼	10(11.2)	1(9)	11(5.4)
	사별	1(1.1)	-	1(5)
	기타	1(1.1)	-	1(5)
부모와 동거 여부	부모님	53(59.6)	106 (92.2)	159 (77.9)
	엄마만	18(20.2)	8(7.0)	26 (12.7)
	아빠만	9(10.1)		9(4.4)
	기타	9(10.1)	1(9)	10(4.9)
합계		89 (100.0)	115 (100.0)	204 (100.0)

2. 차이분석

성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사회적응력과 자기인식의 차이에 대한 알아보기 위한 독립표본 t-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사회적응력 차이

성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사회적응력 차이는 <표 4>와 같다. 청소년의 성 비행에 따른 사회적응력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사회적응력 하위척도 적응성은 성 비행 청소년($m=44.54$, $sd=9.95$)이 일반 청소년($m=48.03$, $sd=8.73$)보다 낮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t=-2.667$, $p<.01$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충동성은 성 비행 청소년($m=30.72$, $sd=8.15$)이 일반 청소년($m=34.50$, $sd=9.16$)보다 낮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t=-3.069$, $p<.01$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책임성은 성 비행 청소년($m=19.24$, $sd=5.96$)이 일반 청소년($m=23.34$, $sd=5.38$)보다 낮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t=-5.151$, $p<.001$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회적응력 전체는 성 비행 청소년($m=114.04$, $sd=23.99$)이 일반 청소년($m=126.92$, $sd=22.17$)보다 낮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t=-3.969$, $p<.001$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4> 성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사회적응력차이

구	분	성 비행 청소년	일반 청소년	t
		m(sd)	m(sd)	
사회 적응력	적응성	44.54(9.95)	48.03(8.73)	-2.667 **
	충동성	30.72(8.15)	34.50(9.16)	-3.069 **
	책임성	19.24(5.96)	23.34(5.38)	-5.151 ***
	대인관계	19.55(5.21)	21.04(5.96)	-1.874
	사회적응력 전체	114.04(23.99)	126.92(22.17)	-3.969 ***

** $p<.01$, *** $p<.001$

2) 성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자기인식 차이

성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자기 인식 차이는 <표 5>와 같다. 자기인식 하위척도 사적 자기인식은 성 비행 청소년($m=33.71$, $sd=5.25$)이 일반 청소년($m=31.10$, $sd=5.97$)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t=3.255$, $p<.01$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자기인식 전체는 성 비행 청소년

($m=70.72$, $sd=8.95$)이 일반 청소년($m=67.17$, $sd=9.12$)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t=2.775$, $p<.01$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성 비행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성 비행 청소년들이 사회적응력 전반에 대해서 일반 청소년 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자기인식의 사적 자기인식은 성 비행 청소년이 높게 나타나 성 비행 청소년이 범위에 취약한 요인이 되고, 자기의 또래 관계에

서 이들 스스로 일반 청소년과의 차이를 잘 모르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성 비행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사회적응력과 자기인식의 차이를 보여서

이후 분석에서 이를 반영하여 전체 청소년, 성 비행청소년, 일반 청소년 각각의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사회적응력과 자기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 표 5 > 성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자기인식 차이

구 분	성 비행 청소년	일반 청소년	t
	m(sd)	m(sd)	
사적 자기인식	33.71(5.25)	31.10(5.97)	3.255 **
공적 자기인식	18.09(3.36)	17.94(3.65)	.303
사회적 불안	18.92(4.72)	18.13(4.32)	1.244
자기인식 전체	70.72(8.95)	67.17(9.12)	2.775 **

** $p < .01$

3. 상관분석

전체 청소년의 사회적응력과 자기인식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전체 청소년의 사회적응력과 자기인식의 상관관계

구 분	사적 자기인식	공적 자기인식	사회적 불안	자기인식 척도	적응성	충동성	책임성	대인관계	사회적응력 척도
사적 자기인식	-								
공적 자기인식	.300**	-							
사회적 불안	.125	-.017	-						
자기인식 척도	.807**	.563**	.563**	-					
적응성	-.407**	-.127	-.657**	-.628**	-				
충동성	-.407**	.029	-.198**	-.343**	.557**	-			
책임성	-.498**	-.096	-.292**	-.494**	.677**	.567**	-		
대인관계	-.257**	-.317**	-.656**	-.605**	.586**	.201**	.246**	-	
사회적응력 척도	-.500**	-.139*	-.564**	-.645**	.915**	.786**	.790**	.608**	-

** $p < .01$

1) 전체 청소년의 사회적응력과 자기인식의 상관관계

전체 청소년의 자기인식 하위척도 중 사적 자기인식은 적응성($r=-.407, p<.01$), 충동성($r=-.407, p<.01$), 책임성($r=-.498, p<.01$), 대인관계($r=-.257, p<.01$), 사회적응력($r=-.500, p<.01$)의 모든 요인과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공적 자기인식은 대인관계($r=-.317, p<.01$), 사회적응력 척도($r=-.139, p<.05$)와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적 불안은 적응성

($r=-.657, p<.01$), 충동성($r=-.198, p<.01$), 책임성($r=-.292, p<.01$), 대인관계($r=-.656, p<.01$), 사회적응력 척도($r=-.564, p<.01$)와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기인식 척도는 적응성($r=-.628, p<.01$), 충동성($r=-.343, p<.01$), 책임성($r=-.494, p<.01$), 대인관계($r=-.605, p<.01$), 사회적응력 척도($r=-.645, p<.01$)의 모든 요인과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7〉 성 비행 청소년의 사회적응력과 자기인식의 상관관계

구 분	사적 자기 인식	공적 자기 인식	사회적 불안	자기 인식 척도	적응성	충동성	책임성	대인 관계	사회 적응력 척도
사적 자기인식	-								
공적 자기인식	.273**	-							
사회적 불안	.148	.064	-						
자기인식 척도	.767**	.569**	.638**	-					
적응성	-.403**	-.116	-.685**	-.642**	-				
충동성	-.451**	.024	-.240*	-.382**	.610**	-			
책임성	-.530**	-.118	-.353**	-.542**	.665**	.723**	-		
대인관계	-.172	-.263*	-.673**	-.555**	.647**	.183	.270*	-	
사회 적응력 척도	-.489**	-.127	-.600**	-.651**	.928**	.812**	.828**	.615**	-

* $p<.05$, ** $p<.01$

2) 성 비행 청소년의 사회적응력과 자기인식의 상관관계

성 비행 청소년의 사회적응력과 자기인식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Pearson 상관분석

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성 비행 청소년의 경우 자기인식 척도 하위요인 중 사적 자기인식은 적응성($r=-.403, p<.01$), 충동성($r=-.451, p<.01$), 책임성($r=-.530, p<.01$), 사회적응력 척도($r=-.489, p<.01$)

와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공적 자기인식은 대인관계($r=-.263$, $p<.05$)와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적 불안은 적응성($r=-.685$, $p<.01$), 충동성($r=-.240$, $p<.05$), 책임성($r=-.353$, $p<.01$), 대인관계($r=-.673$, $p<.01$), 사회적응력 척도($r=-.600$, $p<.01$)의 모든 요인과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기인식 척도는 적응성($r=-.642$, $p<.01$), 충동성($r=-.382$, $p<.01$), 책임성($r=-.542$,

$p<.01$), 대인관계($r=-.555$, $p<.01$), 사회적응력 척도($r=-.651$, $p<.01$)와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3) 일반 청소년의 사회적응력과 자기인식의 상관관계

일반 청소년의 사회적응력과 자기인식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일반 청소년의 사회적응력과 자기인식의 상관관계

구 분	사적 자기 인식	공적 자기 인식	사회적 불안	자기 인식 척도	적응성	충동성	책임성	대인 관계	사회적응력 척도
사적 자기인식	-								
공적 자기인식	.322**	-							
사회적 불안 자기인식	.081	-.084	-						
척도	.821**	.571**	.494**	-					
적응성	-.370**	-.135	-.626**	-.593**	-				
충동성	-.334**	.041	-.145	-.271**	.492**	-			
책임성	-.413**	-.077	-.211*	-.401**	.664**	.403**	-		
대인관계	-.275**	-.350**	-.644**	-.625**	.531**	.176	.179	-	
사회적응력 척도	-.458**	-.149	-.531**	-.611**	.901**	.752**	.719**	.594**	-

* $p<.05$, ** $p<.01$

일반 청소년의 경우 자기인식 척도 하위요인 중 사적 자기인식은 적응성($r=-.370$, $p<.01$), 충동성($r=-.334$, $p<.01$), 책임성($r=-.413$, $p<.01$), 대인관계($r=-.275$, $p<.01$), 사회적응력 척도($r=-.458$, $p<.01$)의 모든 요인과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를 보

였다. 공적 자기인식은 대인관계($r=-.350$, $p<.01$)와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적 불안은 적응성($r=-.626$, $p<.01$), 책임성($r=-.211$, $p<.05$), 대인관계($r=-.644$, $p<.01$), 사회적응력 척도($r=-.531$, $p<.01$)와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기인식 척도는 적응성($r=-.593$, $p<.01$), 충동성

($r = -.271, p < .01$), 책임성 ($r = -.401, p < .01$), 대인관계($r = -.625, p < .01$), 사회적응력척도($r = -.611, p < .01$)의 모든 요인과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전체 청소년의 사회적응력과 자기인식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기인식의 하위척도인 공적 자기인식과 사회적응력척도의 적응성, 충동성, 책임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부적 상호작용을 함으로서 자기인식이 높을수록 사회적응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성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으로 살펴보면 성 비행 청소년은 그 외에도 사적 자기인식이 대인관계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 청소년은 사회적 불안이 충동성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성 비행 청소년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동료 집단과의 어울림에 어려움을 일으키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일반 청

소년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영향분석

청소년의 성 비행에 따른 사회적응력이 자기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체 청소년의 사회적응력이 자기인식에 미치는 영향

전체 청소년의 사회적응력이 자기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적응력 하위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자기인식 하위요인과 전체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전체 청소년의 사회적응이 자기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R^2	F
사적 자기인식	적응성	.030	.049	.467	.288	20.148***
	충동성	-.119	-.183	-2.396*		
	책임성	-.378	-.390	-4.465***		
	대인관계	-.157	-.153	-1.998*		
공적 자기인식	적응성	.053	.142	1.219	.123	6.954***
	충동성	.048	.121	1.423		
	책임성	-.098	-.166	-1.711		
	대인관계	-.238	-.383	-4.497***		
사회적 불안	적응성	-.297	-.621	-7.618***	.573	66.745***
	충동성	.072	.143	2.415*		
	책임성	.102	.135	1.996*		
	대인관계	-.281	-.354	-5.954***		
자기인식 전체	적응성	-.214	-.219	-2.507*	.510	51.700***
	충동성	.001	.001	.013		
	책임성	-.374	-.243	-3.355**		
	대인관계	-.675	-.417	-6.543***		

* $p < .05$, ** $p < .01$, *** $p < .001$

전체 청소년의 사회적응력이 자기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사회적응력이 자기인식 하위요인 중 사적 자기인식의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2 = .288$, $F=20.148$, $p<.001$). 그 중 사회적응력의 하위요인인 충동성($\beta = -.183$, $p<.05$), 책임성($\beta = -.390$, $p<.001$), 대인관계($\beta = -.153$, $p<.05$)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자기인식의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2 = .123$, $F=6.954$, $p<.001$). 그 중 사회적응력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beta = -.383$, $p<.001$)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불안의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2 = .573$, $F=66.745$, $p<.001$). 그 중 사회적응력의 하위요인인 적응성($\beta = -.621$, $p<.001$), 충

동성($\beta = .143$, $p<.05$), 책임성($\beta = .135$, $p<.05$), 대인관계($\beta = -.354$, $p<.001$)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인식 전체의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2 = .510$, $F=51.700$, $p<.001$). 그 중 사회적응력의 하위요인인 적응성($\beta = -.219$, $p<.05$), 책임성($\beta = -.243$, $p<.01$), 대인관계($\beta = -.417$, $p<.001$)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성 비행 청소년의 사회적응력이 자기인식에 미치는 영향분석

성 비행 청소년의 사회적응력이 자기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적응 하위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자기인식 하위요인과 전체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성 비행 청소년의 사회적응력이 자기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R^2	F
사적 자기인식	적응성	-.032	-.061	-.353	.293	8.692***
	충동성	-.080	-.124	-.875		
	책임성	-.353	-.400	-2.729**		
	대인관계	-.002	-.002	-.012		
공적 자기인식	적응성	.057	.170	.878	.103	2.422
	충동성	.071	.173	1.088		
	책임성	-.150	-.266	-1.612		
	대인관계	-.215	-.333	-2.289		
사회적 불안	적응성	-.270	-.569	-4.272***	.577	28.666***
	충동성	.104	.180	1.639		
	책임성	-.012	-.015	-.130		
	대인관계	-.303	-.335	-3.346**		
자기인식 전체	적응성	-.245	-.272	-1.868	.494	20.533***
	충동성	.096	.087	.727		
	책임성	-.514	-.342	-2.761**		
	대인관계	-.520	-.302	-2.766**		

** $p<.01$, *** $p<.001$

성 비행 청소년의 사회적응력이 자기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사회적응력이 자기인식 하위요인 중 사적 자기인식의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R^2 = .293$, $F=8.692$, $p<.001$) 그 중 사회적응력의 하위요인인 책임성 ($\beta = -.400$, $p<.01$)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불안의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R^2 = .577$, $F=28.666$, $p<.001$).

그 중 사회적응력의 하위요인인 적응성 ($\beta = -.569$, $p<.001$), 대인관계 ($\beta = -.335$, $p<.01$)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인식 전체의 변량에 대한 설명력

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R^2 = .494$, $F=20.533$, $p<.001$). 그 중 사회적응력의 하위요인인 책임성 ($\beta = -.342$, $p<.01$), 대인관계 ($\beta = -.302$, $p<.01$)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일반청소년의 사회적응력이 자기인식에 미치는 영향분석

일반 청소년의 사회적응력이 자기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적응력 하위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자기인식 하위요인과 전체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일반 청소년의 사회적응력이 자기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R^2	F
사적 자기인식	적응성	.043	.063	.442	.239	8.657***
	충동성	-.124	-.190	-.1970		
	책임성	-.376	-.340	-2.926**		
	대인관계	-.214	-.214	-2.084*		
공적 자기인식	적응성	.044	.105	.699	.140	4.493**
	충동성	.043	.107	1.046		
	책임성	-.080	-.118	-.952		
	대인관계	-.248	-.404	-3.706***		
사회적 불안	적응성	-.330	-.666	-6.296***	.577	37.513***
	충동성	.071	.151	2.099*		
	책임성	.188	.235	2.709**		
	대인관계	-.261	-.359	-4.701***		
자기인식 전체	적응성	-.243	-.232	-2.020*	.499	27.364***
	충동성	-.010	-.010	-.125		
	책임성	-.268	-.158	-1.678		
	대인관계	-.722	-.472	-5.670***		

* $p<.05$, ** $p<.01$, *** $p<.001$

일반 청소년의 사회적응력이 자기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사회적응력이 자기인식 하위요인 중 사적 자기인식의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2 = .239$, $F=8.657$, $p<.001$). 그중 사회적응력의 하위요인인 책임성($\beta = -.340$, $p<.01$), 대인관계($\beta = -.214$, $p<.05$)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자기인식의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2 = .140$, $F=4.493$, $p<.01$). 그중 사회적응력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beta = -.404$, $p<.001$)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불안의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2 = .577$, $F=37.513$, $p<.001$).

그중 사회적응력의 하위요인인 적응성($\beta = -.666$, $p<.001$), 충동성($\beta = .151$, $p<.05$), 책임성($\beta = .235$, $p<.01$), 대인관계($\beta = -.359$, $p<.001$)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인식 전체의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2 = .499$, $F=27.364$, $p<.001$). 그중 사회적응력의 하위요인인 적응성($\beta = -.232$, $p<.05$), 대인관계($\beta = -.472$, $p<.001$)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청소년의 사회적응력이 자기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성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이 다를 수 있다. 전체 청소년의 경우 자기인식에 적응성, 책임성, 대인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조절하는 심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성 비행 청소년에게는 책임성과 대인관계 중심의 심리치료활동을 일반 청소년의 경우는 적응성과 대인관계 중심의 심리치료 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불안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성 비행 청소년은 적응성과, 대인관계능력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반 청소년은 여기에 충동성과 책임성까지 감소시킨다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성 비행 청소년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일반 청소년을 대하는 방식과는 다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IV.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성 비행 여부에 따른 사회적응력과 자기인식의 차이와, 청소년의 사회적응력과 자기인식의 상관관계, 청소년의 사회적응력이 자기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 비행에 따른 사회적응력은 성 비행 청소년들이 사회적응력 전반에 대해서 일반 청소년 보다 낮게 나타났고, 이는 성 비행 청소년의 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이 부각된다. 한편 성 비행 청소년들의 자기인식의 사적 자기인식은 성 비행 청소년이 높게 나타난 것은, 자기개념의 명확성이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연구(이화명, 김영미, 2017)와 일치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과대 자기인식의 원인이 무엇인지 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며 긍정적 자기인식은 필요하나 비현실적 거대자기로 확산되는 성 비행 청소년의 자기인식 과정을 개입하여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전체 청소년의 사회적응력과 자기인식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자기인식의

공적 자기인식과 사회적응력의 적응성, 충동성, 책임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부적 상호작용을 함으로서 자기인식이 높을수록 사회적응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성폭력가해행동을 막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나, 성적인 자기주장성과 성폭력 허용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성폭력 가해행동이 오히려 증가되었다(김동욱, 2017)고 하며, 사회적응력은 인터넷 중독과 부적상관을 나타내고 인터넷 중독집단이 적응성과 책임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송수민, 이희경, 2002)와 일치한다. 이는 청소년의 사회적응력에 작용하는 청소년의 자기인식의 긍정적인 요인과 더불어 부정적인 요인을 살피는 상담적 개입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셋째, 청소년의 사회적응력이 자기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전체 청소년은 자기인식에 적응성, 책임성과 대인관계가, 성 비행 청소년은 책임성과 대인관계, 일반 청소년은 적응성과 대인관계가 영향을 미친다. 성 비행 청소년들은 대인간 공감의 부족과 타인의 고통스런 상황을 보고 느끼는 공감적 감정이 부족하다는 연구에서 ‘피해자 공감향상’ 프로그램이 대인 간 공감향상을 변화시키는데도 기여한다는 점(고정애, 2011)과, 또래 간 상호신뢰가 돈독하며, 소외를 경험하지 않을수록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 간 의사소통의 질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김원정, 2004) 것에서도 청소년에게 대인관계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수 있다. 특히, 성 비행 청소년은 자기인식의 사회적 불안을 낮추는데 있어 적응성과 함께 대인관계를 고려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성 비행 청소년에게는 일반 청소년과는 다른,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개입과 상담적인 개입은 성 비행 청소년들의 재범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 비행 청소년은 전원이 남학생이며 일반 청소년은 여학생의 구성비가 더 높은 점은 성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응력과 자기인식 차이를 충분히 비교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사회적응과 자기 인식에 대한 전체 상관분석과 영향분석에 성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자소년원생의 성폭력 가담 비율이 20.7%로 나타난 연구(한영관, 2012), 성폭력가해 행위에 남녀 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여성이 더 높다는 연구들(장희숙, 조현각, 2001; Ybarra et al, 2016, 재인용), 성별에 구분이 없이 유해매체 접촉 정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성폭력가해가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여자 청소년 집단은 유해매체 접촉만이, 남자 청소년 집단은 가정폭력노출 경험과 유해매체 접촉 모두가 효과를 보여 성별에 따른 시사점(김재엽 외, 2017)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추후 성 비행 청소년들의 경우에 여학생을 포함해서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성 비행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의 사회적응력 차이에서 사회적응력의 하위척도인 충동성에서 성 비행 청소년이 더 낮은 이유는 보호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성 비행 청소년이 보호처분을 받기 전 위탁 수용이 되어있는 시기가

고, 이 기관 내에서 재판과 관련한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에 이곳에서의 충동성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추후 이 점이 반영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수 있다.

셋째, 성 비행 청소년은 자기인식의 사적 자기인식이 사회적응력 척도의 대인관계와 상관이 없는 것은 자기 개념이나 자기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일반 청소년은 공적 자기인식이 대인관계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청소년이 타인으로 부터의 평가에 아직은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학교라는 보호막에 있는 일반 청소년들은 재학 하고 있는 학교에서 또래와 비슷한 자기 개념을 가지고 타인을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또래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성폭력가해자는 자신의 피해자를 대상화하며 공감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가치절하 하여, 낮은 현실 검증력과 함께 공격성을 행사함으로써 대인관계 자체를 파괴하는 성범죄를 저지른다(홍숙선, 2014). 성 비행 청소년의 자기인식은 사회적응력의 적응성과 대인관계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성 비행 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학교에서 부적응적 상황이 높고, 가족환경에서 부모환경 등의 요인이 복잡한 차이가 있다. 가정환경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문제를 보이고, 가정 밖의 사람과도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보이며, 강압 등을 통한 성 범죄와 관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Marshall and Barbaree, 2001; Goodrow and Lim, 1998; 전영실, 2001; 신기숙, 2002, 재인용). 성폭력을 저

지르는 비행청소년 역시 가족 기능의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있다(Starzyk & Marshall, 2003, 재인용).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율이 급격한 증가를 보여 청소년기의 가족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환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송원영, 2012). 성 비행 청소년의 가족 환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성 비행 청소년의 상담치료적인 개입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정애(2011).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공감향상 프로그램개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동욱(2017). 청소년 성폭력의 취약성과 탄력성 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민선, 양지웅, 연구진(2016). 이공계 여성 대학원생의 진로선택과 대학원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28(1), 191-216.
- 김영자(2012). 성폭력가해자 치료프로그램이 성폭력 가해청소년의 성의식과 강간통념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원정(2004). 청소년의 개인특성, 부모-자녀 관계 및 또래관계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재엽 외(2017). 가정폭력 노출이 청소년의 성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유해

- 매체 접촉의 매개효과와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Vol. 19, No.2, 111-136.
- 김현수(2016). 청소년기 특성과 성폭력 가해행동, 성폭력가해아동·청소년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 전문강사 보수교육.
- 김하나(2009). 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대처방안.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정(2016). 사회적지지가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다문화와 평화. 53-68.
- 박용순(2000). 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적 접근; 가해자와 피해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7(2), 137-150.
- 범죄백서(2016). 통권 제32호, 발행처: 법무연수원.
- 법무부(20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제처; 12.12,시행.
- 조선일보기사(2017). 성폭행 소년범 3000명 넘어섰다 : 10. 9일자, A11.
- 송수민, 이희경(2002). 소년의 의존성향 및 사회적응력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제13권 제1호, 107-131.
- 송원영(2012). 가족응집력이 성범죄 청소년의 성 중독에 미치는 영향: 외로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Vol. 17, No 1, 217-227.
- 서혜석, 채인석(2015). 성폭력 가해청소년의 성폭력통념 수용도와 성태도 및 성지식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矯正研究, 제 67 호. 207~232.
- 신기숙(2002).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의 심리 사회적 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은혁기(2000).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조절 집단상담이 청소년의 자기인식, 타인인식, 대인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은혁기(2001). 청소년들의 자기인식, 타인인식, 대인기술 및 대인관계 만족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제9권, 136-157.
- 양미진 외(2006). 청소년의 심리내적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제 14권, 63-76.
- 이수립 등(2011). 쉼터 거주 가출 청소년의 가출이전과 이후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23(2), 491-519.
- 이수정, 장현석(2004). 청소년 성폭력의 심리적 원인으로서는 애착결핍. 한국청소년연구 15(2). 30-52.
- 이주영, 이아라(2015). 학교폭력 가해자대상 상담에서의 상담자 경험과 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27(4), 849-880.
- 이현주(2004). 집단미술활동이 초등학생이 자기존중감과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현미(2016). 이야기 치료에 근거한 이야기

- 기 만들기 집단상담이 비행청소년의 자기인식 및 정서표현에 미치는 효과,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화명, 김영미(2017).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과 심리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 자기 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 Vol. 17 No.9.
- 장희숙(2008). 청년 심리학. 서울: 박영사.
- 장희숙, 조현각(2001). 대학생의 이성교제 폭력의 실태와 위험요인들. 한국가족복지학8(단일호), 179-204.
- 전영실(2001). 청소년 성범죄자 재활프로그램의 실태 및 개선방안,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12, 11-199.
- 정지영(2014). 시설보호청소년의 자기인식에 관한 집 작업 중심의 미술 치료 단일설계 연구,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영관(2012). 비행청소년의 성의식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숙선(2014). 성폭력가해대상에 따른 대상관계 차이분석.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wad, G. A., Saunbers, E. (1991). A clinical study of mail adolescent sexual offender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20, 105-116.
- Ford, M. E., & J. A. Linney, (1995). Comparative Analysis of Juvenile Sexual Offenders Violent Nonsexual Offenders, and Status Offend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0(1), 56-70.
- Starzyk, K. B. & Mashall, W. L.(2003). Childhood family and personological risk factors for sexual offending.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8, 93-105.
- Ybarra, M. L. Rosario, M., Saewyc, E., & Goodenow, C.(2016). Sexual behaviors and partner characteristics by sexual identity among adolescent girl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8(3), 310-316.

〈Abstract〉

The Relations of Social Adaptation and Self-Awareness in Adolescent about Sexual Violence

On Sup Song

Hansei University

This present study examined the social adaptation and self-awareness in adolescent about sexual violence. Participants was 204 adolescent that was 89 sexual violence adolescent and 115 adolescent. The participants completed a battery of paper-and-pencil measures, including Personal Demographic Questionnaire, Social Adaptation, and Self-Awareness. The result of T-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found using the collected data. Results showed that difference in the social adaptation and self-awareness in adolescent about sexual violence was significantly lower on the overall social adaptation, but was significantly higher personal self-awareness of self-awareness. Correlation of social adaptation and self-awareness was negative correlation that the higher self-awareness was lower social adaptation of all factors; other than public self-awareness of self-awareness and adaptation, impulsivity, responsibility of social adaptation. Sexual violence adolescent have no correlation personal self-awareness and interpersonal relations, adolescent have no correlation social anxiety and impulsivity. Adolescent social adaption influence on the self-awareness that was adaptation, responsi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in all adolescent, was responsi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in sexual violence adolescent, was adapt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 in adolescent. Implications and future directions for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sexual violence, sexual violence adolescent, adolescent, social adaptation, self-awareness.*

부정적인 아버지 특성이 초등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 성취동기의 매개효과*

전 윤 주

김 희 수†

한세대학교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각하는 부정적인 아버지의 특성이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 및 성취동기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초등학생들이 지각하는 부정적인 아버지 특성, 성취동기,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력은 어떠한 관계인가? 둘째, 성취동기는 부정적인 아버지 특성과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력 간의 문제 사이에서 매개하는가? 본 연구를 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17일부터 12월 29일까지 서울, 경기도, 충청도, 대전을 중심으로 8개 학교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4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6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SPSS 22.0과 AMOS 22.0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적인 아버지 특성은 성취동기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적인 아버지의 특성은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정적인 아버지의 특성은 문제해결력에는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성취동기를 매개로 하여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취동기는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부정적인 아버지 특성과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력 간의 문제 사이에서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이 부정적인 아버지의 특성이 영향을 끼치는 여러 변인들의 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부정적인 아버지의 특성이 성취동기를 매개로 자녀의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의 변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아버지의 영향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아버지 양육방식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학생들의 성취동기를 향상시키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도입, 활용하여 학생들의 문제해결력,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부정적 아버지, 성취동기, 문제해결력, 자기효능감, 구조적 관계, 매개효과

* 본 연구는 전윤주(2015)의 한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에서 일부 발췌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김희수, 한세대학교 상담심리학 교수, E-mail : kimhs@hansei.ac.kr

I. 서론

현대 사회는 급변하고 있으며 매순간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 없이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해결은 합리적이고 타당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에 자신이 원하는 해결과 결과를 얻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일을 수행해 내는데 해낼 수 있다고 기대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D'Zurilla(1986)는 '사회적 문제해결력'이라고 정의하였으며, 문제해결력은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직면한 문제 상황에서 현명한 대처와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과정으로 개인이 행동함에 있어 자신 또는 환경과 문제 상황을 해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제공함을 알 수 있다(Priester & Clum, 1993). 또한 Bandura(1977)는 인간 행동의 주된 근원을 자기효능감이라고 하였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보았으며, 인간행동의 변화는 행위자 자신이 그 행동을 능히 해 낼 수 있다고 하는 기대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아동기부터 문제해결 능력과 자기효능감을 함양하는 것은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은 앞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배우며 자신에 대한 효능감을 길러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의 학생들은 주위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

하는 시기로 주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 중에서도 학생들의 성장발달은 가족 내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며 부모는 가장 중요한 모델링이 되고, 자녀에게 많은 정보와 지표를 제공하며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보면 청소년이나 아동의 발달에 대해 가족이나 다른 변인을 다룬 연구에서는 '부모' 중에서 '어머니'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매우 복잡한 경제 구조 속에서 가족은 핵가족으로 재편되고, 치열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성의 경제활동만으로는 삶을 영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여성도 함께 경제활동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주로 어머니의 몫이라는 사회적 인식에서 아버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며 적극적으로 아버지가 자녀의 교육과 양육에 힘써야 한다는 인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Poulter(2006)는 아버지 특성(Father's Trait)을 '가족 구성원과 일에 대해 일상 생활에서 반복적이며 지속적으로 행하는 아버지의 행동, 태도, 가치관, 규범'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아버지의 유형을 성취추구성, 시한폭탄성, 수동성, 부재성, 자비로운 멘토성으로 분류하였고 이러한 아버지의 특성은 부정적으로든 긍정적으로든 자녀의 불안, 자기효능감, 자신감, 성취동기 등 심리적 변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특히 부정적인 특성을 가진 아버지는 자녀의 양육을 회피, 거부하거나 자녀에게 아버지의 생각만을 주입하기 때문에 자녀의 정서나 정신, 신체 건강까지 훼손된다. 대체로 자녀들은 버림받고 거부당한 경험으로 정서적으로 깊은 정서적

상실감을 느낀다. 그로 인한 반대급부로 어머니와 가족을 기쁘게 해 주기 위해 과도하게 성취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공격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아버지를 자녀가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아버지의 부정적 영향에서 벗어나 성공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성취지상주의형 아버지로부터 성실하고 업무성취도가 높은 자녀, 시한폭탄형 아버지 밑에서 눈치 빠르고 업무 처리가 철저한 자녀, 수동형 아버지에게서 온화하고 성실한 평화주의자 자녀, 부재형 아버지에게서 지도력이 뛰어나고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자녀가 나올 수 있으며, 반대로 멘토형 아버지 밑에서 자기 중심적이고 의존적 자녀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 즉, 그 영향력은 부정적으로든 긍정적으로든 자녀는 아버지 요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의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성인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는 문제의 근원을 추적하다보면 자녀의 진로선택, 대인관계 등 자녀의 삶과 인생 전반에 영향을 끼치며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요소는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Murray(1938)는 성취동기를 ‘어려운 일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 조작하고 조작하며 지배하려는 것, 이러한 일을 빠른 시일 내에 독립적으로 수행하려는 것,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것을 극복하려는 것,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려고 하는 것’ 이라고 하였다. 즉, 성취동기가 어려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동기이며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상대적으로 불

리하더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동기는 사회의 유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성취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이운경, 도현심, 2005).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은 문제해결력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해 나아가며 자신을 변화하는데 성취동기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아버지의 특성 혹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와 관련변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Dickerscheid(1976)는 아버지는 자녀와 보내는 시간의 대부분을 사회화 경험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으며, Turner & Harris(1984)는 부모의 적합하지 못한 권위적 양육태도가 강할수록 자녀의 사회적, 정서적 부적응을 초래하여 전반적인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희숙(1983)은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거부적, 모순적이면 자녀의 자아개념은 부정적이며, 보호적, 복종적이면 자녀의 자아개념이 긍정적으로 형성되는데, 아버지는 가정안에서 존재 그 자체로서 자녀들에게 중요하며 어떠한 형태든지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면 자녀의 자아개념은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하였고, 송명자(1996)는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데 있어 하나는 자기효능감의 경험에 의해, 또 다른 하나는 타인으로부터 받아들이는 평가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형성된다고 하였다. 즉 성공적인 경험을 많이 하고, 의미 있는 타인들로부터 사랑, 칭찬, 존경을 많이 받을수록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다고 기대된다.

박광균(2000) 외 많은 연구에서 아버지

의 애정과 자녀의 사회적 능력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사회적지지 기반이 많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문제해결능력전략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김지영(2013)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아버지-자녀 관계와 문제해결능력과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의 친밀·지지 요인은 문제규정과 정적 상관, 권위·통제 요인은 대안산출과 부적상관, 과잉기대 요인은 문제규정과 대안산출에서 부적 상관을, 자녀의 능력보다 큰 기대감을 가지거나 성취를 요구하면 문제규정과 대안산출이 낮아지며, 허용·지원 요인은 문제규정능력과 가장 큰 정적상관을 보인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김지영(2006)의 연구에서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나 가정환경은 유의미 하지 않게 나왔으며, 학생들의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부모의 요인보다 학급의 풍토와 학업성취가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McClelland & Pilon(1983)은 가정에서 성취, 독창성, 경쟁심을 격려하고, 부모가 자녀의 실패에 화를 내기보다는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지한다면, 자녀는 성취에 대해 높은 욕구를 발달시키기 쉽다고 하였으며, 허영립(2006)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관심하거나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많이 취할수록 자녀의 성취동기와 학업성취 저하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하였다. 박은선(2008), 김인기(2010)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버지 애착과 지지, 특성이 진로탐색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고하였으며, 우시정(2013)은 초등학생이 지각한 아버지 특성 중에서 성취강요

성, 폭력성, 정서단절성, 무관심성이 성취동기와 자기효능감에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Poulter(2006)는 아버지 특성은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자녀와의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으로 인해 자녀는 불안이나 수치심, 성취동기, 자기효능감 등의 심리적인 문제와 관련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김경미(2003)는 아버지 역할이 어머니 못지않게 중요함을 강조하고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자녀의 자기효능감 및 성취동기와 유의한 상관과 영향력이 있으며 자녀의 인성 발달에도 중요함을 시사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성취동기,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력 향상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김지영(2006)의 연구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영향이 문제해결력에 직접적 요인을 주기보다는 학업성취 등이 문제해결력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이 성취동기가 중간에서 매개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대부분 선행연구에서는 성취동기가 자기효능감 향상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성취동기가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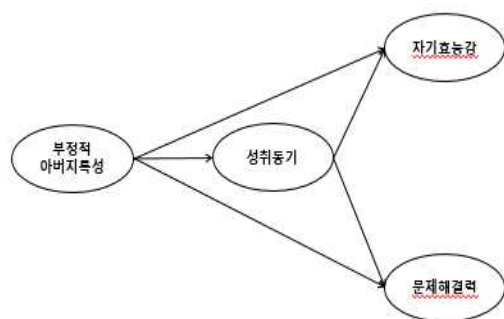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아버지의 특성이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성취동기,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취동기를 매개로 한 이들 변인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초등학생들이 지각하는 부정적 아버지 특성, 성취동기, 자기효능감 및

문제 해결력은 어떠한 관계인가?

연구문제2. 성취동기는 부정적인 아버지 특성과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력 간의 문제 사이에서 매개하는가?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부정적 아버지의 특성, 성취동기와 자기효능감, 사회적 문제해결력 간에 구조적 관련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부정적 아버지의 특성이 위의 변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서울, 경기도,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8개 학교의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4년 12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29일까지 충청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직접 방문하여 교사들에게 연구목적에 자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충청도 4개 학교는 전화로 연구목적에 자세히 설명

하고 협조에 동의를 받은 후 우편으로 보내고 우편으로 다시 받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설문 작성은 학생 개인들이 직접 기입하였으며, 총 배포된 설문지는 470부 중 460부가 회수되어 98%이상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고 신뢰할 수 없는 응답과 무응답이 많은 91부를 제외하고 총 369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학년	5학년	178	48.2
	6학년	191	51.8
성별	남 자	175	47.4
	여 자	176	47.7
	무응답	18	4.9
지역	서 울	66	17.6
	경기도	145	39.3
	충청도	158	42.8
	무응답	1	0.3
출생 순위	첫 째	145	39.3
	둘 째~	191	51.8
	외 동	31	8.4
	무응답	2	0.5
아버지 학력	고 졸	71	19.2
	대 졸	216	58.5
	대학원이상	41	11.1
	기 타	25	6.8
동거 여부	함께 삶	334	90.5
	따로 삶	28	7.6
	무응답	7	1.9
아버지 연령	30대	25	6.8
	40대	303	82.1
	50대	37	10.0
	기타	3	0.8

2. 측정도구

1) 부정적 아버지의 특성

부정적인 아버지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Poulter(2006)가 정의한 5가지 아버지 특성을 우리나라 대학생에게 적용가능하게 김인기(2010)가 개발한 아버지 특성 검사지를 사용하였으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적합하도록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4점 Likert 척도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측정변인은 성취강요성, 폭력성, 정서단절성, 멘토성, 무관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아버지의 특성에 대한 연구이므로 긍정적인 요인인 멘토성은 제외하였고, 하위 요인 중 부정적인 요인인 성취강요 9문항, 폭력성 6문항, 무관심성 3문항만 선택하기로 하여 최종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김인기(2010)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성취강요성 .88, 폭력성 .84, 무관심성 .67로 제시하였고, 우시정(2012)의 연구에서는 성취강요성 .81, 폭력성 .80, 무관심성 .66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성취강요성 .84, 폭력성 .75, 무관심성 .72이었으며 전체 신뢰도는 .89로 나타났다.

2) 성취동기

김세영(2004)의 연구에서 사용한 Heiman(1970)의 성취동기 척도를 응용하여 유창열(1984)이 한국 상황에 맞게 제작한 성취동기 척도를 사용하였고, 성취동기의 특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김세영이 나누어 놓은 하위변인을 이용하였다. 그 하위변인으로 과업성취, 도전성취, 주도적 수행성취가 있으며, 본 검사에서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과업성취에서 신뢰도가 낮게 나와 4번

('나는 어려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통 성공에 대한 기대보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생긴다.')과 7번 문항('나는 숙제를 마지막까지 미루는 편이다.')을 제거 후 사용하였다. 김세영(2004)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0, 본 연구의 신뢰도는 .89이다.

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척도는 차정은(1996)이 개발한 척도를 김아영(1997)이 수정 개발하여 일반적 효능감 척도 24문항을 만들었으며, 이은경(2000)이 하위영역에 자신감 7문항, 자기조절 12문항, 과제난이도 선호 5문항 등 총 24문항, 6점 Likert 척도 문항을 선정하였고 이후 김택호(2004)가 16문항을 하위영역으로 선정하고, 5점 Likert 변환하여 사용한 자기효능감 설문지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적합하도록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4점 Likert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은경(2000) 연구에서 영역별 신뢰도(Cronbach's α)는 .79에서 .82까지의 범위를 보였으며, 김택호(2004)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신뢰도는 .77, 본 연구의 자기효능감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83이다.

4) 문제해결력

문제해결력을 알아보는 질문지의 하위변인은 D' Zurilla와 Nezu(1990)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척도(Social-Problem Solving Inventory)를 바탕으로 허규(1999)가 재구성한 것을 최이숙(2003)이 사용한 측정도구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70문항으로

구성되어 척도 중 있었던 문제해결능력 척도 중 문제해결에 직접 연관되는 문제규정, 대안산출, 의사결정, 수행확인인 4개의 하위변인 중에서도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안산출 10문항과, 의사결정 10문항을 하위영역으로 선정하였으며, 4점 Likert 형식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박은영(2014)의 선행연구에서는 대안산출 .76, 의사결정 .71이었으며, 최이숙(2003)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0, 본 연구의 신뢰도는 .92이다.

3. 연구방법

연구대상들의 특성 및 전체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SPSS 22.0와 AMOS 22.0를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자료에서 무응답 문항과 무성의하게 응답한 설문을 제거 후 결측값을 처리한 자료를 SPSS 22.0을 이용하여 기초통계를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평가를 위해 신뢰도와 타당도 검정을 실시하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검정하였으며, 타당도는 구조방정식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본 연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가를 검정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평가의 기초 자료인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하기 위해 Pearson 분석을 실시, 연구모델에 포함된 주요 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조사하여 다변량 정규성을 검토하였으며, 구조방정식의 측정모형을 AMOS 22.0의 최대우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여 측정모형의 부합도를 측정하였다. 모델 부합도는 부합도 지수 TLI,

CFI, RMSEA 등을 통해 평가하였으며, 간접효과 및 직접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위해 95% 신뢰구간을 정한 후 Bootstrapping을 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부정적인 아버지의 특성이 성취동기를 매개로 하여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매개 모형을 설계하고 구조방정식으로 검증하였고, 모형 내의 경로에 표준화 경로계수를 활용하여 직간접효과와 매개효과를 구하였고, 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을 평가하였다. 연구모형이 본 연구의 자료와 잘 부합되는지 여부를 위해 비교부합지수(CFI: Comparative Fit Index), 모형의 간명성을 결합하여 측정된 터커-루이스지수(TLI: Tucker-Lewis Index), 모형의 간명성과 적합도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근사평균 오차제곱근(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측정모형의 적합도인 CFI, TLI가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간주되고 모형 적합도 판단을 위한 절대적합지수인 RMSEA가 <.10이면 보통 적합도, RMSEA가 <.08이면 양호한 적합도이며, RMSEA가 <.05이면 우수한 적합도로 간주한다(김계수, 2010; 우종필, 2012).

III. 연구결과

1.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수집한 자료의 일반적인 경향성과 변인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댓값, 최솟값을 산출하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4점 만점 기준으로 측정 변인의 평균, 표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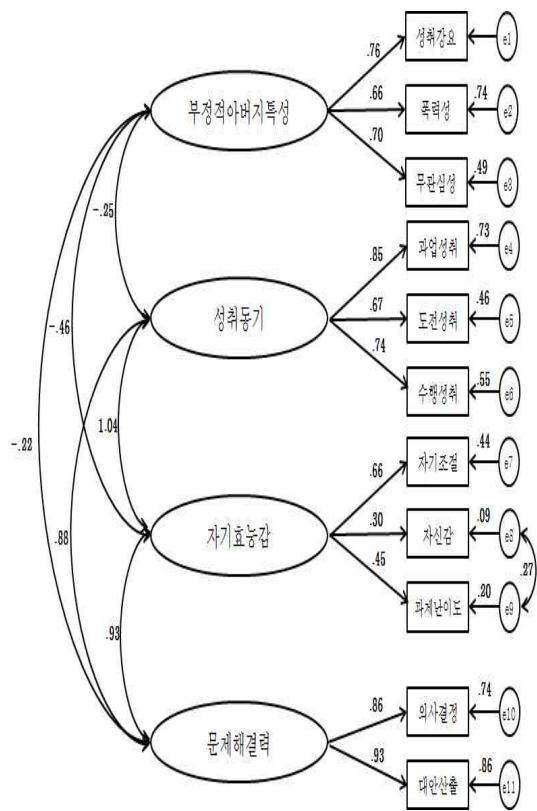
차 그리고 변인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부정적인 아버지 특성과 성취동기, 자기효능감 및 문제해결력 변인 간 상관계수는 대체로 .01 미만으로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 (N= 369)

	1	2	3	4
1. 부정적 아버지 특성	1			
2. 성취동기	-.20**	1		
3. 자기효능감	-.38**	.59**	1	
4. 문제해결력	-.18**	.73**	.56**	1
M	1.28	3.13	2.78	2.87
SD	.32	.45	.44	.55

** $p < .01$

〔그림 2〕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2. 측정모형의 적합도 평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변인을 적절히 구인하고 있는지 잠재변수 간 상관을 검증한 결과 측정모형의 경로계수 분석과 적합도는 아래의 표 3과 그림 2와 같다. 측정모형에서 $\chi^2(38, N=369)=158.81$ ($p < .001$), CFI= .94, TLI= .91, RMSEA=.09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을 탐색하기 위해 수정지수를 확인한 결과 e8(자신감)과 e9(과제난이도) (수정지수: 24.21)의 두 개의 오차변인 간 상관관계를 가정할 경우 적합도가 좀 더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수정지수,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e8(자신감)과 e9(과제난이도)의 측정오차 간 상관을 가정하고 다시 구조모형을 검증해보았다. 수정 후 전체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chi^2(37, N=369)=132.44$ ($p < .001$), CFI= .95, TLI= .92, RMSEA=.08로 수정 전에 비해 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N =369)

적합도 지수	χ^2	df	p	CFI	TLI	RMSEA (95%신뢰구간)
수정 전 측정모형	158.81	38	<.001	.94	.91	.09
수정 후 측정모형	132.44	37	<.001	.95	.92	.08

3. 구조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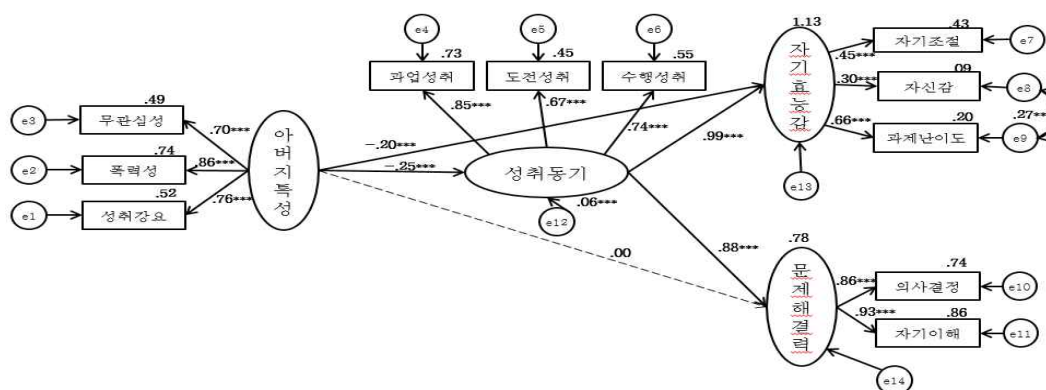
본 연구의 각 구성 개념 (부정적 아버지 특성, 성취동기,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력) 들 간의 가설적 인과관계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검증한 결과 표 4와 같이 나타난다. 연구모형에서의 가설에 따른 결과가 대부분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분석 결과 관측변수를 제외한 잠재변수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아버지 특성→성취동기’, ‘부정적 아버지 특성→자기효능감’, ‘성취동기→자기효능감’, ‘성취동기→문제해결력’의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부정적 아버지 특성→문제해결력’의 경로만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부정적 아버지와 문제해결력 간의 경로를 제외한 모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고, 최종모형은 그림 3과 같다.

〈표 4〉 최종모형의 적합도 지수

(N=369)

적합도지수	χ^2	df	p	CFI	TLI	RMSEA (95%신뢰구간)
최종모형	132.53	38	<.001	.95	.93	.08



*** $p < .001$.

〔그림 3〕 수정된 최종모형의 표준화 회귀 경로계수, 요인부하량, 설명오차결과

〈표 5〉 변인들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결과(Bootstrap 분석 결과) (N=369)

경로 및 방향			경로 계수(Parameter Estimate)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아버지특성	→	성취동기	-.25	-	-.25
아버지특성	→	자기효능감	-.20	-.25	-.45
성취동기	→	자기효능감	.99	-	.99
성취동기	→	문제해결력	.88	-	.88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독립변인인 부정적인 아버지 특성이 매개변인인 성취동기와 종속변인인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매개변인인 성취동기는 종속변인인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아버지 특성은 문제해결력에는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므로 이 변인들의 매개효과는 검증해 볼 수 없다.

구조방정식모형에 제시된 직접효과(=경로계수 값)와 함께 부정적인 아버지 특성은 성취동기에는 직접 효과는 -.25,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20, 간접효과는 -.25 로 부정적인 아버지 특성은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간접적 영향이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동기는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99,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88 으로 성취동기는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에 매우 큰 직접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부정적인 아버지 특성이 성취동기와 자기효능감 및 문제해결

력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고, 그 모형의 적합도를 통해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적인 아버지의 특성은 자녀의 성취동기, 자기효능감, 그리고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면, 부정적인 아버지의 특성이 자녀의 성취동기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박은선(2008) 외의 다수의 연구의 결과(도현심 외 2002; 허영림, 2006; 우시정, 2013)와 일치한다. 또한 부정적인 아버지 특성은 자기효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희숙(1983) 외의 다수의 연구 결과(박은선, 2008; 김인기, 2010; 우시정, 2013)와 일치하며, 이는 부정적인 아버지의 특성을 교정하여 긍정적인 아버지의 특성으로 바꾸어 주는 노력이 자녀의 성취동기와 자기효능감 향상에 중요한 근거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부정적인 아버지의 특성이 문제해결력에는 직접적인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김지영(2006)의 연구에서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정환경이나 부모의 양육태도

보다 학업 성취와 문제해결력이 더 큰 관계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태도 자체가 아동의 문제해결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킨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성취동기,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끼쳐서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동의 문제해결력 향상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둘째, 성취동기가 부정적 아버지의 특성과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력 사이에서 매개하는지를 살펴보면, 성취동기는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정적인 인과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취동기가 자기효능감을 높여준다고 밝힌 박정근(2002)의 연구와 일치함을 다시 확인하였다. 자기효능감의 근원인 성공경험(성취경험)이 자기효능감에 크게 작용한다는 성취동기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였다. 또한 성취동기는 문제해결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정적인 인과 관계를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적인 성취가 높은 학생들이 자신에게 적절한 성취동기수준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김지영(2006)의 연구와 일치한다. 성취동기가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직접적인 정적인 영향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제해결력은 부정적인 아버지의 특성과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취동기를 매개로 하였을 때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자기효능감도 부정적인 아버지의 직접적 영향(-.20)보다는 성취동기를 매개로 한 간접 영향(-.25)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부정적인 아버지의 특성은 자녀의 성취동기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문제해결력에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성취동기를 매개로 하였을 때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성취동기는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에는 강한 정적관계를 나타내며, 부정적인 아버지의 특성과 매개변인으로써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부정적인 아버지 특성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아버지 특성을 향상하는 아버지 교육을 통해 자녀의 성취동기,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성취동기가 독립변인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게 하고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에 정적 영향을 주는바 이에 후속 연구에는 아버지 교육과 성취동기 향상을 위한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도, 충청도, 대전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학생에게 일반화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를 포함한 다른 지역을 포함한 전국적인 연구와 중·고등학교와 대학생 등의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본 연구는 아버지가 지각하는 특성이나 관여하는 방식이 아닌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특성 및 기타요인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초등학생이 바르게 지각하였는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

생들의 부정적인 아버지 특성이 성취동기와 자기효능감 및 문제해결력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고, 그 모형의 적합도를 통해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적인 아버지의 특성은 자녀의 성취동기, 자기효능감, 그리고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면, 부정적인 아버지의 특성이 자녀의 성취동기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박은선(2008) 외의 다수의 연구의 결과(도현심 외 2002; 허영림, 2006; 우시정, 2013)와 일치한다. 또한 부정적인 아버지 특성은 자기효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희숙(1983) 외의 다수의 연구 결과(박은선, 2008; 김인기, 2010; 우시정, 2013)와 일치하며, 이는 부정적인 아버지의 특성을 교정하여 긍정적인 아버지의 특성으로 바꾸어 주는 노력이 자녀의 성취동기와 자기효능감 향상에 중요한 근거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부정적인 아버지의 특성이 문제해결력에는 직접적인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김지영(2006)의 연구에서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정환경이나 부모의 양육태도보다 학업 성취와 문제해결력이 더 큰 관계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태도 자체가 아동의 문제해결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킨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성취동기,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끼쳐서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동의 문제해결력

향상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둘째, 성취동기가 부정적 아버지의 특성과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력 사이에서 매개하는지를 살펴보면, 성취동기는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정적인 인과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취동기가 자기효능감을 높여준다고 밝힌 박정근(2002)의 연구와 일치함을 다시 확인하였다. 자기효능감의 근원인 성공경험(성취경험)이 자기효능감에 크게 작용한다는 성취동기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였다. 또한 성취동기는 문제해결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정적인 인과 관계를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적인 성취가 높은 학생들이 자신에게 적절한 성취동기수준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김지영(2006)의 연구와 일치한다. 성취동기가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직접적인 정적인 영향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제해결력은 부정적인 아버지의 특성과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취동기를 매개로 하였을 때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자기효능감도 부정적인 아버지의 직접적 영향(-.20)보다는 성취동기를 매개로 한 간접 영향(-.25)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부정적인 아버지의 특성은 자녀의 성취동기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문제해결력에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성취동기를 매개로 하였을 때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성취동기는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에는 강한 정적관계를 나타내며, 부정적인 아버지

의 특성과 매개변인으로써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부정적인 아버지 특성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아버지 특성을 향상하는 아버지 교육을 통해 자녀의 성취동기,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성취동기가 독립변인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게 하고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에 정적 영향을 주는바 이에 후속 연구에는 아버지 교육과 성취동기 향상을 위한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도, 충청도, 대전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학생에게 일반화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를 포함한 다른 지역을 포함한 전국적인 연구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등의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본 연구는 아버지가 지각하는 특성이나 관여하는 방식이 아닌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특성 및 기타요인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초등학교가 바르게 지각하였는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 면접법 등 보다 다양한 측정도구에 대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하며, 부모와 자녀가 같이 연계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의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이나 가정 배경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인을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 외에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자녀의 출생 순위, 성적, 등의 다양한 변인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여야 하겠다.

넷째, 부정적인 질문으로 이루어진 설문지를 연구 측정도구로 선택한 결과 초등학교생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하는 계속되는 부정적인 질문에 대한 불편감으로 인해 응답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다. 다음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아버지의 특성으로 변인을 설정하여 연구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원덕, 안귀여루 (2010). 경험논문 : 성취동기, 내재적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고등학생의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건강. 15(1),161-175.
- 김경미 (2003).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계수 (2010).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 아카데미.
- 김세영 (2004). 아동의 분리개별화가 성취동기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 대학원 아동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은하 (2013). 개인중심계획을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지적장애 중학생의 진로태도, 성취동기 및 가족역량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대학원 특수교육학 박사학위논문.

- 김인기 (2010). 대학생이 지각한 아버지 특성과 대인불안, 진로탐색 자기 효능감, 진로탐색행동 간의 구조 모형 검증.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 전문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김인가·이제경 (2009). 대학생과 모·부·애착 관계 지각에 따른 진로탐색자기효능감 차이. 상담학 연구, 10(3), 1521-1531.
- 김의철, 박영신 (1999).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 김지영 (2006).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환경요인에 대한 탐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 (2013).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자녀 관계가 사회적 문제해결력, 진로탐색 및 진로의사결정능력에 미치는 차이.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혜 (2009).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 애착, 자아존중감, 성취동기와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택호 (2004). 희망과 삶의 의미가 청소년의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 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 박사학위논문.
- 도현심, 최미경 (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 경험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2), 19-33.
- 도현심, 김민정, 최미경, 김상원, 조수정 (2012).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분노 및 우울이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3(2), 145-164.
- 민숙정 (1990).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성취동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광균 (2000). 아버지의 자녀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세강 (2010). 고등학생의 성취동기, 자아존중감, 스트레스가 불확실성 회피 성향에 주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선 (2008). 아버지 애착과 지지가 대학생의 진로탐색 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영 (2014). 초등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자녀 관계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정근 (2002).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와 중학생의 성취동기 및 자기효능감.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희 (2009). 중학생의 귀인성향과 자기효능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 석사학위논문.
- 박혜숙 (1997). 아버지의 대화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정 (2004).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양

- 육행동 및 아동의 성취동기가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 대학원 가정관리학 석사학위논문.
- 배병득 (2014). Amos 21 구조방정식모델링; 청람
- 송명자 (1995). 발달 심리학. 서울; 학지사
- 송명자 (2002). 발달 심리학. 서울; 학지사
- 양영준 (2015). 해결중심단기상담이 초등 학교 학습부진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혜진 (2011). 사회경제적 지위 및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기 여학생의 성취동기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시정 (2012). 초등학생이 지각한 아버지 특성이 불안, 성취동기,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종필 (2012).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 모델 개념과 이해; 한나래
- 유연실 (200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 선문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창렬 (1985).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성취동기와 그에 관련되는 변인.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명숙 (2004). 자기효능감이 초등학생의 성취동기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 교육대학원 교육심리 및 상담 석사학위논문.
- 이병인 (1991). 가정환경, 성역할정체감, 성취동기와 직업포부수준과의 관계. 충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운경, 도현심 (2005).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관련된 변인들 :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기대 및 정서적 지지와 청소년의 자존감. 아동학회지 제 26권 3호, 2005.
- 이현주 (2012).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 - 자녀관계에 따른 대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및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 이희숙 (1983). 자녀가 지각한 부친의 양육태도와 자아개념과의 상관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이혜진 (2003).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에 따른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장갑순, 박영신, 김의철 (2002). 학업성취 과정에 대한 분석: 부모-자녀관계, 학업성취효능감과 과거성취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 2002 No.- [2002] 315-320.
- 정보현 (2013). 비전수립 코칭 프로그램이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 및 성취동기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최윤실 (2005). 초등학생의 가족형태와 자기효능감,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 최이숙 (2003). 청소년의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과 자아개념, 심리사회적 성숙도와 관계.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지현 (2005). 아동기 가정폭력경험이 대 학생의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은정 (2006).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대인문제해결사고와의 관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 규 (1999). 충동성과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허영림 (2006).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교육논총 26(1), 97-11
- 홍성흔 (2002). 모 -자녀 관계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성취동기. 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경숙 (2002). 초등학생의 성취동기,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간의 관계. 영남대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석사 학위논문.
- 현정미, 신효식, 이선정 (2014). 남녀 청소년의 가족배경변인, 자아존중감 및 가족건강성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제26권 3호, 2014. 9, 1-15.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2), 122-147.
- Bandura, A (1994). In *Encyclopedia of Human Behavior*(vol.4). New York : *Academic Press*.
- Dickerscheid J D ,Vartuli S , 1974., Child-rearing information... What do rural Ohio parents want to know?. *Ohio report on research and development /59(1)*, 12-14.
- D'Zurilla, T. J. & Nezu, A. M. (1982). Social problem - solving in adults. In.P. C. Kendall (de). *Advances in cognitive 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New york : *Academic Press*.
- D'Zurilla, T. J. (1986). Problem - solving theory : A social competence approach to clinical intervention.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D'zurilla,T.J. & Nezu,A.M. (1990). Development and preliminary evaluation of the 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 256-163.
- McClelland, D. C. (1961). The achieving society. Princeton, N. J. : D. Vans Nostrand.

- McClelland, D. C. (1965). Achievement motivation can be developed. *Harvard Business Review*, Nov. Dec. 7-16, 20-24.
- Murray, H. A. (1938). Explorations in person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Nezu, R. M., Nezu, C. M., & Perri, M. G. (1989). Problem - solving theory for depression :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guidelines. *New York: John Wiley & Sons*.
- Poulter, S.B. (2006). *The father factor: How your father's legacy impacts your career*. New York; Prometheus Books.
- Priester, M. & Clum, G. (1993). The problem-solving diathesis in depression, hopelessness, and suicide ideation: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15, 239-254.

〈Abstract〉

Influences that negative father's trait has on
elementaryschool students' self-efficacy
and problem-solving ; mediator effect of
achievement motive

Jeon, Yoon-Joo

Kim, Hee-Sue

Ha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problem-solving ability, and achievement motiv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negative father's trait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So the following subjects of study were set up. First, how is the negative father's trait related with achievement motive, self-efficacy and problem solving? Second, does achievement motive mediate among negative father's trait, self-efficacy and problem solving? A survey was conducted on 460 students who were in the 5th and 6th grade in the 8 elementary school of Seoul, Gyeonggi-do, Chungcheong-do, and Daejeon from Dec. 17 to Dec. 29 in 2014 for this study. Finally 369 copies of the survey were just used for analysis. SPSS 22.0 and AMOS 22.0 were used to analyze research model statistically. The result are as follows. First, it showed that there was meaningful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negative father's trait and achievement motive, and that negative father's trait had meaningful negative influences on self-efficacy. Although negative father's trait didn't have meaningful influences on problem solving directly, negative father's trait had meaningful one on it through achievement motive.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achievement motive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both self-efficacy and social-problem solving. and that achievement motive acted as a mediator between father's trait and self-efficacy. As mentioned above, as a result of checking the relationship of several variables that negative father's trait has influences on, negative father's trait has influences on variables of the child's self-efficacy and problem solving through achievement motive. Therefore this study found that school needed to develop the program which educated how to bring up children effectively in the view of father's impact, and that we must improve students' problem solving and self-efficacy by introducing and using various curriculums that improve students' achievement motive.

Key word: negative father's trait, achievement motive, self-efficacy, problem solv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mediation effect

동기강화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입원 알코올중독자의 고위험음주상황인식과 스트레스반응에 미치는 효과*

정 중 현

김 희 수†

한세대학교

본 연구는 동기강화집단상담이 알코올중독자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A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DSM-IV & V'의 진단기준에 의거하여 알코올중독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환자 2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1명을 실험집단으로, 집단상담에 참여하지 않고 설문지 작성에 동의한 12명을 통제집단으로 선정하고, 연구도구는 음주위험상황을 측정하기 위하여 고위험음주상황분석척도(Identifying High-risk Situation: IDS-42)를 사용하였고, 스트레스 반응 척도(The Stress Response Inventory, SRI)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동기강화집단상담이 알코올중독자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기강화이론을 중심으로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입원 치료 중인 알코올중독환자들의 고위험상황분석의 인식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는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ANC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동기강화이론을 중심으로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입원치료 중인 알코올중독환자들의 스트레스 반응 수준 감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는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ANC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위의 연구결과는 동기강화집단상담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고위험음주상황인식과 스트레스 반응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동기강화집단상담이 알코올중독자의 단주의 지 증가와 스트레스반응 감소에 긍정의 영향을 미쳤음을 말한다.

주요어: 동기강화 집단상담, 알코올중독, 위험음주상황인식, 스트레스반응

* 본 연구는 정중현(2015)의 한세대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내용임.

† 교신저자 : 김희수, 한세대학교 상담심리학 교수, E-mail : kimhs@hansei.ac.kr

I. 서론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해 허용적이고 관대한 분위기로 말미암아 무절제한 음주 습관으로 인한 문제가 전 연령층에 확산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0).

국민건강보험공단(2014)이 2018년부터 2013년까지 ‘알코올성 정신장애(F10)’로 인한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2008년 6만 3,821명에서 2013년 7만 5,925명으로 1만 2,104명이 늘어 연평균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성은 2008년 5만 1천명에서 2013년 6만 1천명으로 연평균 3.6% 증가하였고, 여성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3.2% 증가하였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자들의 1.6%만이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알코올중독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윤명숙, 2010). 알코올중독은 많은 양의 알코올을 반복적으로 섭취함으로써 자신의 신체 및 정신건강은 물론 가족과 직장 그리고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이다(Miley, Dubois & O' melia, 2014). 또한 알코올중독은 한국인의 정신질환 중에서 평생 유병률이 가장 높고 이로 인한 범죄, 사고, 신체 및 정신적인 질환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알코올중독이 한국인의 정신장애 발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0). 또한 우리 사회는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과 사고로 연

7조 3698억 원의 사회 경제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정진욱, 2015).

알코올중독 치료가 어려운 것은 알코올중독자 대부분이 자신의 음주문제를 부정하고, 중독 치료 중재 초기에 강한 저항을 보이며 치료에 순응하지 못하고 변화에 대한 동기가 낮기 때문이다(송수진, 2003). 지금까지 음주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알코올중독자의 알코올 사용을 줄이는 데 효과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과음주의 원인이 개인의 지식부족보다 변화에 대한 동기부족에 기인하다는 것이다(Borsari & Carey, 2005). 따라서 알코올중독자의 금주를 돕기 위해서 무엇보다 변화에 대한 동기를 향상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변화 동기란 개인이 변화 하여야 할 이유, 변화를 원하는 강도, 변화하고자 하는 열의 등을 말하며, 변화단계는 개인의 변화 동기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Maralatt & Gordon, 1985). 그리고 변화 동기는 목적 지향적이고 의도적이며 긍정적인 개념으로,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포함하며 행동을 일으키는 원천이라 할 수 있다(Miller & Rollnick, 2002). 따라서 변화 동기는 알코올 문제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강력한 예측요인이며, 동기강화상담을 통하여 변화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알코올중독 치료에 매우 적절한 방법일 수 있다.

한편 고위험상황이란 사람에게 위반적인 행동(예: 음주행위)에 말을 증가시키는 경험, 감정, 장소, 사고, 환경을 말한

다(Maralatt & Gordon, 1985). 특히 알코올중독 환자들은 음주를 하기에 앞서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부정적 감정 상태는 고위험상황과 관련이 있어 고위험상황을 재발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김용석, 2002) 이러한 고위험 음주상황을 내담자가 인식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치료적 과정이라고 하겠다.

현대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급격한 변화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게 된다. 다양한 환경적 스트레스와 개인을 위협하는 심각한 생활스트레스가 음주행동 반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김기태 외, 2004). 따라서 스트레스의 양도 알코올 치료에 중요한 변인일 수 있으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학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알코올 치료 과정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동기강화이론을 중심으로 구성된 집단 상담프로그램이 입원한 알코올중독자의 고위험상황 분석인식과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입원한 알코올중독자들에 효과적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보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동기강화이론을 중심으로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입원 치료 중인 알코올중독환자들의 고위험상황분석의 인식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동기강화이론을 중심으로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입원 치료 중인 알코올중독환자들의 스트레스 반응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A 정신병원의 입원환자 23명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연구 대상인 A정신병원은 연구자가 근무 중인 병원으로 개원한지 6년이 된 170병상 규모의 대형 병원이다.

동기강화집단상담 안내 및 홍보를 하여 자발적으로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알코올중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11명의 실험집단을 선정하고, 집단상담에 참여는 원하지 않지만 설문지 작성에 동의한 12명을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두 집단의 참가 인원 구성은 <표1>과 같다.

<표1> 실험, 통제 집단의 현황

구분	인원	계
실험집단	남 7, 여 4	11명
통제집단	남 12	12명

2. 연구절차

1) 실험설계

연구에서 사용되는 실험설계는 본 연

실험집단	O_1	X	O_2
통제집단	O_3		O_4
$O_1 \cdot O_3$	사전검사 (고위험음주상황분석척도, 스트레스반응 척도)		
$O_2 \cdot O_4$	사후검사 (고위험음주상황분석척도, 스트레스반응 척도)		
X	동기강화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과정은
 <표3>과 같다.

연구단계	내용	기간
검사지 제작	문헌고찰, 신뢰도산출	2015.06.01. ~ 2015.06.29
상담프로그램 구성	동기강화 상담이론 중심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2015.06.30. ~ 2015.07.25
실험집단선정	실험집단: 알코올중독자 남7, 여4 통제집단: 알코올중독자 남 12	2015.07.25
사전검사	고위험음주상황분석 사전검사 실시, 스트레스반응 사전검사 실시	2015.07.28
프로그램실시	동기강화 집단상담프로그램 진행	2015.07.28. ~ 2015.09.08
사후검사	사전검사와 동일하게 실시	2015.09.08
결과분석	검사지 분석 및 결과 도출	2015.09.09. ~ 2015.10.31

과 임애리(2010)의 동기강화프로그램, 송수진(2003)의 변화동기강화 프로그램 등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구성된 프

로그그램은 상담전문가(상담학과 교수, 상담전문가 1급)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거쳤다.

동기강화집단상담 프로그램은 10차시 분량으로 구성하였고, 집단상담은 연구자

가 직접 실시하였다. 소요시간은 1주일에 2회기씩 총 6주간 실시하였고, 1회기 소요시간은 병원의 사정과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60분으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의 전체 회기별 구성 내용은 <표4>와 같다.

〈표4〉 동기강화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회기별 구성

회기	주제	내용
1	프로그램에 소개 및 변화단계의 이해	1.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내용과 목적에 대해 소개. 2. 프로그램의 진행방식과 절차 및 규칙에 대해 설명. 3. 변화의 단계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의 나의 단계에 대해 알아보기 4. 사전검사 실시
2	가치탐색을 통한 변화열망 강화하기	1. 나는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2. 가치관 백화점(또는 희망백화점)
3	음주고위험상황에 대한 대처	1. 프로그램 시작전 시행했던 고위험음주상황분석에 대한 분석결과 및 설명과 평가 2. 음주고위험상황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와, 집단원들의 결과를 비교해 본다. 3. 가장 높은 고위험상황 3개의 영역에 대해 알아보고, 그 대처방법에 대해 토론해 본다.
4	음주고위험상황 극복하기	1. 저번 시간에 이어 집단원들의 가장 높았던 음주고위험 상황 극복방안과 반복되었던 잘못된 생각 및 습관을 바꾸는 연습을 해본다. 2. 극복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워보고 토론한다. 3. 그 밖의 음주고위험상황에 대해 적어보고, 각자의 대처방법에 대해 토론해 본다.
5	알코올이 내게 주는 영향	1. 주제 소개하기 알코올이 신체, 정신, 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2. 알코올로 유발된 장애에 대해 알아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6	스트레스 관리	1. 스트레스란 무엇인가? 2. 각자의 스트레스 취약 부분과 과거 어떤 방법(주로 술로 푸는)으로 풀었는지 발표해 본다. 3.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연습해 본다.

7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거절	1. 주제 소개하기 2. 그 동안 집단원들이 사용해 온 의사소통방법에 대해 발표해보고(수동적, 공격적, 수동-공격적, 주장적)방법들에 대해 예를 들어준다. 3. 나-전달법의 5단계 설명과 서로 짝을 이뤄 연습해 본다.
8	거절 연습하기	1. 거절 기술에 대한 주제를 소개한다. 2. 2인 또는 3인이 한 조가 되어 회식자리 등 흔한 음주고 위험상황에서 역할극을 하면서 거절기술을 연습한다. 3. 명백하고, 단호하게, 망설이지 않는 목소리로 거절하는 연습 등을 통해 성공적인 거절방법을 익혀 자신감을 키운다.
9	변화의지 확인하기	1. 주제 소개하기 2. 겉으로 보기에 음주와 무관한 일상적인 선택들의 중요성을 확인해 본다. 3. 각자의 목표 설정과 변화에 대한 준비를 적어보고 발표하면서 토론해 본다.
10	새로운 삶의 의미점점	1. 알코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각자의 행동에 대해 안다. 2. 기존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대신할 때의 잠재적인 문제를 확인한다. 3. 알코올 사용을 피할 수 있는 기술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기술을 선택한다. 4.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사후검사.

3. 연구도구

1) 고위험상황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개인별 고위험상황을 인식하기 위한방법으로 IDS-42(The Inventory of Drinking Situations)척도를 사용하였다.

IDS는 알코올독자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각 개인의 높은 위험상황을 식별해 낼 수 있는 100문항으로 이루어진 도구로, 윤명숙(2000)이 알코올독자실태조사 및 재활모형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알코올독자들의 음주위험 상황을 측정하기

위해서 Annis(1982)가 개발한 “IDS”를 번안하였고, 알코올 분야전문가 3인의 번역 -역 번역의 과정을 거쳐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여 4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IDS는 개인적 상태와 다른 사람을 포함한 상황의 두 범주아래 8개 하위척도로 나누어진다. 개인 상태영역에는 기분 나쁜 감정들, 신체적 불편함, 기쁜 감정들, 자기통제 실패, 갈망과 유혹의 5개 하위척도가 속해있으며, 다른 사람을 포함한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갈등, 사회적 압력, 다른 사람과의 기쁜 시간들의 3개 하위척도가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측정방식은 ‘나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가 0점, ‘나는 거의 언제나 술을 마셨다’가 3점으로 측정한다. 문제 지표는 1-33점이 ‘중간위험’, 34-66점이 ‘높은 위험’, 67-100점이 ‘매우 높은 위험상황’으로 나누어

진다. 윤명숙(2001)의 연구에서 IDS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96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검사에서는 Cronbach α = .98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각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내적 일치도는 <표5>와 같다.

<표5> 고위험상황분석 측정 검사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a
전체		42	.978
불유쾌한 감정	1,2,3,4	4	.895
신체적 불편	5,6,7,8	4	.716
기쁜 감정	9,10,11,12	4	.914
자기 통제	13,14,15,16	4	.822
갈망,유혹	17,18,19,20	4	.833
대인관계갈등	21,22,23,24,25,26,27,28,29,30,31,32	12	.969
사회적압력	33,34,35,36	4	.923
타인과기쁜시간들	37,38,39,40,41,42	6	.924

2) 스트레스 반응

본 연구에서는 고경봉, 박중규, 김찬형(2000)이 개발한 스트레스 반응 척도(The Stress Response Inventory, SRI)를 사용하여 스트레스 반응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스트레스와 관련한 감정적, 신체적, 인지적, 행동적 반응들이 포함된 총 39문항 구성의 척도로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반응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고경봉(2000)의 연구에서 환자군의 평균 점수는 94.1점으로 정상군의 평균

68.5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환자군의 평균 점수 이상일 때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중재가 필요한 대상으로 보고 있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 = .95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경봉 외, 2000). 본 검사에서는 Cronbach α = .98로 매우 높게 나왔다.

문항들의 빈도를 보면 우울이 8개로 가장 많고, 좌절 7개, 긴장 및 분노가 각각 6개이고, 피로가 5개, 공격 4개, 신체화 3개로 스트레스 반응 척도에 대한 각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내적일치도는 <표6>과 같다.

〈표6〉 스트레스 반응 측정 검사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a
전체		39	.975
공격	18,28,29,33	4	.900
긴장	2,16,17,30,31,37	6	.884
분노	4,24,25,26,27,34	6	.875
신체	6,7,10	3	.726
우울	5,15,19,22,23,35,38,39	8	.901
좌절	3,8,9,11,20,21,32	7	.879
피로	1,12,13,14,36	5	.787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의 자료는 연구가설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진단기준을 5%로 사용하며, SPSS(ver.18.0)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동기강화 상담이론중심으로 구성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입원 알코올 남·녀 중독자의 고위험상황분석인식과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전·사후검사 통제 집단 설계를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 측정도구별 사전검사와 사후검사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 고위험상황분석(IDS-42) 및 스트레스반응(SRI)척도특점의 기술통계치인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두 집단의 사전검사 결과를 통제된 상태에서 두 집단의 사후검사결과를 가지고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 Window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고위험상황분석의 변화(사전-사후비교)

먼저 실험-통제 두 집단의 사전 전반적인 스트레스, 사후 전반적인 스트레스, 사전 전반적인 스트레스를 통제한 교정사후 전반적인 스트레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7>과 같다.

위 <표5>에 따르면 통제집단의 고위험상황분석 점수가 사전 87.50, 사후 85.25로 긍정적 변화를 보이지 않은데 반해 실험집단은 사전 84.27, 사후 44.91로 고위험상황분석 수준이 긍정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평균차이가 동기강화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인지 살펴보기 위해, 사전 전반적인 고위험상황의 영향을 통제한 교정사후 전반적인 고위험상황 수준은 통제집단 84.30, 실험집단은 45.95로 나타났다.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교정된 사후 전반적인 고위험상황분석 수준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사전 전반적인 고위험상황분석에 대한 영향을 통제된 후, 교정된 사후 성취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F값은 28.67이며, 유의 확률은 .000으로 동기강화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실시 여부에 따라 교정된 사후 전반적인 고위험상황분석인식에 있어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이 유의미한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즉, 본 동기강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 후 실험집단의 전반적인 고위험상황분석 수준이 통제집단에 비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입원 알코올중독자 대상으로 한 동기강화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전반적인 고위험상황분석인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표7〉 실험-통제에 따른 사전·사후, 교정된 사후 전반적인 고위험상황 분석에 대한 기술 통계

	구 분	실 험	통 제
사전	M	84.27	87.50
고위험상황	SD	21.71	14.56
사후	M	44.91	85.25
고위험상황	SD	26.39	11.86
교정 사후	M	45.95	84.30
고위험상황	SE	5.16	4.94
사례수		11	12

〈표8〉 실험-통제에 따른 사전-사후, 교정된 사후 고위험상황분석에 대한 공분산 분석결과

분산원	제 곱합	자유도	평균 제 곱	F
사전 고위험상황분석	3640.29	1	3640.29	12.47**
집단	8371.07	1	8371.07	28.67***
오차	5839.60	20	291.98	
합계	117907.00	23		

p <.01, *p <.001

2. 스트레스 반응 (사전-사후비교)

동기강화상담이론 중심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하여 사전 스트레스 반응의 영향을 통제하는 공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험-통제 두 집단의 사전 스트레스 반응, 사후 스트레스 반응, 사전스트레스 반응을 통제한 교정 사후 스트레스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9>와 같다.

아래의 <표9>에 따르면 통제집단의 스트레스 반응이 사전 90.17, 사후 91.25로 긍정적 변화를 보이지 않는데

반해 실험집단은 사전 92.92, 사후 62.91로 스트레스 반응 수준이 긍정적으로 향상되었다.

그리고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평균 차이가 동기강화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인지 살펴보기 위해, 사전 스트레스 반응의 영향을 통제한 교정 사후 스트레스 반응은 통제집단 92.06, 실험집단은 62.03으로 나타났다.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교정된 사후 학교생활적응력 수준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는 <표10>와 같다.

<표9> 실험-통제에 따른 사전-사후, 교정된 사후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기술통계

	구 분	실 험	통 제
사전	M	92.91	90.17
스트레스	SD	24.33	34.29
사후	M	62.91	91.25
스트레스	SD	12.38	27.92
교정 사후	M	62.03	92.06
스트레스	SE	3.64	3.49
사례수		11	12

<표10> 실험-통제에 따른 사전-사후, 교정된 사후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공분산 분석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사전 스트레스반응	6640.88	1	6640.88	45.54***
집단	5165.43	1	5165.43	35.42***
오차	2916.56	20	145.83	
합계	153565.00	23		

*** $p < .001$

사전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영향을 통제된 후, 교정된 사후 성취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F값은 35.421며, 유의 확률은 .000으로 동기강화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실시 여부에 따라 교정된 사후 스트레스 반응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즉, 본 동기강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 후 실험집단의 스트레스 반응 수준이 통제집단에 비해 긍정적으로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입원 알코올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동기강화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반응 감소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입원중인 알코올중독자의 고위험상황분석인식 및 스트레스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동기강화이론을 중심으로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동기강화이론을 중심으로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기강화이론을 중심으로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F값이 28.670($p < .01$)으로 실험통제에 따른 전반적인 음주고위험상황 효과의 감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를 나타냈다. 즉 동기강화이론을 중심으로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입원치료 중인 알코올중독환자들의 전반

적인 음주고위험상황의 대처능력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동기강화이론을 중심으로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F값이 35.421($p < .01$)으로 실험통제에 따른 스트레스반응 감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를 나타냈다. 즉 동기강화이론을 중심으로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입원치료 중인 알코올중독환자들의 전반적인 스트레스반응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기강화이론을 중심으로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입원치료 중인 알코올중독환자들의 음주고위험상황의 대처능력 향상과 스트레스반응의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음주고위험상황분석동기강화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고위험상황분석인식의 결과가 현저하게 낮아져 유의한 결과를 얻었고, 구체적으로 고위험상황분석의 사전검사 결과 통제집단의 평균점수(87.50점)가 실험집단 평균점수(84.27점)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6주 후 사후검사 결과 실험집단의 평균점수(45.95점)는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통제집단에서는 사후 평균점수(84.30점)가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는 음주고위험상황분석과 변화 동기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알코올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동기강화프로그램이 알코올중독자의 동기변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 결과(송

수진, 2003)와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하겠다.

동기강화상담의 목적은 첫째, 변화에 대한 동기부여이다. 이를 위해 상담은 내담자가 학습된 무기력, 의미의 상실, 환경적 영향, 그리고 변화에 대해 직면과 회피라는 양가감정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 기술과 자원을 가지고 변화를 만들며, 동시에 변화에 대한 개방성의 필요성 및 향후 치료적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변화의 책임을 중독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본 연구의 고위험상황분석에서 하위요인 중 갈망 및 유혹, 대인관계갈등, 사회적 압력의 수치가 매우 변화가 큰 것은 알코올중독자의 내적동기강화 및 변화를 유발한 결과로 사료된다.

둘째, 연구에서 동기강화상담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 보다 스트레스반응 검사의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낮아졌다. 실험집단의 스트레스 반응 사전 평균점수(92.91점)는 통제집단의 평균점수(90.17)보다 오히려 더 높았으나 동기강화집단상담 프로그램 시행 후 실시한 사후 평균점수는 실험집단(62.03점)과 통제집단(92.09점)의 값이 확연히 차이가 났다. 오히려 통제집단은 스트레스반응이 더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동일한 프로그램을 적용한 선행연구가 없으나 유사한 선행 연구논문을 보면 김진희(2006)는 ADHD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행동훈련에 동기강화상담을 적용하여 실시한 결과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향상되고 양육스트레스는 감소되었

다. 이지혜(2012)는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기강화 인터넷 중독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인터넷 중독 위험도, 우울/불안, 지각된 스트레스는 감소하고 자기 통제력은 증가하여 동기강화프로그램의 효과를 입증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스트레스 반응검사의 감소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기강화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 반응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었으며, 실제 결과도 일치되게 나타났다. 따라서 동기강화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 반응수준을 감소시킨다면 알코올 섭취에 대한 중요한 동기가 감소되는 것이므로 알코올 환자 치료에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A시에 소재한 170병상의 중소형급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모든 알코올 중독자에게 일반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광범위한 지역의 알코올중독자를 대상으로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입원한 알코올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에 치료의 불이익 및 퇴원과는 무관함을 강조하여도 자신의 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하는 양상을 보여, 측정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연구자 이전에 환자와 간호사로서의 관계에서 오는 다중적인 관계와도

무관하지 않을 수 있어 검사결과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환자의 보호자 및 병원 현장의 여러 인력들과의 다각도 검토를 통해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알코올중독의 회복 변인을 고위험음주상황과 스트레스반응의 2가지만 선정하였으므로 언급된 2가지의 회복 변인 이외의 다른 변인들까지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두 가지 이외의 알코올중독 회복과 연관된 다른 심리적 변인들까지 다각도로 검증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알코올중독은 재발율이 높은 질환이므로 치료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동기강화프로그램의 효과의 지속성에 대해서 평가하지 못했으므로 장기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추수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2014). 연도별 '알코올성 정신장애(F10)'로 인한 건강보험 지급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 보고서.

김기태·안영실·최송식·김주영(2004). 알코올중독자의 회복 훈련. 서울: 양서원.

김용석(2002). 약물남용의 재발예방을 위한 인지행동 접근법의 효과성.

한국사회복지학. 48. 243-270.

김진희(2006). 동기강화 부모행동훈련이 ADHD 아동과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2006). 술 중독 치료, 재활에서 예방까지 국가가 나선다. 보도자료.

송수진(2003). 알코올중독 입원환자에 대한 변화동기강화 프로그램의 효과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명숙(2000). 지역사회에서의 알코올중독자 회복프로그램과 정신보건정책 과제. 알콜중독자 자녀에 대한 개입전략과 실천기법 워크샵 자료집.

이지혜(2012). 동기강화 인터넷 중독 예방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자기통제력, 우울/불안, 지각된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한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애리(2010). 동기강화프로그램이 알코올중독자의 변화동기, 병식 및 금주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진욱(2015). 알코올중독 관련 요인분석 및 정책방향. 복지포럼. 자료집. 22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Borsari, B & Carey, K. B. (2005). Two brief alcohol intervention for mandated college student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9(3),

296-302.

- Miley, K, O' melia M. & Dubois,.B.(2014). *Generalist Social Work Practice: An Empowering Approach (7th Edition)*. London: Pearson Education Press.
- Marlatt, G. A. & Gordon, J. R. (1985). *Relapse prevention: Maintenance strategies in the treatment of addictive behaviors*. New York :Guilford Press.
- Miller, W. R. & Rollnoick, S. (2002). *Motivational interview- wing: preparing peaple to change addictive behavior*.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Velasquez, M. M., Maurer, G. G., Crouch, C., & DiClemente, C. C. (2001). *Group treatment for substance abuse: A stage of change therapy manual*. New york: The Guilford Press.

〈Abstract〉

The Impact of Motivational Group Counseling
on the Identifying High-risk Situation and the Stress
response of Alcohol Dependent Patients

Jeong, jung-hyun

Kim, Hee-Sue

Hansei University

The most universal and realistic treatment for alcohol dependence is hospitalization treatment in Korea. The purpose of hospitalization treatment program for the alcohol dependent patients is to motivate them to stop drinking with voluntary participation in the treatment and help them to acquire a way to live the life without alcohol. This study is intended to verify the impact of motivational group therapy on the recovery of Alcohol Dependent Patients. And as an indication of recovery from alcoholism, the following factors were selected: Identifying High-risk Situation and Stress response.

In a hospital located in city 'A', the purpose of the motivational group therapy was explained to 23 patients who have been diagnosed and receiving treatment for alcohol dependenc according to the diagnostic criteria of 'DSM-IV & V. Amongst them, 11 patients volunteered to become the experimental group and 12 patients who agreed to complete the questionnaires but not participate in the group therapy were the control group. in order to examine high risk drinking situation, Identifying High-risk Situation scale (IDS-42) was used, and to examine their stress response, The Stress Response Inventory scale (SRI) was used.

The research results of verifying the impact of motivational group therapy on the recovery of alcoholics are as follows.

First, the first hypothesis was supported by the result that the score experimental group high-risk drinking levels are higher than a control group,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This has improved the pre-test scores as the covariate, and by as dependent variables post-test score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carried result of the two groups the ANCOVA analysis.

Second. The second hypothesis was supported by the result that the score of Stress

Response in the experimental group was low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This has improved the pre-test scores as the covariate, and by as dependent variables post-test score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carried result of the two groups the ANCOVA analysis.

The above results are high-risk drinking situations and stress response in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group counseling enhanced motivation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his suggests that motivational group therapy is a positive impact for the recovery of alcoholics.

The above results are high-risk drinking situation awareness and stress response in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group counseling enhanced motivation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This means gave a positive impact on the reduction of stress reactions and increased willingness Stub Columns enhance motivation group counseling alcoholics.

Key words : Motivational Group Counseling, alcohol dependence, identifying high-risk situation, stress response

2018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장각자¹⁾, 손영임²⁾

I. 서론

신입생들은 대학입학을 통해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성인기로 접어들면서 기존의 의존적이고 통제된 생활환경에서 벗어나게 되고, 비교적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동시에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감 또한 느끼게 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신입생들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삶의 다양한 과제로 인해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고, 자신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며, 자신과 사회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시도하기도 한다. 특히 4년간의 대학생활을 통해 자율적인 학업, 폭넓은 대인관계 형성, 자신의 적성과 흥미 그리고 노력에 따른 적합한 진로선택 등의 과업이 따르게 되는데 이러한 과업을 순조롭게 해나가려면 신입생들이 자신의 심리적 특성 등을 탐색하고 이해하여 깊이 있는 자기이해와 자기수용이 이루어져야하며, 대학생활의 적응력과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신입생들이 이러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대학생활의 적응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의 적절한 지원과 교육 제공이 필요하다. 이러한 도움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한세대학교 학생상담센터는 매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인 특성과 심리적 특성, 전반적인 대학 생활 만족도, 대학 생활 적응도 등을 알아보는 신입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입생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입생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조사 보고서는 보다 효과적인 교육과정 편성, 학생들의 복지와 학사 정책 수립, 학생상담과 지도, 학생들의 자기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금년에도 신입생들의 적응실태와 신입생들의 특성 및 의식을 파악한 신입생 실태조사를 통하여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정책 수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발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전략을 세우며,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사 지도와 진로 및 취업지도 그리고 인성지도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한세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전임연구원

2) 한세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연구원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설문조사는 2018학년도 한세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총 511명의 반응이 분석되었으며, 이는 전체 신입생 632명의 약 85.6%에 해당 된다. 여기에서는 불성실하게 답한 설문을 제외하고 525명의 설문만 통계에 이용하였다. 응답자의 성별구성 및 학부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2. 조사도구 및 내용

본 실태조사에서 사용된 도구는 2017년 신입생 실태조사에서 사용했던 설문지를 중복된 문항은 삭제하고, 현재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신입생의 일반적 특성, 가정생활, 기타생활, 대학생활, PC사용, 이성 및 성(性)관련, 그리고 학생상담센터 이용, 자살관련 문항으로 8개 영역에 걸쳐, 총 75문항(하위 문항 제외)으로 구성되었다. 이 문항들의 주된 내용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인 신상 관련 :

- | | | | |
|----------|------------|------------|----------|
| (1) 학부 | (2) 성별 | (3) 연령 | (4) 건강상태 |
| (5) 대인관계 | (6) 자신의 성격 | (7) 자신의 외모 | (8) 흡연 |
| (9) 음주 | (10) 이성교제 | | |

2) 가정생활 관련 :

- | | | |
|---------------|------------------------|----------------|
| (1) 출신 고교 소재지 | (2) 고교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년도 | (3) 본인의 종교 |
| (4) 부모생존 여부 | (5) 부의 직업 | (6) 모의 직업 |
| (7) 경제적 계층 | (8) 학비조달방법 | (9) 재학 중 거주할 곳 |
| (10) 가정의 분위기 | (11) 가정에 대해 가장 불만스러운 점 | |

3) 기타 생활 관련 :

- | | | |
|--------------|----------------|-------------------|
| (1) 재수 경험 | (2) 군 입대 예정 시기 | (3) 한 달 용돈의 규모 |
| (4) 용돈의 주요용도 | (5) 아르바이트 희망여부 | (6)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이유 |

4) 대학 생활 관련 :

- | | | |
|-----------------------------------|----------------------|-----------------|
| (1) 대학 진학 동기 | (2) 기독교 학교에 대한 사전 지식 | (3) 본교를 알게 된 경로 |
| (4) 본교 입학 만족도 | (5) 입학 불만족 시 향후 계획 | (6) 학부 선택의 결정요인 |
| (7) 학부에 대한 사전지식 | (8) 학부의 결정시기 | |
| (9) 2학년 진학 시(전공학과 선택) 도움 받고자 하는 것 | (10) 복수전공의 이수용의 | |
| (11) 어학연수 또는 교환학생 신청여부 | (12) 교수에게서 가장 기대하는 것 | |
| (13) 대학생활에서 가장하고 싶은 것 | (14) 대학 졸업 후 진로 계획 | |

- | | |
|--------------------------|------------------------|
| (15) 직업 선택 시 제일 먼저 고려할 점 | (16) 취업 시 학교에 가장 원하는 것 |
| (17) 교내 동아리 참여 동기 | (18) 희망 동아리 영역 |
| (19) 대학생활 중 걱정되는 부분 | (20) 졸업 후 진로결정시 어려운 부분 |

5) 핸드폰 및 인터넷 사용 관련 :

- | | |
|---------------------|-------------------|
| (1) 하루 평균 핸드폰 이용 시간 | (2) 핸드폰 사용의 주된 용도 |
| (3) 인터넷 사용의 주된 용도 | |

6) 이성 및 성(性) 관련 :

- | | |
|-------------------------|----------------------|
| (1) 이성 교제 여부 | (2) 이성 교제 시 상대 선택기준 |
| (3) 이성 교제 시 신체접촉의 허용 수준 | (4) 혼전 성관계에 대한 견해 |
| (5) 피임에 대한 견해 | (6) 낙태에 대한 견해 |
| (7) 음란물의 접촉 횟수 | (8) 음란물에 대한 견해 |
| (9) 성추행.성희롱.성폭력의 경험 | (10) 9번 문항에 대한 대응방법 |
| (11) 성폭력에 대한 대처방법의 정도 | (12) 성교육시 가장 알고 싶은 것 |

7) 상담센터 관련:

- | | |
|--------------------------------|---------------------|
| (1) 최근 3개월간의 심리적 상태 | (2) 심리상담가의 필요 여부 |
| (3) 대학 내 갈등해결 위해 심리상담가 요청의도 여부 | |
| (4)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 | (5) 문제 발생 시 의논 상대 |
| (6) 상담실 이용 시 희망하는 영역 | (7) 개인상담시 희망하는 상담내용 |

8) 자살 관련:

- | | |
|-----------------------|-------------------------|
| (1) 고교시절 자살 생각 여부 | (2) 자살생각을 하게하는 문제 |
| (3) 자살생각이나 충동 시 진행 정도 | (4) 자살 충동이나 생각 시 하는 방법 |
| (5) 위 방법 사용의 효과 | (6) 자살생각 있는 주위사람을 도움 방법 |

3. 조사기간 및 절차

본 조사를 위한 기간은 2018년 3월 2일부터 3월10일까지로, 본교 1학년 교양필수과목인 「기독교와 세계」 수업 전후 시간과 신학부 채플시간을 활용하여 설문지를 집단배부, 회수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Raw Data)는 IBM SPSS Statistics 19를 활용하여 각 문항별 반응 빈도와 성별, 학부별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개인 신상 관련

1) 성별 분포

신입생 전체응답자 511명 중 설문에 가장 많이 참여한 학부는 사회과학부(15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참여율은 <표 1>에서와 같이 남학생 34.8% 여학생 65.2%의 참여율을 보였다. 작년비율(남녀 각각 30.1%, 69.9%)과 비교했을 때 여학생의 비율은 조금 낮아진 반면, 남학생의 비율은 다소 높아졌다. 학부별 남녀비율을 보면, 남학생은 IT학부(61.5%)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는 신학부(48.9%), 사회과학부(45.3%), 국제언어학부(31.7%), 예술학부(22.4%)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부는 디자인학부(82.90%), 간호학부(80.0%), 예술학부(77.6%), 국제언어학부(68.3%), 사회과학부(54.7%) 순이다. 신입생 전체 중 여학생의 비율은 증가추세(2011년 63.4%, 2012년 64.8%, 2013년 66.5%, 2014년 66.8%)를 보이며 2016년 63.5%, 2017년 69.9%로 계속 증가하다가 올해는 65.2%로 다소 감소하였다.

<표 1> 성별 분포

단위:명,%

	남	여	전체
신학부	22	23	45
	48.9	51.1	100.0
사회과학부	68	82	150
	45.3	54.7	100.0
국제언어학부	13	28	41
	31.7	68.3	100.0
IT학부	32	20	52
	61.5	38.5	100.0
예술학부	13	45	58
	22.4	77.6	100.0
디자인학부	18	87	105
	17.1	82.9	100.0
간호복지학부	12	48	60
	20.0	80.0	100.0
전체	178	333	511
	34.8	65.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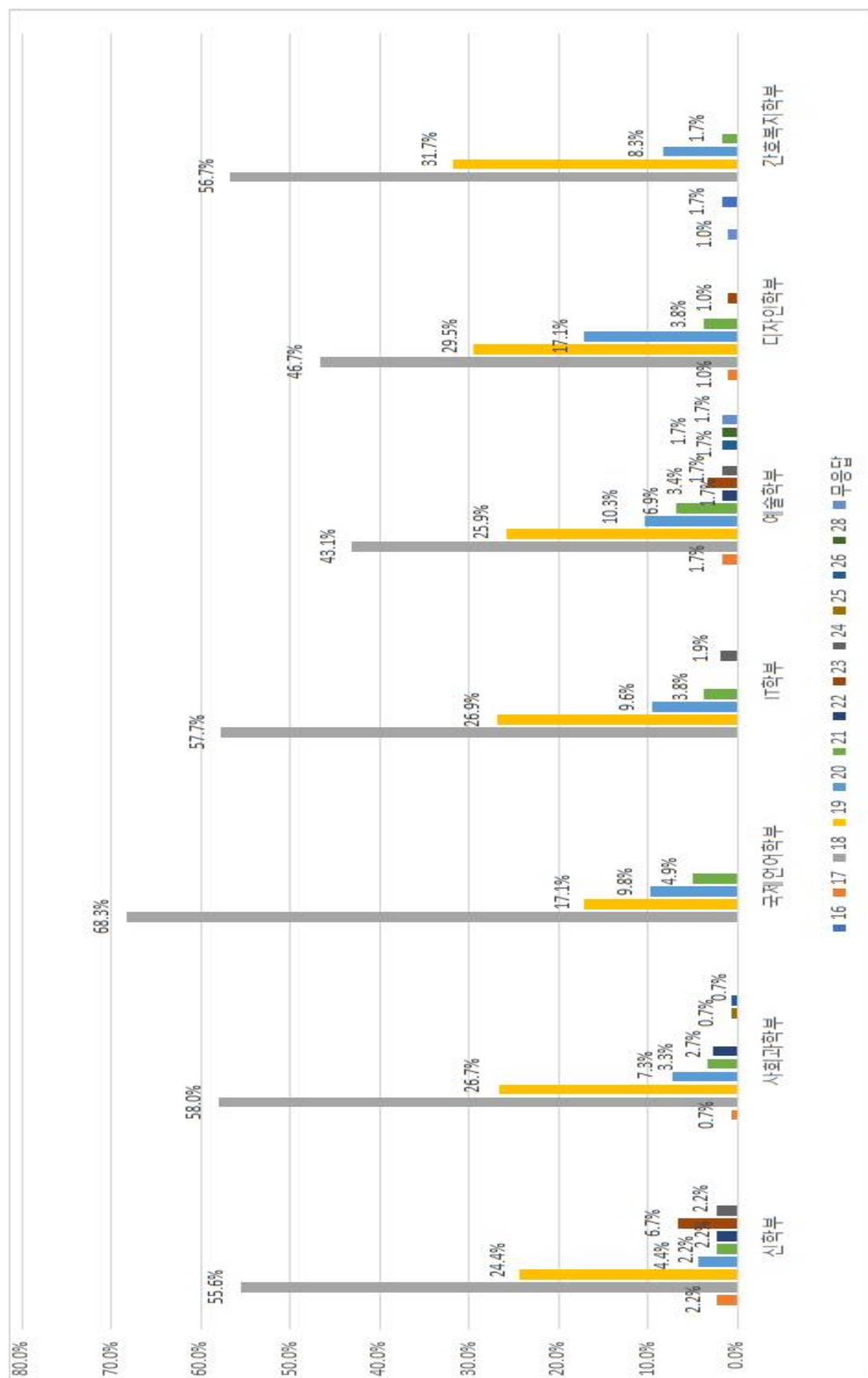
2) 연령 분포

2018학년도 신입생들의 연령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금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기록하여 살펴보았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 18세가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만 19세(26.8%), 만 20세(10.0%)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는 국제언어학부가 68.3%로 만 18세 신입생의 비율이 높았고, 사회과학부(58.0%), IT학부(57.7%), 간호복지학부(56.7%), 신학부(55.6%), 디자인학부(46.7%) 순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만 18세에 해당하는 여학생(55.6%)의 비율이 남학생(52.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2 > 연령 분포

단위:명,%

	나이													전체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8세	무응답	
남	0	1	93	49	14	8	3	4	2	1	1	1	1	178
	0.0 %	0.6 %	52.2 %	27.5 %	7.9 %	4.5 %	1.7 %	2.2 %	1.1 %	0.6 %	0.6 %	0.6 %	0.6 %	100.0%
여	1	3	185	88	37	11	3	2	1	0	1	0	1	333
	0.3 %	0.9 %	55.6 %	26.4 %	11.1 %	3.3 %	0.9 %	0.6 %	0.3 %	0.0 %	0.3 %	0.0 %	0.3 %	100.0%
신학부	0	1	25	11	2	1	1	3	1	0	0	0	0	45
	0.0 %	2.2 %	55.6 %	24.4 %	4.4 %	2.2 %	2.2 %	6.7 %	2.2 %	0.0 %	0.0 %	0.0 %	0.0 %	100.0%
사회과학부	0	1	87	40	11	5	4	0	0	1	1	0	0	150
	0.00 %	0.7 %	58.0 %	26.7 %	7.3 %	3.3 %	2.7 %	0.0 %	0.0 %	0.7 %	0.7 %	0.0 %	0.0 %	100.0%
국제언어학부	0	0	28	7	4	2	0	0	0	0	0	0	0	41
	0.0 %	0.0 %	68.3 %	17.1 %	9.8 %	4.9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100.0%
IT학부	0	0	30	14	5	2	0	0	1	0	0	0	0	52
	0.0 %	0.0 %	57.7 %	26.9 %	9.6 %	3.8 %	0.0 %	0.0 %	1.9 %	0.0 %	0.0 %	0.0 %	0.0 %	100.0%
예술학부	0	1	25	15	6	4	1	2	1	0	1	1	1	58
	0.0 %	1.7 %	43.1 %	25.9 %	10.3 %	6.9 %	1.7 %	3.4 %	1.7 %	0.0 %	1.7 %	1.7 %	1.7 %	100.0%
디자인학부	0	1	49	31	18	4	0	1	0	0	0	0	1	105
	0.0 %	1.0 %	46.7 %	29.5 %	17.1 %	3.8 %	0.0 %	1.0 %	0.0 %	0.0 %	0.0 %	0.0 %	1.0 %	100.0%
간호복지학부	1	0	34	19	5	1	0	0	0	0	0	0	0	60
	1.7 %	0.0 %	56.7 %	31.7 %	8.3 %	1.7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100.0%
전체	1	4	278	137	51	19	6	6	3	1	2	1	2	511
	0.2 %	0.8 %	54.4 %	26.8 %	10.0 %	3.7 %	1.2 %	1.2 %	0.6 %	0.2 %	0.4 %	0.2 %	0.4 %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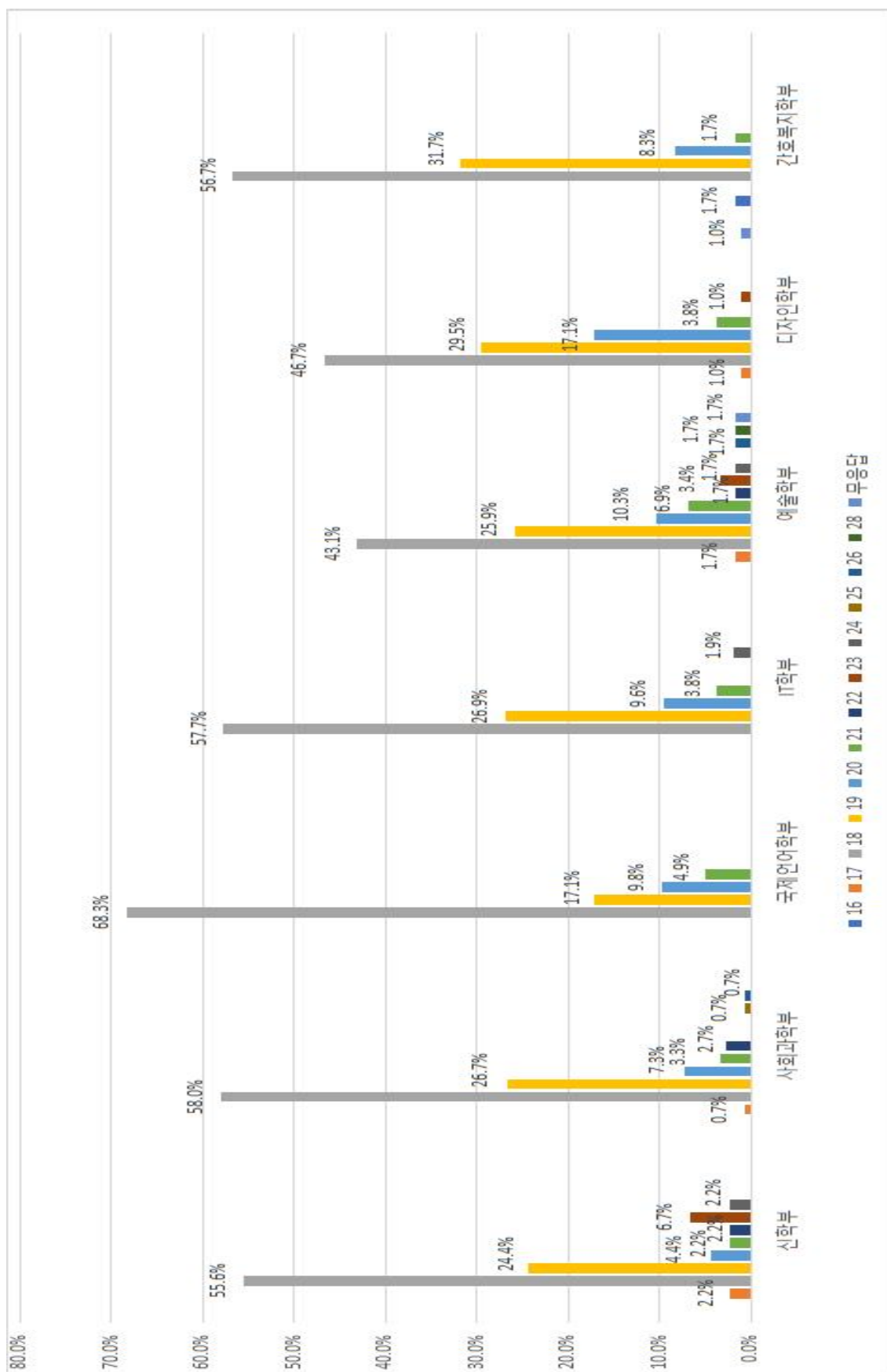
3) 건강상태

신입생들 중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26.0%), 매우 만족(23.7%) 순이었다. 건강상태에 대해 매우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학생(23.7%)은 작년(20.2%)에 비해 증가하였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여학생의 경우 만족(44.1%), 보통(30.3%), 매우 만족(17.4%) 순으로, 남학생의 경우도 만족(39.9%), 매우 만족(35.4%), 보통(18.5%) 순으로 응답하여 남녀 모두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건강상태에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남학생(35.4%)이 여학생(17.4%)에 비해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표 3> 건강상태 만족도

단위:명,%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무응답	전체
남	63	71	33	10	0	1	178
	35.4	39.9	18.5	5.6	0.0	0.6	100.0
여	58	147	100	24	3	1	333
	17.4	44.1	30.3	7.2	0.9	0.3	100.0
신학부	14	21	5	5	0	0	45
	31.1	46.7	11.1	11.1	0.0	0.0	100.0
사회과학부	46	65	35	3	1	0	150
	30.7	43.3	23.3	2.0	0.7	0.0	100.0
국제언어학부	12	17	11	1	0	0	41
	29.3	41.5	26.8	2.4	0.0	0.0	100.0
IT학부	12	24	11	5	0	0	52
	23.1	46.2	21.2	9.6	0.0	0.0	100.0
예술학부	7	23	22	5	0	1	58
	12.1	39.7	37.9	8.6	0.0	1.7	100.0
디자인학부	21	44	29	9	1	1	105
	20.0	41.9	27.6	8.6	1.0	1.0	100.0
간호복지학부	9	24	20	6	1	0	60
	15.0	40.0	33.3	10.0	1.7	0.0	100.0
전체	121	218	133	34	3	2	511
	23.7	42.7	26.0	6.7	0.6	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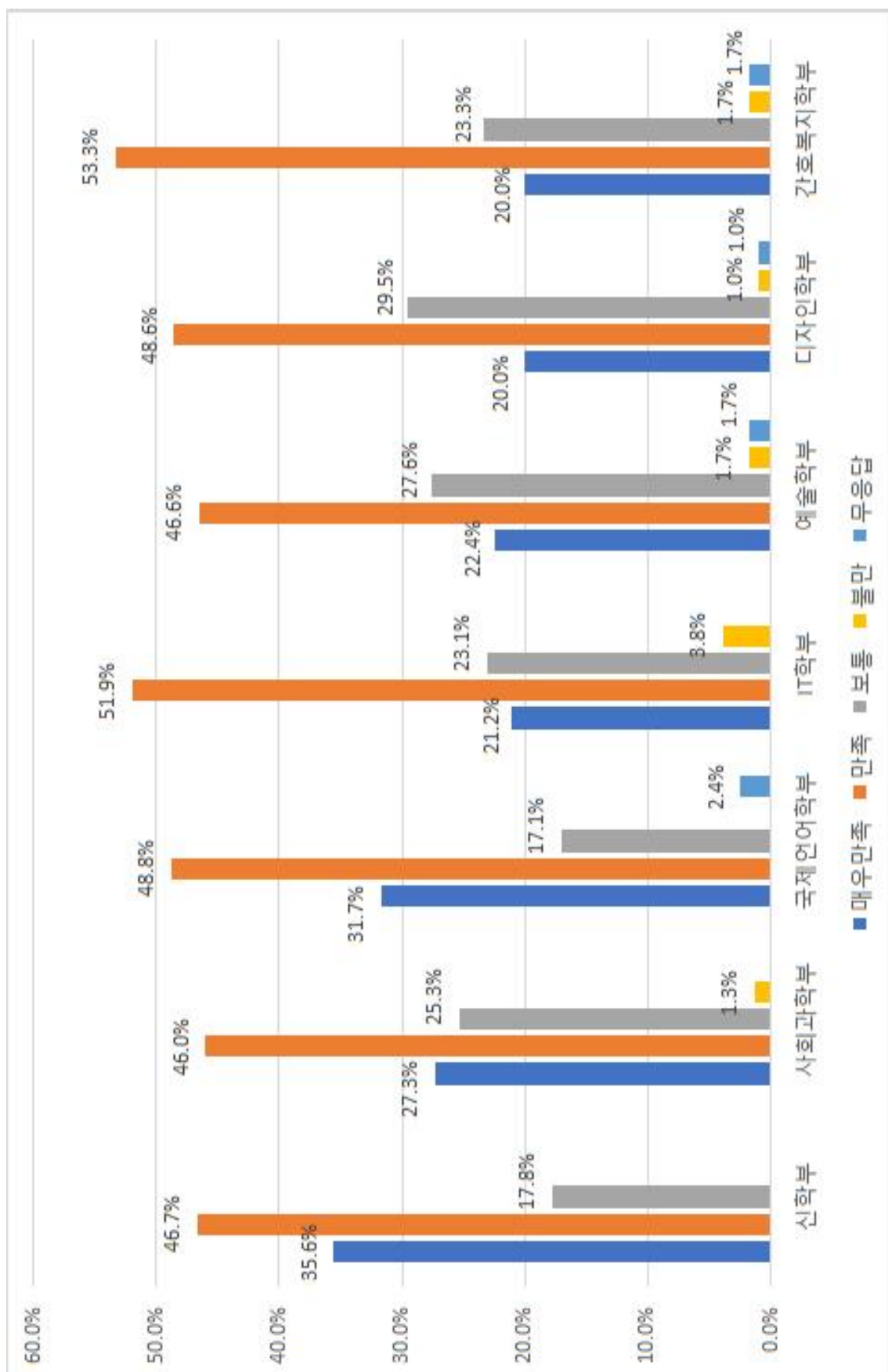
4) 대인관계

신입생들의 대부분은 대인관계에 대해 만족(48.3%)하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매우만족(24.9%)으로 응답했으며, 보통(24.7%)이 뒤를 이었다. 학부별로는 간호복지학부가 53.3%로 대인관계에 만족하다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IT학부(51.9%), 국제언어학부(48.8%), 디자인학부(48.6%), 신학부(46.7%) 순으로 만족도가 나타났다. 성별을 비교하면 남학생(75.2%)이 여학생(72.1%)에 비해 대인관계에 만족(매우 만족, 만족)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4> 대인관계 만족도

단위:명, %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무응답	전체
남	62	72	38	4	2	178
	34.8%	40.4%	21.3%	2.2%	1.1%	100.0%
여	65	175	88	3	2	333
	19.5%	52.6%	26.4%	0.9%	0.6%	100.0%
신학부	16	21	8	0	0	45
	35.6%	46.7%	17.8%	0.0%	0.0%	100.0%
사회과학부	41	69	38	2	0	150
	27.3%	46.0%	25.3%	1.3%	0.0%	100.0%
국제언어학부	13	20	7	0	1	41
	31.7%	48.8%	17.1%	0.0%	2.4%	100.0%
IT학부	11	27	12	2	0	52
	21.2%	51.9%	23.1%	3.8%	0.0%	100.0%
예술학부	13	27	16	1	1	58
	22.4%	46.6%	27.6%	1.7%	1.7%	100.0%
디자인학부	21	51	31	1	1	105
	20.0%	48.6%	29.5%	1.0%	1.0%	100.0%
간호복지학부	12	32	14	1	1	60
	20.0%	53.3%	23.3%	1.7%	1.7%	100.0%
전체	127	247	126	7	4	511
	24.9%	48.3%	24.7%	1.4%	0.8%	100.0%



5) 자신의 성격

신입생들이 자신의 성격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보통(33.3%), 매우 만족(18%)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가 ‘보통’이상(매우 만족, 만족, 보통)은 95.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학부별로 비교했을 때 자신의 성격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디자인학부가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볼 때 남학생(66.8%)이 여학생(59.1%) 보다 자신의 성격에 대한 만족(매우 만족, 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2017년도와 비교(남학생 62.1%, 여학생 57.8%)했을 때, 자신의 성격에 만족하는 학생의 비율이 더 증가하였다.

<표 5> 자신의 성격 만족도

단위:명, %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무응답	전체
남	47	72	54	3	1	1	178
	26.4%	40.4%	30.3%	1.7%	0.6%	0.6%	100.0%
여	45	152	116	17	1	2	333
	13.5%	45.6%	34.8%	5.1%	0.3%	0.6%	100.0%
신학부	11	19	14	1	0	0	45
	24.4%	42.2%	31.1%	2.2%	0.0%	0.0%	100.0%
사회과학부	27	68	48	6	1	0	150
	18.0%	45.3%	32.0%	4.0%	0.7%	0.0%	100.0%
국제언어학부	9	19	13	0	0	0	41
	22.0%	46.3%	31.7%	0.0%	0.0%	0.0%	100.0%
IT학부	9	23	18	2	0	0	52
	17.3%	44.2%	34.6%	3.8%	0.0%	0.0%	100.0%
예술학부	10	24	20	3	0	1	58
	17.2%	41.4%	34.5%	5.2%	0.0%	1.7%	100.0%
디자인학부	16	51	31	5	1	1	105
	15.2%	48.6%	29.5%	4.8%	1.0%	1.0%	100.0%
간호복지학부	10	20	26	3	0	1	60
	16.7%	33.3%	43.3%	5.0%	0.0%	1.7%	100.0%
전체	92	224	170	20	2	3	511
	18.0%	43.8%	33.3%	3.9%	0.4%	0.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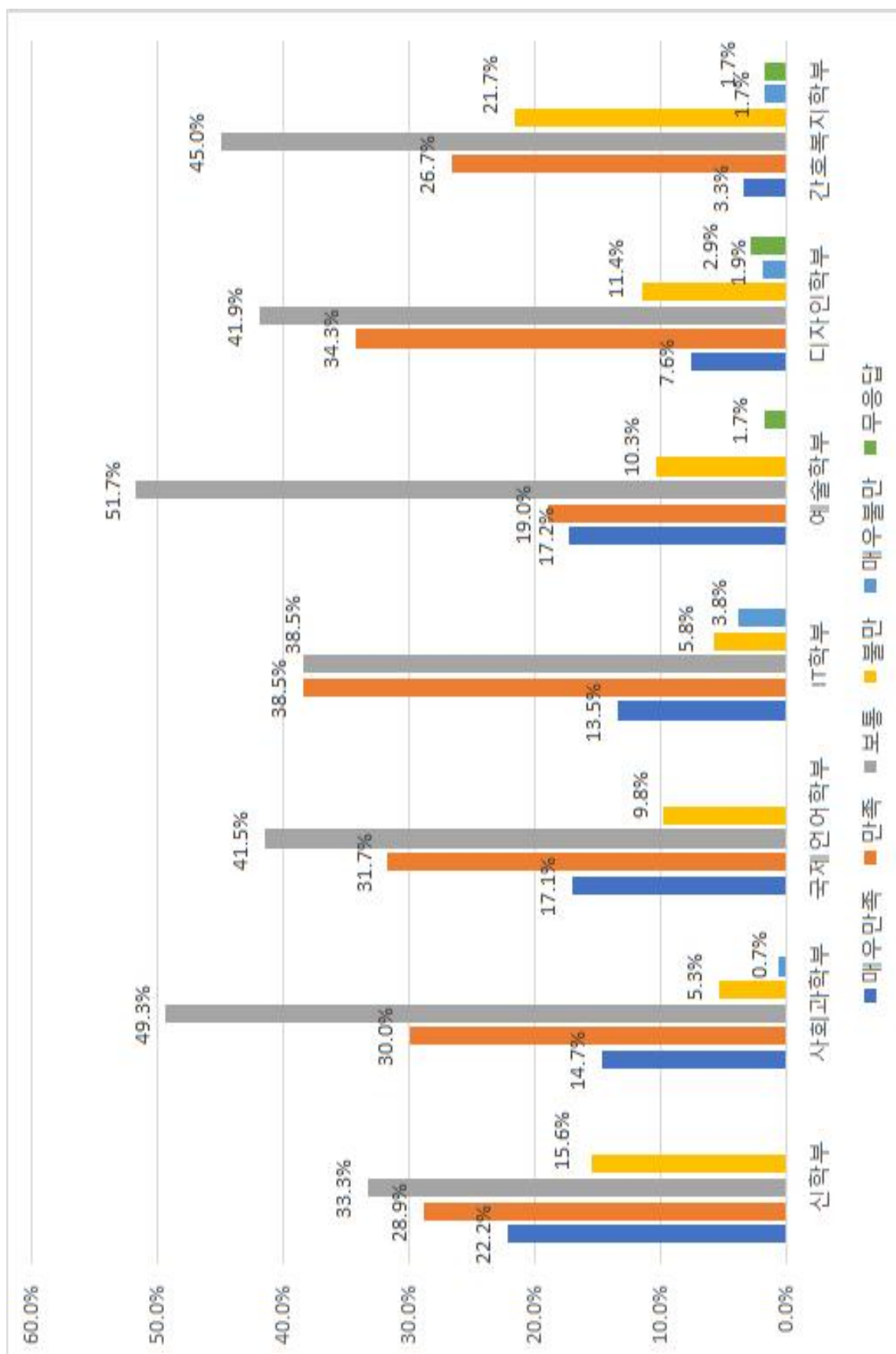
6) 자신의 외모

신입생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에 '보통'이라 응답한 학생이 44.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만족(30.1%), 매우 만족(12.9%), 불만(10.4%)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는 예술학부가 51.7%로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에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사회과학부(49.3%), 간호복지학부(45.0%), 디자인학부(41.9%), 국제언어학부(41.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33.1%, 여학생은 50.5%로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만족 이상(매우만족, 만족)을 보면, 학부별로는 신학부(62.2%), IT학부(52.0%), 사회과학부(44.7%)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55.6%)이 여학생(36.3%)에 비해 자신의 외모에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자신의 외모 만족도

단위:명, %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무응답	전체
남	40	59	59	14	4	2	178
	22.5%	33.1%	33.1%	7.9%	2.2%	1.1%	100.0%
여	26	95	168	39	2	3	333
	7.8%	28.5%	50.5%	11.7%	0.6%	0.9%	100.0%
신학부	10	13	15	7	0	0	45
	22.2%	28.9%	33.3%	15.6%	0.0%	0.0%	100.0%
사회과학부	22	45	74	8	1	0	150
	14.7%	30.0%	49.3%	5.3%	0.7%	0.0%	100.0%
국제언어학부	7	13	17	4	0	0	41
	17.1%	31.7%	41.5%	9.8%	0.0%	0.0%	100.0%
IT학부	7	20	20	3	2	0	52
	13.5%	38.5%	38.5%	5.8%	3.8%	0.0%	100.0%
예술학부	10	11	30	6	0	1	58
	17.2%	19.0%	51.7%	10.3%	0.0%	1.7%	100.0%
디자인학부	8	36	44	12	2	3	105
	7.6%	34.3%	41.9%	11.4%	1.9%	2.9%	100.0%
간호복지학부	2	16	27	13	1	1	60
	3.3%	26.7%	45.0%	21.7%	1.7%	1.7%	100.0%
전체	66	154	227	53	6	5	511
	12.9%	30.1%	44.4%	10.4%	1.2%	1.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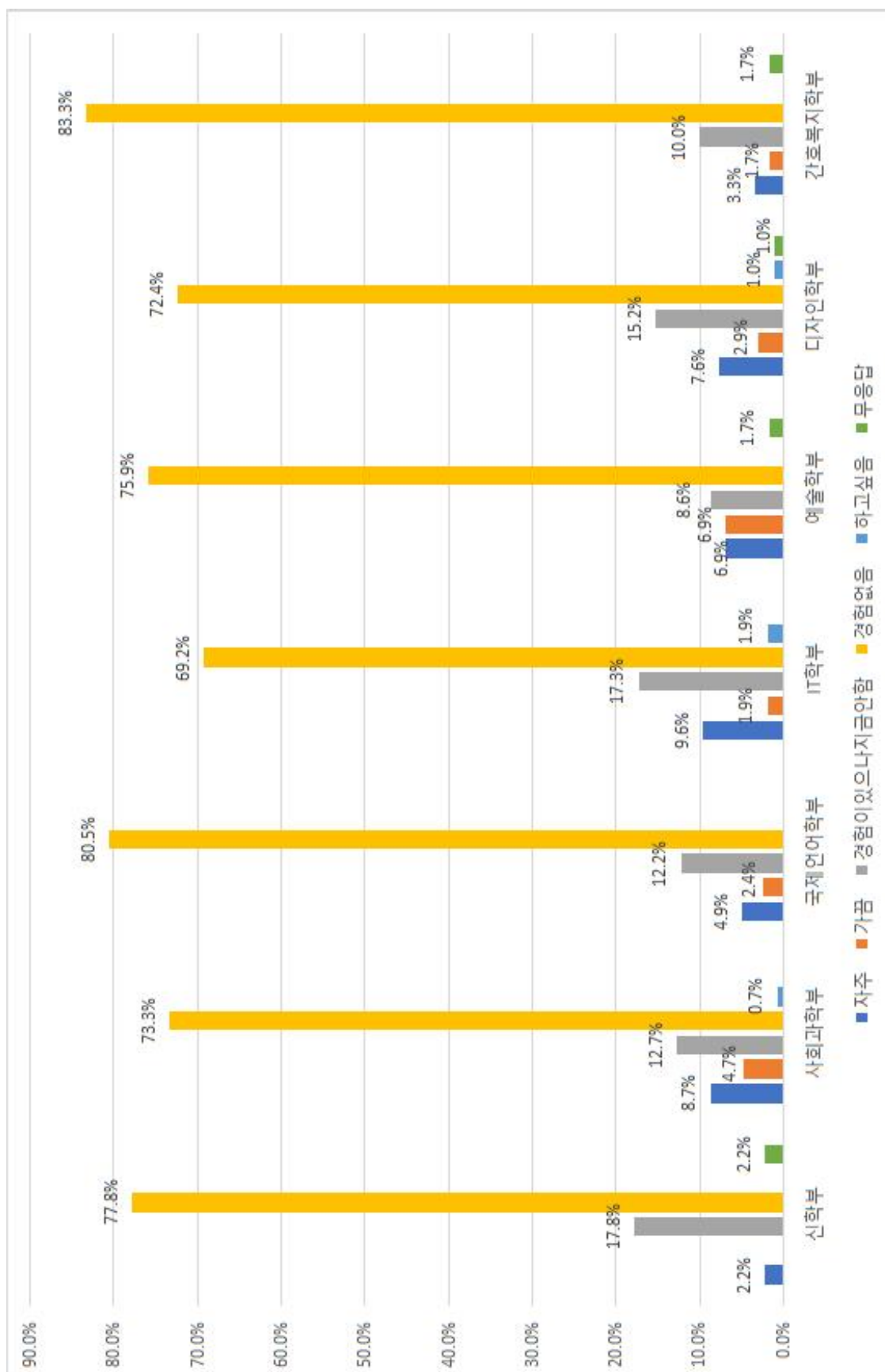
7) 흡연

신입생들의 흡연 경험정도를 알아보면, 전체 응답자의 75.1%가 흡연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경험은 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3.3%, 자주 한다는 응답이 6.8%, 가끔 한다는 응답도 3.3%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보면 현재 흡연을 하는 학생은 예술학부가 13.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사회과학부13.4%였다. 반면, 신학부는 2.2%로 현재 흡연하는 학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57.3%, 여학생의 84.7%가 흡연 경험이 없다고 응답해 여학생의 흡연 경험이 남학생의 흡연 경험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흡연 경험

단위:명,%

	자주	가끔	경험 있으나 지금 안함	경험 없음	하고 싶음	무응답	전체
남	31	8	36	102	0	1	178
	17.4%	4.5%	20.2%	57.3%	0.0%	0.6%	100.0%
여	4	9	32	282	3	3	333
	1.2%	2.7%	9.6%	84.7%	0.9%	0.9%	100.0%
신학부	1	0	8	35	0	1	45
	2.2%	0.0%	17.8%	77.8%	0.0%	2.2%	100.0%
사회과학부	13	7	19	110	1	0	150
	8.7%	4.7%	12.7%	73.3%	0.7%	0.0%	100.0%
국제언어학부	2	1	5	33	0	0	41
	4.9%	2.4%	12.2%	80.5%	0.0%	0.0%	100.0%
IT학부	5	1	9	36	1	0	52
	9.6%	1.9%	17.3%	69.2%	1.9%	0.0%	100.0%
예술학부	4	4	5	44	0	1	58
	6.9%	6.9%	8.6%	75.9%	0.0%	1.7%	100.0%
디자인학부	8	3	16	76	1	1	105
	7.6%	2.9%	15.2%	72.4%	1.0%	1.0%	100.0%
간호복지학부	2	1	6	50	0	1	60
	3.3%	1.7%	10.0%	83.3%	0.0%	1.7%	100.0%
전체	35	17	68	384	3	4	511
	6.8%	3.3%	13.3%	75.1%	0.6%	0.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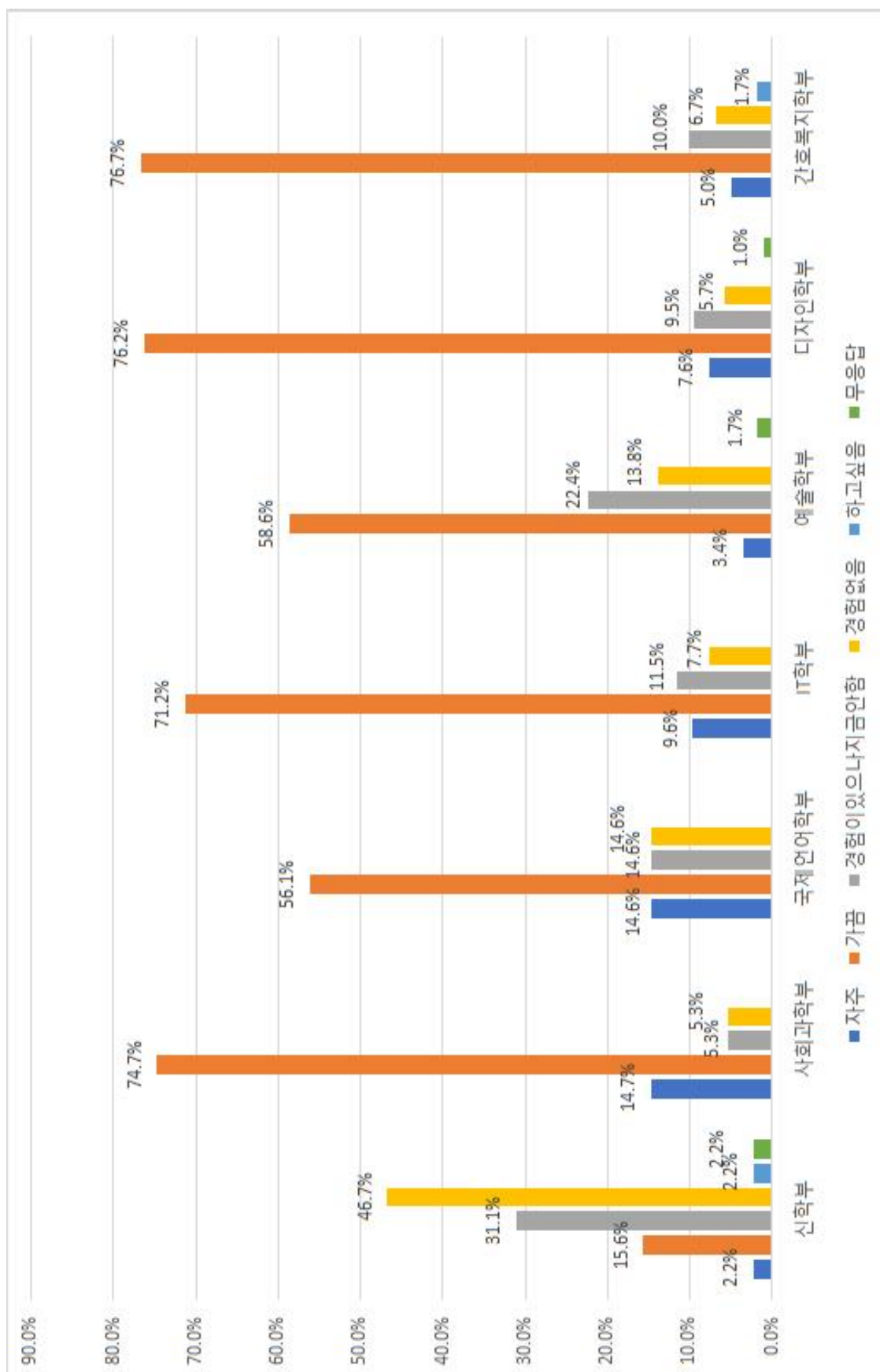
8) 음주

신입생들의 음주 경험 정도를 알아보면, 전체의 87.8%가 음주 경험이 있으며, 전체의 75.5%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보면 사회과학부가 14.7%로 음주를 자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가끔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디자인학부와 간호복지학부가 76.2%, 7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학부의 경우는 없음이 46.7%, 경험은 있으나 지금은 안하는 비율이 31.1%로 다른 학부에 비해 음주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음주를 하는(자주, 가끔) 비율이 남학생 여학생 각각 74.2%, 76.3%로 작년(남학생 70.3%, 여학생 68.9%)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음주 경험

단위:명, %

	자주	가끔	경험 있으나 지금 안함	경험없음	하고싶음	무응답	전체
남	26	106	24	21	0	1	178
	14.6%	59.6%	13.5%	11.8%	0.0%	0.6%	100.0%
여	21	233	39	36	2	2	333
	6.3%	70.0%	11.7%	10.8%	0.6%	0.6%	100.0%
신학부	1	7	14	21	1	1	45
	2.2%	15.6%	31.1%	46.7%	2.2%	2.2%	100.0%
사회과학부	22	112	8	8	0	0	150
	14.7%	74.7%	5.3%	5.3%	0.0%	0.0%	100.0%
국제언어학부	6	23	6	6	0	0	41
	14.6%	56.1%	14.6%	14.6%	0.0%	0.0%	100.0%
IT학부	5	37	6	4	0	0	52
	9.6%	71.2%	11.5%	7.7%	0.0%	0.0%	100.0%
예술학부	2	34	13	8	0	1	58
	3.4%	58.6%	22.4%	13.8%	0.0%	1.7%	100.0%
디자인학부	8	80	10	6	0	1	105
	7.6%	76.2%	9.5%	5.7%	0.0%	1.0%	100.0%
간호복지학부	3	46	6	4	1	0	60
	5.0%	76.7%	10.0%	6.7%	1.7%	0.0%	100.0%
전체	47	339	63	57	2	3	511
	9.2%	66.3%	12.3%	11.2%	0.4%	0.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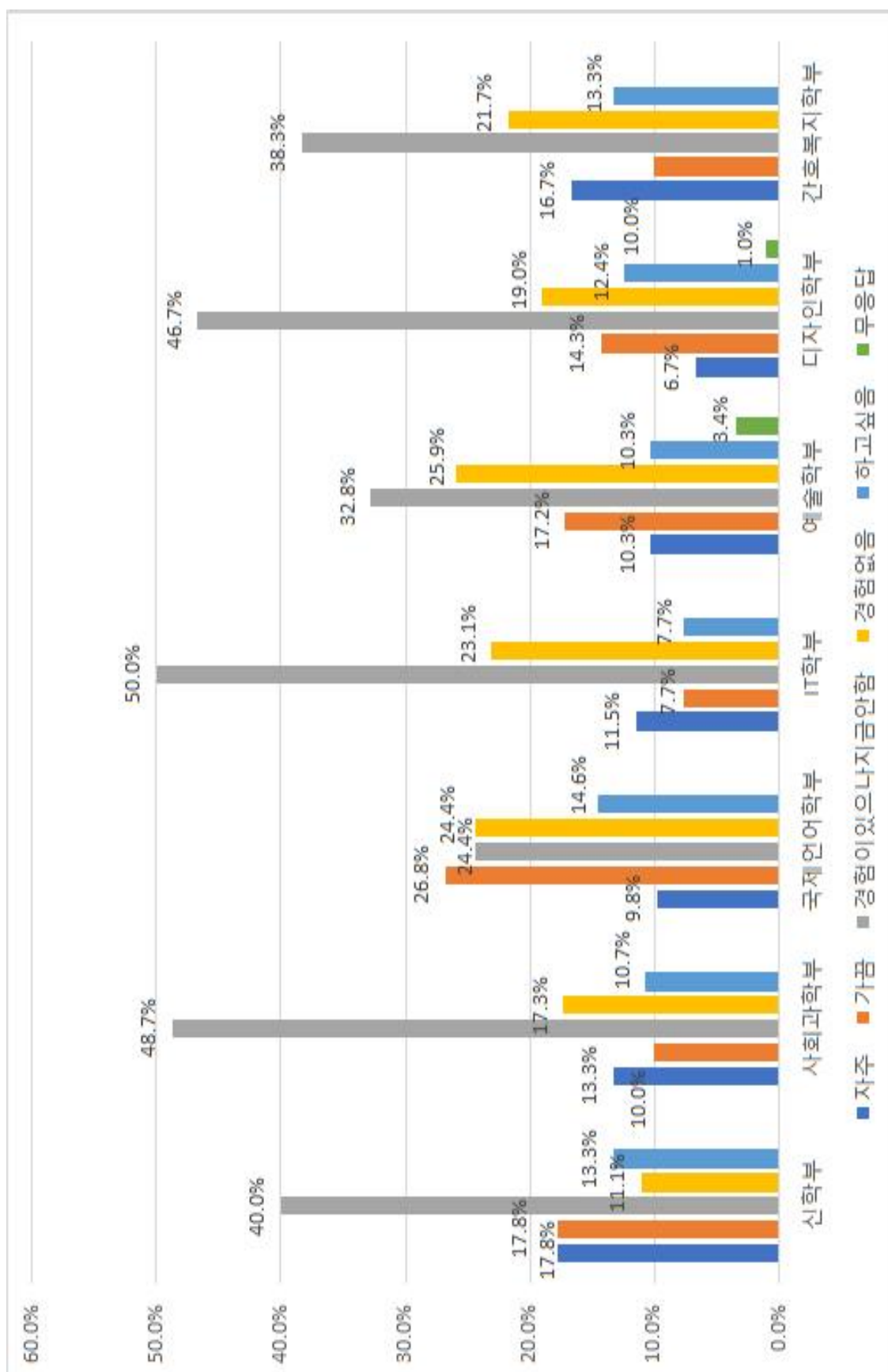
9) 이성교제

신입생들의 이성교제에 대한 경험정도를 살펴보면, 이성교제의 경험은 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고 응답이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경험 없음(19.8%), 가끔 (13.5%), 하고 싶음(11.5%) 순으로 나타났다. 경험은 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IT학부(50.0%)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사회과학부(48.7%), 디자인 학부(46.7%)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이성교제의 경험은 있으나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남학생 42.1%, 여학생 42.9%로 가장 많았다. 반면 예술학부는 '경험 없음'이 2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9> 이성교제 경험

단위:명,%

	자주	가끔	경험 있으나 지금 안함	경험없음	하고싶음	무응답	전체
남	28	27	75	25	22	1	178
	15.7%	15.2%	42.1%	14.0%	12.4%	0.6%	100.0%
여	33	42	143	76	37	2	333
	9.9%	12.6%	42.9%	22.8%	11.1%	0.6%	100.0%
신학부	8	8	18	5	6	0	45
	17.8%	17.8%	40.0%	11.1%	13.3%	0.0%	100.0%
사회과학부	20	15	73	26	16	0	150
	13.3%	10.0%	48.7%	17.3%	10.7%	0.0%	100.0%
국제언어학부	4	11	10	10	6	0	41
	9.8%	26.8%	24.4%	24.4%	14.6%	0.0%	100.0%
IT학부	6	4	26	12	4	0	52
	11.5%	7.7%	50.0%	23.1%	7.7%	0.0%	100.0%
예술학부	6	10	19	15	6	2	58
	10.3%	17.2%	32.8%	25.9%	10.3%	3.4%	100.0%
디자인학부	7	15	49	20	13	1	105
	6.7%	14.3%	46.7%	19.0%	12.4%	1.0%	100.0%
간호복지학부	10	6	23	13	8	0	60
	16.7%	10.0%	38.3%	21.7%	13.3%	0.0%	100.0%
전체	61	69	218	101	59	3	511
	11.9%	13.5%	42.7%	19.8%	11.5%	0.6%	100.0%



2. 가정생활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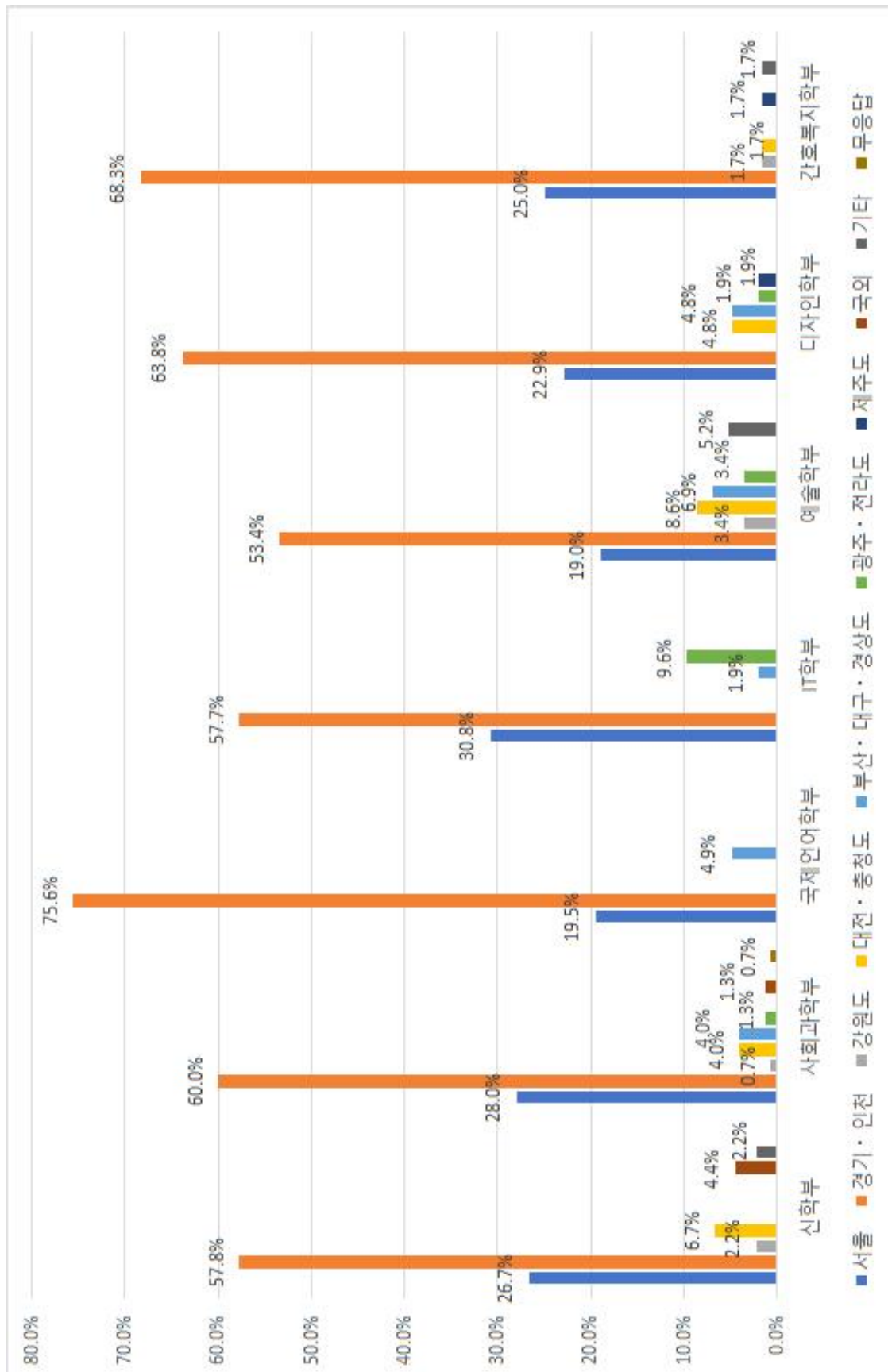
1) 출신고교 소재지

신입생들의 출신고교 지역은 경기·인천지역이 6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서울(25%), 대전·충청도(3.9%), 부산·대구·경상도(3.5%), 광주·전라도(2.2%)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경기·인천지역 고교출신이 국제언어학부가 7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에 비해 서울고교출신으로 응답한 비율은 IT학부가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의 64.9%, 남학생은 56.2%가 경기·인천지역 고교출신이라고 응답했다.

<표 10> 출신 고교 소재지

단위:명,%

	서울	경기 인천	강원도	대전· 충청도	부산· 대구· 경상도	광주· 전라도	제주도	국외	기타	전체
남	47	100	1	9	7	7	0	4	2	1
	26.4%	56.2%	0.6%	5.1%	3.9%	3.9%	0.0%	2.2%	1.1%	0.6%
여	81	216	4	11	11	4	3	0	3	0
	24.3%	64.9%	1.2%	3.3%	3.3%	1.2%	0.9%	0.0%	0.9%	0.0%
신학부	12	26	1	3	0	0	0	2	1	0
	26.7%	57.8%	2.2%	6.7%	0.0%	0.0%	0.0%	4.4%	2.2%	0.0%
사회과학부	42	90	1	6	6	2	0	2	0	1
	28.0%	60.0%	0.7%	4.0%	4.0%	1.3%	0.0%	1.3%	0.0%	0.7%
국제언어학부	8	31	0	0	2	0	0	0	0	0
	19.5%	75.6%	0.0%	0.0%	4.9%	0.0%	0.0%	0.0%	0.0%	0.0%
IT학부	16	30	0	0	1	5	0	0	0	0
	30.8%	57.7%	0.0%	0.0%	1.9%	9.6%	0.0%	0.0%	0.0%	0.0%
예술학부	11	31	2	5	4	2	0	0	3	0
	19.0%	53.4%	3.4%	8.6%	6.9%	3.4%	0.0%	0.0%	5.2%	0.0%
디자인학부	24	67	0	5	5	2	2	0	0	0
	22.9%	63.8%	0.0%	4.8%	4.8%	1.9%	1.9%	0.0%	0.0%	0.0%
간호복지학부	15	41	1	1	0	0	1	0	1	0
	25.0%	68.3%	1.7%	1.7%	0.0%	0.0%	1.7%	0.0%	1.7%	0.0%
전체	128	316	5	20	18	11	3	4	5	1
	25.0%	61.8%	1.0%	3.9%	3.5%	2.2%	0.6%	0.8%	1.0%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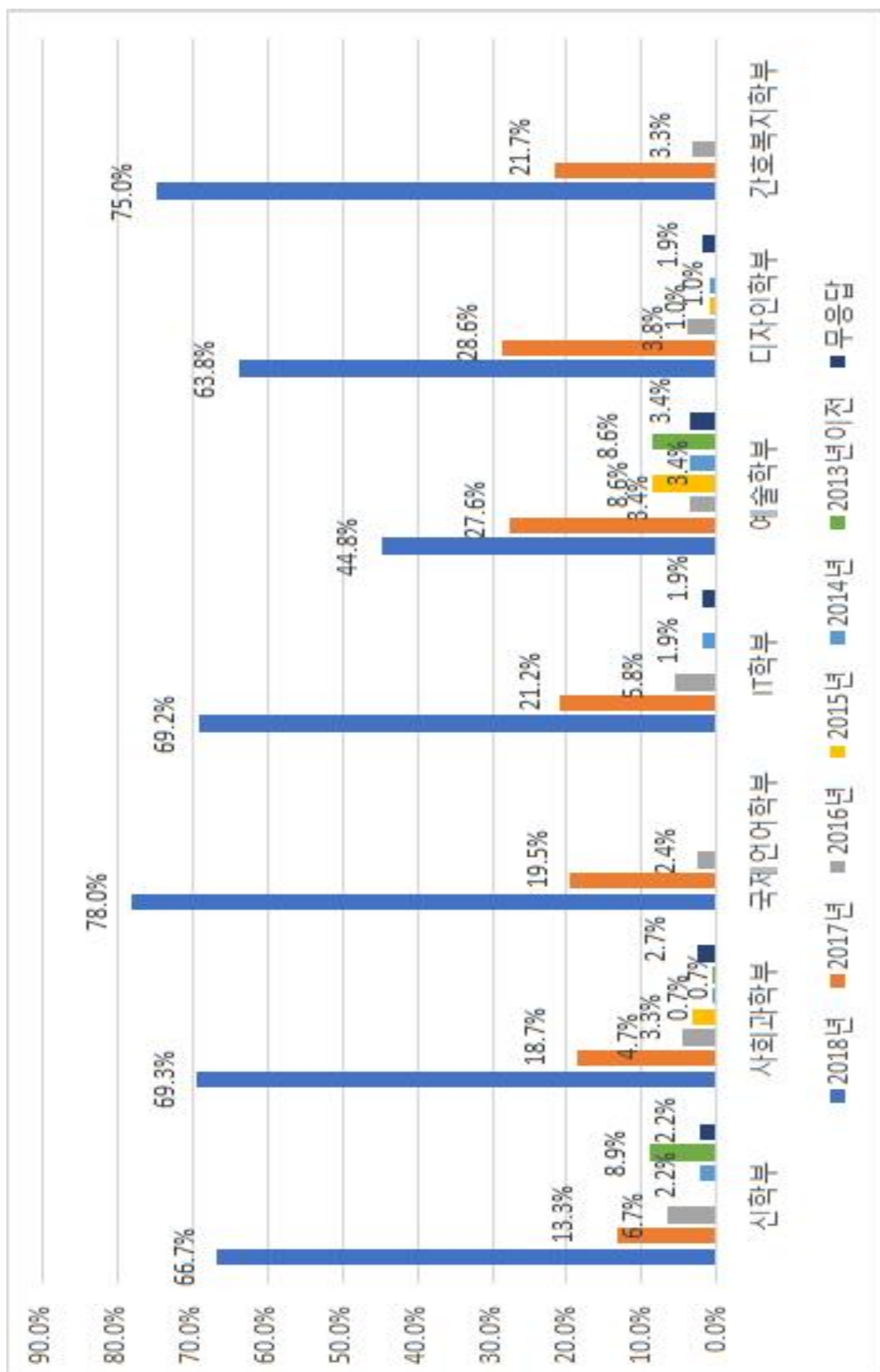
2) 고교 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년도

신입생들의 고교 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년도는 2017년도가 66.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16년도(21.9%), 2015년도(4.3%), 2014년(2.2%) 순이었다. 합격년도가 2017년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국제언어학부가 7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간호복지학부(75.0%), 사회과학부(69.3%), IT학부(69.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68.5%)이 남학생(62.9%)보다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1> 고교 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년도

단위:명,%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이전	무응답	전체
남	112	38	11	4	3	6	4	178
	62.9%	21.3%	6.2%	2.2%	1.7%	3.4%	2.2%	100.0%
여	228	74	11	7	3	4	6	333
	68.5%	22.2%	3.3%	2.1%	0.9%	1.2%	1.8%	100.0%
신학부	30	6	3	0	1	4	1	45
	66.7%	13.3%	6.7%	0.0%	2.2%	8.9%	2.2%	100.0%
사회과학부	104	28	7	5	1	1	4	150
	69.3%	18.7%	4.7%	3.3%	0.7%	0.7%	2.7%	100.0%
국제언어학부	32	8	1	0	0	0	0	41
	78.0%	19.5%	2.4%	0.0%	0.0%	0.0%	0.0%	100.0%
IT학부	36	11	3	0	1	0	1	52
	69.2%	21.2%	5.8%	0.0%	1.9%	0.0%	1.9%	100.0%
예술학부	26	16	2	5	2	5	2	58
	44.8%	27.6%	3.4%	8.6%	3.4%	8.6%	3.4%	100.0%
디자인학부	67	30	4	1	1	0	2	105
	63.8%	28.6%	3.8%	1.0%	1.0%	0.0%	1.9%	100.0%
간호복지학부	45	13	2	0	0	0	0	60
	75.0%	21.7%	3.3%	0.0%	0.0%	0.0%	0.0%	100.0%
전체	340	112	22	11	6	10	10	511
	66.5%	21.9%	4.3%	2.2%	1.2%	2.0%	2.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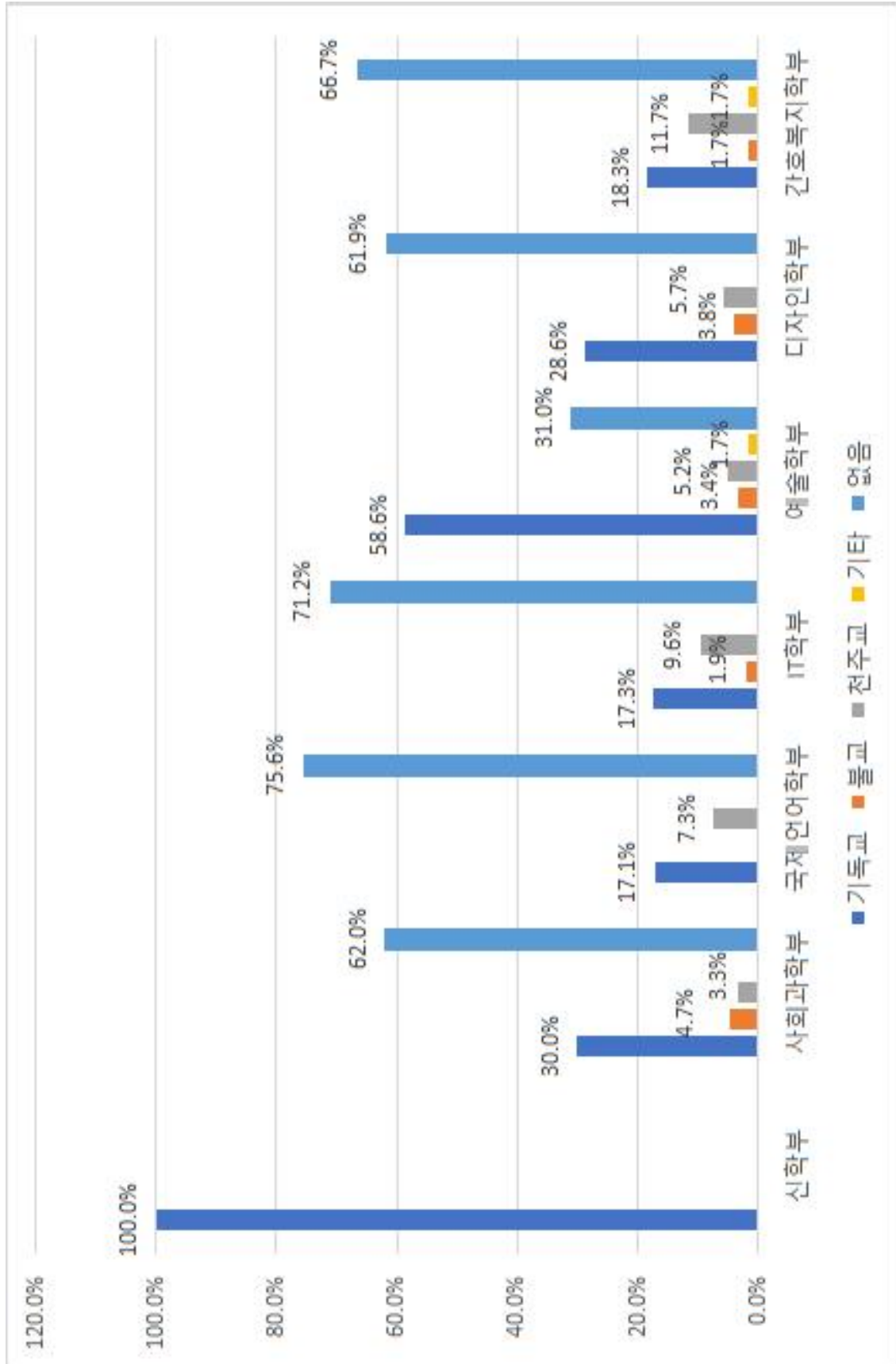
3) 본인의 종교

신입생들의 종교 분포를 살펴보면, 종교가 없다는 응답이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독교가 35.4%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경우 기독교 다음으로 천주교가 5.7%, 불교가 2.9%로 나타났다. 신학부, 예술학부에서는 기독교의 비중이 높았으나 그 외의 학부에서는 종교가 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국제언어학부(75.6%), IT학부(71.2%), 간호복지학부(66.7%), 사회과학부(62.0%), 디자인학부(61.9%)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기독교(41.6%)가 종교가 없다(48.3%)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보다 더 낮게 나타났으며, 여학생 역시 기독교(32.1%)라고 대답한 학생보다 종교가 없다(59.5%)고 대답한 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12> 본인의 종교

단위:명,%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	없음	전체
남	74	8	10	0	86	178
	41.6%	4.5%	5.6%	0.0%	48.3%	100.0%
여	107	7	19	2	198	333
	32.1%	2.1%	5.7%	0.6%	59.5%	100.0%
신학부	45	0	0	0	0	45
	100.0%	0.0%	0.0%	0.0%	0.0%	100.0%
사회과학부	45	7	5	0	93	150
	30.0%	4.7%	3.3%	0.0%	62.0%	100.0%
국제언어학부	7	0	3	0	31	41
	17.1%	0.0%	7.3%	0.0%	75.6%	100.0%
IT학부	9	1	5	0	37	52
	17.3%	1.9%	9.6%	0.0%	71.2%	100.0%
예술학부	34	2	3	1	18	58
	58.6%	3.4%	5.2%	1.7%	31.0%	100.0%
디자인학부	30	4	6	0	65	105
	28.6%	3.8%	5.7%	0.0%	61.9%	100.0%
간호복지학부	11	1	7	1	40	60
	18.3%	1.7%	11.7%	1.7%	66.7%	100.0%
전체	181	15	29	2	284	511
	35.4%	2.9%	5.7%	0.4%	55.6%	100.0%



4) 부모 생존 여부

양친이 모두 생존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9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모친만 생존한 경우 2.0%, 부친만 생존한 경우가 1.2%, 양친 이혼이 0.6%, 양친 별거한 경우가 0.2%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 성별로 특이한 사항 없이 비슷한 비율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표 13> 부모 생존 여부

단위:명, %

	양친 생존	모친만 생존	부친만 생존	양친 별거	양친 이혼	무응답	전체
남	166	4	2	0	1	5	0
	93.3%	2.2%	1.1%	0.0%	0.6%	2.8%	0.0%
여	307	6	4	1	2	12	1
	92.2%	1.8%	1.2%	0.3%	0.6%	3.6%	0.3%
신학부	44	0	1	0	0	0	0
	97.8%	0.0%	2.2%	0.0%	0.0%	0.0%	0.0%
사회과학부	140	2	1	0	0	7	0
	93.3%	1.3%	0.7%	0.0%	0.0%	4.7%	0.0%
국제언어학부	37	2	1	0	0	0	1
	90.2%	4.9%	2.4%	0.0%	0.0%	0.0%	2.4%
IT학부	48	1	1	0	0	2	0
	92.3%	1.9%	1.9%	0.0%	0.0%	3.8%	0.0%
예술학부	53	1	0	1	2	1	0
	91.4%	1.7%	0.0%	1.7%	3.4%	1.7%	0.0%
디자인학부	95	4	2	0	0	4	0
	90.5%	3.8%	1.9%	0.0%	0.0%	3.8%	0.0%
간호복지학부	56	0	0	0	1	3	0
	93.3%	0.0%	0.0%	0.0%	1.7%	5.0%	0.0%
전체	473	10	6	1	3	17	1
	92.6%	2.0%	1.2%	0.2%	0.6%	3.3%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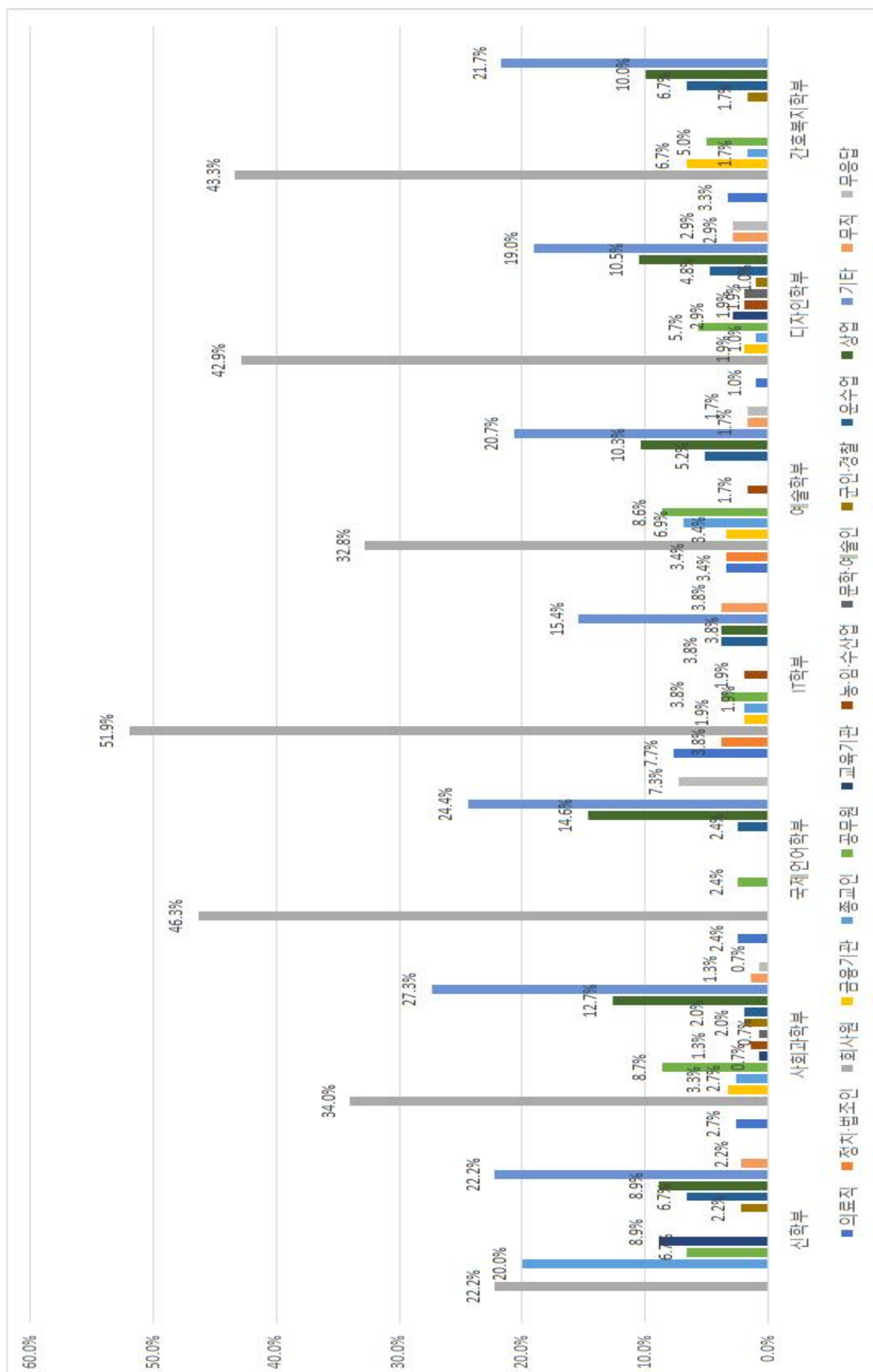
5) 부의 직업

아버지의 직업 비율은 회사원(38.6%), 기타(22.3%), 상업(10.6%)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IT학부의 51.9%가 부의 직업이 회사원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국제언어학부(46.3%), 간호복지학부(43.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32.6%가 부의 직업은 회사원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41.7%로 나타났다.

<표 14> 부의 직업

단위:명,%

	의료직	정치 법조인	회사원	금융 기관	종교인	공무원	교육 기관	농·임 수산업	문학 예술인	군인 경찰	운수업	상업	기타	무직	무응 답	전체
남	9	3	58	6	12	9	2	3	1	2	5	23	39	4	2	178
	5.1%	1.7%	32.6%	3.4%	6.7%	5.1%	1.1%	1.7%	0.6%	1.1%	2.8%	12.9%	21.9%	2.2%	1.1%	100.0%
여	5	1	139	8	8	24	6	3	2	4	16	31	75	5	6	333
	1.5%	0.3%	41.7%	2.4%	2.4%	7.2%	1.8%	0.9%	0.6%	1.2%	4.8%	9.3%	22.5%	1.5%	1.8%	100.0%
신학부	0	0	10	0	9	3	4	0	0	1	3	4	10	1	0	45
	0.0%	0.0%	22.2%	0.0%	20.0%	6.7%	8.9%	0.0%	0.0%	2.2%	6.7%	8.9%	22.2%	2.2%	0.0%	100.0%
사회과학부	4	0	51	5	4	13	1	2	1	3	3	19	41	2	1	150
	2.7%	0.0%	34.0%	3.3%	2.7%	8.7%	0.7%	1.3%	0.7%	2.0%	2.0%	12.7%	27.3%	1.3%	0.7%	100.0%
국제언어학부	1	0	19	0	0	1	0	0	0	0	1	6	10	0	3	41
	2.4%	0.0%	46.3%	0.0%	0.0%	2.4%	0.0%	0.0%	0.0%	0.0%	2.4%	14.6%	24.4%	0.0%	7.3%	100.0%
IT학부	4	2	27	1	1	2	0	1	0	0	2	2	8	2	0	52
	7.7%	3.8%	51.9%	1.9%	1.9%	3.8%	0.0%	1.9%	0.0%	0.0%	3.8%	3.8%	15.4%	3.8%	0.0%	100.0%
예술학부	2	2	19	2	4	5	0	1	0	0	3	6	12	1	1	58
	3.4%	3.4%	32.8%	3.4%	6.9%	8.6%	0.0%	1.7%	0.0%	0.0%	5.2%	10.3%	20.7%	1.7%	1.7%	100.0%
디자인학부	1	0	45	2	1	6	3	2	2	1	5	11	20	3	3	105
	1.0%	0.0%	42.9%	1.9%	1.0%	5.7%	2.9%	1.9%	1.9%	1.0%	4.8%	10.5%	19.0%	2.9%	2.9%	100.0%
간호복지학부	2	0	26	4	1	3	0	0	0	1	4	6	13	0	0	60
	3.3%	0.0%	43.3%	6.7%	1.7%	5.0%	0.0%	0.0%	0.0%	1.7%	6.7%	10.0%	21.7%	0.0%	0.0%	100.0%
전체	14	4	197	14	20	33	8	6	3	6	21	54	114	9	8	511
	2.7%	0.8%	38.6%	2.7%	3.9%	6.5%	1.6%	1.2%	0.6%	1.2%	4.1%	10.6%	22.3%	1.8%	1.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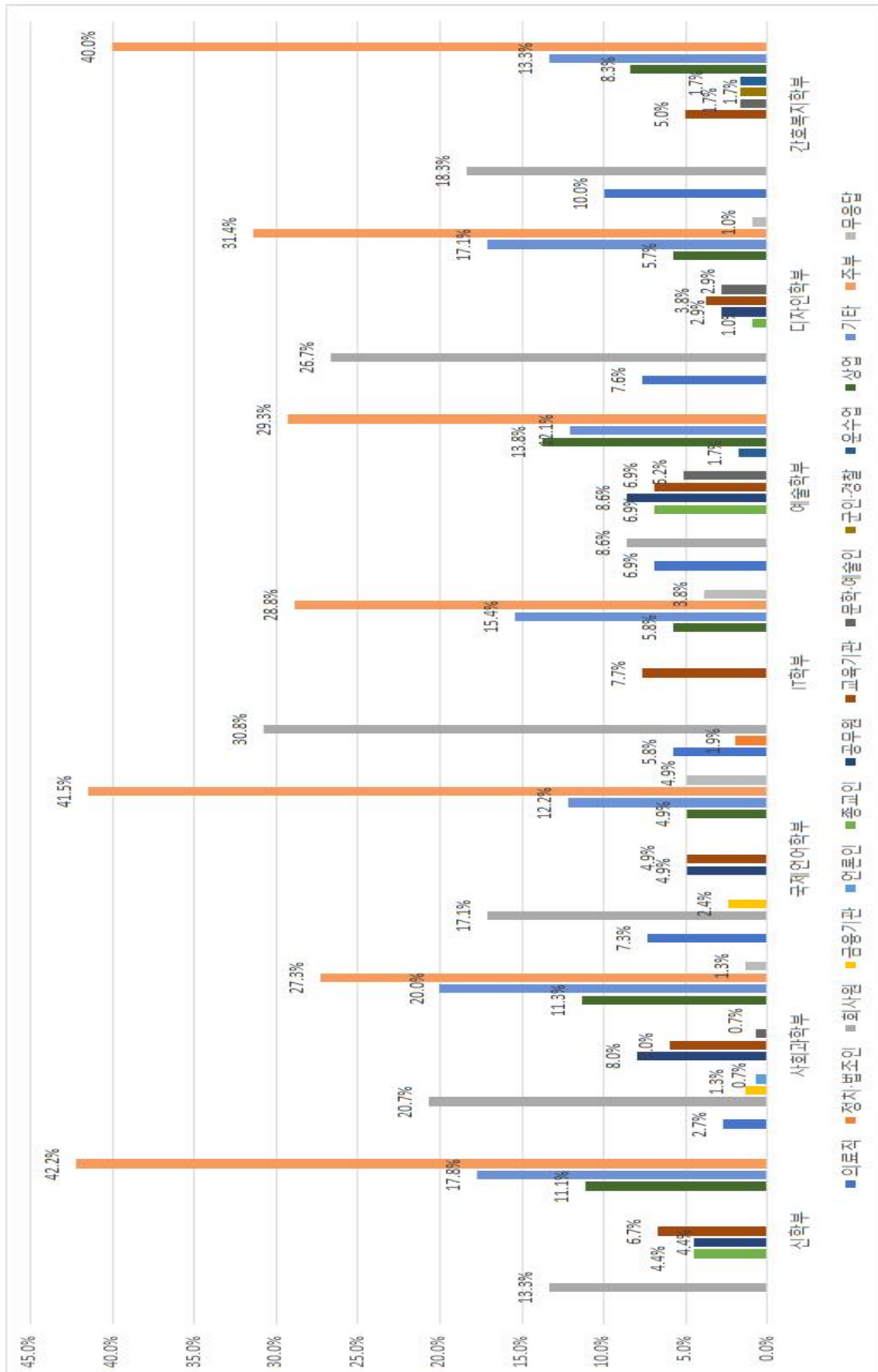
6) 모의 직업

신입생들의 어머니의 직업을 조사한 결과 20.4%의 어머니가 회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주부(16.4%), 교육기관(5.7%), 공무원(4.7%) 순으로 나타났다. 모의 직업이 회사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IT학부가 (30.8%) 가장 높았고, 반면에 신학부가 (13.3%)로 가장 낮았다. 성별로는 남학생(18.0%) 여학생(21.6%)의 비율로 모의 직업이 회사원이라고 응답했다.

<표 15> 모의 직업

단위:명,%

	의료직	정치·법조인	회사원	금융기관	언론인	종교인	공무원	교육기관	문학·예술인	군인·경찰	상업	기타	주부	무응답	전체
남	6	0	32	1	1	3	8	7	3	0	1	16	33	65	2
	3.4%	0.0%	18.0%	0.6%	0.6%	1.7%	4.5%	3.9%	1.7%	0.0%	0.6%	9.0%	18.5%	36.5%	1.1%
여	22	1	72	2	0	4	16	22	5	1	1	30	51	101	5
	6.6%	0.3%	21.6%	0.6%	0.0%	1.2%	4.8%	6.6%	1.5%	0.3%	0.3%	9.0%	15.3%	30.3%	1.5%
신학부	0	0	6	0	0	2	2	3	0	0	0	5	8	19	0
	0.0%	0.0%	13.3%	0.0%	0.0%	4.4%	4.4%	6.7%	0.0%	0.0%	0.0%	11.1%	17.8%	42.2%	0.0%
사회과학부	4	0	31	2	1	0	12	9	1	0	0	17	30	41	2
	2.7%	0.0%	20.7%	1.3%	0.7%	0.0%	8.0%	6.0%	0.7%	0.0%	0.0%	11.3%	20.0%	27.3%	1.3%
국제언어학부	3	0	7	1	0	0	2	2	0	0	0	2	5	17	2
	7.3%	0.0%	17.1%	2.4%	0.0%	0.0%	4.9%	4.9%	0.0%	0.0%	0.0%	4.9%	12.2%	41.5%	4.9%
IT학부	3	1	16	0	0	0	0	4	0	0	0	3	8	15	2
	5.8%	1.9%	30.8%	0.0%	0.0%	0.0%	0.0%	7.7%	0.0%	0.0%	0.0%	5.8%	15.4%	28.8%	3.8%
예술학부	4	0	5	0	0	4	5	4	3	0	1	8	7	17	0
	6.9%	0.0%	8.6%	0.0%	0.0%	6.9%	8.6%	6.9%	5.2%	0.0%	1.7%	13.8%	12.1%	29.3%	0.0%
디자인학부	8	0	28	0	0	1	3	4	3	0	0	6	18	33	1
	7.6%	0.0%	26.7%	0.0%	0.0%	1.0%	2.9%	3.8%	2.9%	0.0%	0.0%	5.7%	17.1%	31.4%	1.0%
간호복지학부	6	0	11	0	0	0	0	3	1	1	1	5	8	24	0
	10.0%	0.0%	18.3%	0.0%	0.0%	0.0%	0.0%	5.0%	1.7%	1.7%	1.7%	8.3%	13.3%	40.0%	0.0%
전체	28	1	104	3	1	7	24	29	8	1	2	46	84	166	7
	5.5%	0.2%	20.4%	0.6%	0.2%	1.4%	4.7%	5.7%	1.6%	0.2%	0.4%	9.0%	16.4%	32.5%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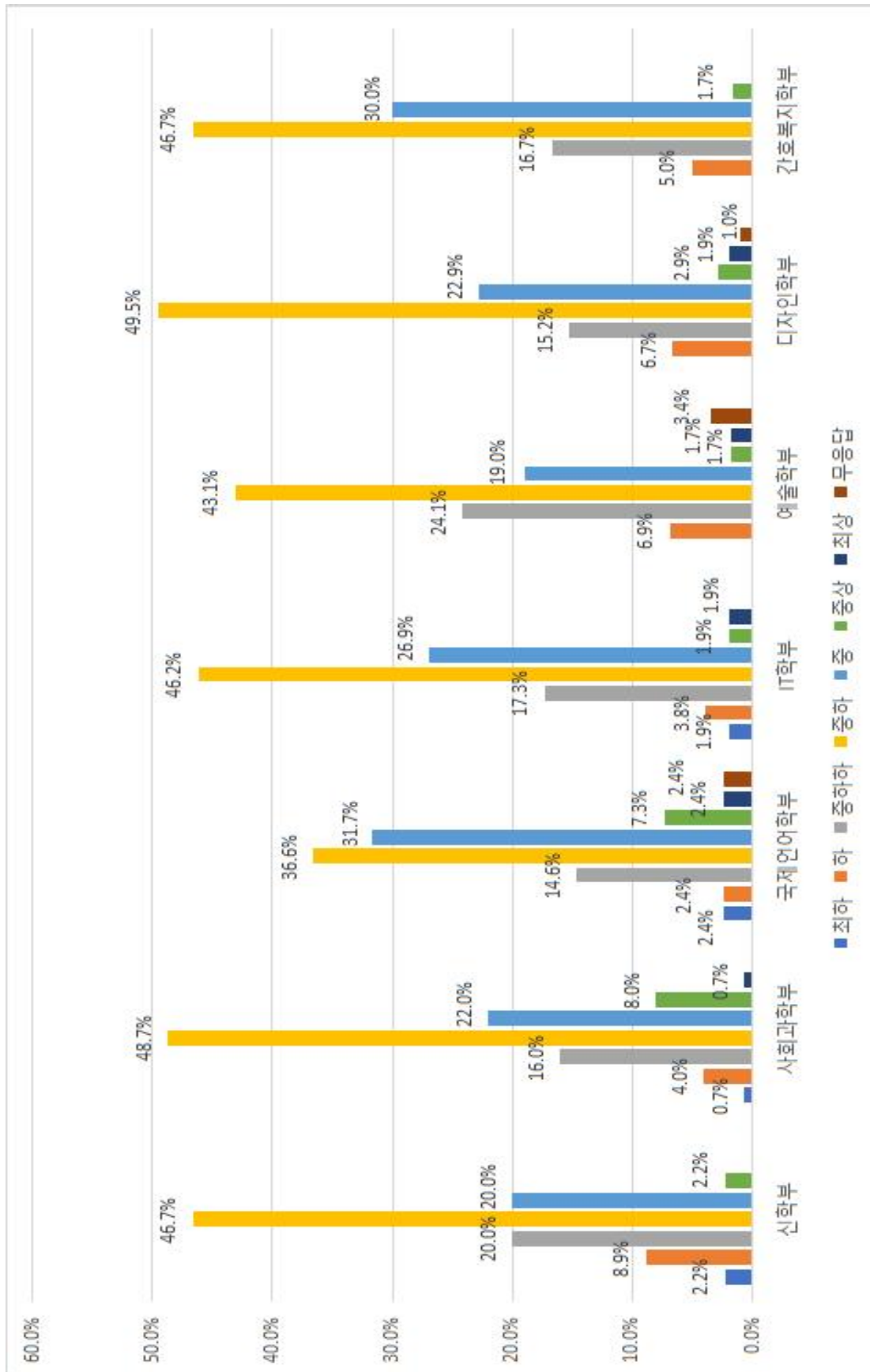
7) 가정의 경제적 수준

신입생들 대부분이 자신의 가정이 ‘중하하’, ‘중하’, ‘중’에 속해있다고 응답해 평균보다 약간 낮은 경제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중하’에 속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46.6%로 가장 많았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디자인학부에서 49.5%로 자신의 가정이 ‘중하’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사회과학부(48.7%), 신학부(46.7%), 간호복지학부(46.7%), IT학부(46.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48%)에게서 ‘중하’라는 응답이 남학생(43.8%)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가정이 ‘중’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30.2%로 2017년(31.0%)보다 하락하였다.

<표 16> 가정의 경제적 수준

단위:명,%

	최하	하	중하하	중하	중	중상	최상	무응답	전체
남	3	13	24	78	48	8	3	1	178
	1.7%	7.3%	13.5%	43.8%	27.0%	4.5%	1.7%	0.6%	100.0%
여	1	14	64	160	74	14	3	3	333
	0.3%	4.2%	19.2%	48.0%	22.2%	4.2%	0.9%	0.9%	100.0%
신학부	1	4	9	21	9	1	0	0	45
	2.2%	8.9%	20.0%	46.7%	20.0%	2.2%	0.0%	0.0%	100.0%
사회과학부	1	6	24	73	33	12	1	0	150
	0.7%	4.0%	16.0%	48.7%	22.0%	8.0%	0.7%	0.0%	100.0%
국제언어학부	1	1	6	15	13	3	1	1	41
	2.4%	2.4%	14.6%	36.6%	31.7%	7.3%	2.4%	2.4%	100.0%
IT학부	1	2	9	24	14	1	1	0	52
	1.9%	3.8%	17.3%	46.2%	26.9%	1.9%	1.9%	0.0%	100.0%
예술학부	0	4	14	25	11	1	1	2	58
	0.0%	6.9%	24.1%	43.1%	19.0%	1.7%	1.7%	3.4%	100.0%
디자인학부	0	7	16	52	24	3	2	1	105
	0.0%	6.7%	15.2%	49.5%	22.9%	2.9%	1.9%	1.0%	100.0%
간호복지학부	0	3	10	28	18	1	0	0	60
	0.0%	5.0%	16.7%	46.7%	30.0%	1.7%	0.0%	0.0%	100.0%
전체	4	27	88	238	122	22	6	4	511
	0.8%	5.3%	17.2%	46.6%	23.9%	4.3%	1.2%	0.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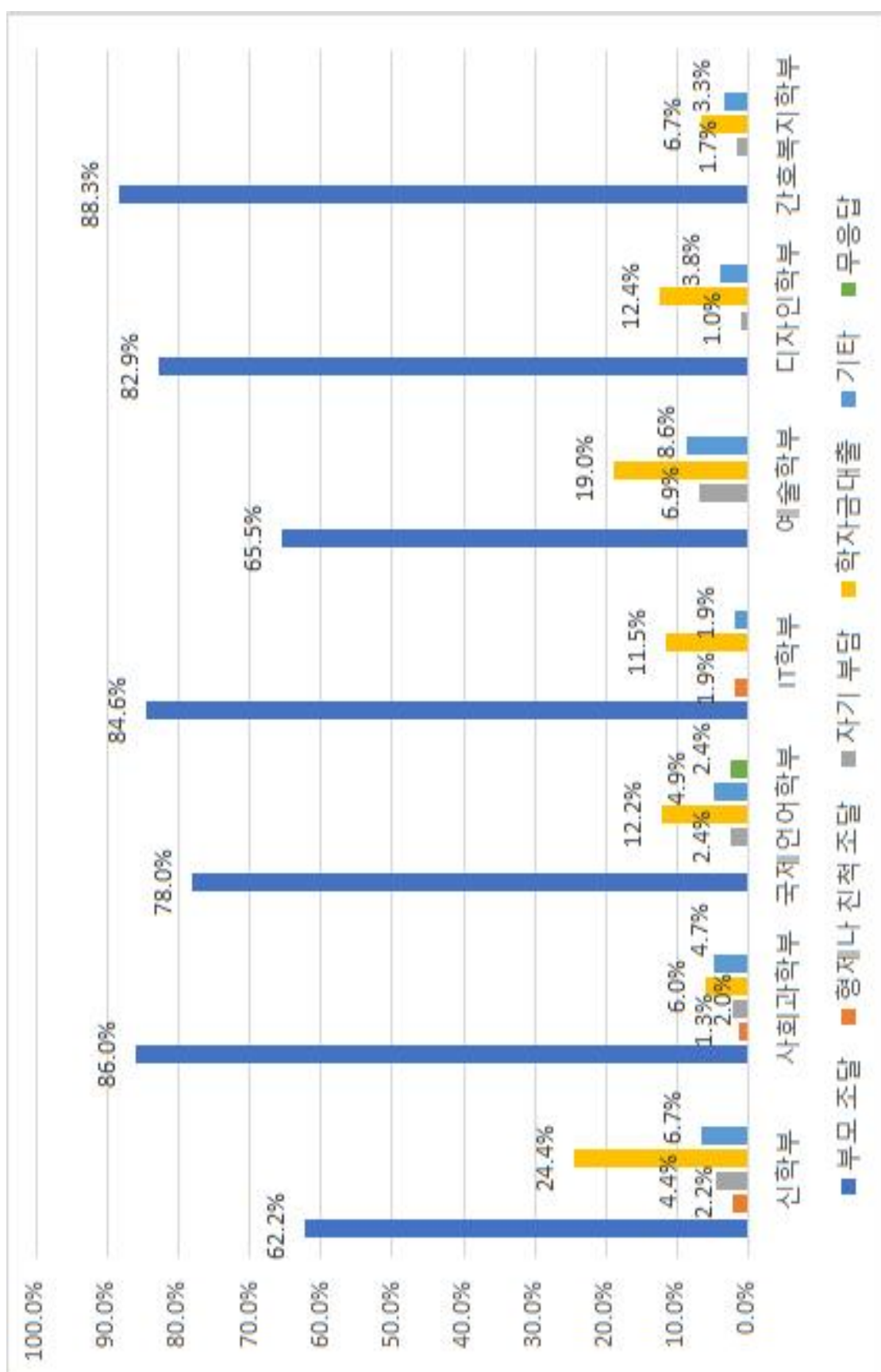
8) 학비 조달 방법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동안의 학비 조달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모조달’이 전체의 80.4%로 가장 많았고, 학자금대출(11.5%), 기타(4.7%), 자기부담(2.3%) 순으로 나타났다. 학비를 부모가 조달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학부는 간호복지학부(88.3%)이고, 그 다음으로 사회과학부(86.0%), IT부(84.6%), 디자인학부(82.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학자금대출이 가장 높은 학부로는 신학부(24.4%)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은 80.9%가, 여학생은 80.2%가 부모로부터 조달받는다고 응답했다.

<표 17> 학비 조달 방법

단위:명,%

	부모 조달	형제나 친척 조달	자기 부담	학자금대출	기타	무응답	전체
남	144	1	5	21	7	0	178
	80.9%	0.6%	2.8%	11.8%	3.9%	0.0%	100.0%
여	267	3	7	38	17	1	333
	80.2%	0.9%	2.1%	11.4%	5.1%	0.3%	100.0%
신학부	28	1	2	11	3	0	45
	62.2%	2.2%	4.4%	24.4%	6.7%	0.0%	100.0%
사회과학부	129	2	3	9	7	0	150
	86.0%	1.3%	2.0%	6.0%	4.7%	0.0%	100.0%
국제언어학부	32	0	1	5	2	1	41
	78.0%	0.0%	2.4%	12.2%	4.9%	2.4%	100.0%
IT학부	44	1	0	6	1	0	52
	84.6%	1.9%	0.0%	11.5%	1.9%	0.0%	100.0%
예술학부	38	0	4	11	5	0	58
	65.5%	0.0%	6.9%	19.0%	8.6%	0.0%	100.0%
디자인학부	87	0	1	13	4	0	105
	82.9%	0.0%	1.0%	12.4%	3.8%	0.0%	100.0%
간호복지학부	53	0	1	4	2	0	60
	88.3%	0.0%	1.7%	6.7%	3.3%	0.0%	100.0%
전체	411	4	12	59	24	1	511
	80.4%	0.8%	2.3%	11.5%	4.7%	0.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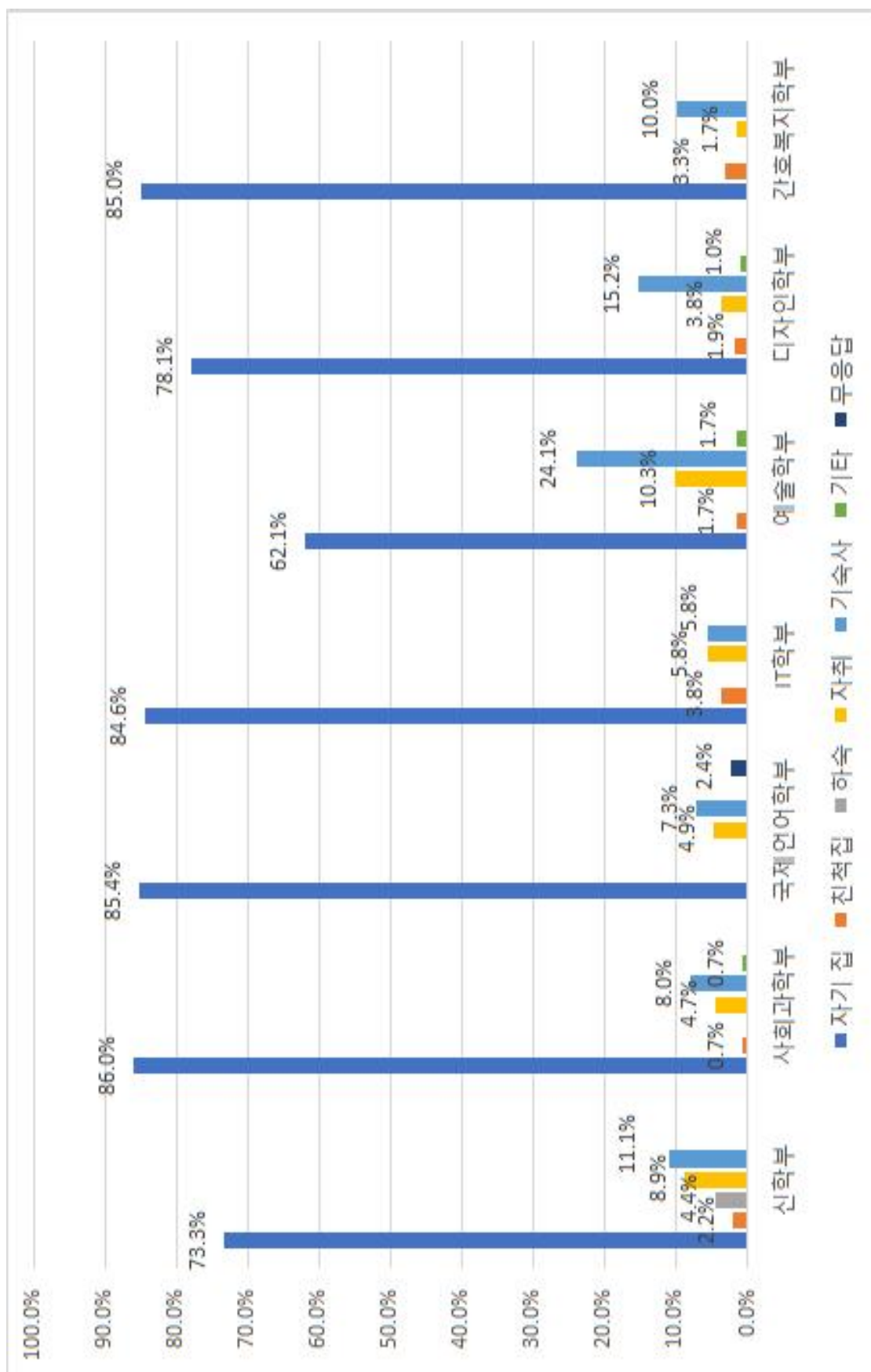
9) 재학 중 거주할 곳

본교 입학 후의 신입생 거주형태를 살펴보면, 신입생들의 80.2%가 자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기타(11.5%), 기숙사(5.4%)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14.5%)대비 기숙사(5.4%)의 응답 비율이 약간 낮아졌으며 자취의 응답 비율은 낮아졌다. 학부별로 보면 사회과학부가 86.0%로 자택거주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국제언어학부가 85.4%, 간호복지학부가 85.0%, IT학부가 84.6%로 나타났으며, 예술학부가 62.1%로 가장 낮았다. 성별로는 자택거주 비율이 남학생(77.0%), 여학생(82.0%)로 나타났다.

<표 18> 재학 중 거주할 곳

단위:명,%

	자기 집	친척집	자취	기숙사	기타	전체
남	137	5	1	13	22	0
	77.0%	2.8%	0.6%	7.3%	12.4%	0.0%
여	273	4	1	14	37	3
	82.0%	1.2%	0.3%	4.2%	11.1%	0.9%
신학부	33	1	2	4	5	0
	73.3%	2.2%	4.4%	8.9%	11.1%	0.0%
사회과학부	129	1	0	7	12	1
	86.0%	0.7%	0.0%	4.7%	8.0%	0.7%
국제언어학부	35	0	0	2	3	0
	85.4%	0.0%	0.0%	4.9%	7.3%	0.0%
IT학부	44	2	0	3	3	0
	84.6%	3.8%	0.0%	5.8%	5.8%	0.0%
예술학부	36	1	0	6	14	1
	62.1%	1.7%	0.0%	10.3%	24.1%	1.7%
디자인학부	82	2	0	4	16	1
	78.1%	1.9%	0.0%	3.8%	15.2%	1.0%
간호복지학부	51	2	0	1	6	0
	85.0%	3.3%	0.0%	1.7%	10.0%	0.0%
전체	410	9	2	27	59	3
	80.2%	1.8%	0.4%	5.3%	11.5%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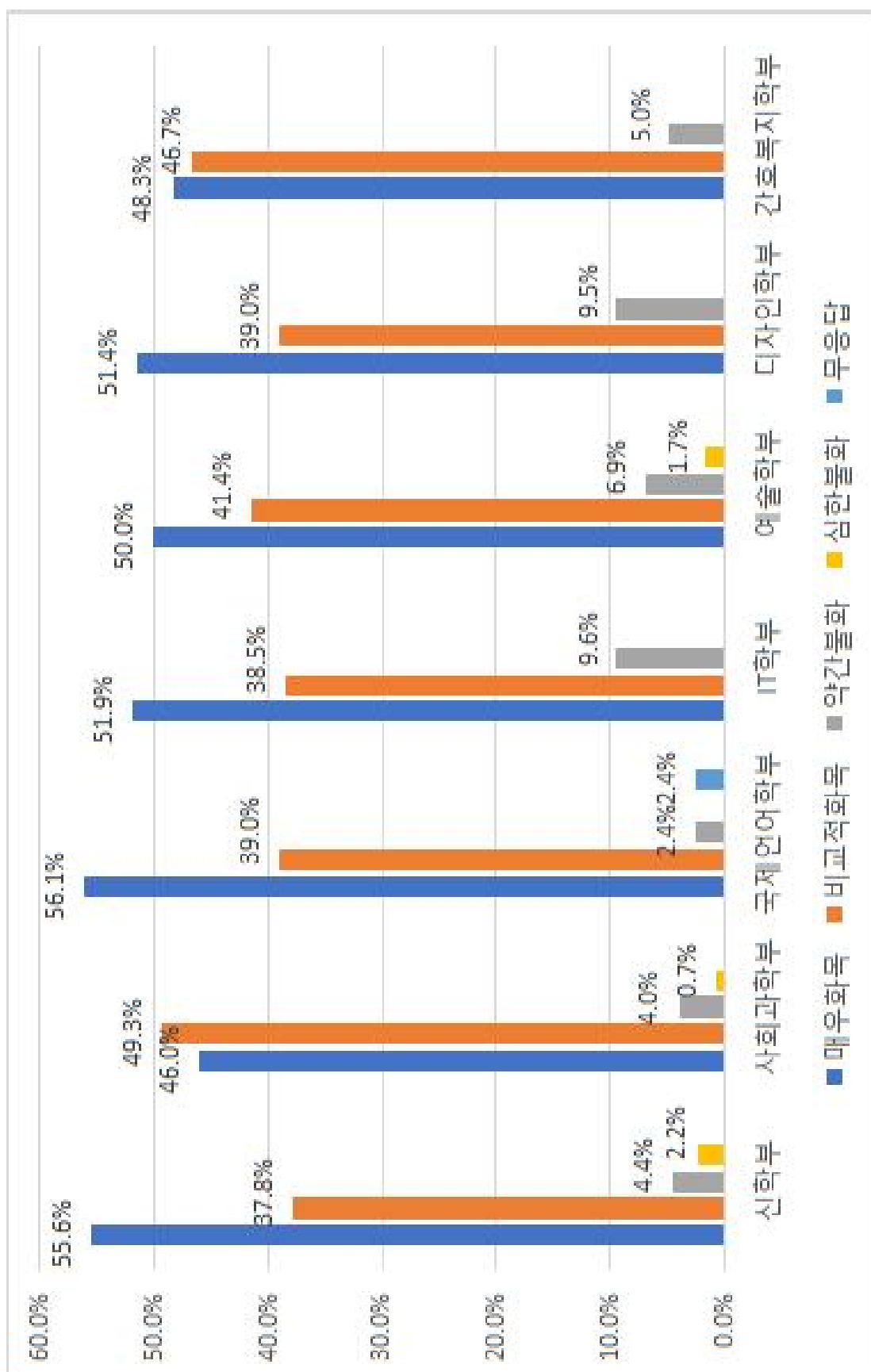
10) 가정의 분위기

신입생들이 지각하는 자신들의 가정 분위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매우 화목하다'가 전체의 50.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비교적 화목하다(43.1%), 약간 불화(6.1%)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보면 자신의 가정이 매우 화목하다고 응답한 학부는 국제언어학부가 (5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신학부(55.6%), IT학부(51.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IT학부는 화목(매우 화목, 비교적 화목)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89.4%로 가장 높게 응답했다. 성별로는 매우 화목하다는 응답이 남녀 각각 52.8%, 48.6%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비교적 화목하다(44.1%)의 비율이 조금 더 낮게 나타났다.

<표 19> 가정의 분위기

단위:명, %

	매우 화목	비교적 화목	약간 불화	심한 불화	무응답	전체
남	94	73	10	1	0	178
	52.8%	41.0%	5.6%	0.6%	0.0%	100.0%
여	162	147	21	2	1	333
	48.6%	44.1%	6.3%	0.6%	0.3%	100.0%
신학부	25	17	2	1	0	45
	55.6%	37.8%	4.4%	2.2%	0.0%	100.0%
사회과학부	69	74	6	1	0	150
	46.0%	49.3%	4.0%	0.7%	0.0%	100.0%
국제언어학부	23	16	1	0	1	41
	56.1%	39.0%	2.4%	0.0%	2.4%	100.0%
IT학부	27	20	5	0	0	52
	51.9%	38.5%	9.6%	0.0%	0.0%	100.0%
예술학부	29	24	4	1	0	58
	50.0%	41.4%	6.9%	1.7%	0.0%	100.0%
디자인학부	54	41	10	0	0	105
	51.4%	39.0%	9.5%	0.0%	0.0%	100.0%
간호복지학부	29	28	3	0	0	60
	48.3%	46.7%	5.0%	0.0%	0.0%	100.0%
전체	256	220	31	3	1	511
	50.1%	43.1%	6.1%	0.6%	0.2%	100.0%



11) 가정에 대해 가장 불만스러운 점

신입생들의 가정에 대한 불만 사항들을 조사한 결과 ‘불만 없음’이 전체의 5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부모와 의견충돌(11.2%), 경제적 곤란 및 용돈부족(8.6%), 가족들의 심한 간섭과 통제(7.4%), 부모사이의 불화(5.9%) 순으로 나타났다. ‘불만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IT학부(6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이 예술학부(60.3%), 사회과학부(58.0%)로 나타났다. 반면 간호복지학부는 ‘불만 없음’에 대한 응답이 4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성별로는 남학생의 63.5%, 여학생의 48.6%가 가정에 ‘불만 없음’으로 응답하였다.

<표 20> 가정에 대해 가장 불만스러운 점

단위:명,%

	부모 사이 불화	형제 간 불화	경제적 곤란 및 용돈 부족	대화 부족	가족들 의 심한 간섭과 통제	편애 차별	가족 중 환자가 있는것	부모의 지나친 기대	부모와 의견 충돌	불만 없음	기타	무응 답	전체
남	14	4	9	5	6	1	1	3	17	113	5	0	178
	7.9%	2.2%	5.1%	2.8%	3.4%	0.6%	0.6%	1.7%	9.6%	63.5%	2.8%	0.0%	100.0%
여	16	6	35	12	32	3	0	13	40	162	13	1	333
	4.8%	1.8%	10.5%	3.6%	9.6%	0.9%	0.0%	3.9%	12.0%	48.6%	3.9%	0.3%	100.0%
신학부	2	3	5	2	6	0	0	0	4	20	3	0	45
	4.4%	6.7%	11.1%	4.4%	13.3%	0.0%	0.0%	0.0%	8.9%	44.4%	6.7%	0.0%	100.0%
사회 과학부	7	1	10	4	13	0	0	2	18	87	8	0	150
	4.7%	0.7%	6.7%	2.7%	8.7%	0.0%	0.0%	1.3%	12.0%	58.0%	5.3%	0.0%	100.0%
국제 언어 학부	2	0	2	2	4	0	0	1	6	23	0	1	41
	4.9%	0.0%	4.9%	4.9%	9.8%	0.0%	0.0%	2.4%	14.6%	56.1%	0.0%	2.4%	100.0%
IT학부	3	2	1	2	3	2	1	1	3	33	1	0	52
	5.8%	3.8%	1.9%	3.8%	5.8%	3.8%	1.9%	1.9%	5.8%	63.5%	1.9%	0.0%	100.0%
예술 학부	1	2	5	0	4	1	0	2	7	35	1	0	58
	1.7%	3.4%	8.6%	0.0%	6.9%	1.7%	0.0%	3.4%	12.1%	60.3%	1.7%	0.0%	100.0%
디자인 학부	10	2	12	4	7	1	0	6	9	52	2	0	105
	9.5%	1.9%	11.4%	3.8%	6.7%	1.0%	0.0%	5.7%	8.6%	49.5%	1.9%	0.0%	100.0%
간호 복지 학부	5	0	9	3	1	0	0	4	10	25	3	0	60
	8.3%	0.0%	15.0%	5.0%	1.7%	0.0%	0.0%	6.7%	16.7%	41.7%	5.0%	0.0%	100.0%
전체	30	10	44	17	38	4	1	16	57	275	18	1	511
	5.9%	2.0%	8.6%	3.3%	7.4%	0.8%	0.2%	3.1%	11.2%	53.8%	3.5%	0.2%	100.0%

3. 기타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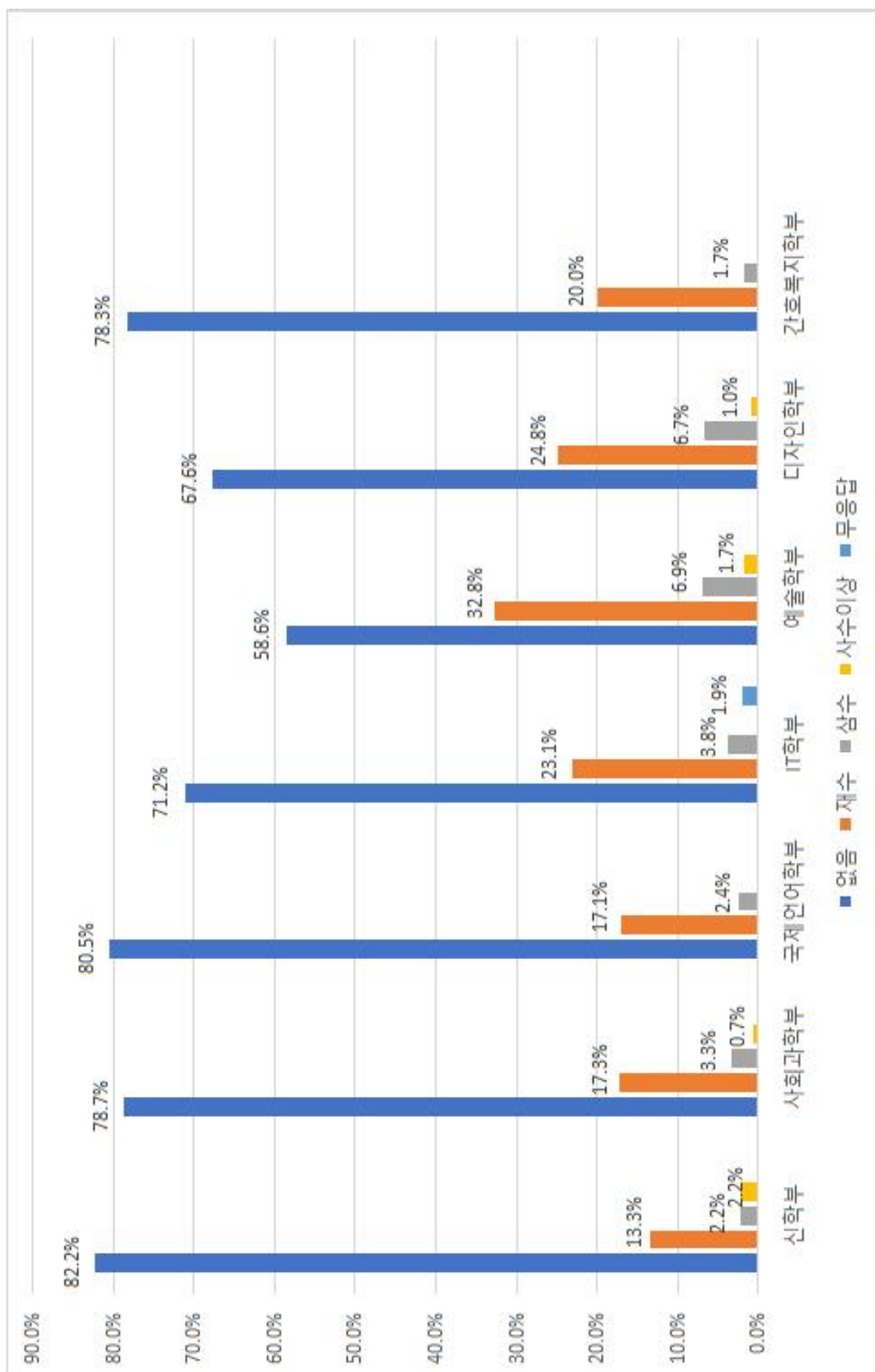
1) 재수경험

신입생들의 재수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재수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7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수 경험을 한 학생의 비율은 21.1%로, 2017년 18.5%보다 2.6% 상승했다. 재수 경험이 없다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신학부가 82.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국제언어학부(80.5%), 사회과학부(78.7%), 간호복지학부(78.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73.6%와 여학생의 73.9%가 재수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표 21> 재수경험

단위:명,%

	없음	재수	삼수	사수 이상	무응답	전체
남	131	35	8	3	1	178
	73.6%	19.7%	4.5%	1.7%	0.6%	100.0%
여	246	73	13	1	0	333
	73.9%	21.9%	3.9%	0.3%	0.0%	100.0%
신학부	37	6	1	1	0	45
	82.2%	13.3%	2.2%	2.2%	0.0%	100.0%
사회과학부	118	26	5	1	0	150
	78.7%	17.3%	3.3%	0.7%	0.0%	100.0%
국제언어학부	33	7	1	0	0	41
	80.5%	17.1%	2.4%	0.0%	0.0%	100.0%
IT학부	37	12	2	0	1	52
	71.2%	23.1%	3.8%	0.0%	1.9%	100.0%
예술학부	34	19	4	1	0	58
	58.6%	32.8%	6.9%	1.7%	0.0%	100.0%
디자인학부	71	26	7	1	0	105
	67.6%	24.8%	6.7%	1.0%	0.0%	100.0%
간호복지학부	47	12	1	0	0	60
	78.3%	20.0%	1.7%	0.0%	0.0%	100.0%
전체	377	108	21	4	1	511
	73.8%	21.1%	4.1%	0.8%	0.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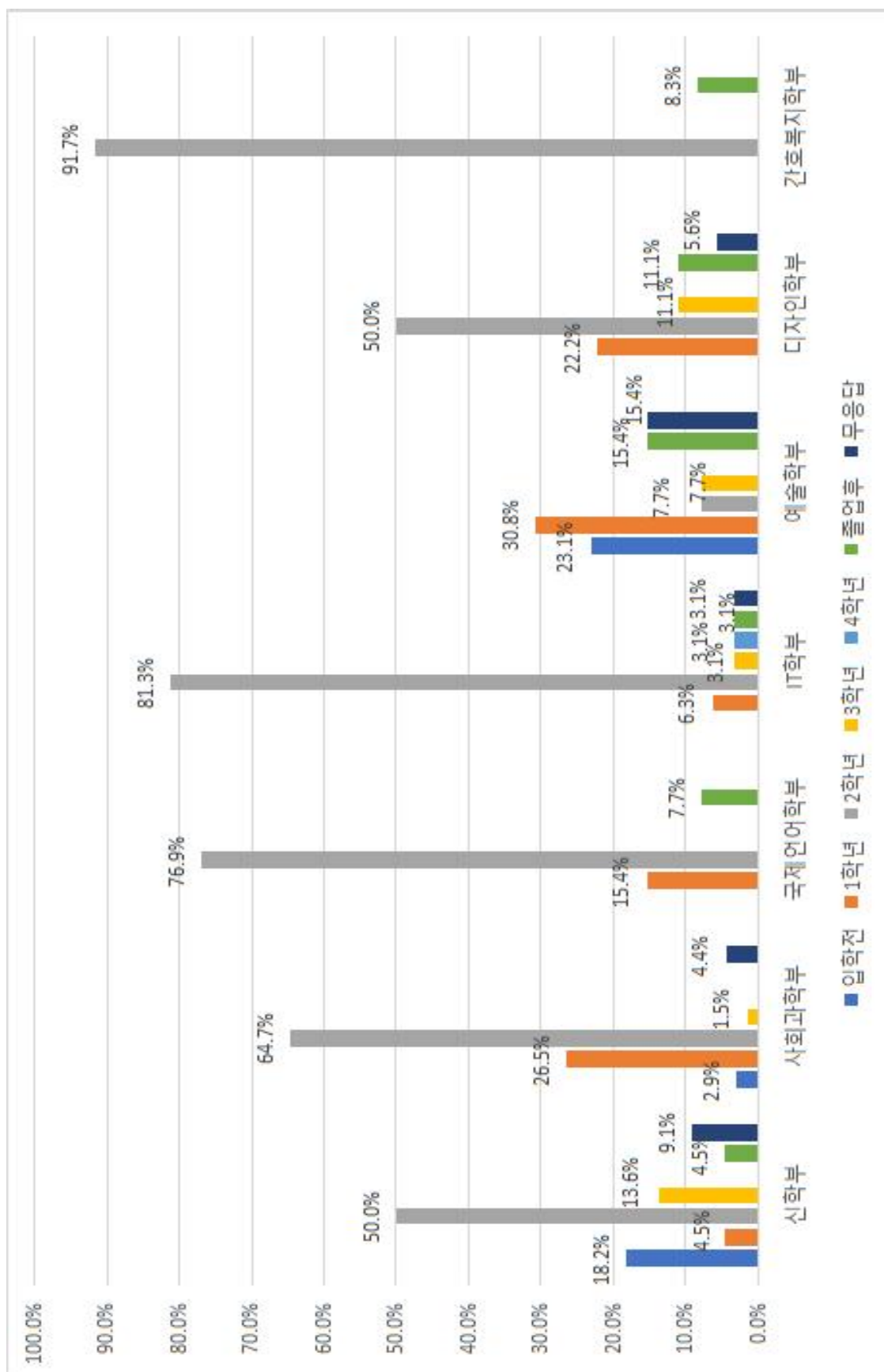
2) 군 입대 예정시기

신입생들의 군 입대에 관하여는 남학생의 178명중 169명이 이 문항에 응답하였다. 군 입대 예정시기로는 2학년 중에 군 입대를 하겠다는 응답이 62.9%로 가장 높았으며, 1학년(17.4%), 무응답과 입학전(5.1%), 3학년(4.5%), 졸업 후(4.5%),로 나타났다. 2학년 중에 군 입대를 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학부는 간호복지학부 (91.7%), IT학부(81.3%) 국제언어학부(76.9%)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 군 입대 예정시기

단위:명,%

	입학 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 후	무응답	전체
남	9	31	112	8	1	8	9	178
	5.1%	17.4%	62.9%	4.5%	0.6%	4.5%	5.1%	100.0%
신학부	4	1	11	3	0	1	2	22
	18.2%	4.5%	50.0%	13.6%	0.0%	4.5%	9.1%	100.0%
사회과학부	2	18	44	1	0	0	3	68
	2.9%	26.5%	64.7%	1.5%	0.0%	0.0%	4.4%	100.0%
국제언어학부	0	2	10	0	0	1	0	13
	0.0%	15.4%	76.9%	0.0%	0.0%	7.7%	0.0%	100.0%
IT학부	0	2	26	1	1	1	1	32
	0.0%	6.3%	81.3%	3.1%	3.1%	3.1%	3.1%	100.0%
예술학부	3	4	1	1	0	2	2	13
	23.1%	30.8%	7.7%	7.7%	0.0%	15.4%	15.4%	100.0%
디자인학부	0	4	9	2	0	2	1	18
	0.0%	22.2%	50.0%	11.1%	0.0%	11.1%	5.6%	100.0%
간호복지학부	0	0	11	0	0	1	0	12
	0.0%	0.0%	91.7%	0.0%	0.0%	8.3%	0.0%	100.0%
전체	9	31	112	8	1	8	9	178
	5.1%	17.4%	62.9%	4.5%	0.6%	4.5%	5.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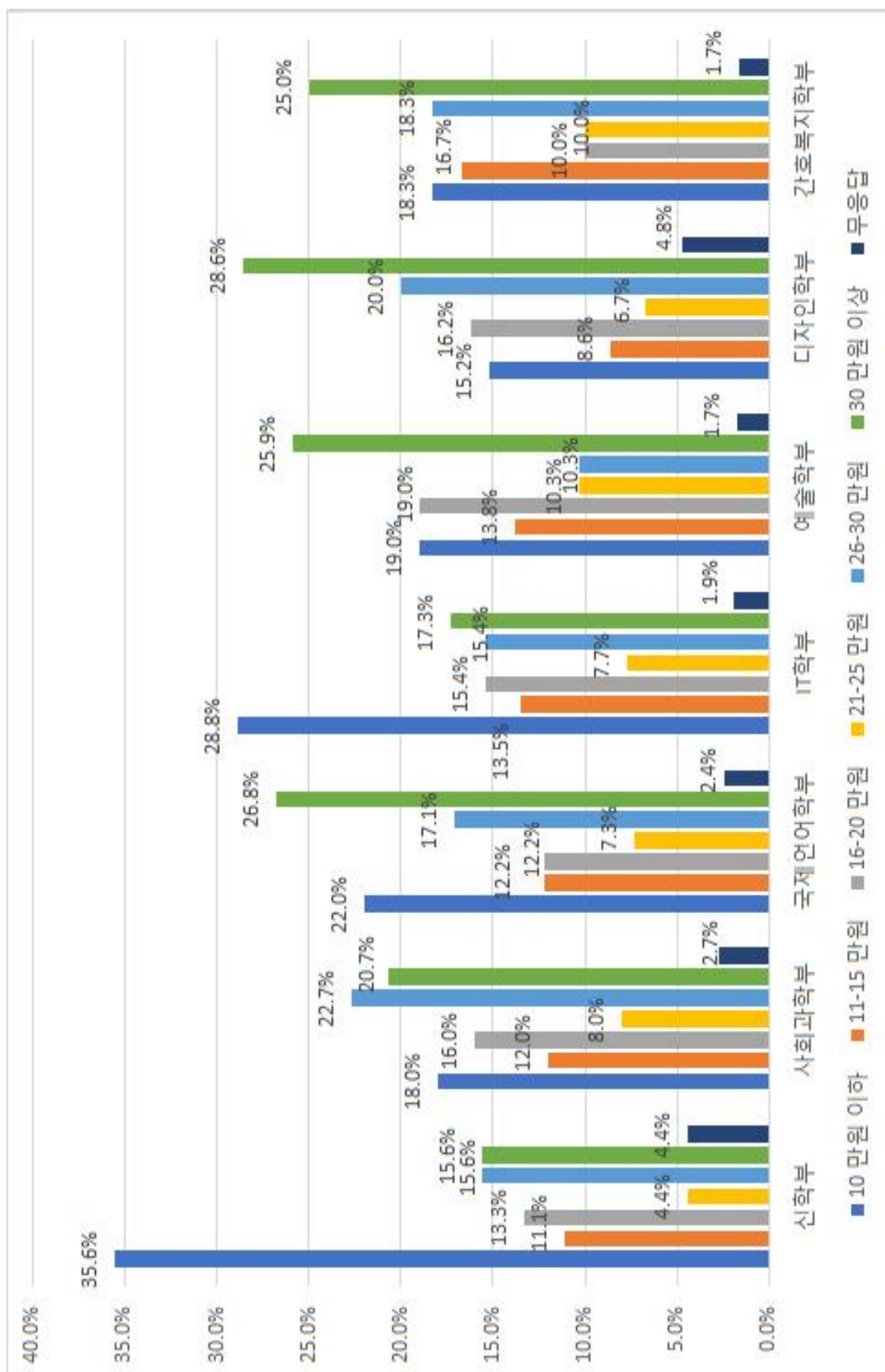
3) 한 달 용돈

신입생들의 월평균 용돈의 규모를 조사한 결과 '30만원 이상'이 23.1%로 가장 높은 비율의 보였고, 다음으로 10만원 이하 20.5%, 26-30만원이 18.4%로 나타났다. 3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디자인학부가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국제언어학부(26.8%), 예술학부(25.9%)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27.0%가, 여학생은 21.0%가 한 달 용돈이 '3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23> 한 달 용돈

단위:명,%

	10만원 이하	11-15 만원	16-20 만원	21-25 만원	26-30 만원	30만원 이상	무응답	전체
남	44	26	25	8	25	48	2	178
	24.7%	14.6%	14.0%	4.5%	14.0%	27.0%	1.1%	100.0%
여	61	36	52	32	69	70	13	333
	18.3%	10.8%	15.6%	9.6%	20.7%	21.0%	3.9%	100.0%
신학부	16	5	6	2	7	7	2	45
	35.6%	11.1%	13.3%	4.4%	15.6%	15.6%	4.4%	100.0%
사회과학부	27	18	24	12	34	31	4	150
	18.0%	12.0%	16.0%	8.0%	22.7%	20.7%	2.7%	100.0%
국제언어학부	9	5	5	3	7	11	1	41
	22.0%	12.2%	12.2%	7.3%	17.1%	26.8%	2.4%	100.0%
IT학부	15	7	8	4	8	9	1	52
	28.8%	13.5%	15.4%	7.7%	15.4%	17.3%	1.9%	100.0%
예술학부	11	8	11	6	6	15	1	58
	19.0%	13.8%	19.0%	10.3%	10.3%	25.9%	1.7%	100.0%
디자인학부	16	9	17	7	21	30	5	105
	15.2%	8.6%	16.2%	6.7%	20.0%	28.6%	4.8%	100.0%
간호복지학부	11	10	6	6	11	15	1	60
	18.3%	16.7%	10.0%	10.0%	18.3%	25.0%	1.7%	100.0%
전체	105	62	77	40	94	118	15	511
	20.5%	12.1%	15.1%	7.8%	18.4%	23.1%	2.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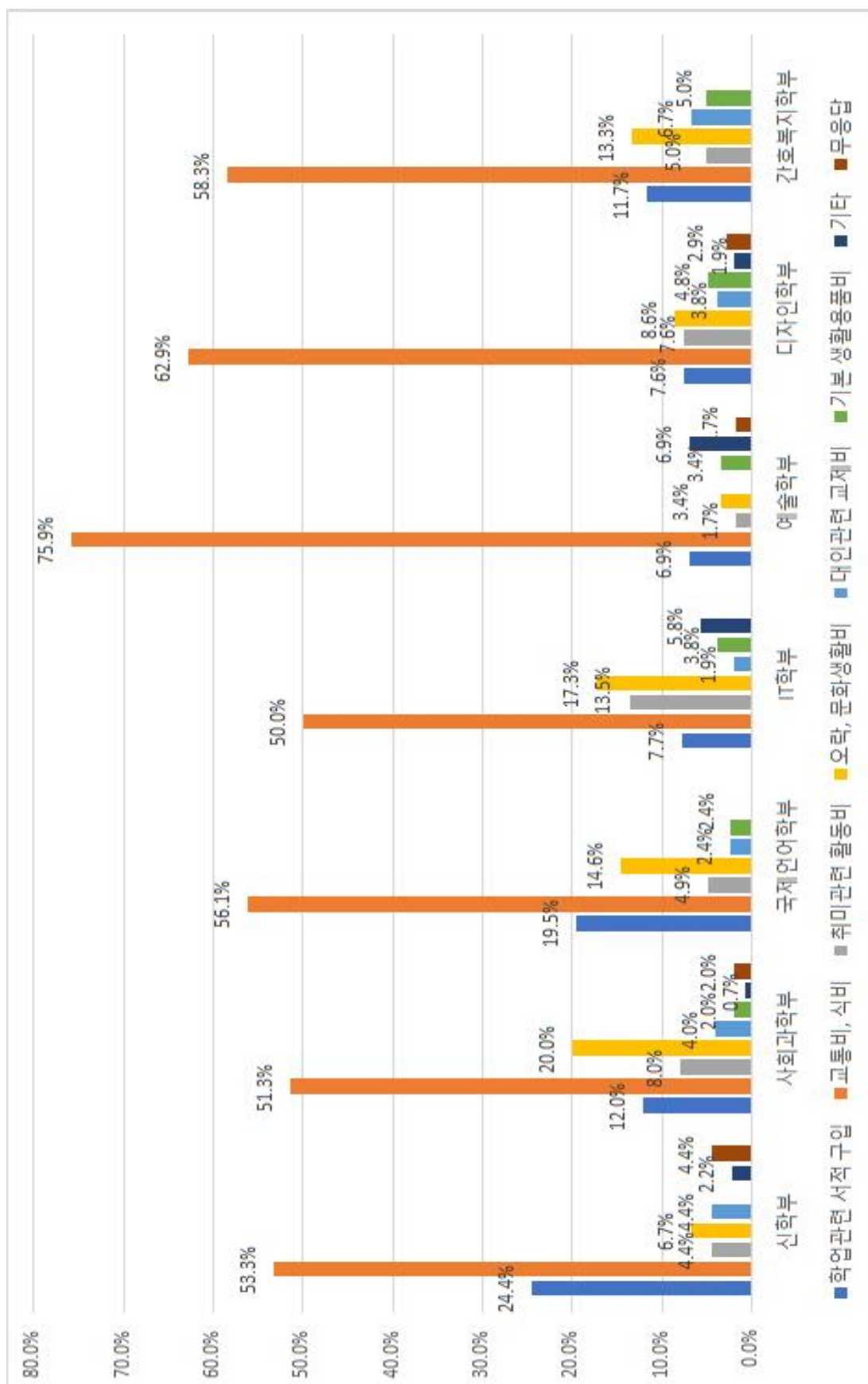
4) 용돈의 주 사용처

신입생들이 용돈을 사용하는 용도는 대부분 교통비와 식비(57.7%)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오락·문화생활비(13.1%), 학업관련 서적구입비(11.7%) 순으로 나타났다. 오락·문화생활비의 비율은 2015년(8.9%), 2016년(6.9%)로 감소하다가, 2017년(13.3%), 2018년(13.1%)로 크게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 여학생 각각 50.6%, 61.6%로 교통비와 식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오락·문화생활비는 남학생(18.5%)이 여학생(10.2%)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24> 용돈의 주 사용처

단위:명,%

	학업관련 서적구입	교통비· 식비	취미관련 활동비	오락·문 화생활비	대인관련 교제비	기본생활 용품비	기타	무응답	전체
남	20	90	17	33	9	4	4	1	178
	11.2%	50.6%	9.6%	18.5%	5.1%	2.2%	2.2%	0.6%	100.0%
여	40	205	18	34	9	12	7	8	333
	12.0%	61.6%	5.4%	10.2%	2.7%	3.6%	2.1%	2.4%	100.0%
신학부	11	24	2	3	2	0	1	2	45
	24.4%	53.3%	4.4%	6.7%	4.4%	0.0%	2.2%	4.4%	100.0%
사회과학부	18	77	12	30	6	3	1	3	150
	12.0%	51.3%	8.0%	20.0%	4.0%	2.0%	0.7%	2.0%	100.0%
국제언어학부	8	23	2	6	1	1	0	0	41
	19.5%	56.1%	4.9%	14.6%	2.4%	2.4%	0.0%	0.0%	100.0%
IT학부	4	26	7	9	1	2	3	0	52
	7.7%	50.0%	13.5%	17.3%	1.9%	3.8%	5.8%	0.0%	100.0%
예술학부	4	44	1	2	0	2	4	1	58
	6.9%	75.9%	1.7%	3.4%	0.0%	3.4%	6.9%	1.7%	100.0%
디자인학부	8	66	8	9	4	5	2	3	105
	7.6%	62.9%	7.6%	8.6%	3.8%	4.8%	1.9%	2.9%	100.0%
간호복지학부	7	35	3	8	4	3	0	0	60
	11.7%	58.3%	5.0%	13.3%	6.7%	5.0%	0.0%	0.0%	100.0%
전체	60	295	35	67	18	16	11	9	511
	11.7%	57.7%	6.8%	13.1%	3.5%	3.1%	2.2%	1.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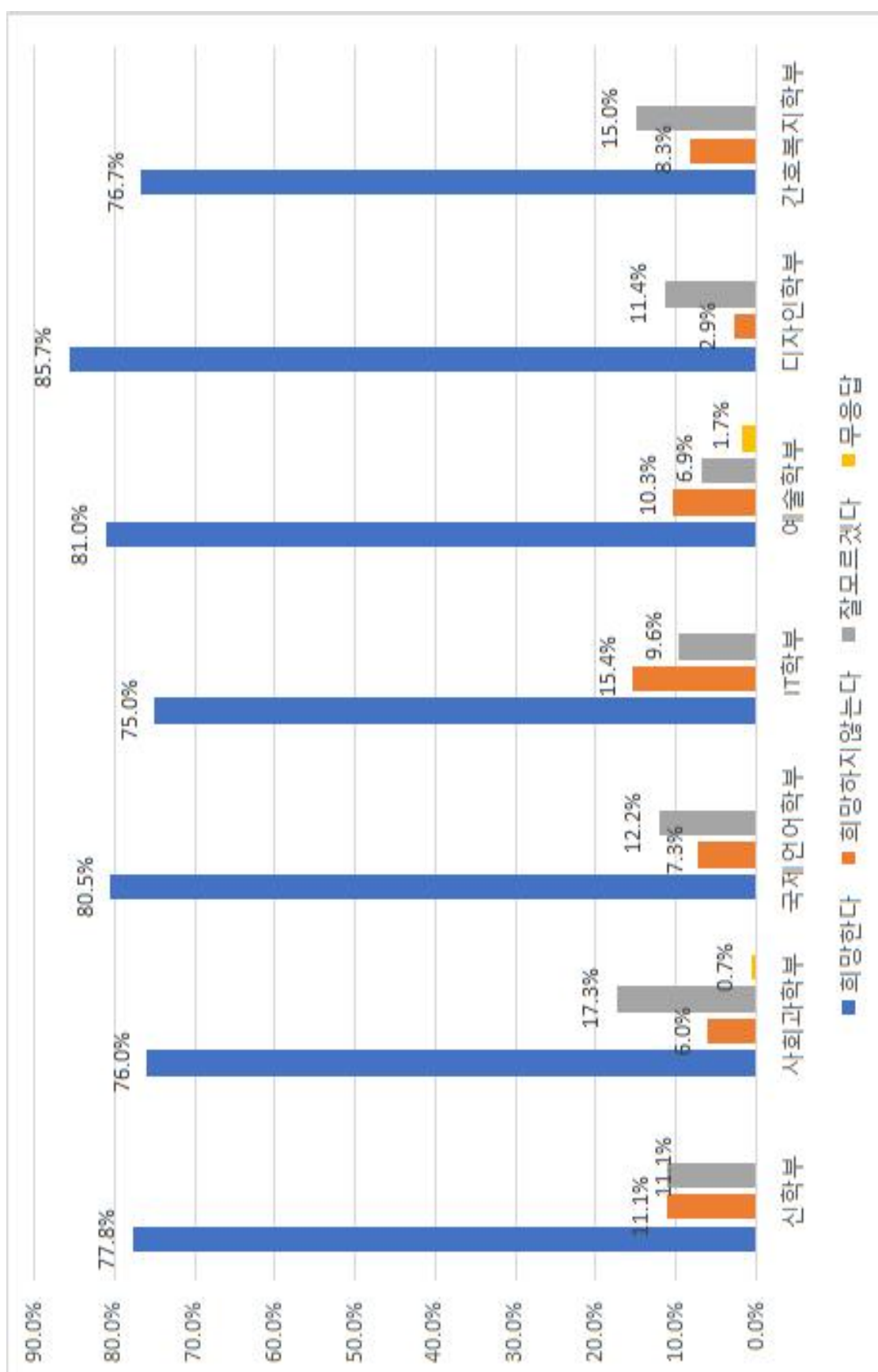
5) 아르바이트 희망여부

신입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9.1%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 아르바이트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7.6%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비교해 보면 디자인학부가 85.7%로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예술학부(81.0%), 국제언어학부(80.5%), 신학부(77.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 68.5%, 여학생 84.7%로 모두 높은 비율로 아르바이트를 희망하였으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아르바이트를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아르바이트 희망여부

단위:명,%

	희망한다	희망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무응답	전체
남	122	19	36	1	178
	68.5%	10.7%	20.2%	0.6%	100.0%
여	282	20	30	1	333
	84.7%	6.0%	9.0%	0.3%	100.0%
신학부	35	5	5	0	45
	77.8%	11.1%	11.1%	0.0%	100.0%
사회과학부	114	9	26	1	150
	76.0%	6.0%	17.3%	0.7%	100.0%
국제언어학부	33	3	5	0	41
	80.5%	7.3%	12.2%	0.0%	100.0%
IT학부	39	8	5	0	52
	75.0%	15.4%	9.6%	0.0%	100.0%
예술학부	47	6	4	1	58
	81.0%	10.3%	6.9%	1.7%	100.0%
디자인학부	90	3	12	0	105
	85.7%	2.9%	11.4%	0.0%	100.0%
간호복지학부	46	5	9	0	60
	76.7%	8.3%	15.0%	0.0%	100.0%
전체	404	39	66	2	511
	79.1%	7.6%	12.9%	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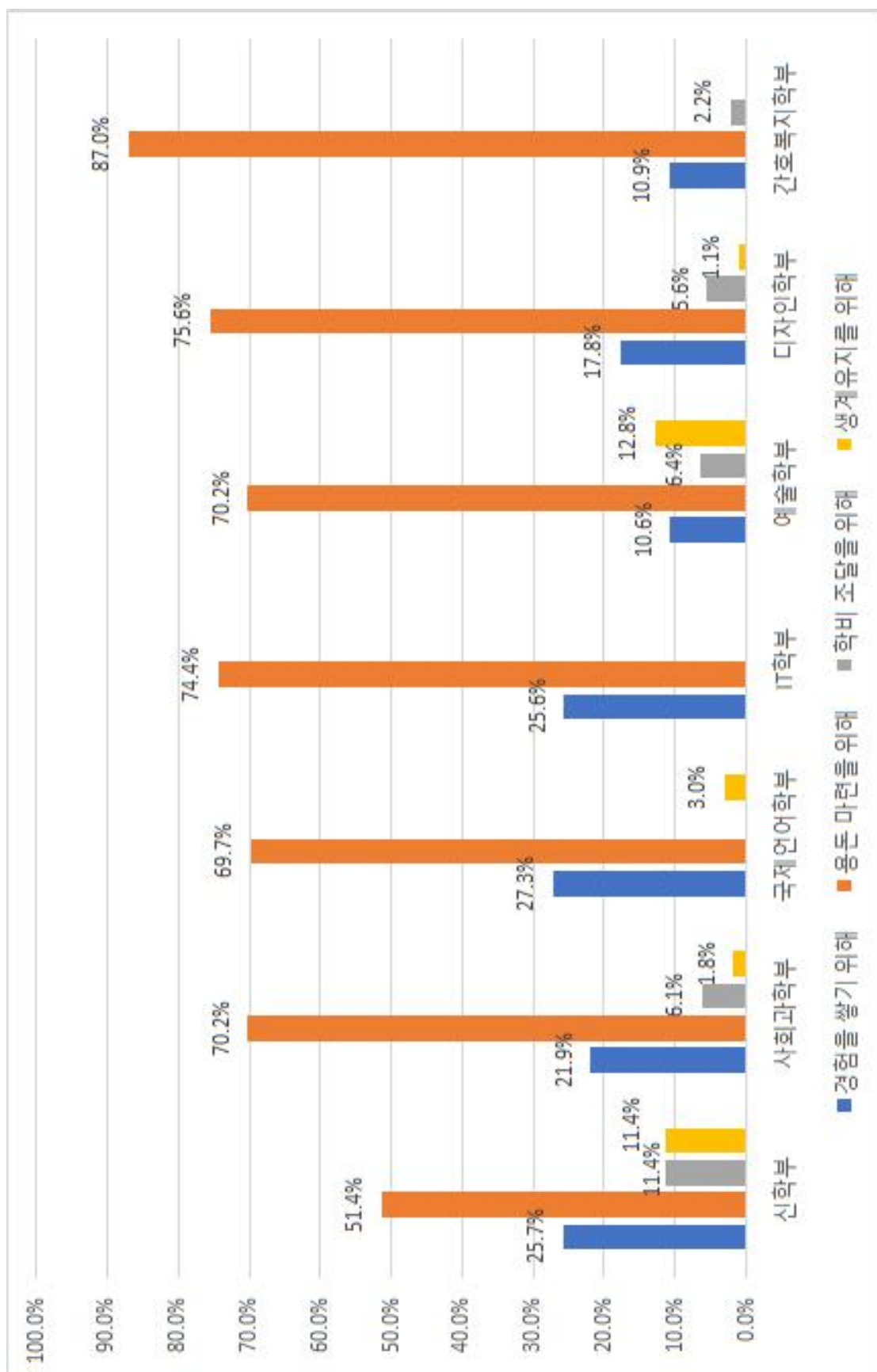
6)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이유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이유에서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용돈마련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7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경험 쌓기(19.6%), 학비조달(5.0%), 생계유지(3.5%)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보면 용돈마련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학부는 간호복지학부(87.0%)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디자인학부(75.6%), IT학부(74.4%)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63.9%)이 여학생(75.5%)보다 용돈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비율이 약간 낮게 나타났다.

<표 26>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이유

단위:명, %

	경험을 쌓기 위해	용돈 마련을 위해	학비 조달을 위해	생계유지를 위해	전체
남	32	78	7	5	122
	26.2%	63.9%	5.7%	4.1%	100.0%
여	47	213	13	9	282
	16.7%	75.5%	4.6%	3.2%	100.0%
신학부	9	18	4	4	35
	25.7%	51.4%	11.4%	11.4%	100.0%
사회과학부	25	80	7	2	114
	21.9%	70.2%	6.1%	1.8%	100.0%
국제언어학부	9	23	0	1	33
	27.3%	69.7%	0.0%	3.0%	100.0%
IT학부	10	29	0	0	39
	25.6%	74.4%	0.0%	0.0%	100.0%
예술학부	5	33	3	6	47
	10.6%	70.2%	6.4%	12.8%	100.0%
디자인학부	16	68	5	1	90
	17.8%	75.6%	5.6%	1.1%	100.0%
간호복지학부	5	40	1	0	46
	10.9%	87.0%	2.2%	0.0%	100.0%
전체	79	291	20	14	404
	19.6%	72.0%	5.0%	3.5%	100.0%



4. 대학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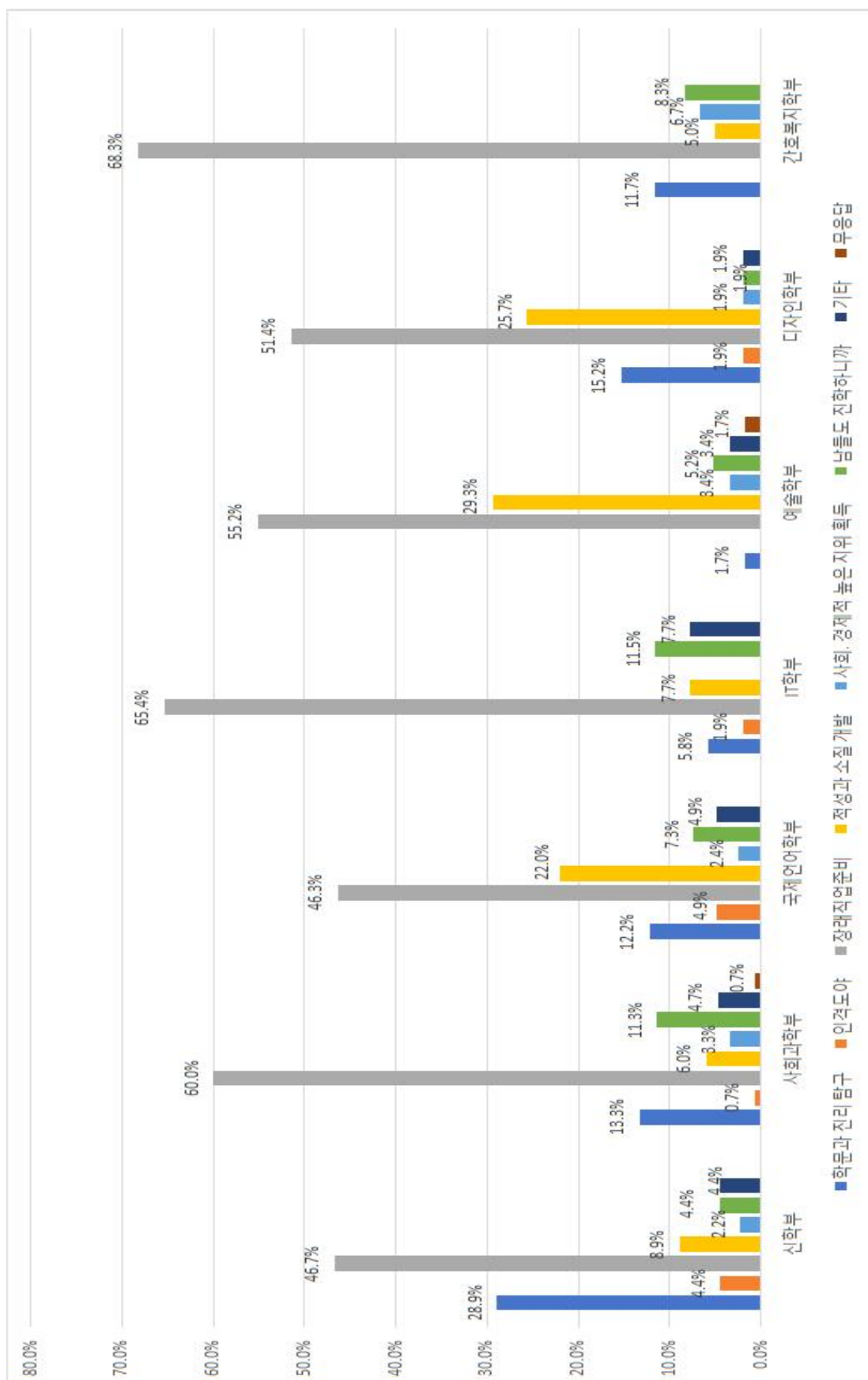
1) 대학 진학 동기

대학에 진학한 동기에 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56.9%가 ‘장래직업 준비’라고 답하였다. 다른 의견으로는 적성과 소질개발(14.3%), 학문과 진리 탐구(12.7%), 남들도 하니깐(7.4%)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부별로 보면 장래직업을 위해 진학했다는 응답에 간호복지학부가 6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IT학부(65.4%), 사회과학부(60.0%), 예술학부(55.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50.6%)과 여학생(60.4%) 모두 장래직업 준비를 위해 진학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7> 대학 진학 동기

단위:명,%

	학문과 진리 탐구	인격도야	장래직업 준비	적성과 소질 개발	사회·경제 적 높은 지위 획득	남들도 진학하니 까	기타	무응답	전체
남	31	3	90	24	6	15	8	1	178
	17.4%	1.7%	50.6%	13.5%	3.4%	8.4%	4.5%	0.6%	100.0%
여	34	5	201	49	9	23	11	1	333
	10.2%	1.5%	60.4%	14.7%	2.7%	6.9%	3.3%	0.3%	100.0%
신학부	13	2	21	4	1	2	2	0	45
	28.9%	4.4%	46.7%	8.9%	2.2%	4.4%	4.4%	0.0%	100.0%
사회과학부	20	1	90	9	5	17	7	1	150
	13.3%	0.7%	60.0%	6.0%	3.3%	11.3%	4.7%	0.7%	100.0%
국제언어학부	5	2	19	9	1	3	2	0	41
	12.2%	4.9%	46.3%	22.0%	2.4%	7.3%	4.9%	0.0%	100.0%
IT학부	3	1	34	4	0	6	4	0	52
	5.8%	1.9%	65.4%	7.7%	0.0%	11.5%	7.7%	0.0%	100.0%
예술학부	1	0	32	17	2	3	2	1	58
	1.7%	0.0%	55.2%	29.3%	3.4%	5.2%	3.4%	1.7%	100.0%
디자인학부	16	2	54	27	2	2	2	0	105
	15.2%	1.9%	51.4%	25.7%	1.9%	1.9%	1.9%	0.0%	100.0%
간호복지학부	7	0	41	3	4	5	0	0	60
	11.7%	0.0%	68.3%	5.0%	6.7%	8.3%	0.0%	0.0%	100.0%
전체	65	8	291	73	15	38	19	2	511
	12.7%	1.6%	56.9%	14.3%	2.9%	7.4%	3.7%	0.4%	100.0%



2) 본교가 기독교 학교임을 알고 지원하였는가?

본교가 기독교 학교임을 사전에 알고 지원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의 81.0%가 기독교 학교임을 알고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예’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학부는 신학부(100%)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국제언어학부(85.4%), 예술학부(81.0%), 디자인학부(80.0%), IT학부(78.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 82.6%, 여학생 80.2%가 본교가 기독교 학교임을 알고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본교가 기독교 학교임을 알고 지원하였는가

단위:명,%

	예	아니오	무응답	전체
남	147	30	1	178
	82.6%	16.9%	0.6%	100.0%
여	267	65	1	333
	80.2%	19.5%	0.3%	100.0%
신학부	45	0	0	45
	100.0%	0.0%	0.0%	100.0%
사회과학부	115	34	1	150
	76.7%	22.7%	0.7%	100.0%
국제언어학부	35	6	0	41
	85.4%	14.6%	0.0%	100.0%
IT학부	41	11	0	52
	78.8%	21.2%	0.0%	100.0%
예술학부	47	10	1	58
	81.0%	17.2%	1.7%	100.0%
디자인학부	84	21	0	105
	80.0%	20.0%	0.0%	100.0%
간호복지학부	47	13	0	60
	78.3%	21.7%	0.0%	100.0%
전체	414	95	2	511
	81.0%	18.6%	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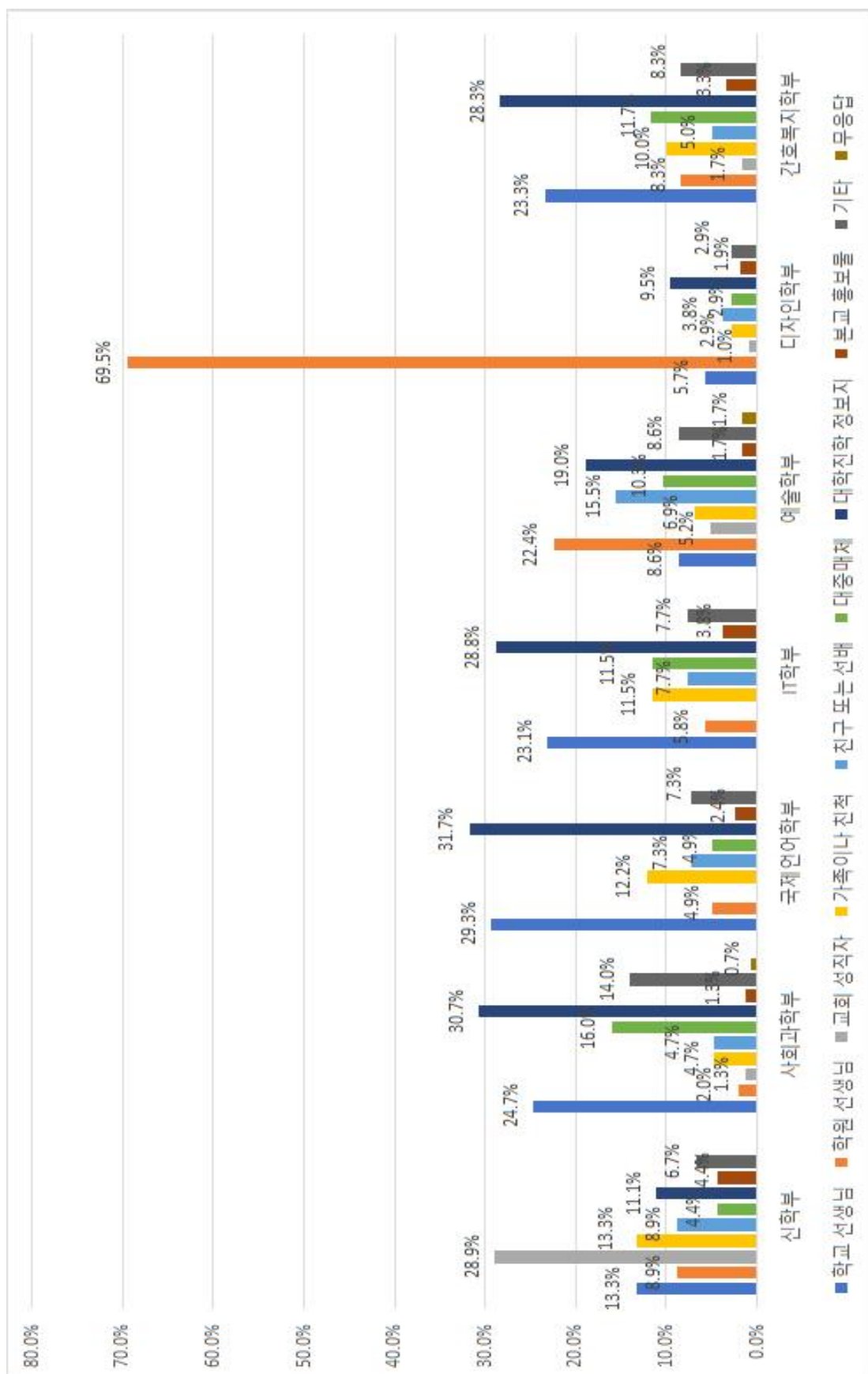
3) 본교를 알게 된 경로

본교에 대해 알게 된 경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신입생의 22.9% 대입진학 정보지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학원선생님(20.2%), 학교 선생님(18.0%), 대중매체(9.8%)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국제언어학부의 31.7%가 대입진학 정보지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과학부(30.7%)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학부는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 또는 대중매체가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24.2%), 여학생(22.2%)가 대학진학 정보지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29> 본교를 알게 된 경로

단위:명,%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교회 성직자	가족· 친척	친구· 선배	대중 매체	대학진학 정보지	본교 홍보물	기타	무응 답	전체
남	42	18	8	18	15	10	43	4	19	1	178
	23.6%	10.1%	4.5%	10.1%	8.4%	5.6%	24.2%	2.2%	10.7%	0.6%	100.0%
여	50	85	12	19	19	40	74	8	25	1	333
	15.0%	25.5%	3.6%	5.7%	5.7%	12.0%	22.2%	2.4%	7.5%	0.3%	100.0%
신학부	6	4	13	6	4	2	5	2	3	0	45
	13.3%	8.9%	28.9%	13.3%	8.9%	4.4%	11.1%	4.4%	6.7%	0.0%	100.0%
사회과 학부	37	3	2	7	7	24	46	2	21	1	150
	24.7%	2.0%	1.3%	4.7%	4.7%	16.0%	30.7%	1.3%	14.0%	0.7%	100.0%
국제 언어학 부	12	2	0	5	3	2	13	1	3	0	41
	29.3%	4.9%	0.0%	12.2%	7.3%	4.9%	31.7%	2.4%	7.3%	0.0%	100.0%
IT학부	12	3	0	6	4	6	15	2	4	0	52
	23.1%	5.8%	0.0%	11.5%	7.7%	11.5%	28.8%	3.8%	7.7%	0.0%	100.0%
예술학 부	5	13	3	4	9	6	11	1	5	1	58
	8.6%	22.4%	5.2%	6.9%	15.5%	10.3%	19.0%	1.7%	8.6%	1.7%	100.0%
디자인 학부	6	73	1	3	4	3	10	2	3	0	105
	5.7%	69.5%	1.0%	2.9%	3.8%	2.9%	9.5%	1.9%	2.9%	0.0%	100.0%
간호 복지학 부	14	5	1	6	3	7	17	2	5	0	60
	23.3%	8.3%	1.7%	10.0%	5.0%	11.7%	28.3%	3.3%	8.3%	0.0%	100.0%
전체	92	103	20	37	34	50	117	12	44	2	511
	18.0%	20.2%	3.9%	7.2%	6.7%	9.8%	22.9%	2.3%	8.6%	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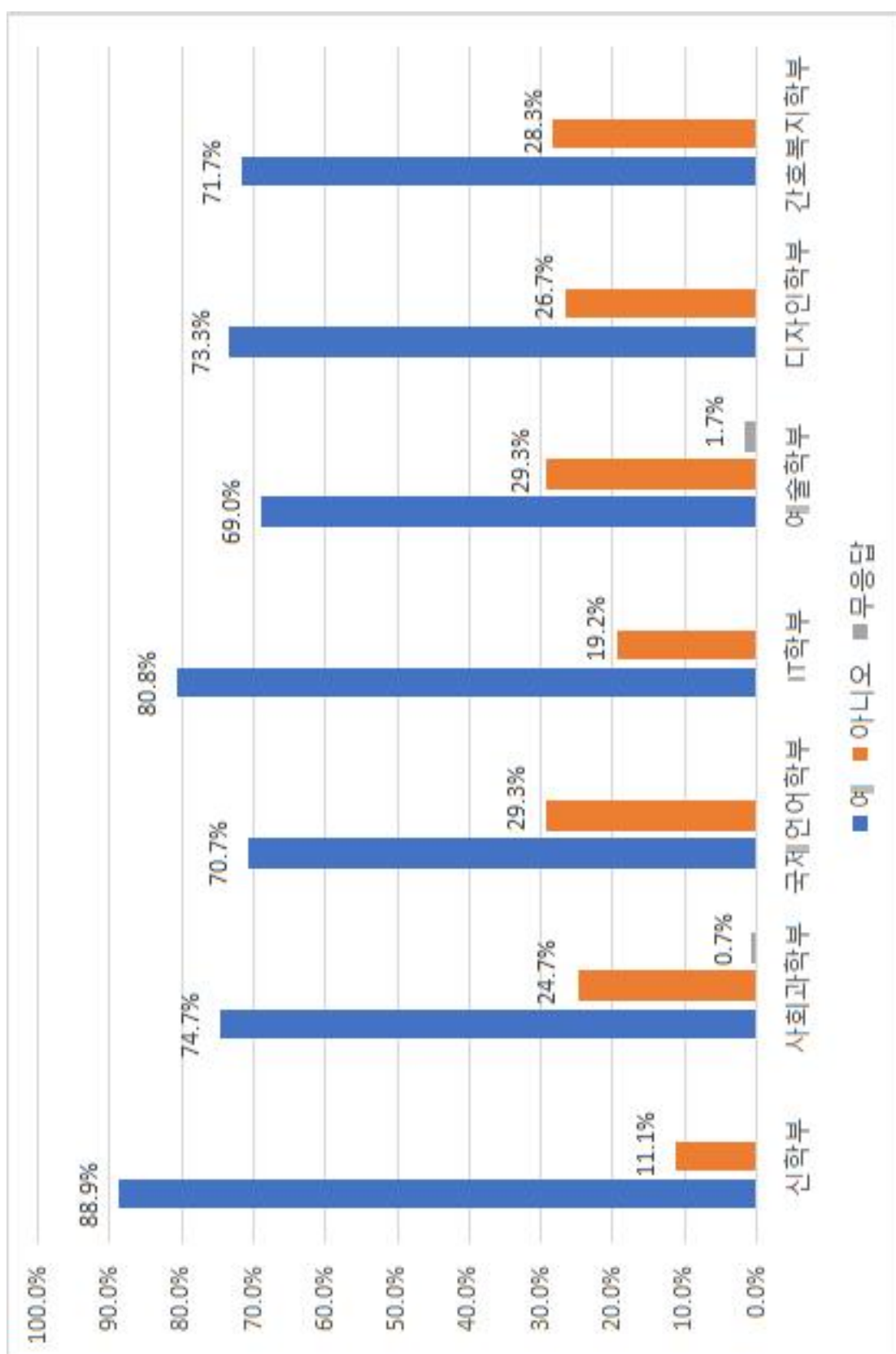
4) 학교의 만족도

본교 입학에 만족하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신입생의 75.0%가 본교에 입학한 것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80.0%, 2015년 74.1%, 2016년 71.2%로 계속 낮아지다가 2017년부터 만족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학부별로 보면 ‘예’라고 응답한 경우는 신학부가 88.9%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IT학부(80.8%), 사회과학부(74.7%), 디자인학부(73.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니오’라는 응답은 국제언어학부가 29.3%, 예술학부(29.3%)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78.7%, 여학생의 73.0%가 본교 입학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 학교의 만족도

단위:명,%

	예	아니오	무응답	전체
남	140	37	1	178
	78.7%	20.8%	0.6%	100.0%
여	243	89	1	333
	73.0%	26.7%	0.3%	100.0%
신학부	40	5	0	45
	88.9%	11.1%	0.0%	100.0%
사회과학부	112	37	1	150
	74.7%	24.7%	0.7%	100.0%
국제언어학부	29	12	0	41
	70.7%	29.3%	0.0%	100.0%
IT학부	42	10	0	52
	80.8%	19.2%	0.0%	100.0%
예술학부	40	17	1	58
	69.0%	29.3%	1.7%	100.0%
디자인학부	77	28	0	105
	73.3%	26.7%	0.0%	100.0%
간호복지학부	43	17	0	60
	71.7%	28.3%	0.0%	100.0%
전체	383	126	2	511
	75.0%	24.7%	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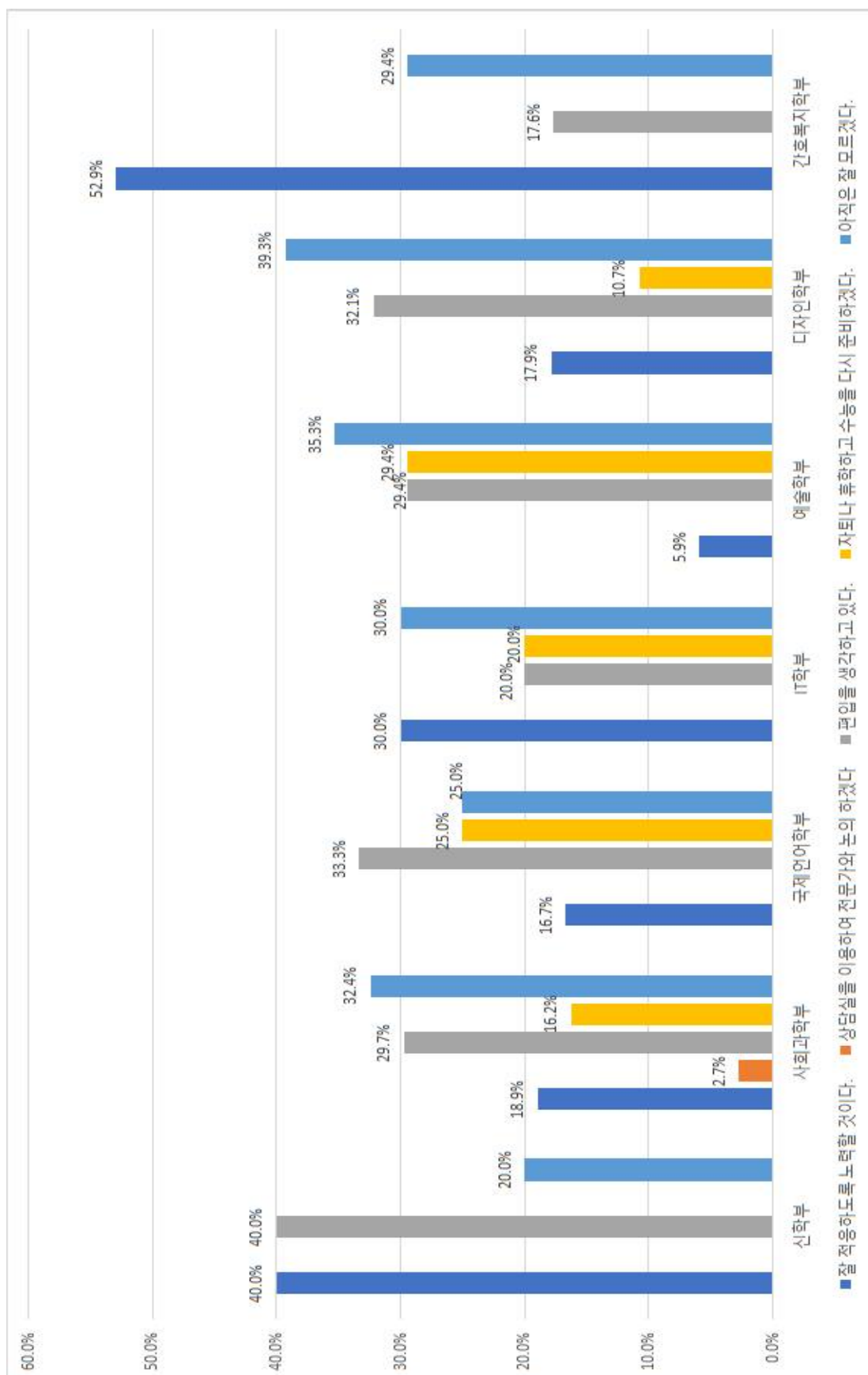
5) 불만족 시 앞으로의 계획

본교 입학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26명 중,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에 아직 잘 모르겠다(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편입을 생각하고 있다(28.6%)와 잘 적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다(23.0%) 순으로 나타났다. 아직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디자인학부(39.3%)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예술학부(35.3%), 사회과학부(32.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편입을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신학부(40%), 국제언어학부(33.3%) 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아직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남학생은 29.7%, 여학생 33.7%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표 31> 불만족 시 앞으로의 계획

단위:명%

	잘 적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상담실을 이용하여 전문가와 논의 하겠다	편입을 생각하고 있다	자퇴나 휴학하고 수능을 다시 준비하겠다	아직은 잘 모르겠다	전체
남	10	0	12	4	11	37
	27.0%	0.0%	32.4%	10.8%	29.7%	100.0%
여	19	1	24	15	30	89
	21.3%	1.1%	27.0%	16.9%	33.7%	100.0%
신학부	2	0	2	0	1	5
	40.0%	0.0%	40.0%	0.0%	20.0%	100.0%
사회과학부	7	1	11	6	12	37
	18.9%	2.7%	29.7%	16.2%	32.4%	100.0%
국제언어학부	2	0	4	3	3	12
	16.7%	0.0%	33.3%	25.0%	25.0%	100.0%
IT학부	3	0	2	2	3	10
	30.0%	0.0%	20.0%	20.0%	30.0%	100.0%
예술학부	1	0	5	5	6	17
	5.9%	0.0%	29.4%	29.4%	35.3%	100.0%
디자인학부	5	0	9	3	11	28
	17.9%	0.0%	32.1%	10.7%	39.3%	100.0%
간호복지학부	9	0	3	0	5	17
	52.9%	0.0%	17.6%	0.0%	29.4%	100.0%
전체	29	1	36	19	41	126
	23.0%	0.8%	28.6%	15.1%	32.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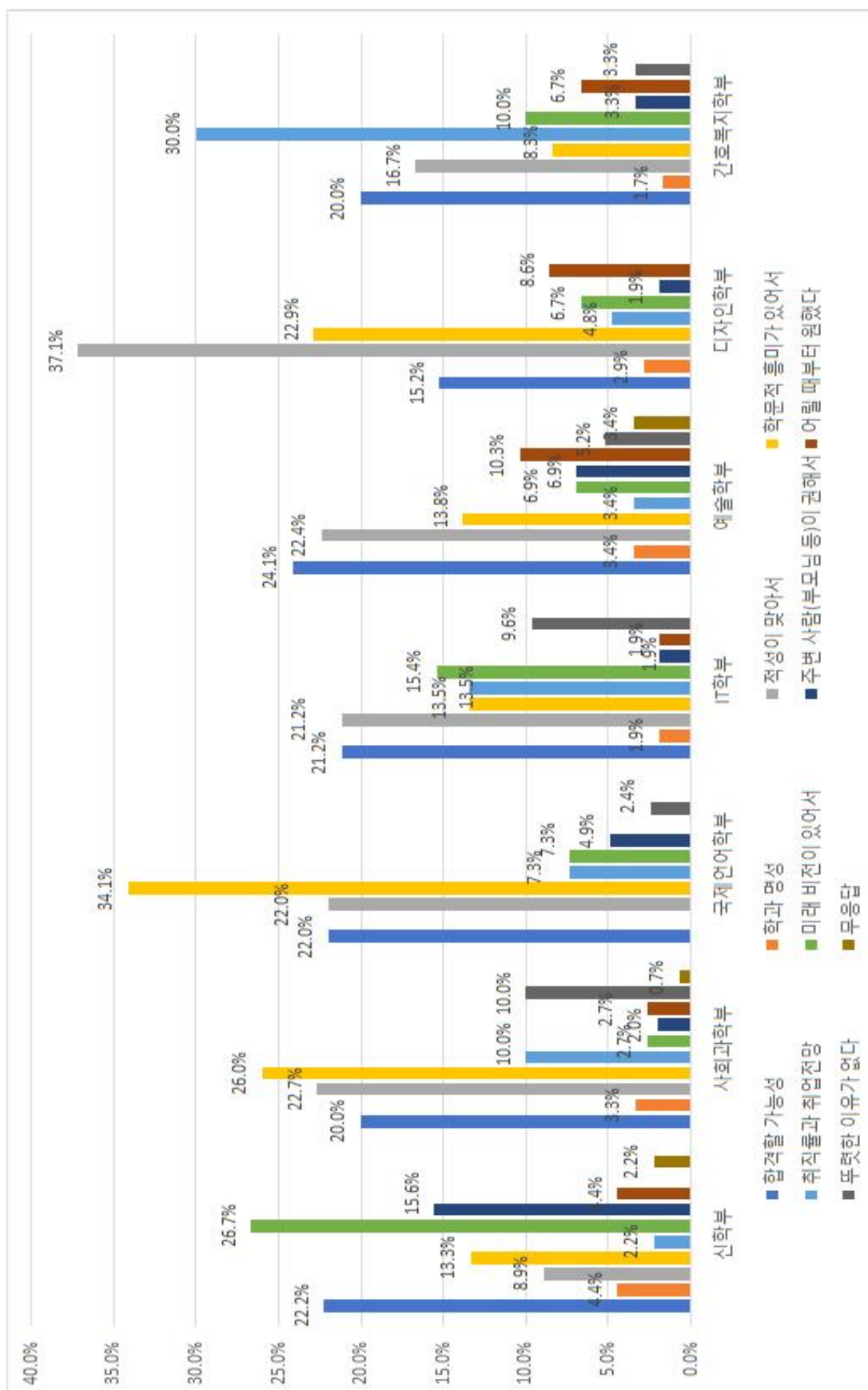
6) 학부 선택의 결정적 요인

신입생들에게 전공학부 선택 시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적성이 맞아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2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학문적 흥미가 있어서(20.2%), 합격할 가능성(20.2%), 취업률과 취업전망(10.0%)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IT학부는 합격할 가능성(21.2%), 디자인학부는 적성이 맞아서(37.1%), 간호복지학부는 취업률과 취업전망(30.3%)이라고 응답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적성이 맞아서 (23.6%), 적성이 맞아서(23.4%) 때문에 학부를 선택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32> 학부 선택에 결정적 요인

단위:명,%

	합격할 가능성	학과 명성	적성이 맞아서	학문적 흥미가 있어서	취업률과 취업 전망	미래 비전이 있어서	주변사람 (부모님 등)이 권해서	어릴 때부터 원했다	뚜렷한 이유가 없다	무응 답	전체
남	33	4	42	34	16	20	10	7	10	2	178
	18.5%	2.2%	23.6%	19.1%	9.0%	11.2%	5.6%	3.9%	5.6%	1.1%	100.0%
여	69	10	78	69	35	24	11	19	16	2	333
	20.7%	3.0%	23.4%	20.7%	10.5%	7.2%	3.3%	5.7%	4.8%	0.6%	100.0%
신학부	10	2	4	6	1	12	7	2	0	1	45
	22.2%	4.4%	8.9%	13.3%	2.2%	26.7%	15.6%	4.4%	0.0%	2.2%	100.0%
사회과학부	30	5	34	39	15	4	3	4	15	1	150
	20.0%	3.3%	22.7%	26.0%	10.0%	2.7%	2.0%	2.7%	10.0%	0.7%	100.0%
국제 언어학부	9	0	9	14	3	3	2	0	1	0	41
	22.0%	0.0%	22.0%	34.1%	7.3%	7.3%	4.9%	0.0%	2.4%	0.0%	100.0%
IT학부	11	1	11	7	7	8	1	1	5	0	52
	21.2%	1.9%	21.2%	13.5%	13.5%	15.4%	1.9%	1.9%	9.6%	0.0%	100.0%
예술학부	14	2	13	8	2	4	4	6	3	2	58
	24.1%	3.4%	22.4%	13.8%	3.4%	6.9%	6.9%	10.3%	5.2%	3.4%	100.0%
디자인 학부	16	3	39	24	5	7	2	9	0	0	105
	15.2%	2.9%	37.1%	22.9%	4.8%	6.7%	1.9%	8.6%	0.0%	0.0%	100.0%
간호 복지학부	12	1	10	5	18	6	2	4	2	0	60
	20.0%	1.7%	16.7%	8.3%	30.0%	10.0%	3.3%	6.7%	3.3%	0.0%	100.0%
전체	102	14	120	103	51	44	21	26	26	4	511
	20.0%	2.7%	23.5%	20.2%	10.0%	8.6%	4.1%	5.1%	5.1%	0.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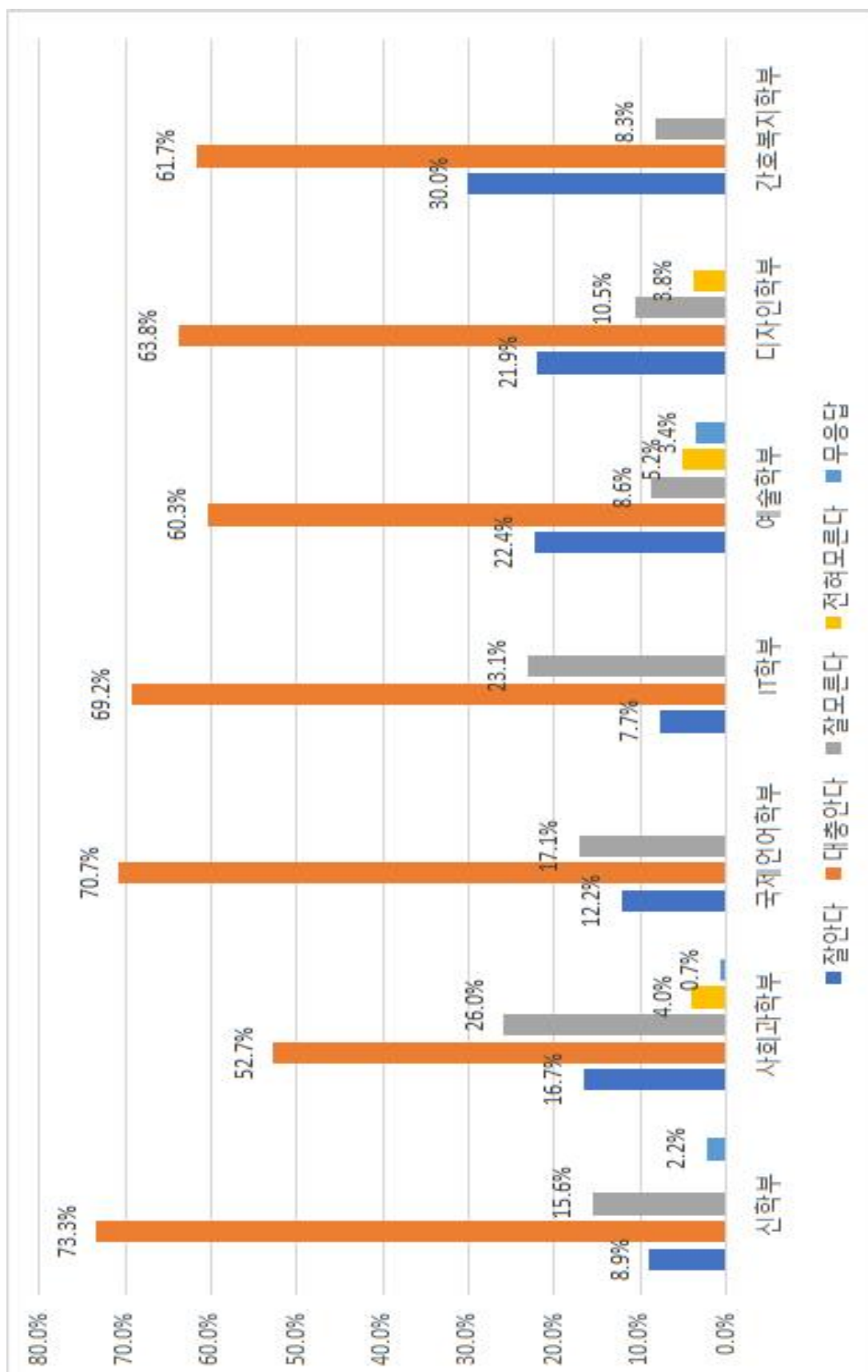
7) 학부에 대한 사전 지식

신입생들에게 지망학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대충 안다’로 응답한 학생이 61.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잘 안다’ 18.0%, ‘잘 모른다’가 16.8%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대충 안다고 응답한 비율이 신학부가 73.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국제언어학부(70.7%), IT학부(69.2%), 디자인학부(63.8%) 순으로 나타났다. 잘 안다고 대답한 비율은 예술학부가 2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24.7%, 여학생의 23.4%가 학부에 대한 사전 지식에 대해 대충 안다고 응답하였다.

<표 33> 학부에 대한 사전 지식

단위:명,%

	잘 안다	대충 안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무응답	전체
남	19	44	56	58	1	178
	10.7%	24.7%	31.5%	32.6%	0.6%	100.0%
여	49	78	100	104	2	333
	14.7%	23.4%	30.0%	31.2%	0.6%	100.0%
신학부	4	33	7	0	1	45
	8.9%	73.3%	15.6%	0.0%	2.2%	100.0%
사회과학부	25	79	39	6	1	150
	16.7%	52.7%	26.0%	4.0%	0.7%	100.0%
국제언어학부	5	29	7	0	0	41
	12.2%	70.7%	17.1%	0.0%	0.0%	100.0%
IT학부	4	36	12	0	0	52
	7.7%	69.2%	23.1%	0.0%	0.0%	100.0%
예술학부	13	35	5	3	2	58
	22.4%	60.3%	8.6%	5.2%	3.4%	100.0%
디자인학부	23	67	11	4	0	105
	21.9%	63.8%	10.5%	3.8%	0.0%	100.0%
간호복지학부	18	37	5	0	0	60
	30.0%	61.7%	8.3%	0.0%	0.0%	100.0%
전체	92	316	86	13	4	511
	18.0%	61.8%	16.8%	2.5%	0.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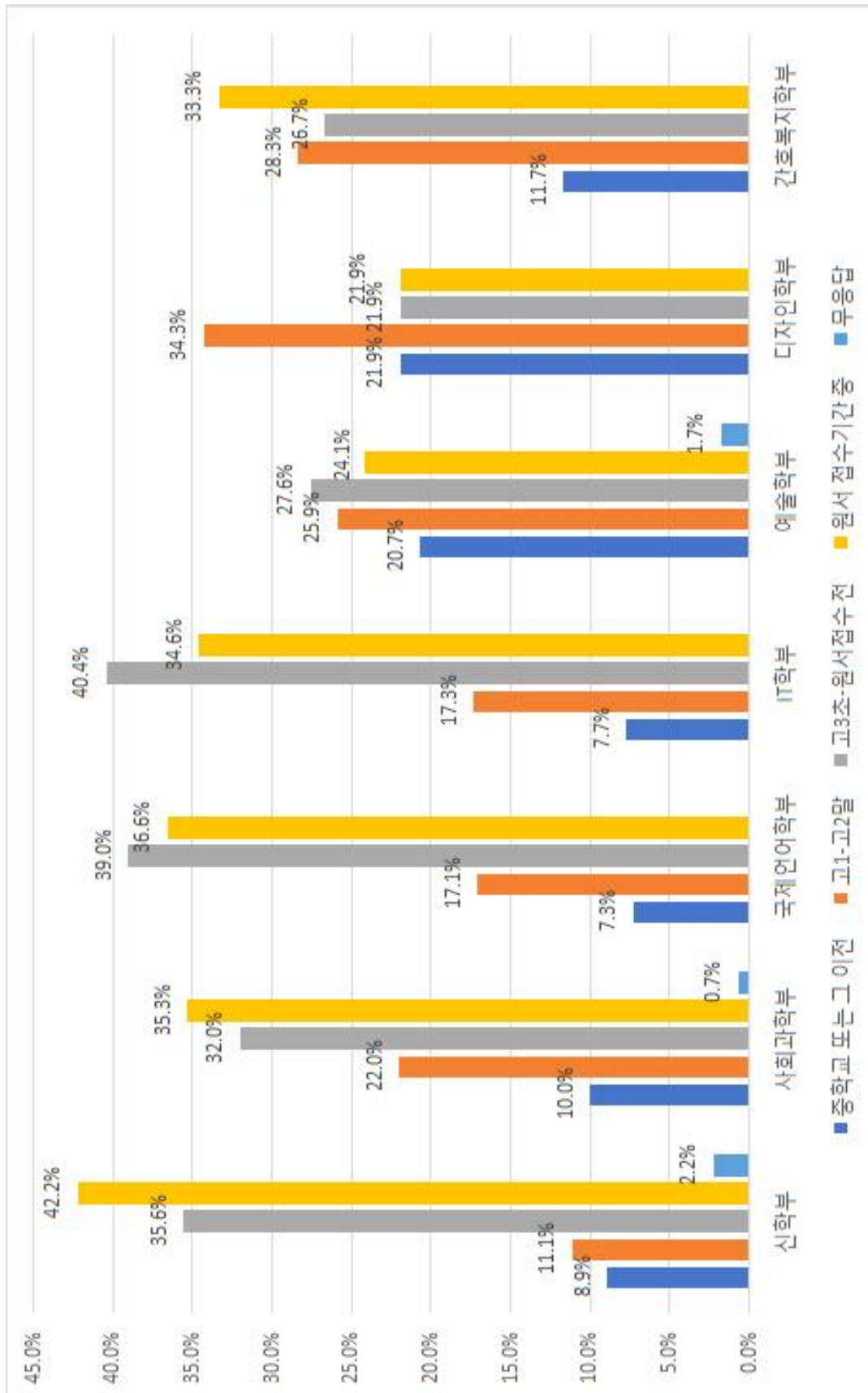
8) 학부의 결정시기

신입생들의 현재 지망한 학부를 선택한 시기는 ‘원서접수기간’이라는 응답이 31.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고3초-원서접수 전’(30.5%), ‘고1-고2말’(23.9%), ‘중학교 또는 그 이전’(13.3%) 순으로 나타났다. ‘원서접수기간’에 결정하였다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신학부(42.2%), 국제언어학부(3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3초-원서접수 전’에 결정하였다는 응답은 IT학부(40.4%), 국제언어학부(39.0%)로 나타났다. 그리고 디자인학부는 중학교 또는 그 이전, 고3초-원서접수 전, 원서 접수기간 중 모두 21.9%로 같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31.5%가 고3초-원서접수 전, 여학생은 30.3%가 ‘원서 접수기간 중에 결정하였다’에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표 34> 학부의 결정시기

단위:명,%

	중학교 또는 그 이전	고1-고2말	고3초- 원서접수 전	원서 접수기간 중	무응답	전체
남	19	44	56	58	1	178
	10.7%	24.7%	31.5%	32.6%	0.6%	100.0%
여	49	78	100	104	2	333
	14.7%	23.4%	30.0%	31.2%	0.6%	100.0%
신학부	4	5	16	19	1	45
	8.9%	11.1%	35.6%	42.2%	2.2%	100.0%
사회과학부	15	33	48	53	1	150
	10.0%	22.0%	32.0%	35.3%	0.7%	100.0%
국제언어학부	3	7	16	15	0	41
	7.3%	17.1%	39.0%	36.6%	0.0%	100.0%
IT학부	4	9	21	18	0	52
	7.7%	17.3%	40.4%	34.6%	0.0%	100.0%
예술학부	12	15	16	14	1	58
	20.7%	25.9%	27.6%	24.1%	1.7%	100.0%
디자인학부	23	36	23	23	0	105
	21.9%	34.3%	21.9%	21.9%	0.0%	100.0%
간호복지학부	7	17	16	20	0	60
	11.7%	28.3%	26.7%	33.3%	0.0%	100.0%
전체	68	122	156	162	3	511
	13.3%	23.9%	30.5%	31.7%	0.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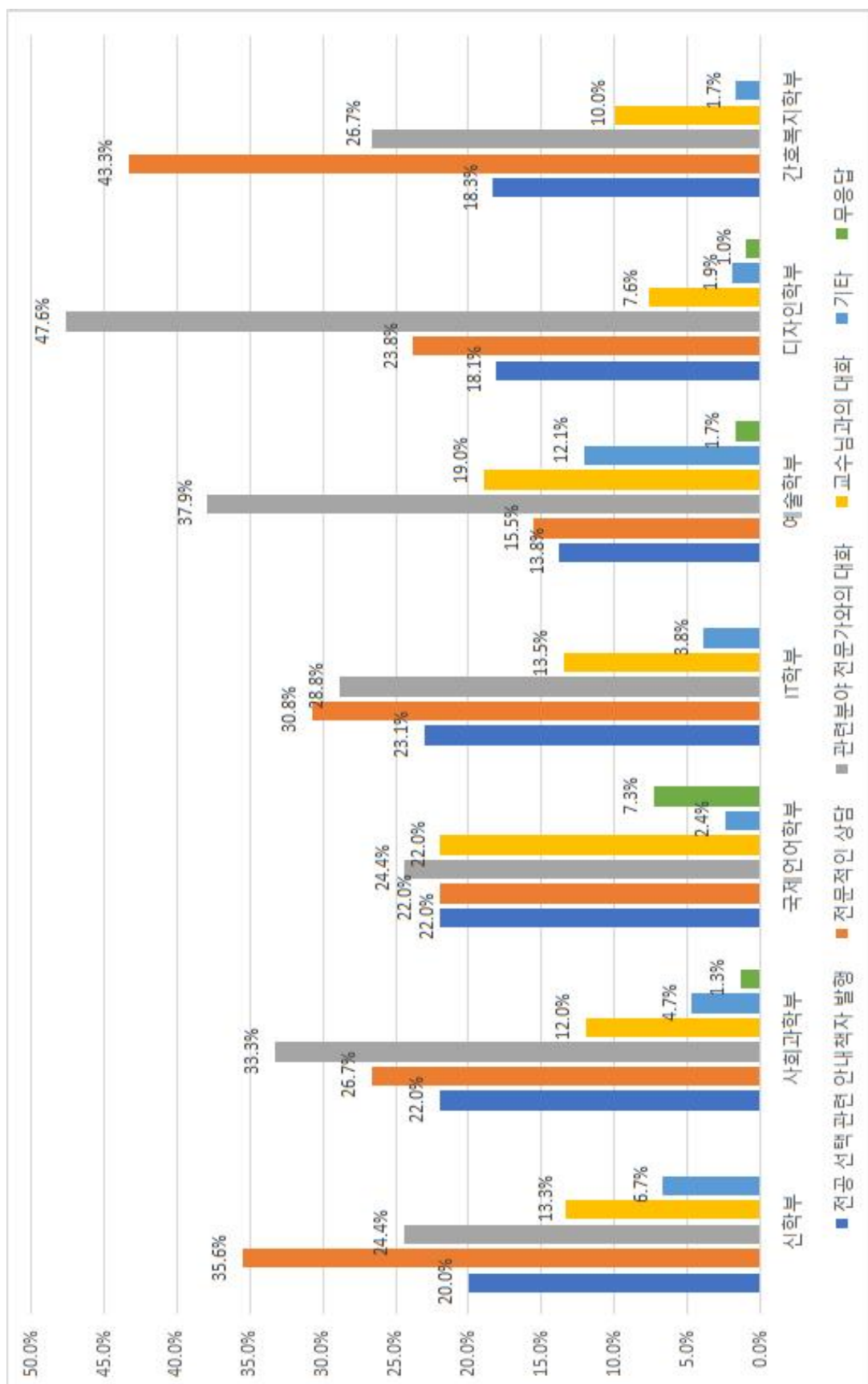
9) 2학년 진학 시 전공 선택에 있어 학교로부터 받기 원하는 도움

신입생들이 2학년으로 진학할 경우 전공 선택에 있어서 학교로부터 받기 원하는 도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신입생의 34.1%가 관련분야 전문가와의 대화라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전문적인 상담(27.6%), 전공 선택 관련 안내책자 발행(19.8%), 교수님과의 대화(12.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디자인학부 47.6%, 예술학부 37.9%가 관련분야 전문가와의 대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간호복지학부(43.3%), 신학부(35.6%), IT학부(30.8%)는 전문적인 상담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은 37.5%가 관련분야 전문가와의 대화를 원했고, 남학생은 27.5%로 전문가와의 대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전공 선택에 있어 학교로부터 받기 원하는 도움

단위:명,%

	전공 선택 관련 안내책자 발행	전문적인 상담	관련분야 전문가와의 대화	교수님과의 대화	기타	무응답	전체
남	38	45	49	32	12	2	178
	21.3%	25.3%	27.5%	18.0%	6.7%	1.1%	100.0%
여	63	96	125	33	11	5	333
	18.9%	28.8%	37.5%	9.9%	3.3%	1.5%	100.0%
신학부	9	16	11	6	3	0	45
	20.0%	35.6%	24.4%	13.3%	6.7%	0.0%	100.0%
사회과학부	33	40	50	18	7	2	150
	22.0%	26.7%	33.3%	12.0%	4.7%	1.3%	100.0%
국제언어학부	9	9	10	9	1	3	41
	22.0%	22.0%	24.4%	22.0%	2.4%	7.3%	100.0%
IT학부	12	16	15	7	2	0	52
	23.1%	30.8%	28.8%	13.5%	3.8%	0.0%	100.0%
예술학부	8	9	22	11	7	1	58
	13.8%	15.5%	37.9%	19.0%	12.1%	1.7%	100.0%
디자인학부	19	25	50	8	2	1	105
	18.1%	23.8%	47.6%	7.6%	1.9%	1.0%	100.0%
간호복지학부	11	26	16	6	1	0	60
	18.3%	43.3%	26.7%	10.0%	1.7%	0.0%	100.0%
전체	101	141	174	65	23	7	511
	19.8%	27.6%	34.1%	12.7%	4.5%	1.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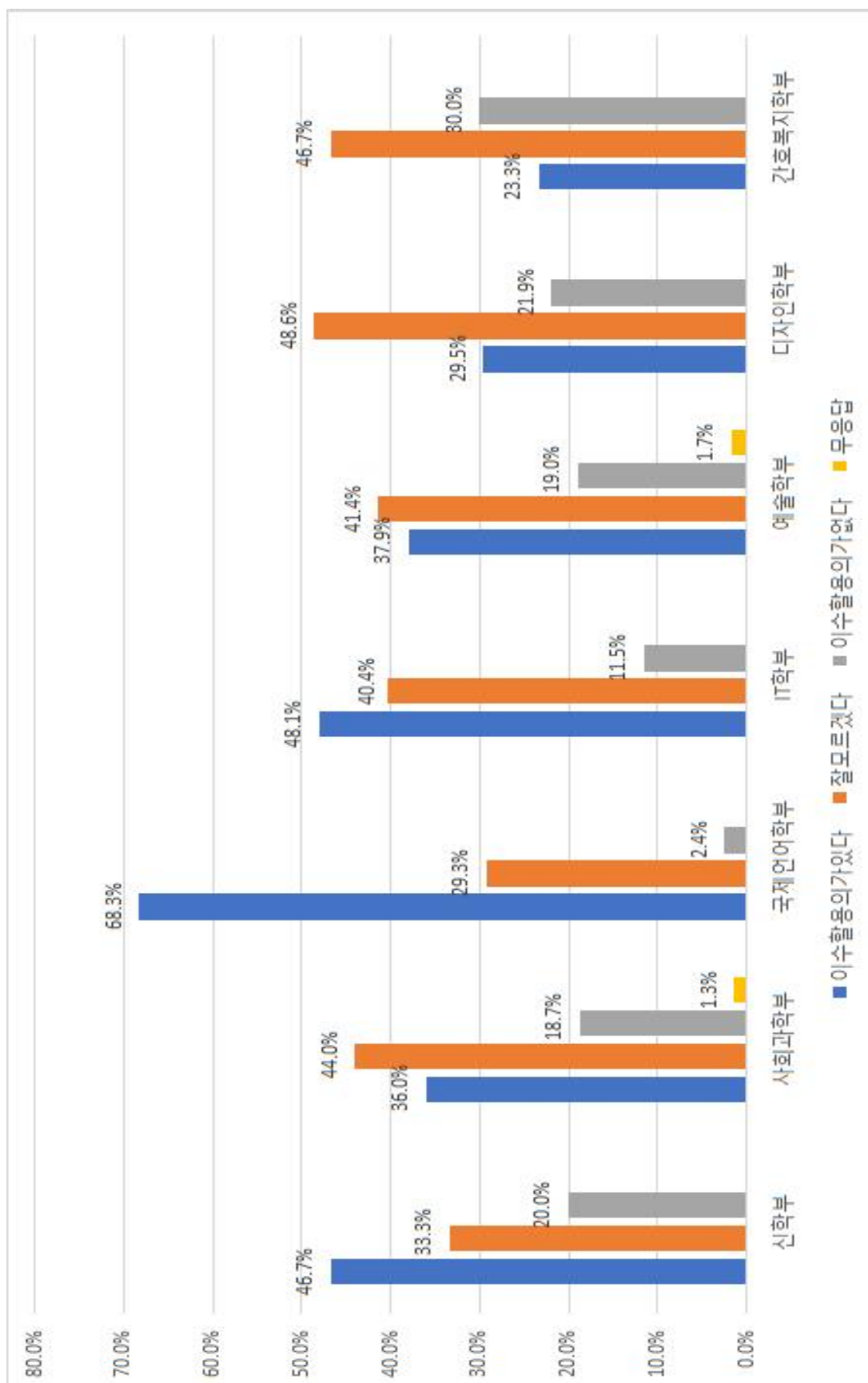
10) 복수전공의 이수 용의

신입생들의 복수전공 이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2.5%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고, 이수할 용의가 있다(38.2%), 이수할 용의가 없다(18.8%)로 나타났다. 복수전공 이수 용의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국제언어학부가 68.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IT학부(48.1%), 신학부(46.7%), 예술학부(37.9%) 순이다. 간호복지학부의 경우 이수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3.3%인 반면, 이수할 용의가 없다고 30.0%로 모든 학부 중에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42.7%, 여학생의 35.7%가 복수전공을 이수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36> 복수전공의 이수용의

단위:명, %

	이수할 용의가 있다	잘 모르겠다	이수할 용의가 없다	무응답	전체
남	76	71	30	1	178
	42.7%	39.9%	16.9%	0.6%	100.0%
여	119	146	66	2	333
	35.7%	43.8%	19.8%	0.6%	100.0%
신학부	21	15	9	0	45
	46.7%	33.3%	20.0%	0.0%	100.0%
사회과학부	54	66	28	2	150
	36.0%	44.0%	18.7%	1.3%	100.0%
국제언어학부	28	12	1	0	41
	68.3%	29.3%	2.4%	0.0%	100.0%
IT학부	25	21	6	0	52
	48.1%	40.4%	11.5%	0.0%	100.0%
예술학부	22	24	11	1	58
	37.9%	41.4%	19.0%	1.7%	100.0%
디자인학부	31	51	23	0	105
	29.5%	48.6%	21.9%	0.0%	100.0%
간호복지학부	14	28	18	0	60
	23.3%	46.7%	30.0%	0.0%	100.0%
전체	195	217	96	3	511
	38.2%	42.5%	18.8%	0.6%	100.0%



11)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신청 여부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신청여부에 관한 질문에서는 ‘예’라고 응답한 학생이 59.9%, ‘아니오’라고 답한 학생이 39.5%로 나타났다. 2017년 ‘아니오’(41.7%), ‘예’(58.1%)로 응답한 것에 비해 올해 많이 증가하였다. ‘예’라고 응답한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국제언어학부가 8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디자인학부(66.7%), 간호복지학부(58.3%), IT학부(57.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예’(55.1%), 여학생은 ‘예’(62.5%)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7>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신청 여부

단위:명,%

	예	아니오	무응답	전체
남	98	79	1	178
	55.1%	44.4%	0.6%	100.0%
여	208	123	2	333
	62.5%	36.9%	0.6%	100.0%
신학부	23	22	0	45
	51.1%	48.9%	0.0%	100.0%
사회과학부	85	63	2	150
	56.7%	42.0%	1.3%	100.0%
국제언어학부	36	5	0	41
	87.8%	12.2%	0.0%	100.0%
IT학부	30	22	0	52
	57.7%	42.3%	0.0%	100.0%
예술학부	27	30	1	58
	46.6%	51.7%	1.7%	100.0%
디자인학부	70	35	0	105
	66.7%	33.3%	0.0%	100.0%
간호복지학부	35	25	0	60
	58.3%	41.7%	0.0%	100.0%
전체	306	202	3	511
	59.9%	39.5%	0.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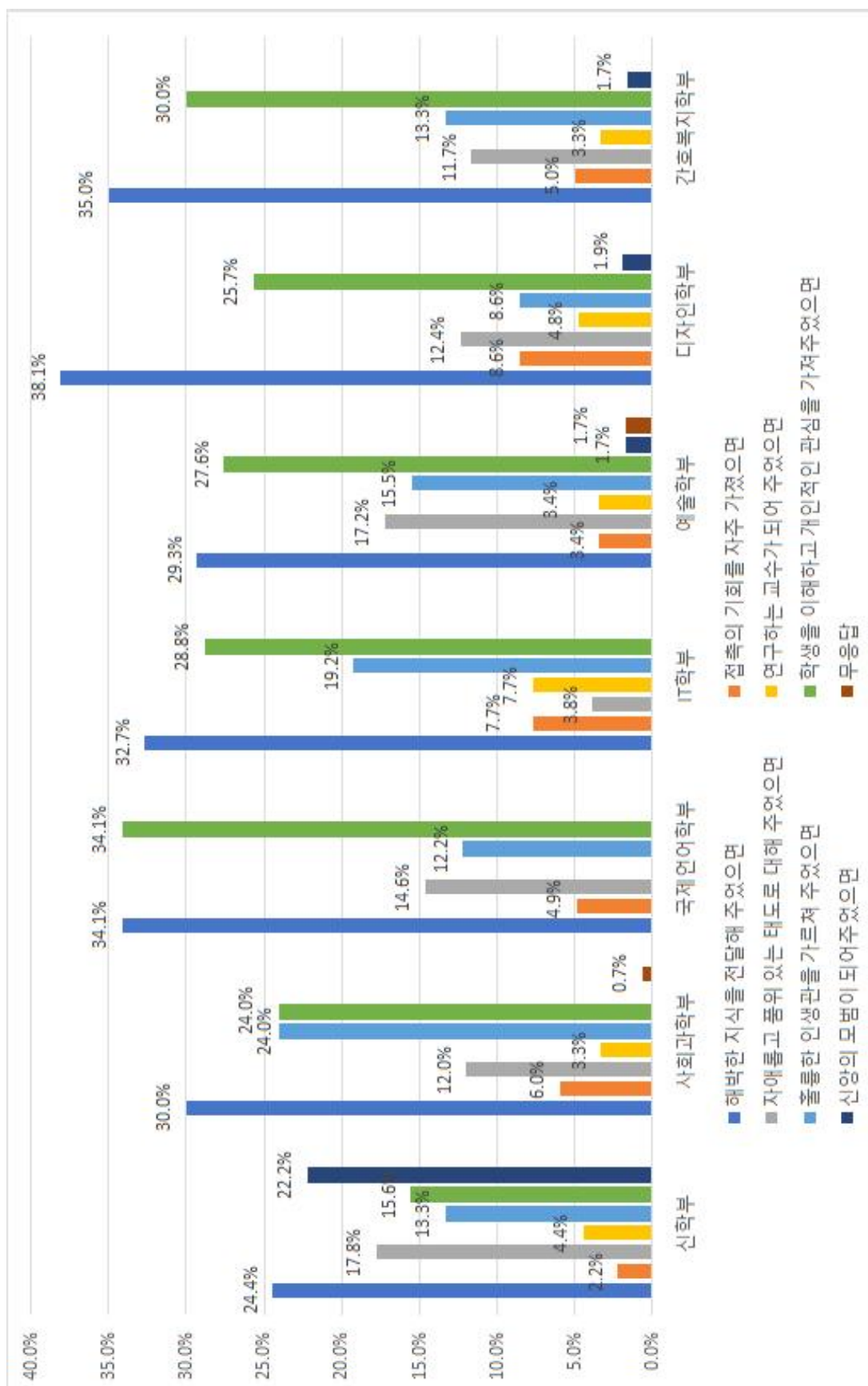
12) 교수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

신입생들이 교수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은 해박한 지식을 전달(32.3%)을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학생을 이해하고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26.0%), 해박한 지식전달 (28.6%)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비교해볼 때, 개인적인 관심(29.1%), 해박한 지식 전달(28.6%)로 유사 하였으나, 자애롭고 품위 있는 태도는 2015년(9.1%), 2016년(13.0%), 2017년(13.5%)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8년(12.5%)로 다소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해박한 지식전달에 대한 항목에 디자인학부 38.1%, 학생이해와 개인적인 관심은 국제언어학부가 34.1%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29.2%)과 여학생(33.9%) 모두 교수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 1순위로 해박한 지식 전달을 선택했다.

<표 38> 교수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

단위:명,%

	해박한 지식을 전달해 주었으면	접촉의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자애롭고 품위 있는 태도로 대해 주었으면	연구하는 교수가 되어 주었으면	훌륭한 인생관을 가르쳐 주었으면	학생을 이해하고 개인적인 관심을 가져주었 으면	신앙의 모범이 되어 주었으면	무응답	전체
남	52	17	23	5	28	45	7	1	178
	29.2%	9.6%	12.9%	2.8%	15.7%	25.3%	3.9%	0.6%	100.0%
여	113	13	41	15	55	88	7	1	333
	33.9%	3.9%	12.3%	4.5%	16.5%	26.4%	2.1%	0.3%	100.0%
신학부	11	1	8	2	6	7	10	0	45
	24.4%	2.2%	17.8%	4.4%	13.3%	15.6%	22.2%	0.0%	100.0%
사회과학부	45	9	18	5	36	36	0	1	150
	30.0%	6.0%	12.0%	3.3%	24.0%	24.0%	0.0%	0.7%	100.0%
국제 언어학부	14	2	6	0	5	14	0	0	41
	34.1%	4.9%	14.6%	0.0%	12.2%	34.1%	0.0%	0.0%	100.0%
IT학부	17	4	2	4	10	15	0	0	52
	32.7%	7.7%	3.8%	7.7%	19.2%	28.8%	0.0%	0.0%	100.0%
예술학부	17	2	10	2	9	16	1	1	58
	29.3%	3.4%	17.2%	3.4%	15.5%	27.6%	1.7%	1.7%	100.0%
디자인학부	40	9	13	5	9	27	2	0	105
	38.1%	8.6%	12.4%	4.8%	8.6%	25.7%	1.9%	0.0%	100.0%
간호 복지학부	21	3	7	2	8	18	1	0	60
	35.0%	5.0%	11.7%	3.3%	13.3%	30.0%	1.7%	0.0%	100.0%
전체	165	30	64	20	83	133	14	2	511
	32.3%	5.9%	12.5%	3.9%	16.2%	26.0%	2.7%	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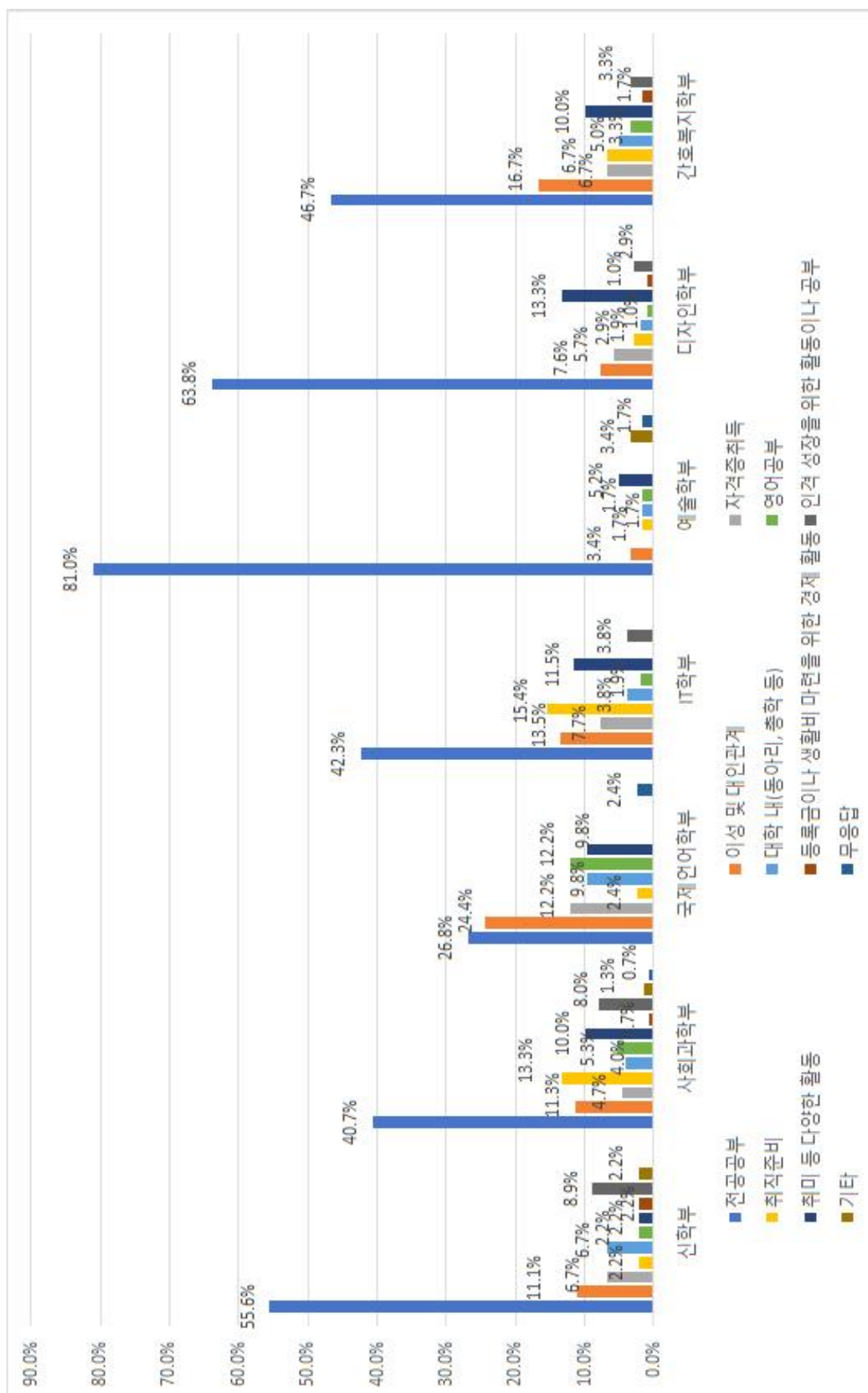
13) 대학 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

신입생들이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전공 공부(51.1%)라고 응답해 2017년 45.7%보다 다소 증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이성 및 대인관계(11.5%), 취미 및 다양한 활동(9.6%), 취직준비(7.4%)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 공부라고 응답한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예술학부가 89.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디자인학부(63.8%), 신학부(55.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53.8%), 남학생(46.1%) 모두 대학생활에서 전공 공부를 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39> 대학 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

단위:명,%

	전공 공부	이성 및 대인관 계	자격증 취득	취직 준비	대학내 (동아리, 총학 등)	영어 공부	취미 등 다양한 활동	등록금, 생활비 마련을 위한 경제 활동	인격 성장을 위한 활동이 나 공부	기타	무응답	전체
남	82	32	5	14	6	8	14	2	11	3	1	178
	46.1 %	18.0%	2.8%	7.9%	3.4%	4.5%	7.9%	1.1%	6.2%	1.7%	0.6%	100.0 %
여	179	27	24	24	15	11	35	2	12	2	2	333
	53.8 %	8.1%	7.2%	7.2%	4.5%	3.3%	10.5 %	0.6%	3.6%	0.6%	0.6%	100.0 %
신학부	25	5	3	1	3	1	1	1	4	1	0	45
	55.6 %	11.1%	6.7%	2.2%	6.7%	2.2%	2.2%	2.2%	8.9%	2.2%	0.0%	100.0 %
사회 과학부	61	17	7	20	6	8	15	1	12	2	1	150
	40.7 %	11.3%	4.7%	13.3 %	4.0%	5.3%	10.0 %	0.7%	8.0%	1.3%	0.7%	100.0 %
국제 언어학부	11	10	5	1	4	5	4	0	0	0	1	41
	26.8 %	24.4%	12.2 %	2.4%	9.8%	12.2 %	9.8%	0.0%	0.0%	0.0%	2.4%	100.0 %
IT학부	22	7	4	8	2	1	6	0	2	0	0	52
	42.3 %	13.5%	7.7%	15.4 %	3.8%	1.9%	11.5 %	0.0%	3.8%	0.0%	0.0%	100.0 %
예술학부	47	2	0	1	1	1	3	0	0	2	1	58
	81.0 %	3.4%	0.0%	1.7%	1.7%	1.7%	5.2%	0.0%	0.0%	3.4%	1.7%	100.0 %
디자인 학부	67	8	6	3	2	1	14	1	3	0	0	105
	63.8 %	7.6%	5.7%	2.9%	1.9%	1.0%	13.3 %	1.0%	2.9%	0.0%	0.0%	100.0 %
간호 복지학부	28	10	4	4	3	2	6	1	2	0	0	60
	46.7 %	16.7%	6.7%	6.7%	5.0%	3.3%	10.0 %	1.7%	3.3%	0.0%	0.0%	100.0 %
전체	261	59	29	38	21	19	49	4	23	5	3	511
	51.1 %	11.5%	5.7%	7.4%	4.1%	3.7%	9.6%	0.8%	4.5%	1.0%	0.6%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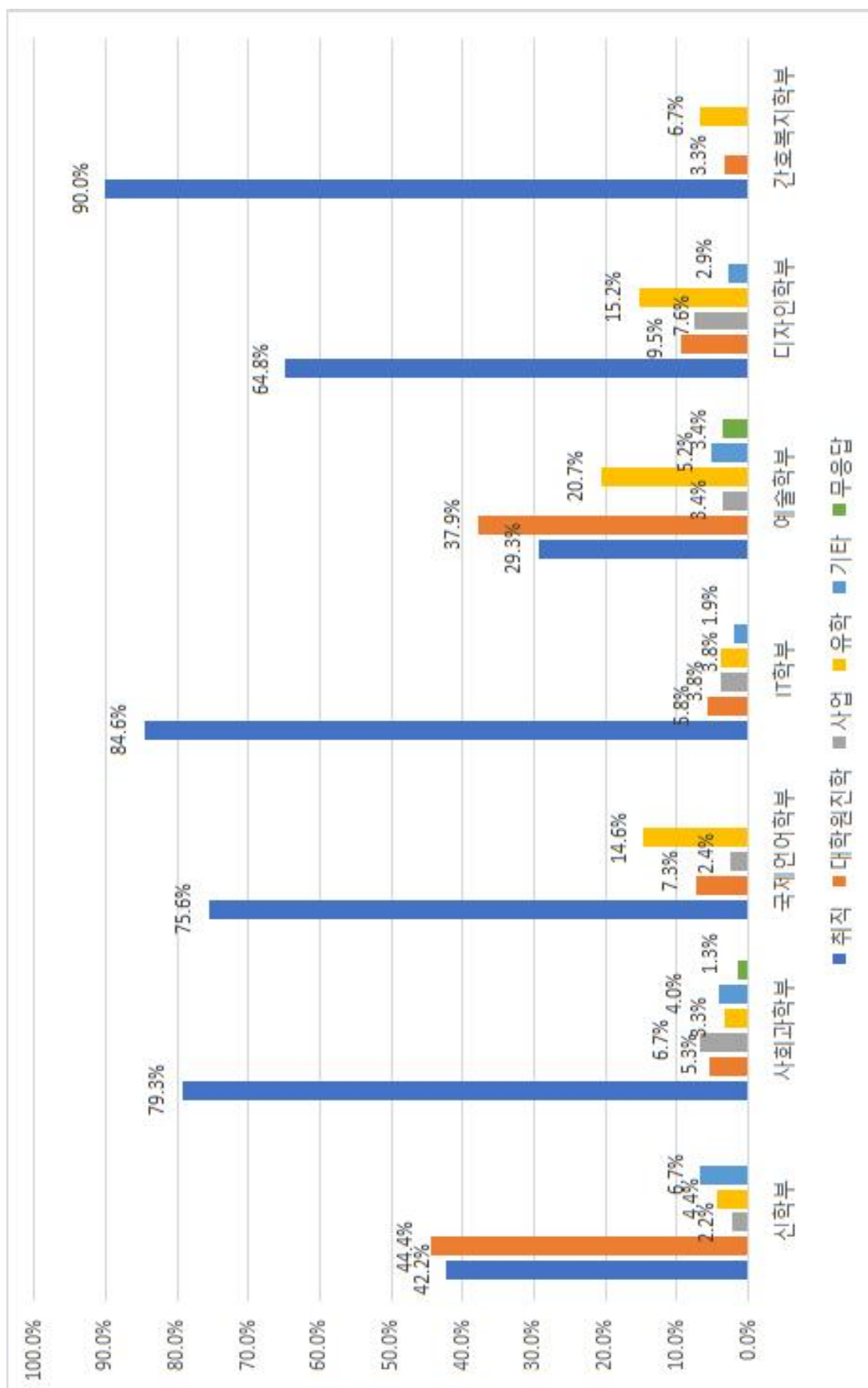
14) 대학 졸업 후 진로계획

대학 졸업 후 진로계획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68.9%가 '취직'에 대한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대학원 진학(13.3%), 유학(9.2%), 사업(4.7%), 기타(3.1%)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간호복지학부가 취직을 계획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9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IT학부(84.6%), 사회과학부(79.3%), 국제언어학부(75.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예술학부는 29.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신학부의 경우 취직보다 대학원진학을 원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4.4%로 가장 높았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66.9%)과 여학생(70.0%) 모두 취직에 대한 의사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0> 졸업 후 진로계획

단위:명,%

	취직	대학원 진학	사업	유학	기타	무응답	전체
남	119	22	11	16	8	2	178
	66.9%	12.4%	6.2%	9.0%	4.5%	1.1%	100.0%
여	233	46	13	31	8	2	333
	70.0%	13.8%	3.9%	9.3%	2.4%	0.6%	100.0%
신학부	19	20	1	2	3	0	45
	42.2%	44.4%	2.2%	4.4%	6.7%	0.0%	100.0%
사회과학부	119	8	10	5	6	2	150
	79.3%	5.3%	6.7%	3.3%	4.0%	1.3%	100.0%
국제언어학부	31	3	1	6	0	0	41
	75.6%	7.3%	2.4%	14.6%	0.0%	0.0%	100.0%
IT학부	44	3	2	2	1	0	52
	84.6%	5.8%	3.8%	3.8%	1.9%	0.0%	100.0%
예술학부	17	22	2	12	3	2	58
	29.3%	37.9%	3.4%	20.7%	5.2%	3.4%	100.0%
디자인학부	68	10	8	16	3	0	105
	64.8%	9.5%	7.6%	15.2%	2.9%	0.0%	100.0%
간호복지학부	54	2	0	4	0	0	60
	90.0%	3.3%	0.0%	6.7%	0.0%	0.0%	100.0%
전체	352	68	24	47	16	4	511
	68.9%	13.3%	4.7%	9.2%	3.1%	0.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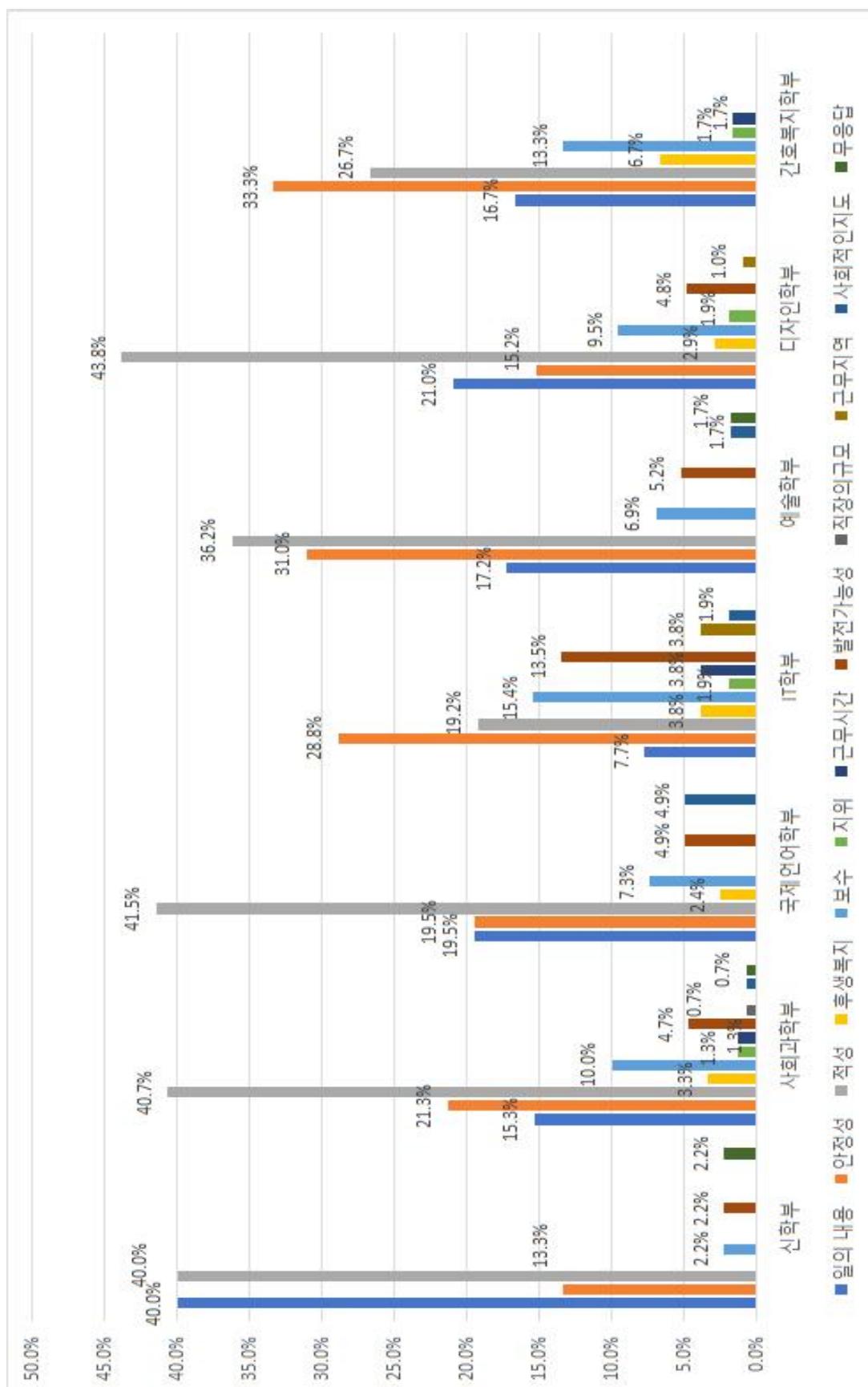
직업 선택 시 어떤 점을 제일 먼저 고려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신입생은 ‘적성’(37.0%)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고, 다음으로는 안정성(22.5%), 일의 내용(18.6%), 보수(9.6%) 순이었다. 적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디자인학부가 43.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국제언어학부(41.5%), 사회과학부(40.7%), 신학부(40.0%)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2017년 여학생(42.5%), 남학생(43.7%)으로 과년도에는 남학생이 적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나, 2018년에는 여학생(41.1%)이 남학생(29.2%)에 비해 직업 선택 시 적성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명,%

<표 41> 직업 선택 시 제일 먼저 고려할 것

כ

	일의 내용	안정 성	적성	후생 복지	보수	지위	근무 시간	발전 가능성	직장의 규모	근무 지역	사회적 인지도	무 응답	전체
남	32	46	52	6	20	2	3	11	0	1	3	2	178
	18.0 %	25.8 %	29.2 %	3.4%	11.2 %	1.1%	1.7%	6.2%	0.0%	0.6%	1.7%	1.1%	100.0 %
여	63	69	137	9	29	4	2	14	1	2	2	1	333
	18.9 %	20.7 %	41.1 %	2.7%	8.7%	1.2%	0.6%	4.2%	0.3%	0.6%	0.6%	0.3%	100.0 %
신학부	18	6	18	0	1	0	0	1	0	0	0	1	45
	40.0 %	13.3 %	40.0 %	0.0%	2.2%	0.0%	0.0%	2.2%	0.0%	0.0%	0.0%	2.2%	100.0 %
사회과학 부	23	32	61	5	15	2	2	7	1	0	1	1	150
	15.3 %	21.3 %	40.7 %	3.3%	10.0 %	1.3%	1.3%	4.7%	0.7%	0.0%	0.7%	0.7%	100.0 %
국제 언어학부	8	8	17	1	3	0	0	2	0	0	2	0	41
	19.5 %	19.5 %	41.5 %	2.4%	7.3%	0.0%	0.0%	4.9%	0.0%	0.0%	4.9%	0.0%	100.0 %
IT학부	4	15	10	2	8	1	2	7	0	2	1	0	52
	7.7%	28.8 %	19.2 %	3.8%	15.4 %	1.9%	3.8%	13.5 %	0.0%	3.8%	1.9%	0.0%	100.0 %
예술학부	10	18	21	0	4	0	0	3	0	0	1	1	58
	17.2 %	31.0 %	36.2 %	0.0%	6.9%	0.0%	0.0%	5.2%	0.0%	0.0%	1.7%	1.7%	100.0 %
디자인학 부	22	16	46	3	10	2	0	5	0	1	0	0	105
	21.0 %	15.2 %	43.8 %	2.9%	9.5%	1.9%	0.0%	4.8%	0.0%	1.0%	0.0%	0.0%	100.0 %
간호 복지학부	10	20	16	4	8	1	1	0	0	0	0	0	60
	16.7 %	33.3 %	26.7 %	6.7%	13.3 %	1.7%	1.7%	0.0%	0.0%	0.0%	0.0%	0.0%	100.0 %
전체	95	115	189	15	49	6	5	25	1	3	5	3	511
	18.6 %	22.5 %	37.0 %	2.9%	9.6%	1.2%	1.0%	4.9%	0.2%	0.6%	1.0%	0.6%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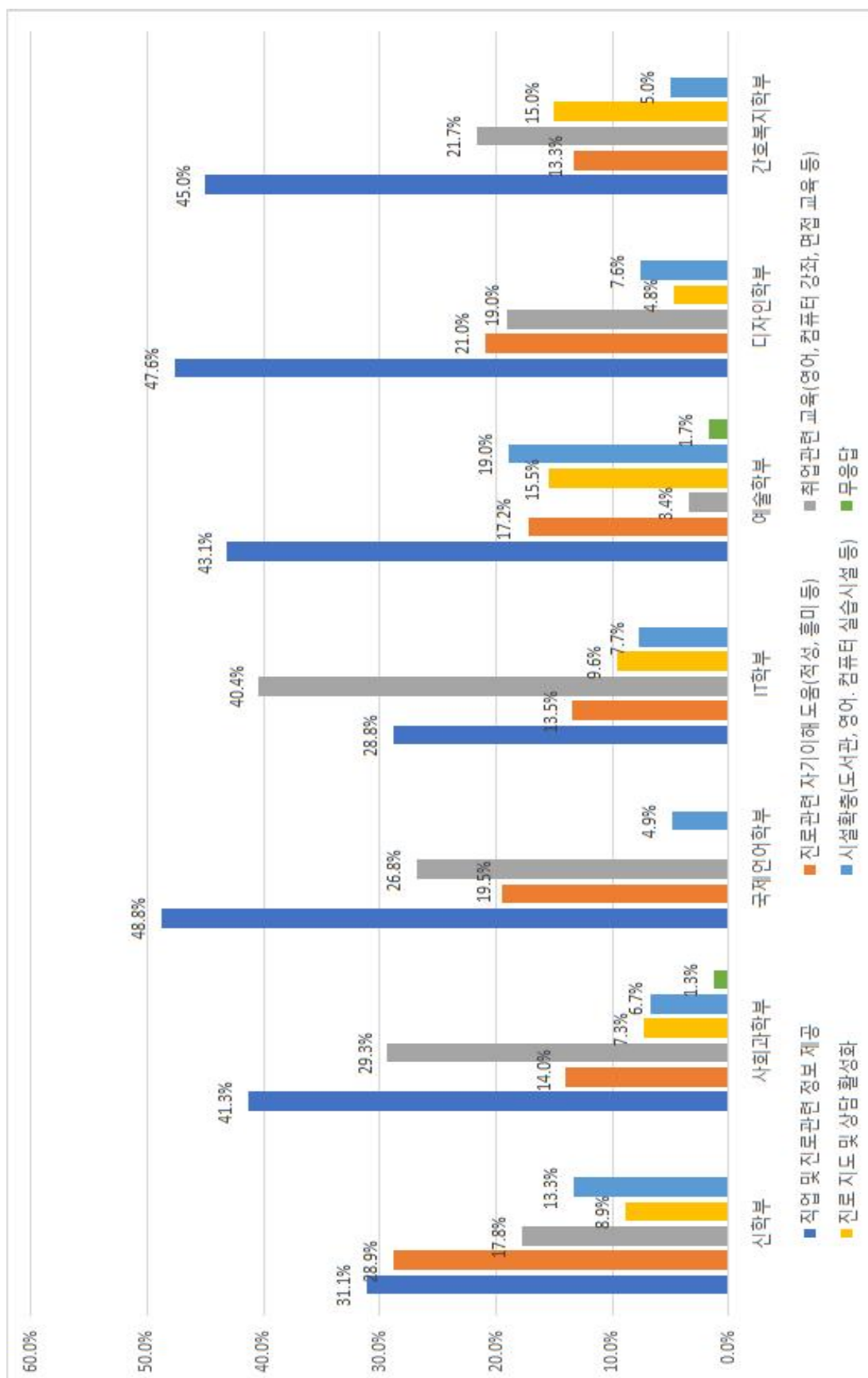
16) 취업에 대하여 학교에 가장 원하는 것

신입생들이 취업에 대하여 학교에서 어떤 서비스를 해주기를 원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직업 및 진로관련 정보제공(41.7%)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취업관련 교육(23.3%), 진로 관련 자기이해 도움(17.4%)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 및 진로관련 정보제공을 원한다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국제언어학부가 48.8%로 가장 높았고, 디자인학부(47.6%), 간호복지학부(45.0%), 예술학부(43.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37.6%), 여학생(43.8%)로 직업 및 진로관련 정보 제공을 원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42> 취업에 대하여 학교에 가장 원하는 것

단위:명,%

	직업 및 진로관련 정보 제공	진로관련 자기이해 도움(적성, 흥미 등)	취업관련 교육(영어, 컴퓨터 강좌, 면접 교육 등)	진로 지도 및 상담 활성화	시설확충 (도서관, 영어컴퓨터 실습시설 등)	무응답	전체
남	67	37	40	16	17	1	178
	37.6%	20.8%	22.5%	9.0%	9.6%	0.6%	100.0%
여	146	52	79	27	27	2	333
	43.8%	15.6%	23.7%	8.1%	8.1%	0.6%	100.0%
신학부	14	13	8	4	6	0	45
	31.1%	28.9%	17.8%	8.9%	13.3%	0.0%	100.0%
사회과학부	62	21	44	11	10	2	150
	41.3%	14.0%	29.3%	7.3%	6.7%	1.3%	100.0%
국제언어학부	20	8	11	0	2	0	41
	48.8%	19.5%	26.8%	0.0%	4.9%	0.0%	100.0%
IT학부	15	7	21	5	4	0	52
	28.8%	13.5%	40.4%	9.6%	7.7%	0.0%	100.0%
예술학부	25	10	2	9	11	1	58
	43.1%	17.2%	3.4%	15.5%	19.0%	1.7%	100.0%
디자인학부	50	22	20	5	8	0	105
	47.6%	21.0%	19.0%	4.8%	7.6%	0.0%	100.0%
간호복지학부	27	8	13	9	3	0	60
	45.0%	13.3%	21.7%	15.0%	5.0%	0.0%	100.0%
전체	213	89	119	43	44	3	511
	41.7%	17.4%	23.3%	8.4%	8.6%	0.6%	100.0%



17) 교내동아리 참여 동기

신입생들에게 교내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지를 질문한 결과, 신입생의 45.6%가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모르겠다는 의견도 36.4%로 나타났다. 동아리에 참여하겠다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신학부가 62.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IT학부(57.7%), 간호복지학부(56.7%), 사회과학부(54.0%) 순으로 나타났으며, 예술학부가 8.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남학생(57.9%)의 비율이 여학생(39.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3> 교내동아리 참여 동기

단위:명,%

	참가 하겠다	참가하지 않겠다	모르겠다	무응답	전체
남	103	25	49	1	178
	57.9%	14.0%	27.5%	0.6%	100.0%
여	130	65	137	1	333
	39.0%	19.5%	41.1%	0.3%	100.0%
신학부	28	5	12	0	45
	62.2%	11.1%	26.7%	0.0%	100.0%
사회과학부	81	15	53	1	150
	54.0%	10.0%	35.3%	0.7%	100.0%
국제언어학부	22	7	12	0	41
	53.7%	17.1%	29.3%	0.0%	100.0%
IT학부	30	10	12	0	52
	57.7%	19.2%	23.1%	0.0%	100.0%
예술학부	5	27	25	1	58
	8.6%	46.6%	43.1%	1.7%	100.0%
디자인학부	33	21	51	0	105
	31.4%	20.0%	48.6%	0.0%	100.0%
간호복지학부	34	5	21	0	60
	56.7%	8.3%	35.0%	0.0%	100.0%
전체	233	90	186	2	511
	45.6%	17.6%	36.4%	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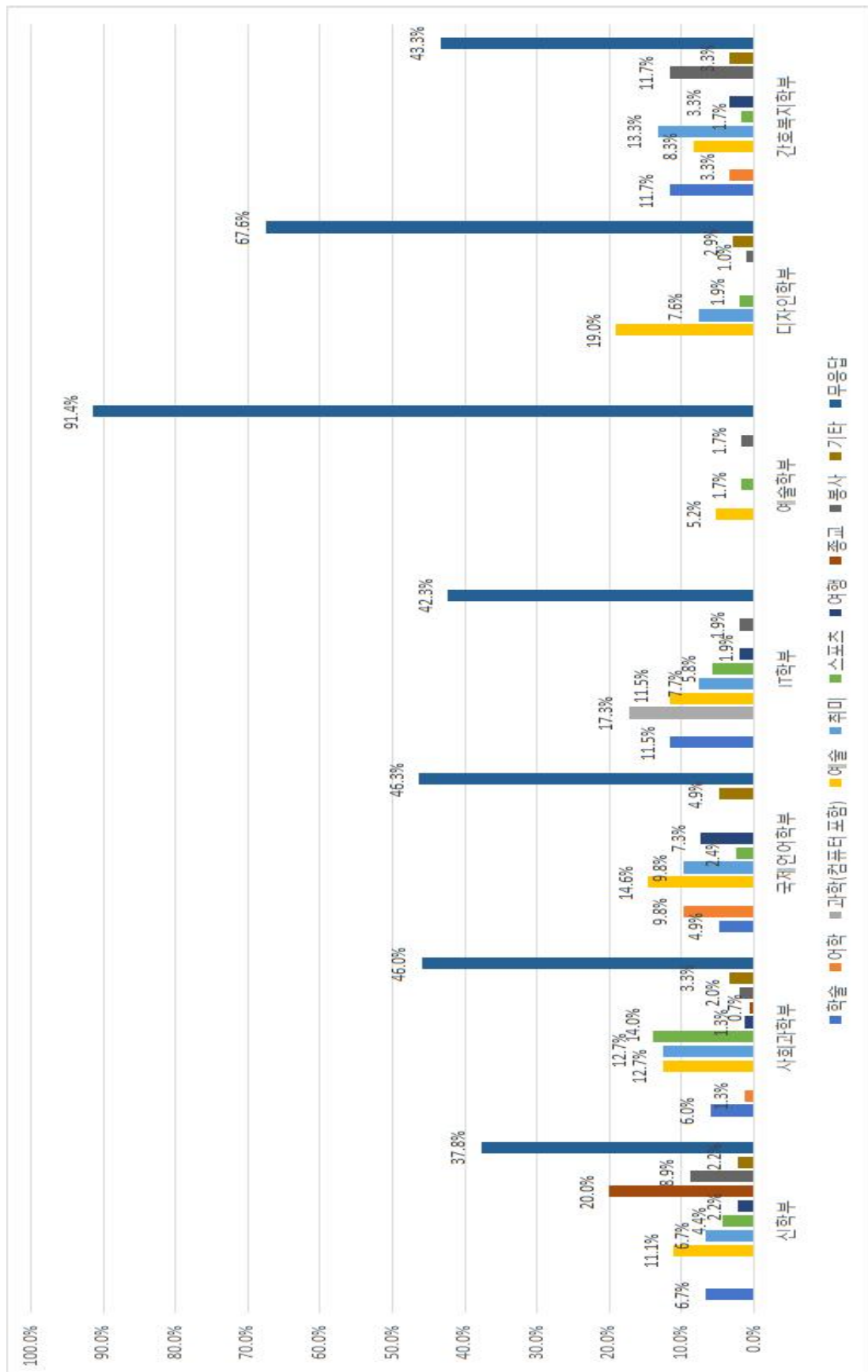
18) 희망 동아리 영역

신입생들이 동아리활동을 할 경우, 희망하는 동아리 영역은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예술’이 12.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취미(9.0%), 스포츠(6.1%), 학술(5.3%)순이었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예술’의 응답 비율은 디자인학부(19.0%)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취미’는 간호복지학부(13.3%), ‘스포츠’는 사회과학부(14.0%)가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희망 동아리로 스포츠(16.3%)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여학생은 예술(12.6%)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희망 동아리 영역

단위:명,%

	학술	어학	과학 (컴퓨터 포함)	예술	취미	스포츠	여행	종교	봉사	기타	무응답	전체
남	12	4	7	22	16	29	1	6	2	4	75	178
	6.7%	2.2%	3.9%	12.4%	9.0%	16.3%	0.6%	3.4%	1.1%	2.2%	42.1%	100.0%
여	15	4	2	42	30	2	8	4	15	9	202	333
	4.5%	1.2%	0.6%	12.6%	9.0%	0.6%	2.4%	1.2%	4.5%	2.7%	60.7%	100.0%
신학부	3	0	0	5	3	2	1	9	4	1	17	45
	6.7%	0.0%	0.0%	11.1%	6.7%	4.4%	2.2%	20.0%	8.9%	2.2%	37.8%	100.0%
사회과학부	9	2	0	19	19	21	2	1	3	5	69	150
	6.0%	1.3%	0.0%	12.7%	12.7%	14.0%	1.3%	0.7%	2.0%	3.3%	46.0%	100.0%
국제언어학부	2	4	0	6	4	1	3	0	0	2	19	41
	4.9%	9.8%	0.0%	14.6%	9.8%	2.4%	7.3%	0.0%	0.0%	4.9%	46.3%	100.0%
IT학부	6	0	9	6	4	3	1	0	1	0	22	52
	11.5%	0.0%	17.3%	11.5%	7.7%	5.8%	1.9%	0.0%	1.9%	0.0%	42.3%	100.0%
예술학부	0	0	0	3	0	1	0	0	1	0	53	58
	0.0%	0.0%	0.0%	5.2%	0.0%	1.7%	0.0%	0.0%	1.7%	0.0%	91.4%	100.0%
디자인학부	0	0	0	20	8	2	0	0	1	3	71	105
	0.0%	0.0%	0.0%	19.0%	7.6%	1.9%	0.0%	0.0%	1.0%	2.9%	67.6%	100.0%
간호복지학부	7	2	0	5	8	1	2	0	7	2	26	60
	11.7%	3.3%	0.0%	8.3%	13.3%	1.7%	3.3%	0.0%	11.7%	3.3%	43.3%	100.0%
전체	27	8	9	64	46	31	9	10	17	13	277	511
	5.3%	1.6%	1.8%	12.5%	9.0%	6.1%	1.8%	2.0%	3.3%	2.5%	54.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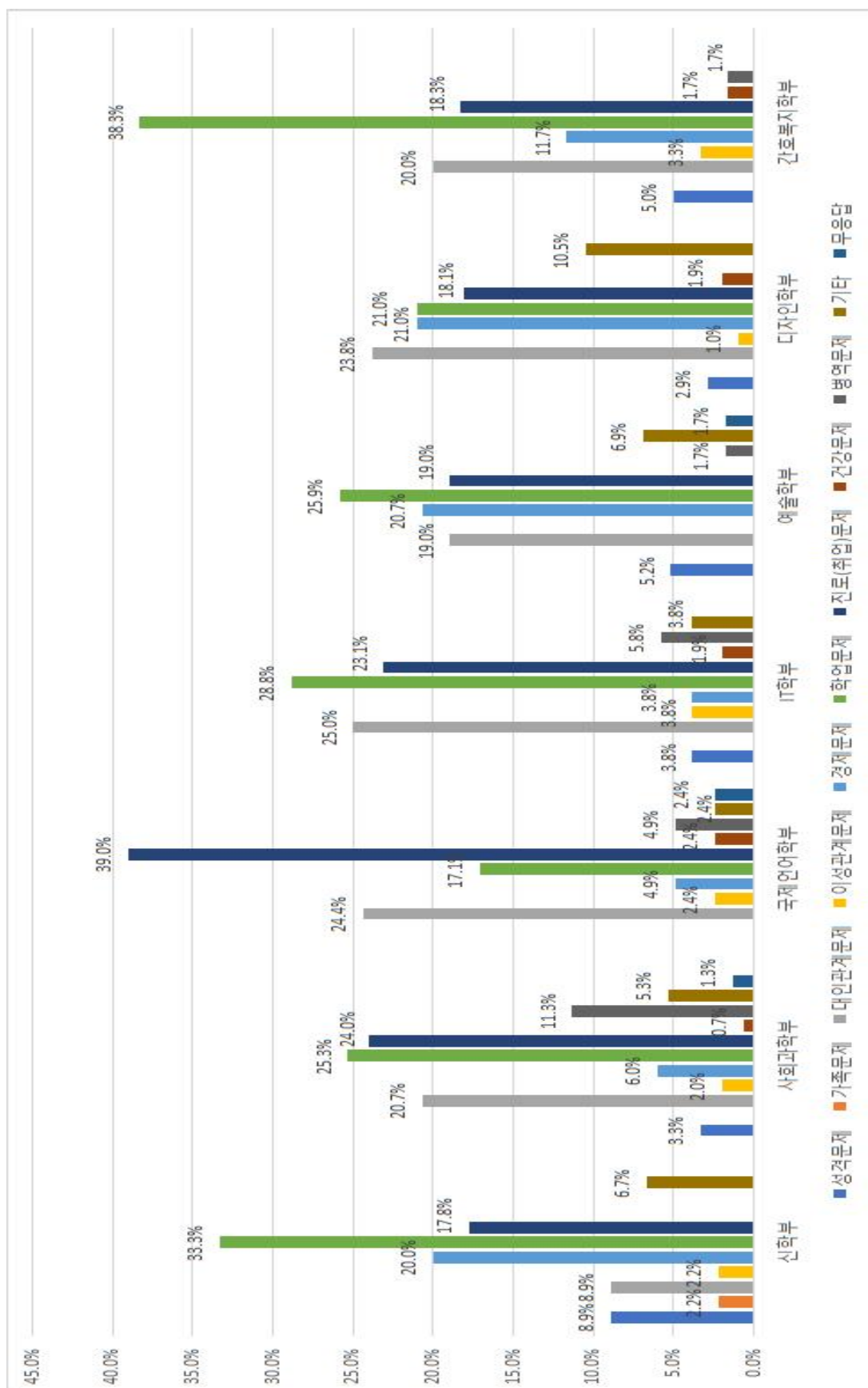
19) 대학생활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가장 걱정스러워 하는 것은 학업문제(26.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진로(취업)문제(22.1%), 대인관계문제(20.7%), 경제문제(12.3%) 순이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학업문제가 걱정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학부는 간호복지학부(38.3%), 신학부(33.3%), IT학부(28.8%) 순이고, 진로(취업)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학부는 국제언어학부(39.0%), 사회과학부(24.0%) 순이며, 대인관계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학부는 IT학부(25.0%), 경제문제에 대한 걱정은 디자인학부(21.0%)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19.1%)과 여학생(30.3%) 모두 학업문제가 걱정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45> 대학생활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

단위:명,%

	성격 문제	가족 문제	대인 관계 문제	이성 관계 문제	경제 문제	학업 문제	진로 (취업) 문제	건강 문제	병역 문제	기타	무응답	전체
남	8	0	34	8	21	34	34	0	24	13	2	178
	4.5%	0.0%	19.1%	4.5%	11.8%	19.1%	19.1%	0.0%	13.5%	7.3%	1.1%	100.0%
여	12	1	72	2	42	101	79	6	0	16	2	333
	3.6%	0.3%	21.6%	0.6%	12.6%	30.3%	23.7%	1.8%	0.0%	4.8%	0.6%	100.0%
신학부	4	1	4	1	9	15	8	0	0	3	0	45
	8.9%	2.2%	8.9%	2.2%	20.0%	33.3%	17.8%	0.0%	0.0%	6.7%	0.0%	100.0%
사회 과학부	5	0	31	3	9	38	36	1	17	8	2	150
	3.3%	0.0%	20.7%	2.0%	6.0%	25.3%	24.0%	0.7%	11.3%	5.3%	1.3%	100.0%
국제 언어학부	0	0	10	1	2	7	16	1	2	1	1	41
	0.0%	0.0%	24.4%	2.4%	4.9%	17.1%	39.0%	2.4%	4.9%	2.4%	2.4%	100.0%
IT학부	2	0	13	2	2	15	12	1	3	2	0	52
	3.8%	0.0%	25.0%	3.8%	3.8%	28.8%	23.1%	1.9%	5.8%	3.8%	0.0%	100.0%
예술학부	3	0	11	0	12	15	11	0	1	4	1	58
	5.2%	0.0%	19.0%	0.0%	20.7%	25.9%	19.0%	0.0%	1.7%	6.9%	1.7%	100.0%
디자인 학부	3	0	25	1	22	22	19	2	0	11	0	105
	2.9%	0.0%	23.8%	1.0%	21.0%	21.0%	18.1%	1.9%	0.0%	10.5%	0.0%	100.0%
간호 복지학부	3	0	12	2	7	23	11	1	1	0	0	60
	5.0%	0.0%	20.0%	3.3%	11.7%	38.3%	18.3%	1.7%	1.7%	0.0%	0.0%	100.0%
전체	20	1	106	10	63	135	113	6	24	29	4	511
	3.9%	0.2%	20.7%	2.0%	12.3%	26.4%	22.1%	1.2%	4.7%	5.7%	0.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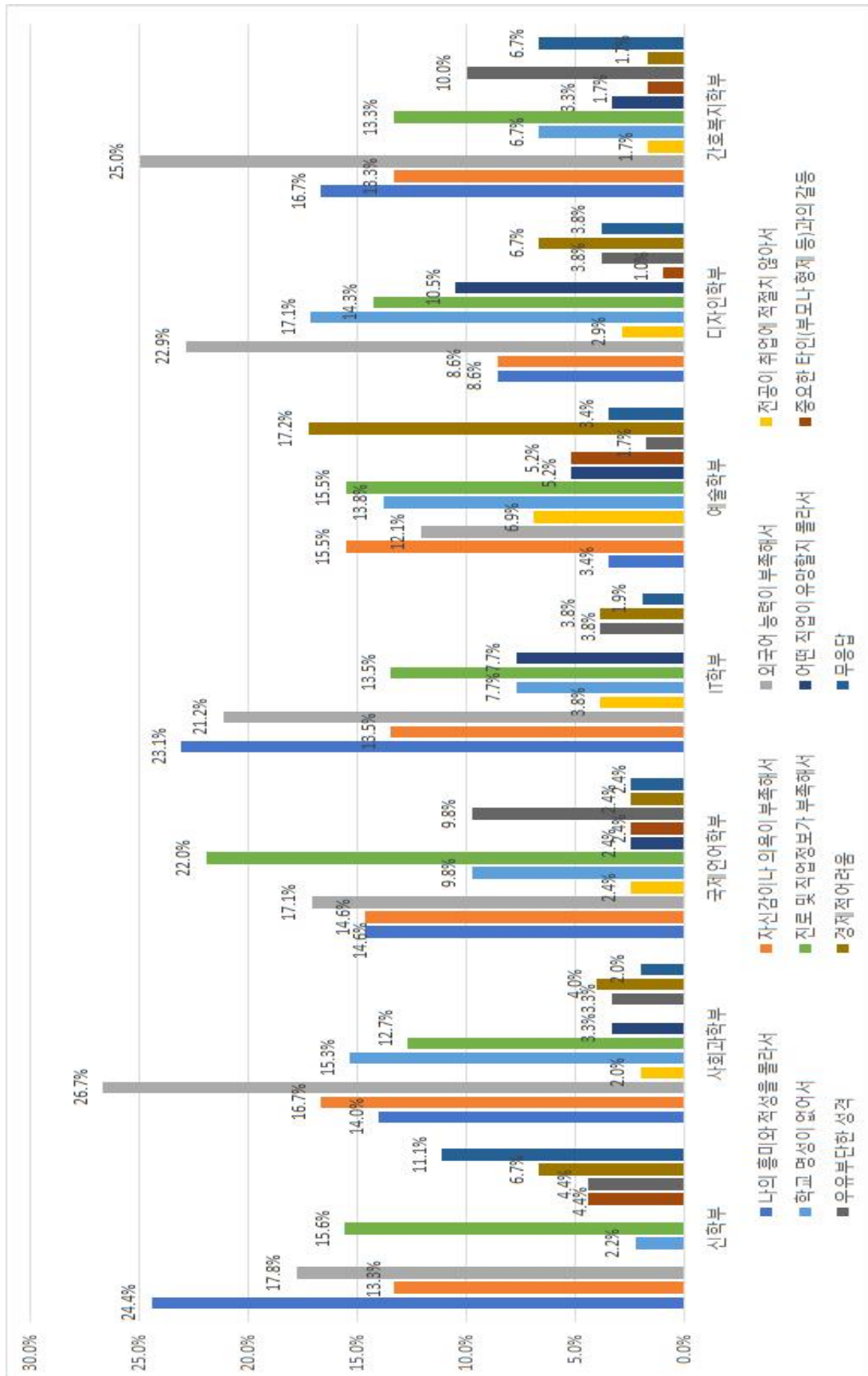


20) 졸업 후 진로결정과 관련해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

신입생들은 졸업 후 진로결정과 관련해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에 대한 질문에 ‘외국어 능력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21.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진로 및 직업정보부족’(14.5%), ‘나의 흥미와 적성을 몰라서’(13.9%), ‘자신감, 의욕이 부족해서’(13.7%), ‘학교명성이 없어서’(12.1%) 순이었다. ‘외국어 능력이 부족해서’라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사회과학부가 26.7%로 가장 높았고 간호복지학부(25.0%), 디자인학부(22.9%) 순이다. IT학부는 ‘나의 흥미와 적성을 몰라서’라는 응답 비율이 23.1%로 가장 높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외국어 능력이 부족해서’라는 응답비율이 각 20.2%와 2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6> 졸업 후 진로결정과 관련해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 단위:명,%

	나의 흥미와 적성을 몰라서	자신감, 의욕이 부족해서	외국어 능력이 부족해서	전공이 취업에 적절치 않아서	학교 명성이 없어서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어떤 직업이 유망할 지 몰라서	중요한 타인 (부모나 형제 등) 과의 갈등	우유부 단한 성격	경제적 어려움	무 응답	전체
남	26	20	36	6	18	29	11	4	7	10	11	178
	14.6%	11.2%	20.2%	3.4%	10.1%	16.3%	6.2%	2.2%	3.9%	5.6%	6.2%	100.0%
여	45	50	76	8	44	45	15	4	17	20	9	333
	13.5%	15.0%	22.8%	2.4%	13.2%	13.5%	4.5%	1.2%	5.1%	6.0%	2.7%	100.0%
신학부	11	6	8	0	1	7	0	2	2	3	5	45
	24.4%	13.3%	17.8%	0.0%	2.2%	15.6%	0.0%	4.4%	4.4%	6.7%	11.1%	100.0%
사회 과학부	21	25	40	3	23	19	5	0	5	6	3	150
	14.0%	16.7%	26.7%	2.0%	15.3%	12.7%	3.3%	0.0%	3.3%	4.0%	2.0%	100.0%
국제 언어학부	6	6	7	1	4	9	1	1	4	1	1	41
	14.6%	14.6%	17.1%	2.4%	9.8%	22.0%	2.4%	2.4%	9.8%	2.4%	2.4%	100.0%
IT학부	12	7	11	2	4	7	4	0	2	2	1	52
	23.1%	13.5%	21.2%	3.8%	7.7%	13.5%	7.7%	0.0%	3.8%	3.8%	1.9%	100.0%
예술학부	2	9	7	4	8	9	3	3	1	10	2	58
	3.4%	15.5%	12.1%	6.9%	13.8%	15.5%	5.2%	5.2%	1.7%	17.2%	3.4%	100.0%
디자인 학부	9	9	24	3	18	15	11	1	4	7	4	105
	8.6%	8.6%	22.9%	2.9%	17.1%	14.3%	10.5%	1.0%	3.8%	6.7%	3.8%	100.0%
간호 복지학부	10	8	15	1	4	8	2	1	6	1	4	60
	16.7%	13.3%	25.0%	1.7%	6.7%	13.3%	3.3%	1.7%	10.0%	1.7%	6.7%	100.0%
전체	71	70	112	14	62	74	26	8	24	30	20	511
	13.9%	13.7%	21.9%	2.7%	12.1%	14.5%	5.1%	1.6%	4.7%	5.9%	3.9%	100.0%



5. 핸드폰 및 인터넷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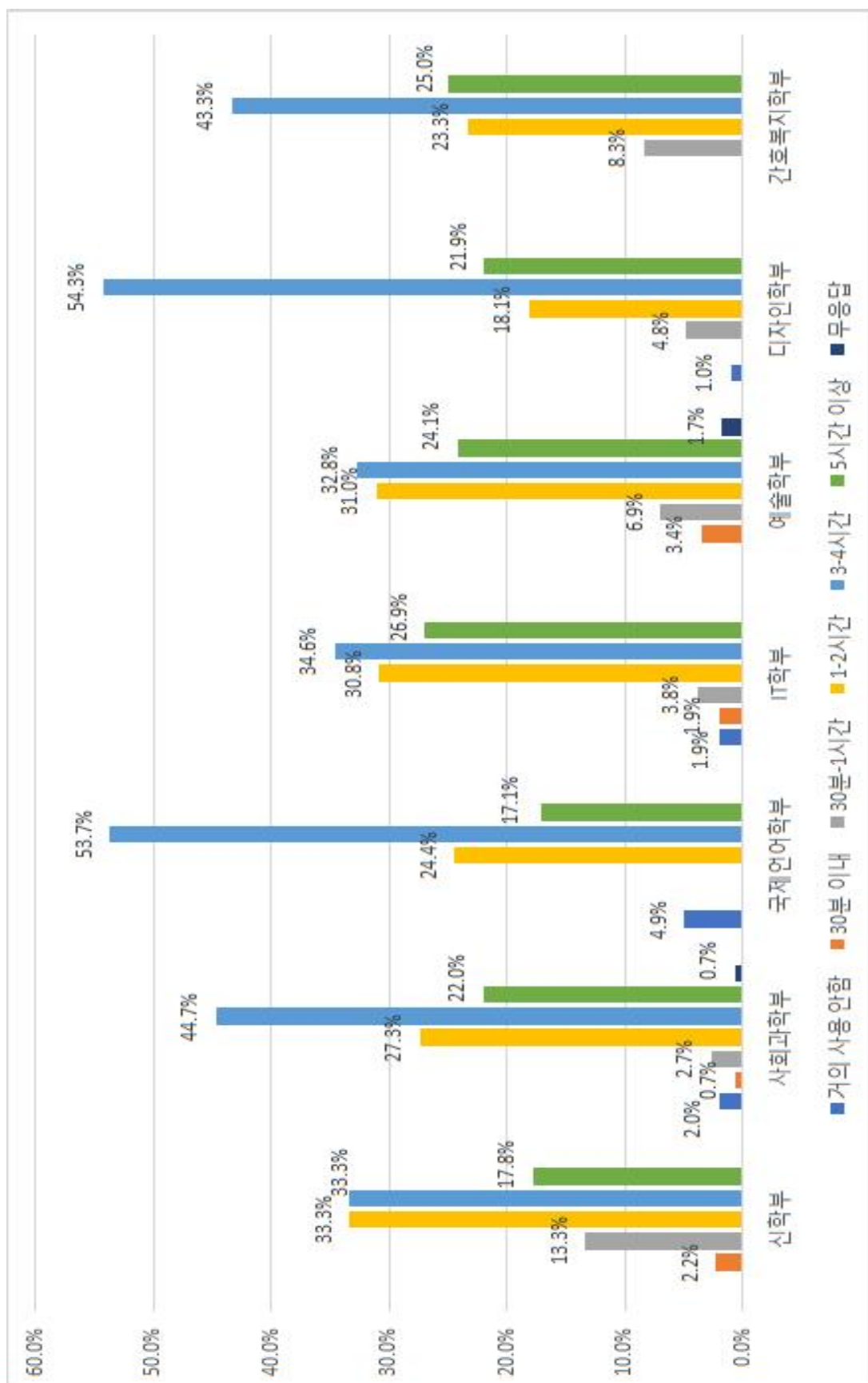
1) 하루 평균 핸드폰 이용 시간

신입생들의 핸드폰 이용 시간은 3-4시간(43.8%) 사용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2시간 이상(26.0%), 5시간이상(22.3%)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보면 디자인 학부가 3-4시간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4.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국제언어학부가 53.7%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35.4%, 여학생은 48.3%가 3-4시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여학생은 5시간이상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25.8%로 남학생 15.7% 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표 47> 하루 평균 핸드폰 이용 시간

단위:명,%

	거의사용 안함	30분 이내	30분- 1시간	1-2시간	3-4시간	5시간 이상	무응답	전체
남	6	2	16	62	63	28	1	178
	3.4%	1.1%	9.0%	34.8%	35.4%	15.7%	0.6%	100.0%
여	1	3	10	71	161	86	1	333
	0.3%	0.9%	3.0%	21.3%	48.3%	25.8%	0.3%	100.0%
신학부	0	1	6	15	15	8	0	45
	0.0%	2.2%	13.3%	33.3%	33.3%	17.8%	0.0%	100.0%
사회과학부	3	1	4	41	67	33	1	150
	2.0%	0.7%	2.7%	27.3%	44.7%	22.0%	0.7%	100.0%
국제언어학부	2	0	0	10	22	7	0	41
	4.9%	0.0%	0.0%	24.4%	53.7%	17.1%	0.0%	100.0%
IT학부	1	1	2	16	18	14	0	52
	1.9%	1.9%	3.8%	30.8%	34.6%	26.9%	0.0%	100.0%
예술학부	0	2	4	18	19	14	1	58
	0.0%	3.4%	6.9%	31.0%	32.8%	24.1%	1.7%	100.0%
디자인학부	1	0	5	19	57	23	0	105
	1.0%	0.0%	4.8%	18.1%	54.3%	21.9%	0.0%	100.0%
간호복지학부	0	0	5	14	26	15	0	60
	0.0%	0.0%	8.3%	23.3%	43.3%	25.0%	0.0%	100.0%
전체	7	5	26	133	224	114	2	511
	1.4%	1.0%	5.1%	26.0%	43.8%	22.3%	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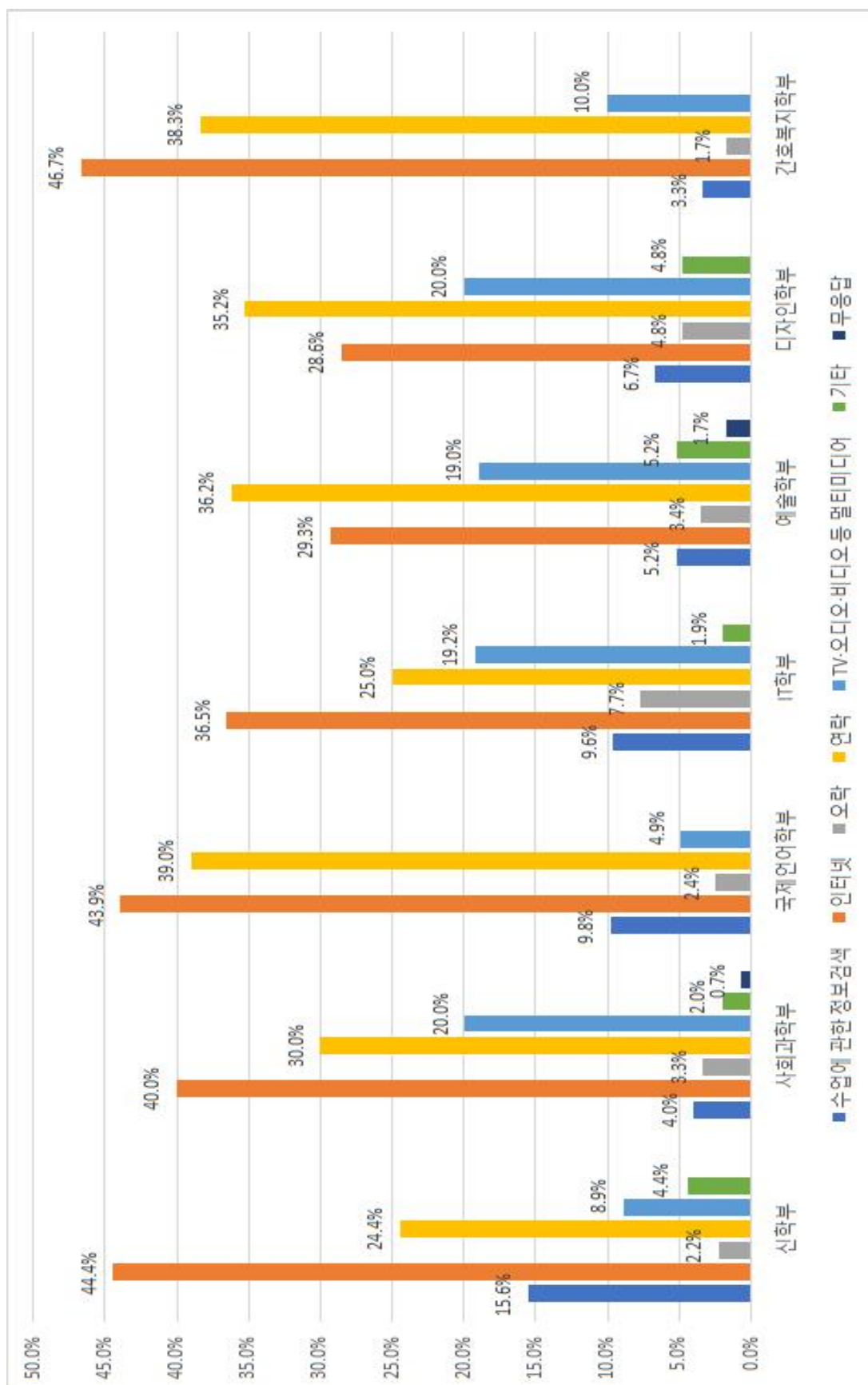
2) 핸드폰의 주된 용도

신입생들이 핸드폰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신입생들은 주로 인터넷(37.6%) 사용을 위해 핸드폰을 사용하였고, 다음으로 연락(32.5%), TV/오디오/비디오 등 멀티미디어(16.4%) 용도로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학부별로 보면 간호복지학부가 인터넷 사용을 46.7%로 가장 높게 사용하고 있었고, 다음은 신학부(44.4%), 국제언어학부(43.9%), 사회과학부(40.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36.0%)에 비해 남학생(40.4%)이 핸드폰 사용의 주된 용도로 인터넷 사용을 한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48> 핸드폰의 주된 용도

단위:명,%

	수업에 관한 정보검색	인터넷	오락	연락	TV/오디오/ 비디오 등 멀티미디어	기타	무응답	전체
남	11	72	15	47	28	4	1	178
	6.2%	40.4%	8.4%	26.4%	15.7%	2.2%	0.6%	100.0%
여	23	120	4	119	56	10	1	333
	6.9%	36.0%	1.2%	35.7%	16.8%	3.0%	0.3%	100.0%
신학부	7	20	1	11	4	2	0	45
	15.6%	44.4%	2.2%	24.4%	8.9%	4.4%	0.0%	100.0%
사회과학부	6	60	5	45	30	3	1	150
	4.0%	40.0%	3.3%	30.0%	20.0%	2.0%	0.7%	100.0%
국제언어학 부	4	18	1	16	2	0	0	41
	9.8%	43.9%	2.4%	39.0%	4.9%	0.0%	0.0%	100.0%
IT학부	5	19	4	13	10	1	0	52
	9.6%	36.5%	7.7%	25.0%	19.2%	1.9%	0.0%	100.0%
예술학부	3	17	2	21	11	3	1	58
	5.2%	29.3%	3.4%	36.2%	19.0%	5.2%	1.7%	100.0%
디자인학부	7	30	5	37	21	5	0	105
	6.7%	28.6%	4.8%	35.2%	20.0%	4.8%	0.0%	100.0%
간호복지학 부	2	28	1	23	6	0	0	60
	3.3%	46.7%	1.7%	38.3%	10.0%	0.0%	0.0%	100.0%
전체	34	192	19	166	84	14	2	511
	6.7%	37.6%	3.7%	32.5%	16.4%	2.7%	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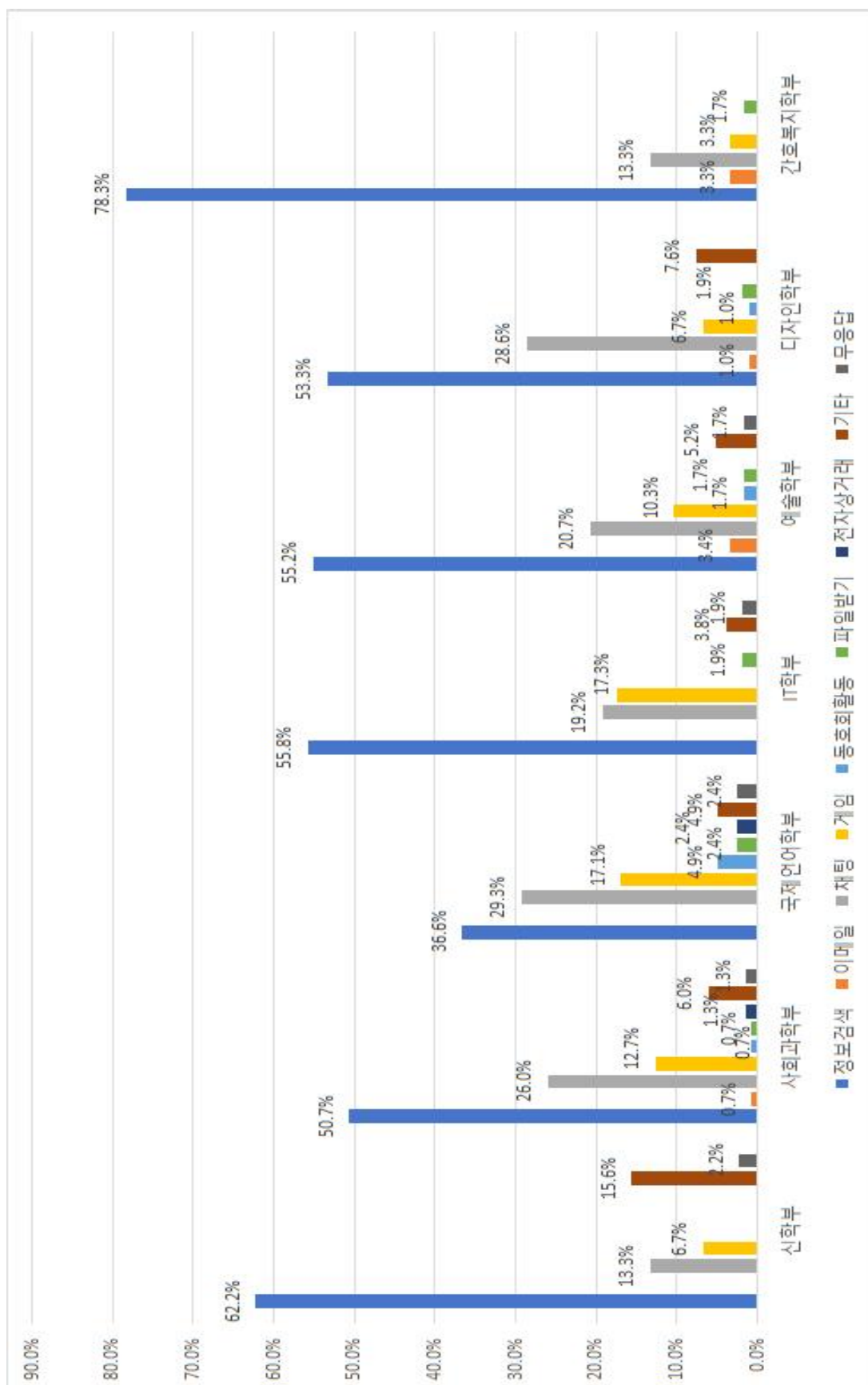
3) 인터넷 사용용도

신입생들에게 인터넷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신입생들은 주로 정보검색(55.4%)과 채팅(22.9%)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게임(10.4%), 기타(6.1%)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간호복지학부가 정보검색을 한다는 응답에 78.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신학부(62.2%), IT학부(55.8%), 예술학부(55.2%), 디자인학부(53.3%) 순이다. 성별로는 남학생(47.8%)과 여학생(59.5%) 모두 인터넷의 주된 용도로 정보검색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9> 인터넷 사용용도

단위:명,%

	정보검색	이메일	채팅	게임	동호회 활동	파일받 기	전자 상거래	기타	무응답	전체
남	85	0	33	45	2	1	1	8	3	178
	47.8%	0.0%	18.5%	25.3%	1.1%	0.6%	0.6%	4.5%	1.7%	100.0%
여	198	6	84	8	3	6	2	23	3	333
	59.5%	1.8%	25.2%	2.4%	0.9%	1.8%	0.6%	6.9%	0.9%	100.0%
신학부	28	0	6	3	0	0	0	7	1	45
	62.2%	0.0%	13.3%	6.7%	0.0%	0.0%	0.0%	15.6%	2.2%	100.0%
사회과학부	76	1	39	19	1	1	2	9	2	150
	50.7%	0.7%	26.0%	12.7%	0.7%	0.7%	1.3%	6.0%	1.3%	100.0%
국제언어학부	15	0	12	7	2	1	1	2	1	41
	36.6%	0.0%	29.3%	17.1%	4.9%	2.4%	2.4%	4.9%	2.4%	100.0%
IT학부	29	0	10	9	0	1	0	2	1	52
	55.8%	0.0%	19.2%	17.3%	0.0%	1.9%	0.0%	3.8%	1.9%	100.0%
예술학부	32	2	12	6	1	1	0	3	1	58
	55.2%	3.4%	20.7%	10.3%	1.7%	1.7%	0.0%	5.2%	1.7%	100.0%
디자인학부	56	1	30	7	1	2	0	8	0	105
	53.3%	1.0%	28.6%	6.7%	1.0%	1.9%	0.0%	7.6%	0.0%	100.0%
간호복지학부	47	2	8	2	0	1	0	0	0	60
	78.3%	3.3%	13.3%	3.3%	0.0%	1.7%	0.0%	0.0%	0.0%	100.0%
전체	283	6	117	53	5	7	3	31	6	511
	55.4%	1.2%	22.9%	10.4%	1.0%	1.4%	0.6%	6.1%	1.2%	100.0%



6. 이성 및 성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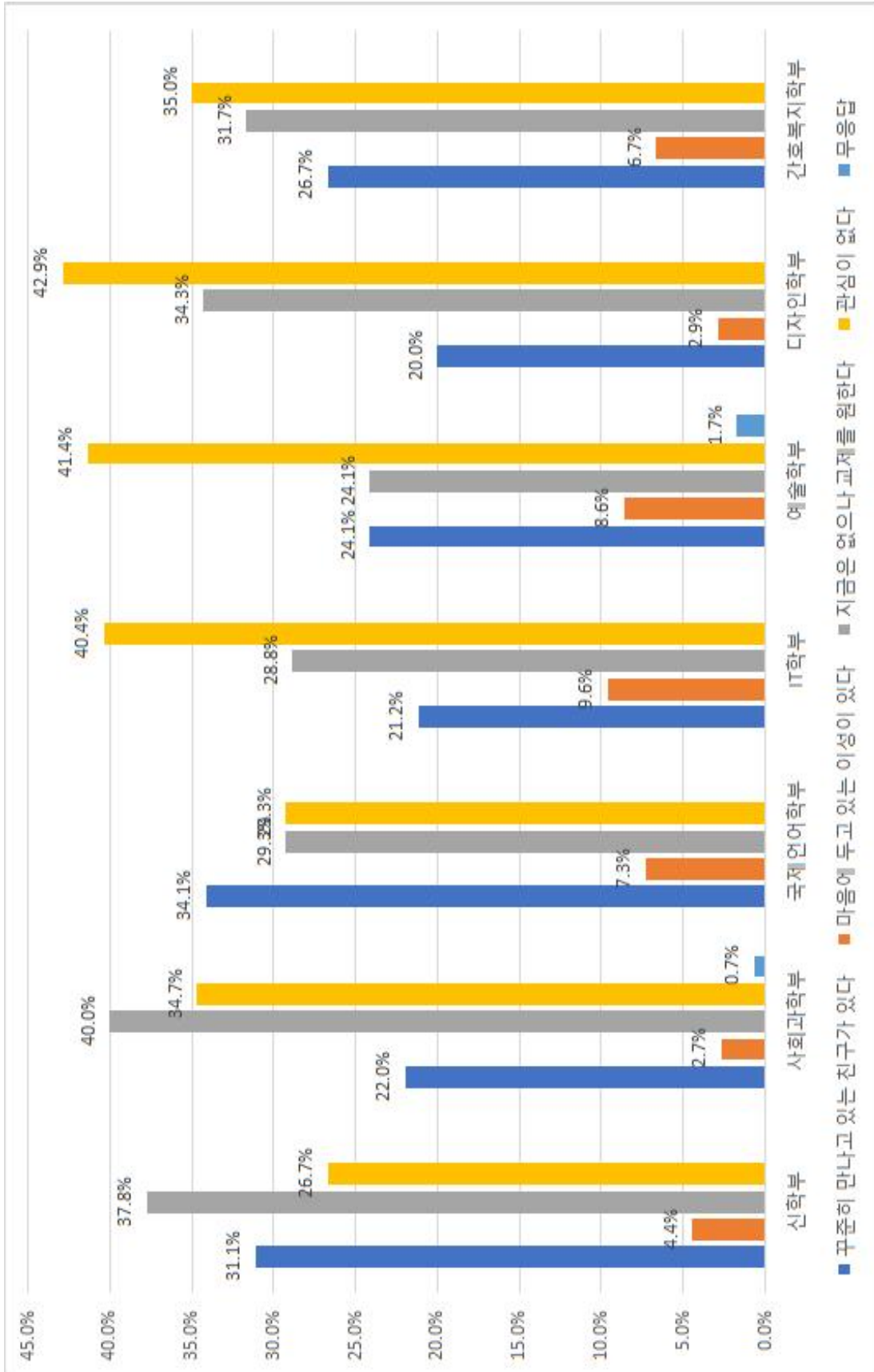
1) 이성교제 여부

이성교제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신입생의 33.9%가 지금은 없으나 교제를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이성교제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36.6%를 차지했다. ‘관심없다’고 응답한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디자인학부가 42.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예술학부(41.4%), IT학부(40.4%), 간호복지학부(35.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본 결과 또한 남학생(24.2%), 여학생(43.2%)로 ‘관심없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0> 이성교제 여부

단위:명,%

	꾸준히 만나고 있는 친구가 있다	마음에 두고 있는 이성 이 있다	지금은 없으나 교제를 원한다	관심이 없다	무응답	전체
남	52	18	64	43	1	178
	29.2%	10.1%	36.0%	24.2%	0.6%	100.0%
여	71	8	109	144	1	333
	21.3%	2.4%	32.7%	43.2%	0.3%	100.0%
신학부	14	2	17	12	0	45
	31.1%	4.4%	37.8%	26.7%	0.0%	100.0%
사회과학부	33	4	60	52	1	150
	22.0%	2.7%	40.0%	34.7%	0.7%	100.0%
국제언어학부	14	3	12	12	0	41
	34.1%	7.3%	29.3%	29.3%	0.0%	100.0%
IT학부	11	5	15	21	0	52
	21.2%	9.6%	28.8%	40.4%	0.0%	100.0%
예술학부	14	5	14	24	1	58
	24.1%	8.6%	24.1%	41.4%	1.7%	100.0%
디자인학부	21	3	36	45	0	105
	20.0%	2.9%	34.3%	42.9%	0.0%	100.0%
간호복지학부	16	4	19	21	0	60
	26.7%	6.7%	31.7%	35.0%	0.0%	100.0%
전체	123	26	173	187	2	511
	24.1%	5.1%	33.9%	36.6%	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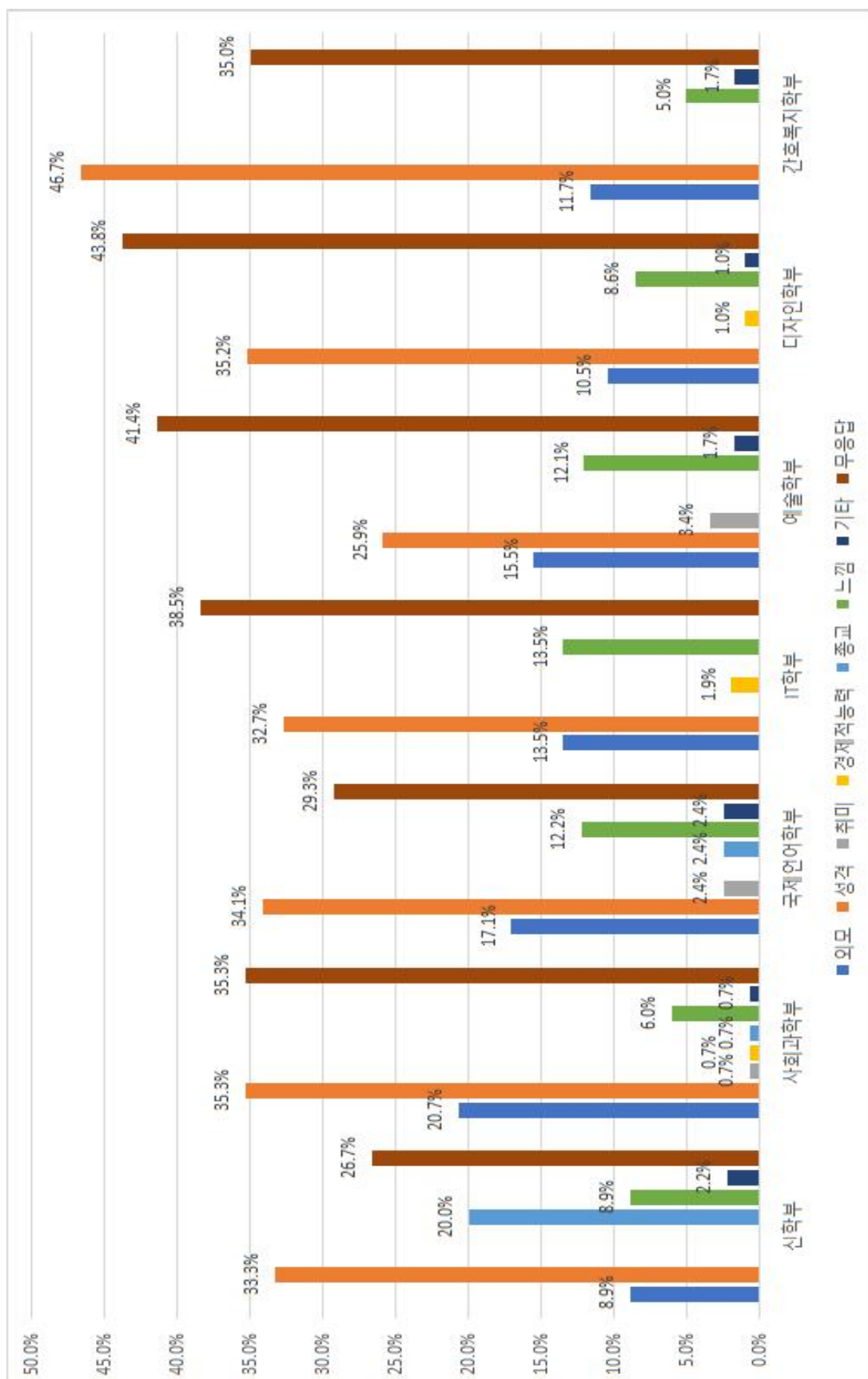
2) 이성의 선택 기준

신입생들이 이성과 교제할 경우 상대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35.0%가 '성격'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 순위는 외모(14.9%), 느낌(8.6%), 기타 및 종교(2.2%) 순이었다. '성격'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간호복지학부가 46.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과학부(35.3%), 디자인학부(35.2%), 국제언어학부(34.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이성교제 시 선택기준이 성격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33.3%)이 남학생(38.2%)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이성의 선택 기준

단위:명,%

	외모	성격	취미	경제적 능력	종교	느낌	기타	무응답	전체
남	38	68	1	2	5	20	2	42	178
	21.3%	38.2%	0.6%	1.1%	2.8%	11.2%	1.1%	23.6%	100.0%
여	38	111	3	1	6	24	4	146	333
	11.4%	33.3%	0.9%	0.3%	1.8%	7.2%	1.2%	43.8%	100.0%
신학부	4	15	0	0	9	4	1	12	45
	8.9%	33.3%	0.0%	0.0%	20.0%	8.9%	2.2%	26.7%	100.0%
사회과학부	31	53	1	1	1	9	1	53	150
	20.7%	35.3%	0.7%	0.7%	0.7%	6.0%	0.7%	35.3%	100.0%
국제언어학부	7	14	1	0	1	5	1	12	41
	17.1%	34.1%	2.4%	0.0%	2.4%	12.2%	2.4%	29.3%	100.0%
IT학부	7	17	0	1	0	7	0	20	52
	13.5%	32.7%	0.0%	1.9%	0.0%	13.5%	0.0%	38.5%	100.0%
예술학부	9	15	2	0	0	7	1	24	58
	15.5%	25.9%	3.4%	0.0%	0.0%	12.1%	1.7%	41.4%	100.0%
디자인학부	11	37	0	1	0	9	1	46	105
	10.5%	35.2%	0.0%	1.0%	0.0%	8.6%	1.0%	43.8%	100.0%
간호복지학부	7	28	0	0	0	3	1	21	60
	11.7%	46.7%	0.0%	0.0%	0.0%	5.0%	1.7%	35.0%	100.0%
전체	76	179	4	3	11	44	6	188	511
	14.9%	35.0%	0.8%	0.6%	2.2%	8.6%	1.2%	36.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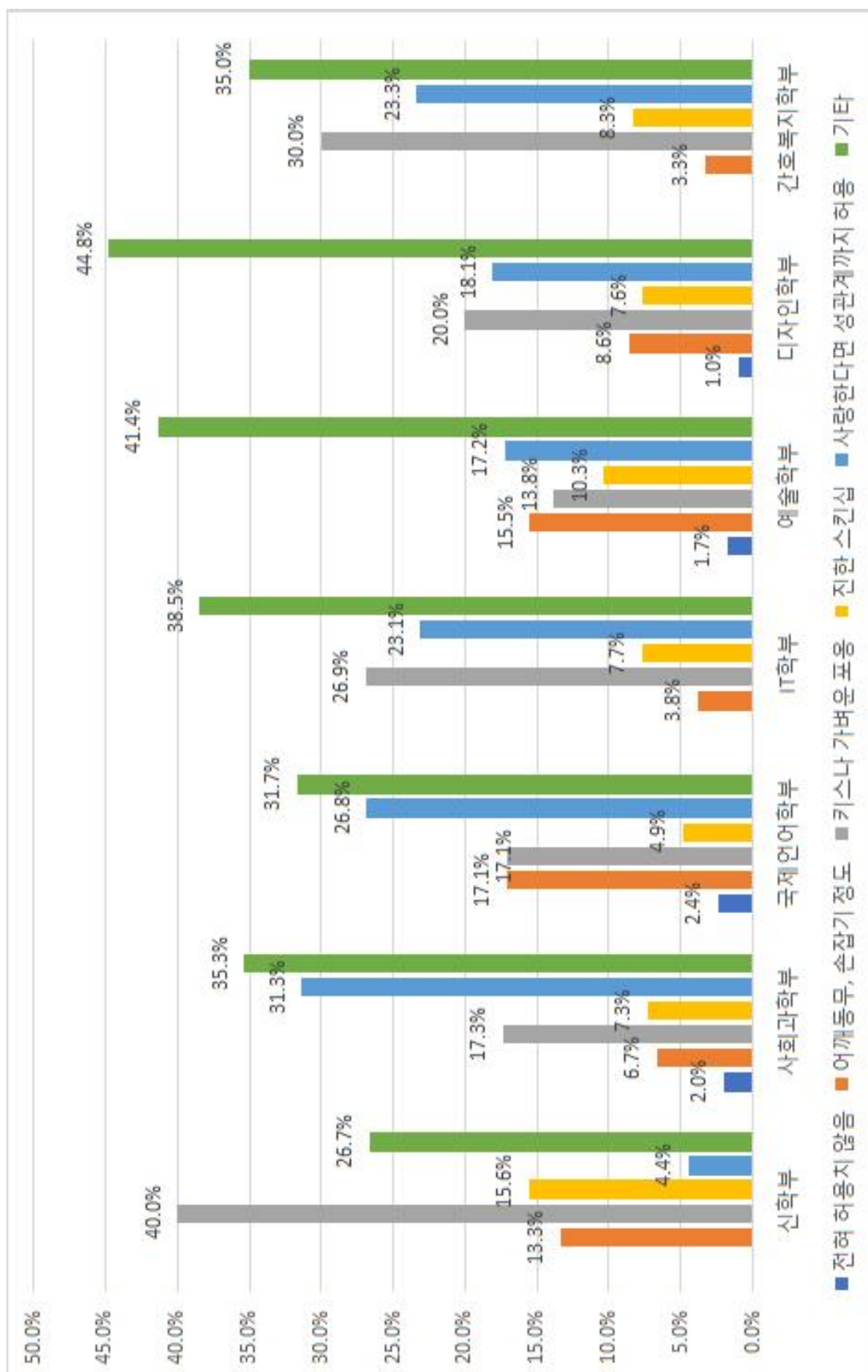
3) 이성 교제 시 스킨십 허용 정도

이성 교제 시 상대와의 신체접촉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기타’라고 응답한 비율이 37.2%로 가장 높았으며, ‘사랑한다면 성관계까지 허용’(22.5%), 키스나 가벼운 포옹(21.9%), 어깨동무, 손잡기 정도(8.8%)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기타’라고 응답한 비율은 디자인학부(44.8%), 예술학부(41.4%), IT학부(38.5%), 사회과학부(35.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랑한다면 성관계까지 허용한다는 비율은 사회과학부가 31.3%로 가장 높았고, 신학부가 4.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신체접촉의 허용 기준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여학생의 경우 ‘기타’(44.4%), 키스나 가벼운 포옹(23.4%)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은 사랑한다면 성관계까지 허용(38.8%), 키스나 가벼운 포옹(23.6%) 순으로 나타났다.

<표 52> 이성 교제 시 스킨십 허용 정도

단위:명,%

	전혀 허용치 않음	어깨동무, 손잡기 정도	키스나 가벼운 포옹	진한 스킨십	사랑한다면 성관계까지 허용	기타	전체
남	4	11	34	18	69	42	178
	2.2%	6.2%	19.1%	10.1%	38.8%	23.6%	100.0%
여	2	34	78	25	46	148	333
	0.6%	10.2%	23.4%	7.5%	13.8%	44.4%	100.0%
신학부	0	6	18	7	2	12	45
	0.0%	13.3%	40.0%	15.6%	4.4%	26.7%	100.0%
사회과학부	3	10	26	11	47	53	150
	2.0%	6.7%	17.3%	7.3%	31.3%	35.3%	100.0%
국제언어학부	1	7	7	2	11	13	41
	2.4%	17.1%	17.1%	4.9%	26.8%	31.7%	100.0%
IT학부	0	2	14	4	12	20	52
	0.0%	3.8%	26.9%	7.7%	23.1%	38.5%	100.0%
예술학부	1	9	8	6	10	24	58
	1.7%	15.5%	13.8%	10.3%	17.2%	41.4%	100.0%
디자인학부	1	9	21	8	19	47	105
	1.0%	8.6%	20.0%	7.6%	18.1%	44.8%	100.0%
간호복지학부	0	2	18	5	14	21	60
	0.0%	3.3%	30.0%	8.3%	23.3%	35.0%	100.0%
전체	6	45	112	43	115	190	511
	1.2%	8.8%	21.9%	8.4%	22.5%	37.2%	100.0%



4) 혼전 성관계

이성교제 시 혼전 성관계에 대한 신입생들의 견해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은 혼전 성관계에 대해 ‘모르겠다’는 응답으로 전체의 40.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찬성(38.0%), 반대(21.1%) 순이다. 학부별로 보면 신학부가 혼전 성관계를 반대하는 비율이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국제언어학부(26.8%), 예술학부(22.4%) 순이다. 성별로 보면 혼전성관계를 반대한다는 의견은 여학생(24.0%), 남학생(15.7%)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전년도(25.3%)와 비슷하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는 모르겠다(42.9%)의 응답이 찬성한다(32.7%)의 의견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3> 혼전 성관계

단위:명, %

	찬성	반대	모르겠다	무응답	전체
남	85	28	64	1	178
	47.8%	15.7%	36.0%	0.6%	100.0%
여	109	80	143	1	333
	32.7%	24.0%	42.9%	0.3%	100.0%
신학부	11	24	10	0	45
	24.4%	53.3%	22.2%	0.0%	100.0%
사회과학부	62	23	64	1	150
	41.3%	15.3%	42.7%	0.7%	100.0%
국제언어학부	17	11	13	0	41
	41.5%	26.8%	31.7%	0.0%	100.0%
IT학부	23	7	22	0	52
	44.2%	13.5%	42.3%	0.0%	100.0%
예술학부	20	13	24	1	58
	34.5%	22.4%	41.4%	1.7%	100.0%
디자인학부	39	20	46	0	105
	37.1%	19.0%	43.8%	0.0%	100.0%
간호복지학부	22	10	28	0	60
	36.7%	16.7%	46.7%	0.0%	100.0%
전체	194	108	207	2	511
	38.0%	21.1%	40.5%	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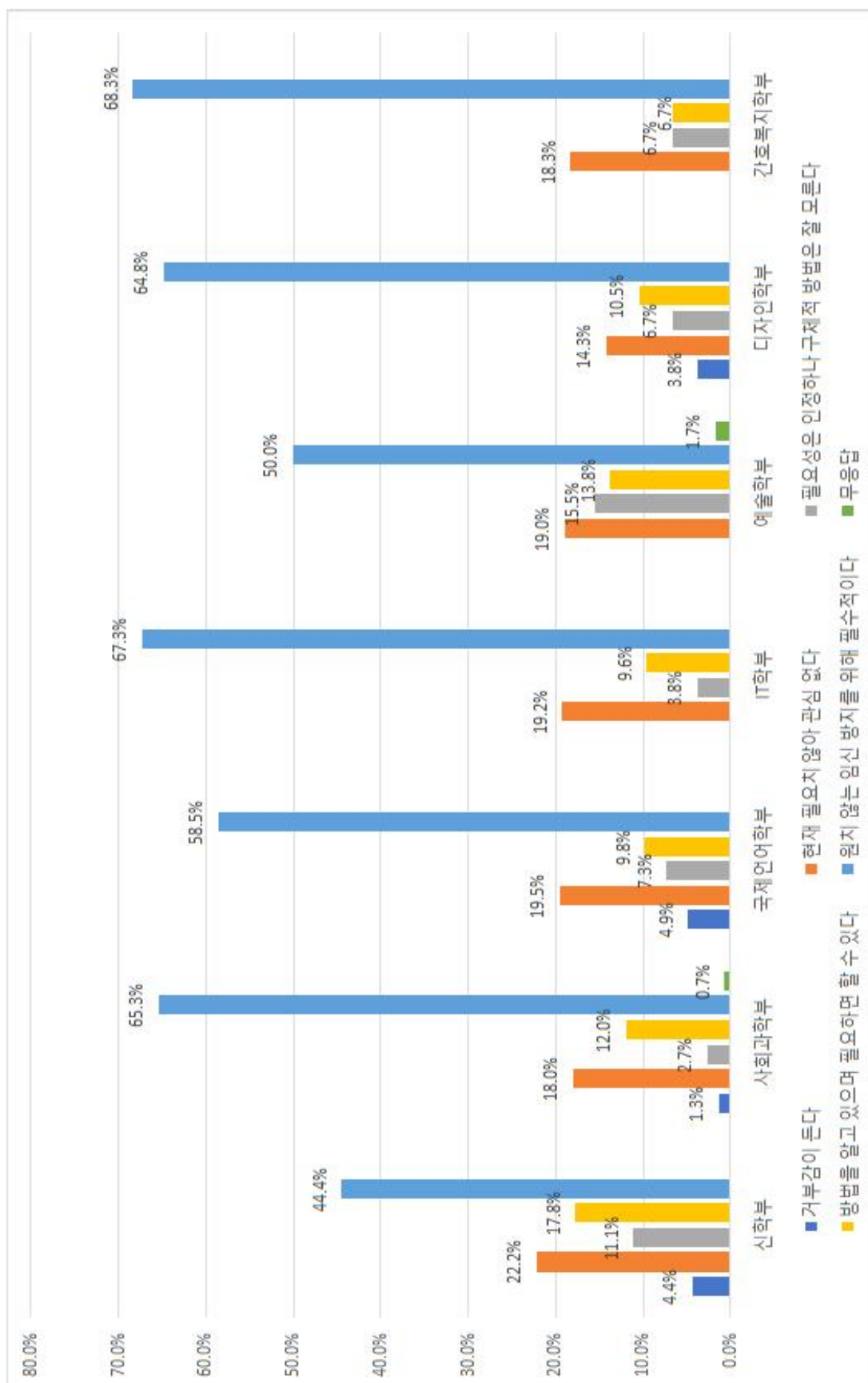
5) 피임에 대한 견해

신입생들은 피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필수적이다(61.6%)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관심 없다(18.0%), 방법을 알고 할 수 있다(11.4%), 필요성은 인정하나 방법을 모른다(6.7%)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필수적이라는 응답 비율이 간호복지학부 6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IT학부(67.3%), 사회과학부(65.3%), 디자인학부(64.8%) 순이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57.9%), 여학생(63.7%) 모두 필수적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4> 피임에 대한 견해

단위:명,%

	거부감이 든다	현재 필요치 않아 관심이 없다	필요성은 인정하나 구체적 방법은 잘 모름	방법을 알고 있으며 필요하면 할 수 있다	원치 않는 임신 방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무응답	전체
남	4	30	8	32	103	1	178
	2.2%	16.9%	4.5%	18.0%	57.9%	0.6%	100.0%
여	6	62	26	26	212	1	333
	1.8%	18.6%	7.8%	7.8%	63.7%	0.3%	100.0%
신학부	2	10	5	8	20	0	45
	4.4%	22.2%	11.1%	17.8%	44.4%	0.0%	100.0%
사회과학부	2	27	4	18	98	1	150
	1.3%	18.0%	2.7%	12.0%	65.3%	0.7%	100.0%
국제언어학부	2	8	3	4	24	0	41
	4.9%	19.5%	7.3%	9.8%	58.5%	0.0%	100.0%
IT학부	0	10	2	5	35	0	52
	0.0%	19.2%	3.8%	9.6%	67.3%	0.0%	100.0%
예술학부	0	11	9	8	29	1	58
	0.0%	19.0%	15.5%	13.8%	50.0%	1.7%	100.0%
디자인학부	4	15	7	11	68	0	105
	3.8%	14.3%	6.7%	10.5%	64.8%	0.0%	100.0%
간호복지학부	0	11	4	4	41	0	60
	0.0%	18.3%	6.7%	6.7%	68.3%	0.0%	100.0%
전체	10	92	34	58	315	2	511
	2.0%	18.0%	6.7%	11.4%	61.6%	0.4%	100.0%



6) 낙태에 대한 견해

낙태에 대한 신입생들의 견해를 알아보았다. 응답자 중 39.5%가 '반대'라고 응답한 반면, 찬성하는 응답도 46.4%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보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신학부가 73.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예술학부(48.3%), 사회과학부(39.3%), 국제언어학부(39.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52.8%, 여학생의 32.4%가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 찬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36.0%)보다 여학생(52.0%)이 더 높았다.

<표 55> 낙태에 대한 견해

단위:명,%

	찬성	반대	기타	무응답	전체
남	64	94	19	1	178
	36.0%	52.8%	10.7%	0.6%	100.0%
여	173	108	50	2	333
	52.0%	32.4%	15.0%	0.6%	100.0%
신학부	7	33	5	0	45
	15.6%	73.3%	11.1%	0.0%	100.0%
사회과학부	66	59	23	2	150
	44.0%	39.3%	15.3%	1.3%	100.0%
국제언어학부	19	16	6	0	41
	46.3%	39.0%	14.6%	0.0%	100.0%
IT학부	30	17	5	0	52
	57.7%	32.7%	9.6%	0.0%	100.0%
예술학부	19	28	10	1	58
	32.8%	48.3%	17.2%	1.7%	100.0%
디자인학부	63	30	12	0	105
	60.0%	28.6%	11.4%	0.0%	100.0%
간호복지학부	33	19	8	0	60
	55.0%	31.7%	13.3%	0.0%	100.0%
전체	237	202	69	3	511
	46.4%	39.5%	13.5%	0.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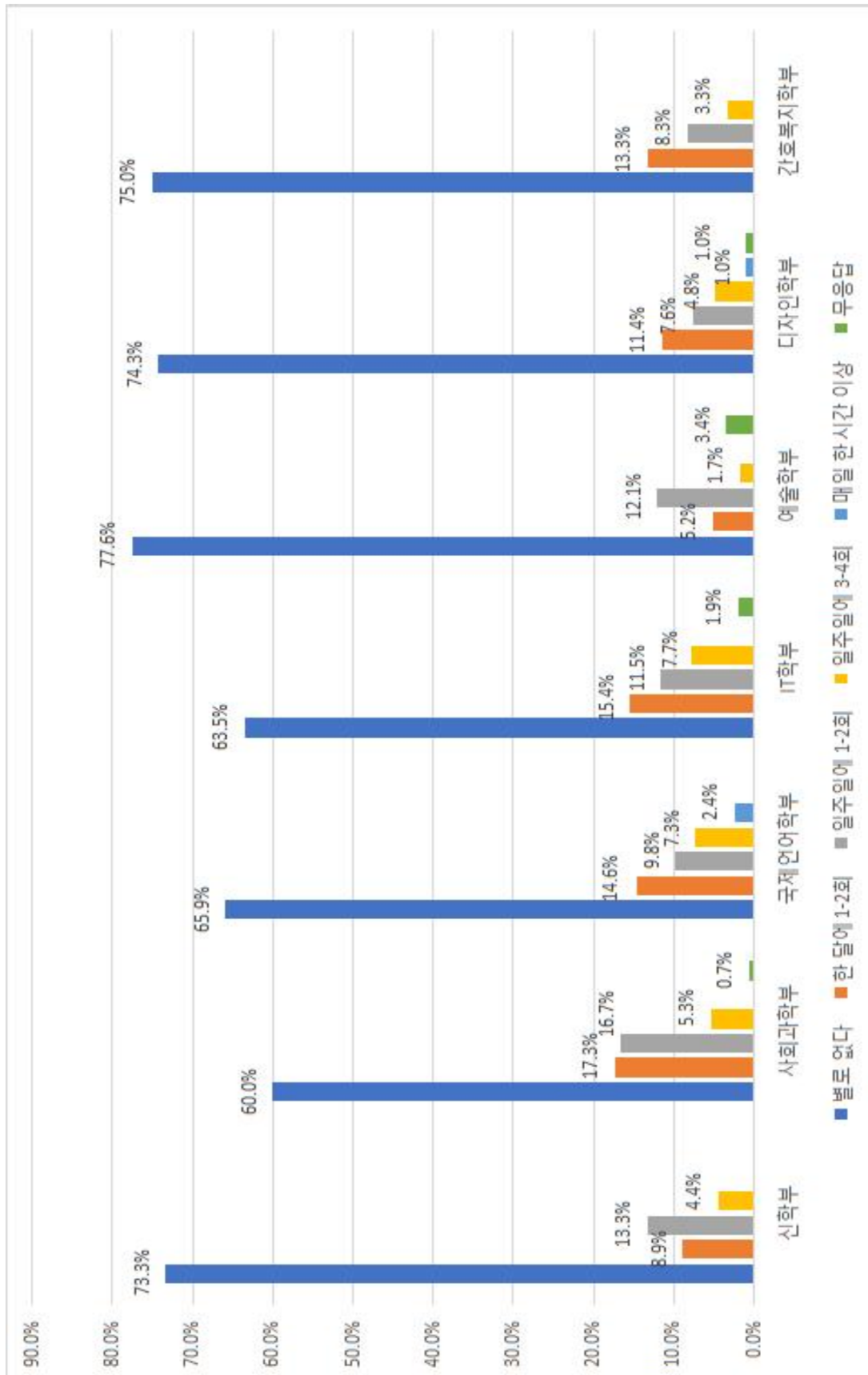
7) 매체를 통한 음란물 접촉 정도

신입생들의 68.7%가 만화, 비디오, 컴퓨터 및 매체를 통해 음란물을 접촉한 경험이 '별로 없다'라고 응답했으며, 한 달에 1-2회는 13.1%, 일주일에 1-2회는 11.9%, 일주일에 3-4회는 4.9%, 매일 한 시간 이상은 0.4%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음란물 접촉 정도가 '별로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예술학부가 77.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간호복지학부(75.0%), 디자인학부(74.3%), 신학부(73.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음란물 접촉 정도가 별로 없다는 응답 비율로 여학생(82.9%)이 남학생(42.1%)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56> 매체를 통한 음란물 접촉 정도

단위:명,%

	별로 없다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4회	매일 한 시간 이상	무응답	전체
남	75	34	44	22	1	2	178
	42.1%	19.1%	24.7%	12.4%	0.6%	1.1%	100.0%
여	276	33	17	3	1	3	333
	82.9%	9.9%	5.1%	0.9%	0.3%	0.9%	100.0%
신학부	33	4	6	2	0	0	45
	73.3%	8.9%	13.3%	4.4%	0.0%	0.0%	100.0%
사회과학부	90	26	25	8	0	1	150
	60.0%	17.3%	16.7%	5.3%	0.0%	0.7%	100.0%
국제언어학부	27	6	4	3	1	0	41
	65.9%	14.6%	9.8%	7.3%	2.4%	0.0%	100.0%
IT학부	33	8	6	4	0	1	52
	63.5%	15.4%	11.5%	7.7%	0.0%	1.9%	100.0%
예술학부	45	3	7	1	0	2	58
	77.6%	5.2%	12.1%	1.7%	0.0%	3.4%	100.0%
디자인학부	78	12	8	5	1	1	105
	74.3%	11.4%	7.6%	4.8%	1.0%	1.0%	100.0%
간호복지학부	45	8	5	2	0	0	60
	75.0%	13.3%	8.3%	3.3%	0.0%	0.0%	100.0%
전체	351	67	61	25	2	5	511
	68.7%	13.1%	11.9%	4.9%	0.4%	1.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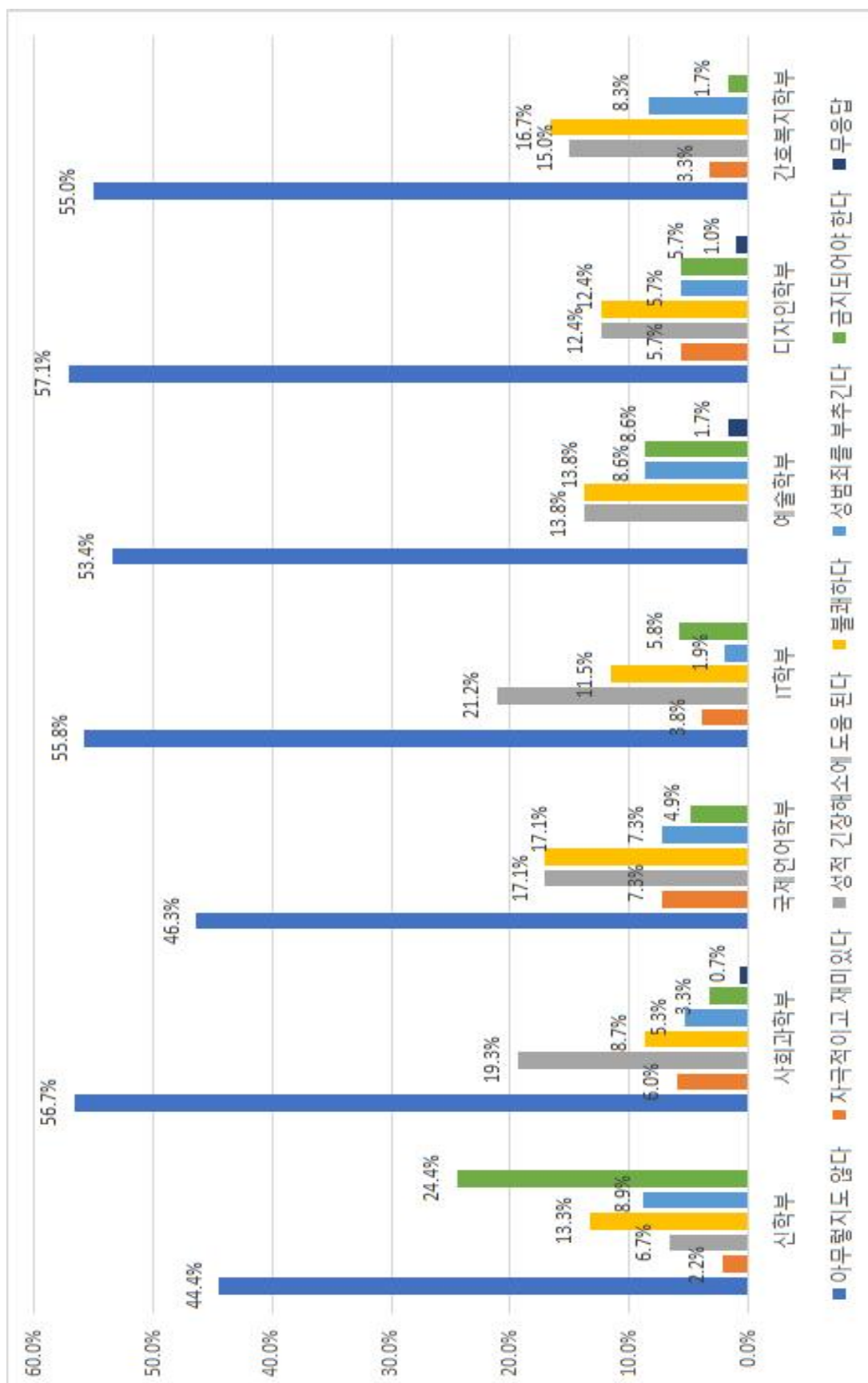
8) 음란물에 대한 견해

신입생들의 음란물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 신입생 전체의 54.2%가 ‘아무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성적 긴장해소에 도움(15.7%), 불쾌하다(12.3%), 금지되어야한다(6.5%)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아무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디자인학부가 57.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회과학부가 56.7%, IT학부가 55.8%, 간호복지학부가 55.0%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의 경우는 아무렇지 않다는 응답이 55.6%, 남학생의 경우는 51.7%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불쾌하다는 답변도 16.8%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남학생의 경우 성적 긴장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32.6%로 나타났다.

<표 57> 음란물에 대한 견해

단위:명,%

	아무렇지도 않다	자극적이고 재밌다	성적 긴장해소 에 도움	불쾌하다	성범죄를 부추긴다	금지되어 야 한다	무응답	전체
남	92	8	58	7	3	9	1	178
	51.7%	4.5%	32.6%	3.9%	1.7%	5.1%	0.6%	100.0%
여	185	15	22	56	29	24	2	333
	55.6%	4.5%	6.6%	16.8%	8.7%	7.2%	0.6%	100.0%
신학부	20	1	3	6	4	11	0	45
	44.4%	2.2%	6.7%	13.3%	8.9%	24.4%	0.0%	100.0%
사회과학부	85	9	29	13	8	5	1	150
	56.7%	6.0%	19.3%	8.7%	5.3%	3.3%	0.7%	100.0%
국제언어학부	19	3	7	7	3	2	0	41
	46.3%	7.3%	17.1%	17.1%	7.3%	4.9%	0.0%	100.0%
IT학부	29	2	11	6	1	3	0	52
	55.8%	3.8%	21.2%	11.5%	1.9%	5.8%	0.0%	100.0%
예술학부	31	0	8	8	5	5	1	58
	53.4%	0.0%	13.8%	13.8%	8.6%	8.6%	1.7%	100.0%
디자인학부	60	6	13	13	6	6	1	105
	57.1%	5.7%	12.4%	12.4%	5.7%	5.7%	1.0%	100.0%
간호복지학부	33	2	9	10	5	1	0	60
	55.0%	3.3%	15.0%	16.7%	8.3%	1.7%	0.0%	100.0%
전체	277	23	80	63	32	33	3	511
	54.2%	4.5%	15.7%	12.3%	6.3%	6.5%	0.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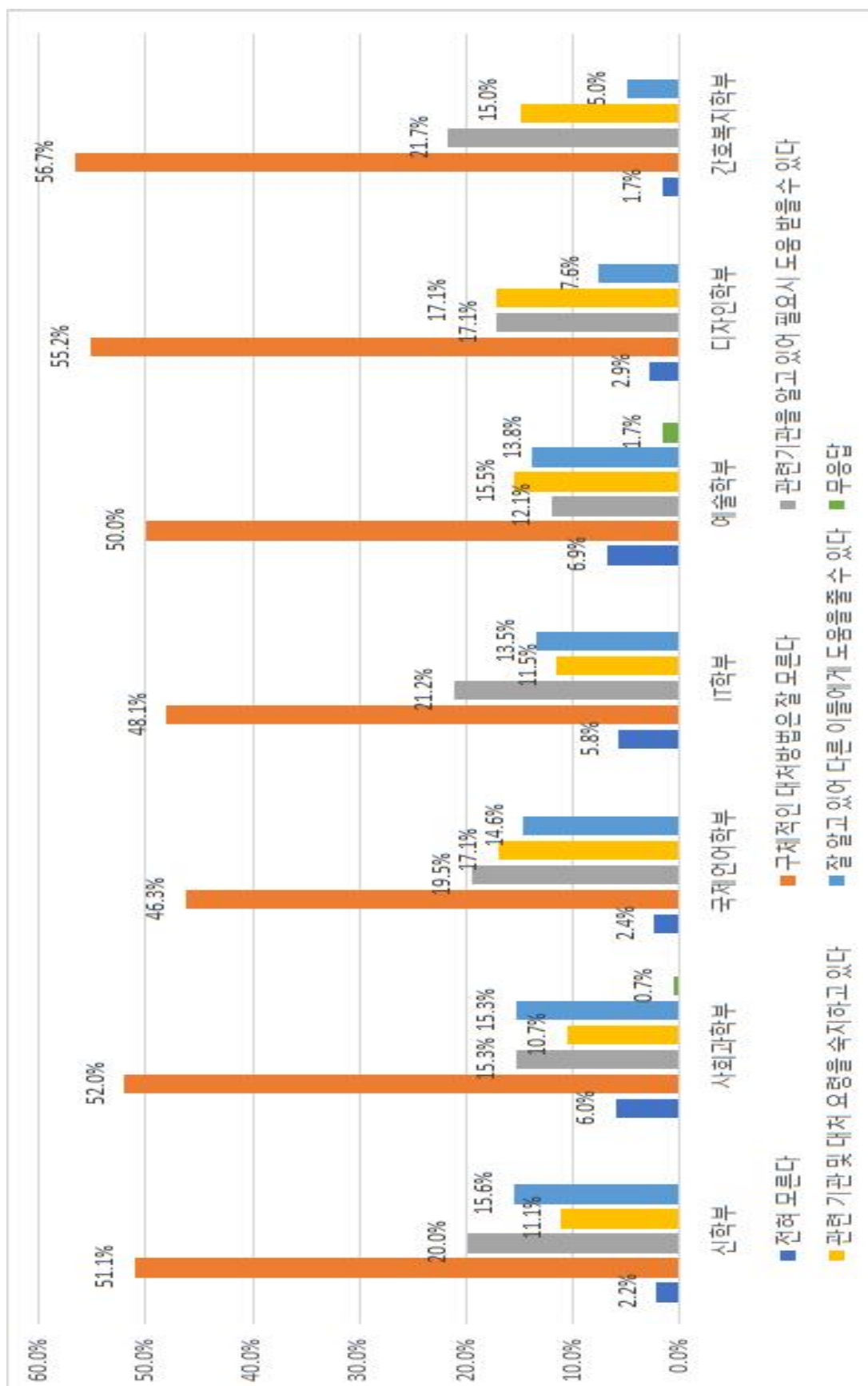
9)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경험 여부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신입생의 52.1%가 '약간 불쾌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여러번 불쾌한 경험(17.4%), 고통스러운 정도(13.7%), 극심한 고통(12.1%)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예술학부가 6.9%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사회과학부(6.0%), IT학부(5.8%), 디자인학부(2.9%) 순이다. 성별로 보면 전혀 없다는 응답에 남학생(9.0%)이 여학생(1.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약간 불쾌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59.5%로 나타났다.

<표 58>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경험 여부

단위:명,%

	전혀 없다	약간 불쾌한 경험이 있다	여러 번 불쾌한 경험이 있다	기간이나 정도가 고통스러운 정도였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매우 심한 고통이었다	무응답	전체
남	16	68	32	20	41	1	178
	9.0%	38.2%	18.0%	11.2%	23.0%	0.6%	100.0%
여	6	198	57	50	21	1	333
	1.8%	59.5%	17.1%	15.0%	6.3%	0.3%	100.0%
신학부	1	23	9	5	7	0	45
	2.2%	51.1%	20.0%	11.1%	15.6%	0.0%	100.0%
사회과학부	9	78	23	16	23	1	150
	6.0%	52.0%	15.3%	10.7%	15.3%	0.7%	100.0%
국제언어학부	1	19	8	7	6	0	41
	2.4%	46.3%	19.5%	17.1%	14.6%	0.0%	100.0%
IT학부	3	25	11	6	7	0	52
	5.8%	48.1%	21.2%	11.5%	13.5%	0.0%	100.0%
예술학부	4	29	7	9	8	1	58
	6.9%	50.0%	12.1%	15.5%	13.8%	1.7%	100.0%
디자인학부	3	58	18	18	8	0	105
	2.9%	55.2%	17.1%	17.1%	7.6%	0.0%	100.0%
간호복지학부	1	34	13	9	3	0	60
	1.7%	56.7%	21.7%	15.0%	5.0%	0.0%	100.0%
전체	22	266	89	70	62	2	511
	4.3%	52.1%	17.4%	13.7%	12.1%	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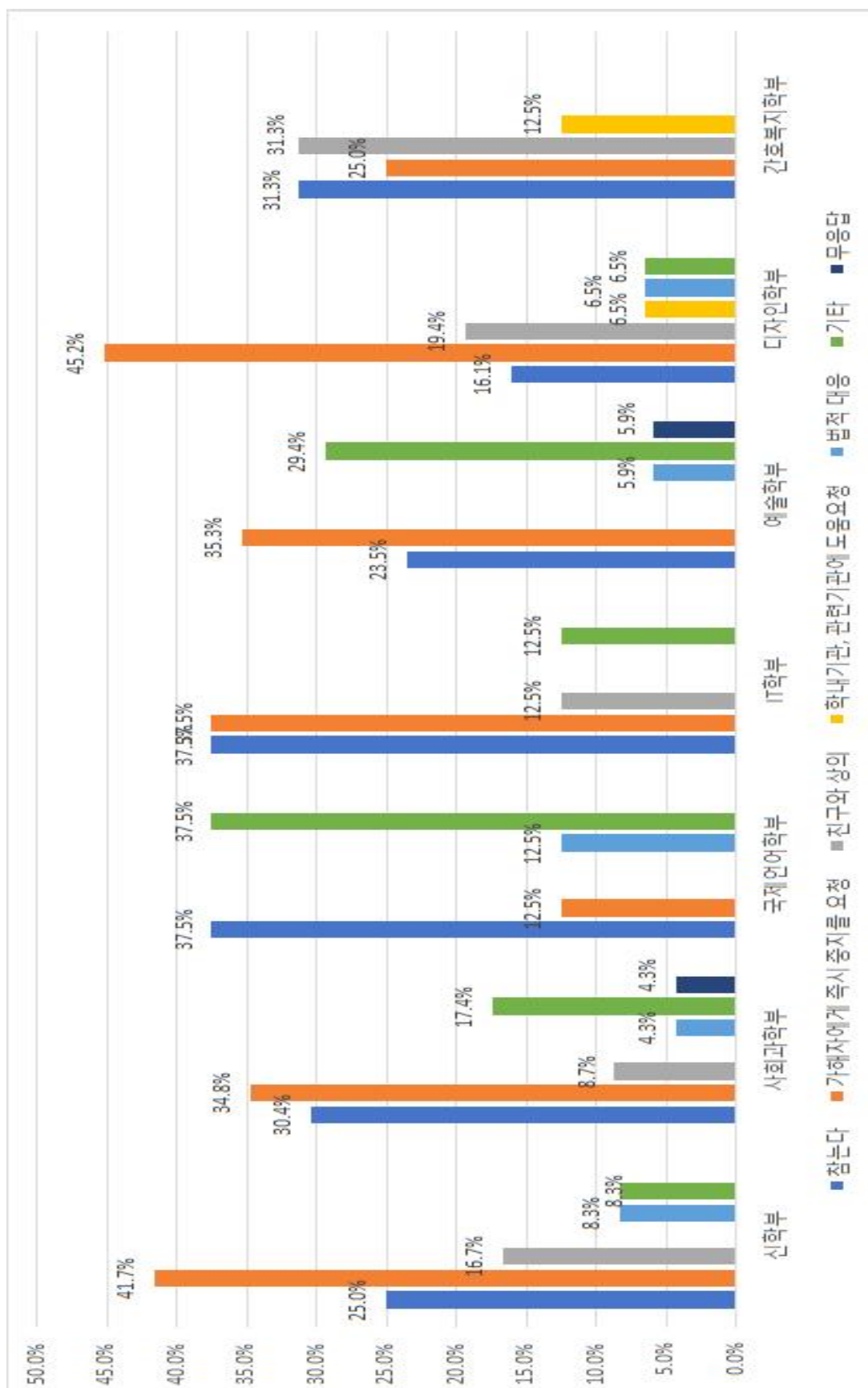
10)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을 당할 경우 그 대응방법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가해자에게 즉시 중지를 요청’이 35.7%, ‘참는다’가 26.1%, ‘친구와 상의한다, 기타’가 13.9%로 응답하였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국제언어학부가 1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학부(8.3%), 디자인학부(6.5%)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에게 즉시 중지를 요청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디자인학부가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학부(41.7%), IT학부(37.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은 가해자에게 즉시 중지를 요청한다는 응답이 35.6%, 법적대응이 5.0%, 남학생은 무응답을 제외하고 법적대응이 7.1%, 가해자에게 즉시 중지를 요청한다가 35.7%로 나타났다.

<표 59>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단위:명,%

	참는다	가해자에게 즉시 중지를 요청	친구와 상의	학내기관, 관련기관에 도움요청	법적 대응	기타	무응답	전체
남	6	5	1	0	1	0	1	14
	42.9%	35.7%	7.1%	0.0%	7.1%	0.0%	7.1%	100.0%
여	24	36	15	4	5	16	1	101
	23.8%	35.6%	14.9%	4.0%	5.0%	15.8%	1.0%	100.0%
신학부	3	5	2	0	1	1	0	12
	25.0%	41.7%	16.7%	0.0%	8.3%	8.3%	0.0%	100.0%
사회과학부	7	8	2	0	1	4	1	23
	30.4%	34.8%	8.7%	0.0%	4.3%	17.4%	4.3%	100.0%
국제언어학 부	3	1	0	0	1	3	0	8
	37.5%	12.5%	0.0%	0.0%	12.5%	37.5%	0.0%	100.0%
IT학부	3	3	1	0	0	1	0	8
	37.5%	37.5%	12.5%	0.0%	0.0%	12.5%	0.0%	100.0%
예술학부	4	6	0	0	1	5	1	17
	23.5%	35.3%	0.0%	0.0%	5.9%	29.4%	5.9%	100.0%
디자인학부	5	14	6	2	2	2	0	31
	16.1%	45.2%	19.4%	6.5%	6.5%	6.5%	0.0%	100.0%
간호복지학 부	5	4	5	2	0	0	0	16
	31.3%	25.0%	31.3%	12.5%	0.0%	0.0%	0.0%	100.0%
전체	30	41	16	4	6	16	2	115
	26.1%	35.7%	13.9%	3.5%	5.2%	13.9%	1.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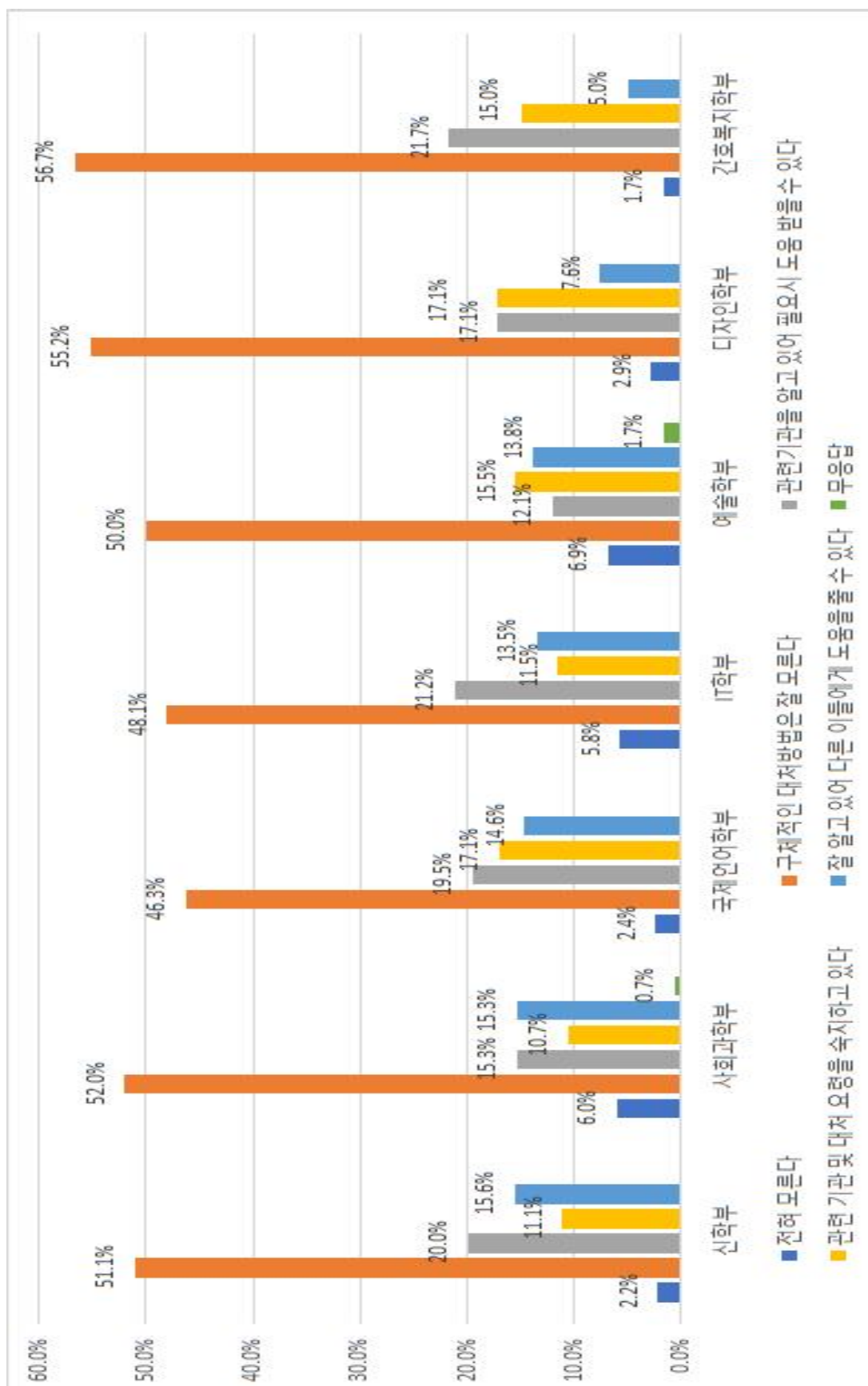
11) 성폭력의 대처방법에 대한 지식

성폭력의 대처방법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처방법은 잘 모른다’는 응답이 52.1%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이 ‘관련기관을 알고 있어 필요시 도움 받을 수 있다’(17.4%), ‘관련기관 및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있다’(13.7%), ‘잘 알고 있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12.1%) 순이다. 최근 3년간 ‘구체적 대처방법은 잘 모른다’는 응답 비율은 계속 감소하였고,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있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은 소폭 상승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 대처방법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간호복지학부가 56.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디자인학부(55.2%), 사회과학부(52.0%), 신학부(51.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38.2%), 여학생(59.5%) 모두 ‘구체적 대처방법을 잘 모른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60> 성폭력의 대처방법에 대한 지식

단위:명,%

	전혀 모름	구체적인 대처방법은 잘 모른다	관련기관을 알고 있어 필요시 도움 받을 수 있다	관련 기관 및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있다	잘 알고 있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무응답	전체
남	16	68	32	20	41	1	178
	9.0%	38.2%	18.0%	11.2%	23.0%	0.6%	100.0%
여	6	198	57	50	21	1	333
	1.8%	59.5%	17.1%	15.0%	6.3%	0.3%	100.0%
신학부	1	23	9	5	7	0	45
	2.2%	51.1%	20.0%	11.1%	15.6%	0.0%	100.0%
사회과학부	9	78	23	16	23	1	150
	6.0%	52.0%	15.3%	10.7%	15.3%	0.7%	100.0%
국제언어학부	1	19	8	7	6	0	41
	2.4%	46.3%	19.5%	17.1%	14.6%	0.0%	100.0%
IT학부	3	25	11	6	7	0	52
	5.8%	48.1%	21.2%	11.5%	13.5%	0.0%	100.0%
예술학부	4	29	7	9	8	1	58
	6.9%	50.0%	12.1%	15.5%	13.8%	1.7%	100.0%
디자인학부	3	58	18	18	8	0	105
	2.9%	55.2%	17.1%	17.1%	7.6%	0.0%	100.0%
간호복지학부	1	34	13	9	3	0	60
	1.7%	56.7%	21.7%	15.0%	5.0%	0.0%	100.0%
전체	22	266	89	70	62	2	511
	4.3%	52.1%	17.4%	13.7%	12.1%	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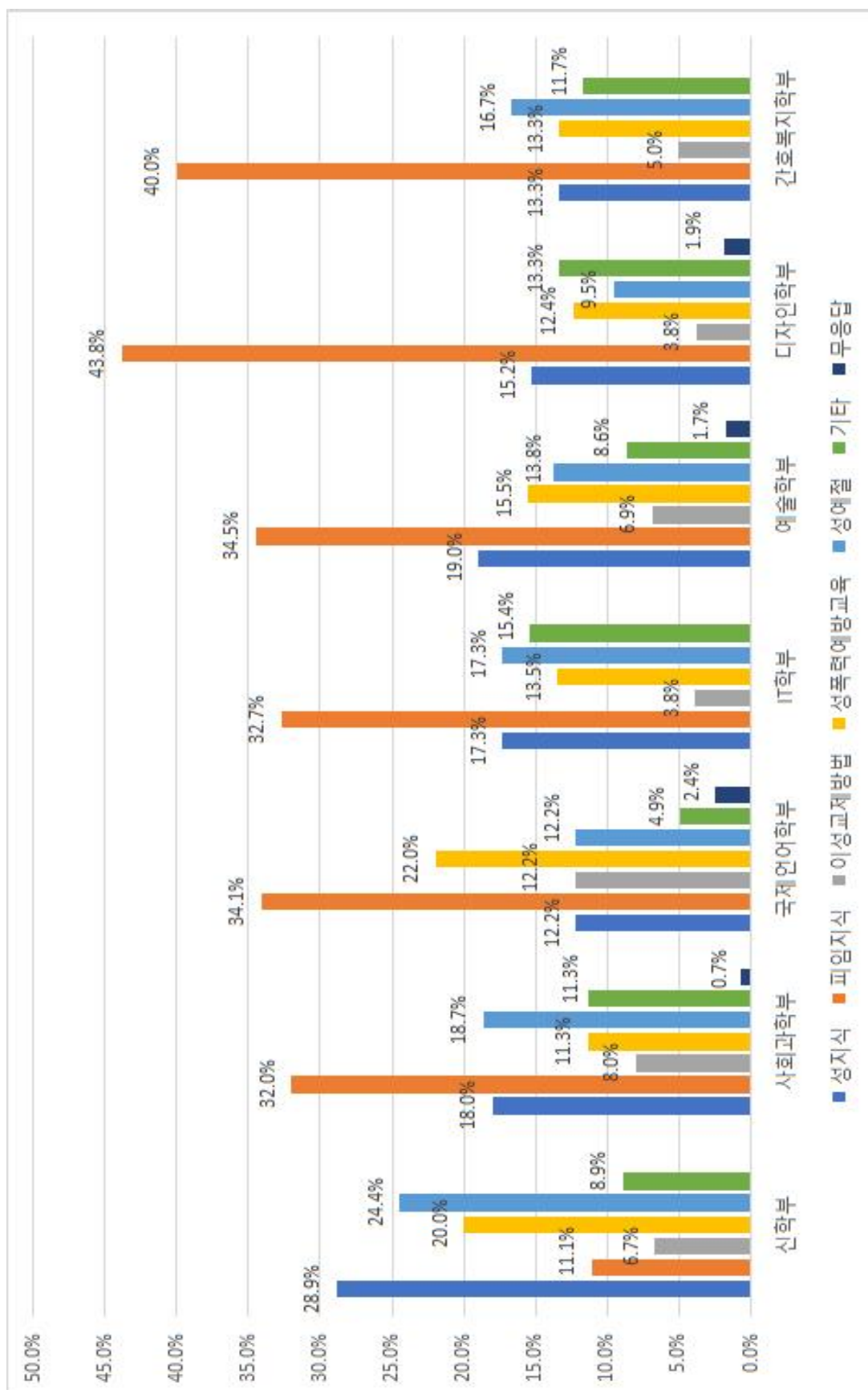
12) 성교육을 통해 가장 알고 싶은 것

성교육시 가장 알고 싶은 것은 피임지식(34.1%)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성지식(17.4%), 성예절(15.9%), 성폭력예절교육(14.1%) 순이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간호복지학과, 사회과학부, 디자인학부, IT학부, 국제언어학부, 예술학부는 피임지식을, 신학부는 성지식을 가장 알고 싶다고 대답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23.0%가 피임지식을 여학생은 39.9%도 피임지식이 알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61> 성교육을 통해 가장 알고 싶은 것

단위:명,%

	성지식	피임지식	이성교제 방법	성폭력 예방교육	성 예절	기타	무응답	전체
남	33	41	21	15	36	29	3	178
	18.5%	23.0%	11.8%	8.4%	20.2%	16.3%	1.7%	100.0%
여	56	133	12	57	45	28	2	333
	16.8%	39.9%	3.6%	17.1%	13.5%	8.4%	0.6%	100.0%
신학부	13	5	3	9	11	4	0	45
	28.9%	11.1%	6.7%	20.0%	24.4%	8.9%	0.0%	100.0%
사회과학부	27	48	12	17	28	17	1	150
	18.0%	32.0%	8.0%	11.3%	18.7%	11.3%	0.7%	100.0%
국제언어학부	5	14	5	9	5	2	1	41
	12.2%	34.1%	12.2%	22.0%	12.2%	4.9%	2.4%	100.0%
IT학부	9	17	2	7	9	8	0	52
	17.3%	32.7%	3.8%	13.5%	17.3%	15.4%	0.0%	100.0%
예술학부	11	20	4	9	8	5	1	58
	19.0%	34.5%	6.9%	15.5%	13.8%	8.6%	1.7%	100.0%
디자인학부	16	46	4	13	10	14	2	105
	15.2%	43.8%	3.8%	12.4%	9.5%	13.3%	1.9%	100.0%
간호복지학부	8	24	3	8	10	7	0	60
	13.3%	40.0%	5.0%	13.3%	16.7%	11.7%	0.0%	100.0%
전체	89	174	33	72	81	57	5	511
	17.4%	34.1%	6.5%	14.1%	15.9%	11.2%	1.0%	100.0%



7. 상담센터 관련

1) 최근 3개월 간 심리적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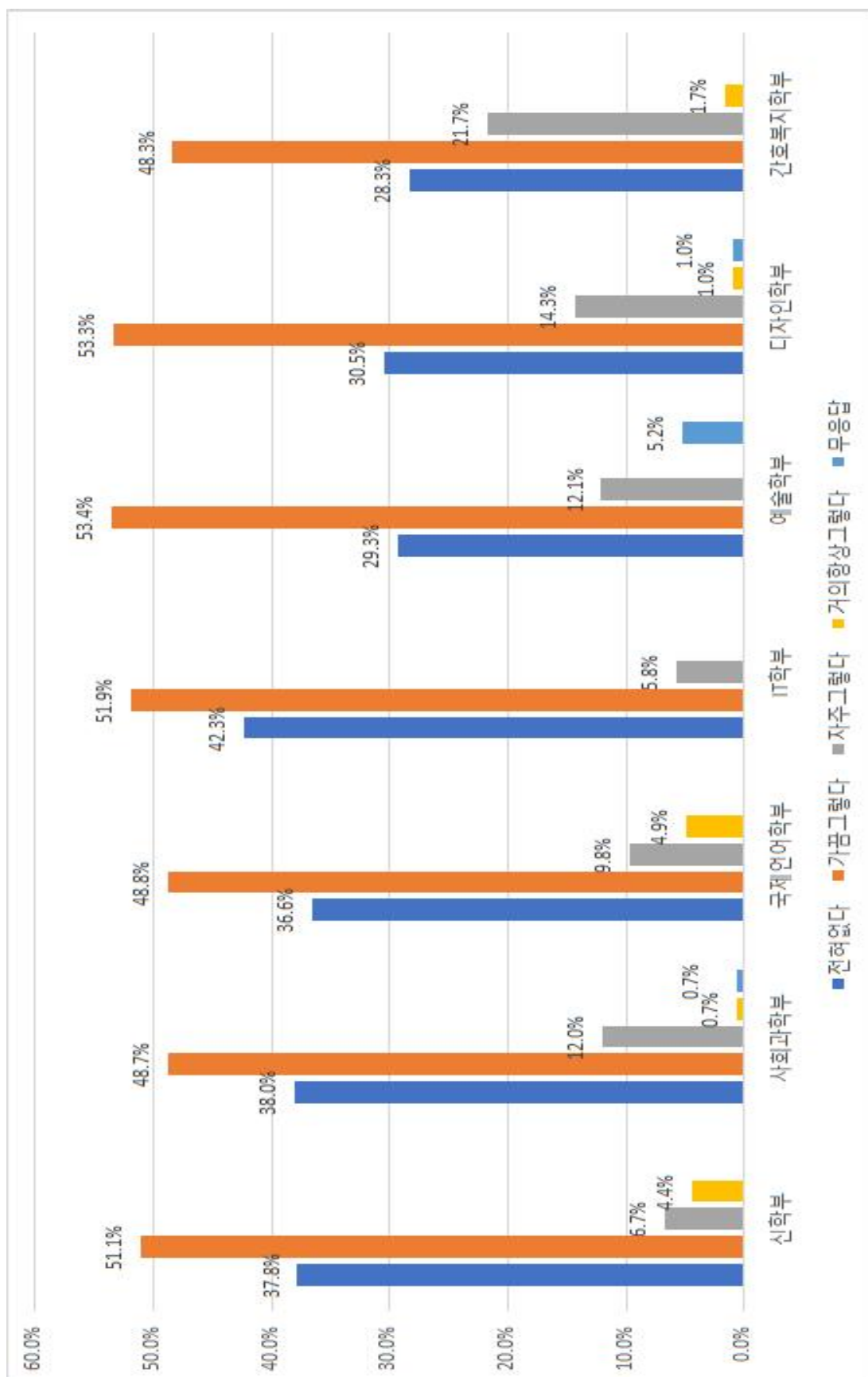
(1) 외로움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 간 심리적 상태 중 외로움에 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50.7%가 가끔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전혀 없다(34.6%), 자주 그렇다(12.3%), 거의 항상 그렇다(1.4%) 순이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가끔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예술학부가 53.4%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디자인학부(53.3%), IT학부(51.9%), 신학부(51.1%), 국제언어학부(48.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가끔 그렇다(43.3%), 전혀 없다(41.6%)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는 가끔 그렇다(54.7%)와 전혀 없다(30.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2-1> 외로움

단위:명,%

	전혀 없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무응답	전체
남	74	77	20	5	2	178
	41.6%	43.3%	11.2%	2.8%	1.1%	100.0%
여	103	182	43	2	3	333
	30.9%	54.7%	12.9%	0.6%	0.9%	100.0%
신학부	17	23	3	2	0	45
	37.8%	51.1%	6.7%	4.4%	0.0%	100.0%
사회과학부	57	73	18	1	1	150
	38.0%	48.7%	12.0%	0.7%	0.7%	100.0%
국제언어학부	15	20	4	2	0	41
	36.6%	48.8%	9.8%	4.9%	0.0%	100.0%
IT학부	22	27	3	0	0	52
	42.3%	51.9%	5.8%	0.0%	0.0%	100.0%
예술학부	17	31	7	0	3	58
	29.3%	53.4%	12.1%	0.0%	5.2%	100.0%
디자인학부	32	56	15	1	1	105
	30.5%	53.3%	14.3%	1.0%	1.0%	100.0%
간호복지학부	17	29	13	1	0	60
	28.3%	48.3%	21.7%	1.7%	0.0%	100.0%
전체	177	259	63	7	5	511
	34.6%	50.7%	12.3%	1.4%	1.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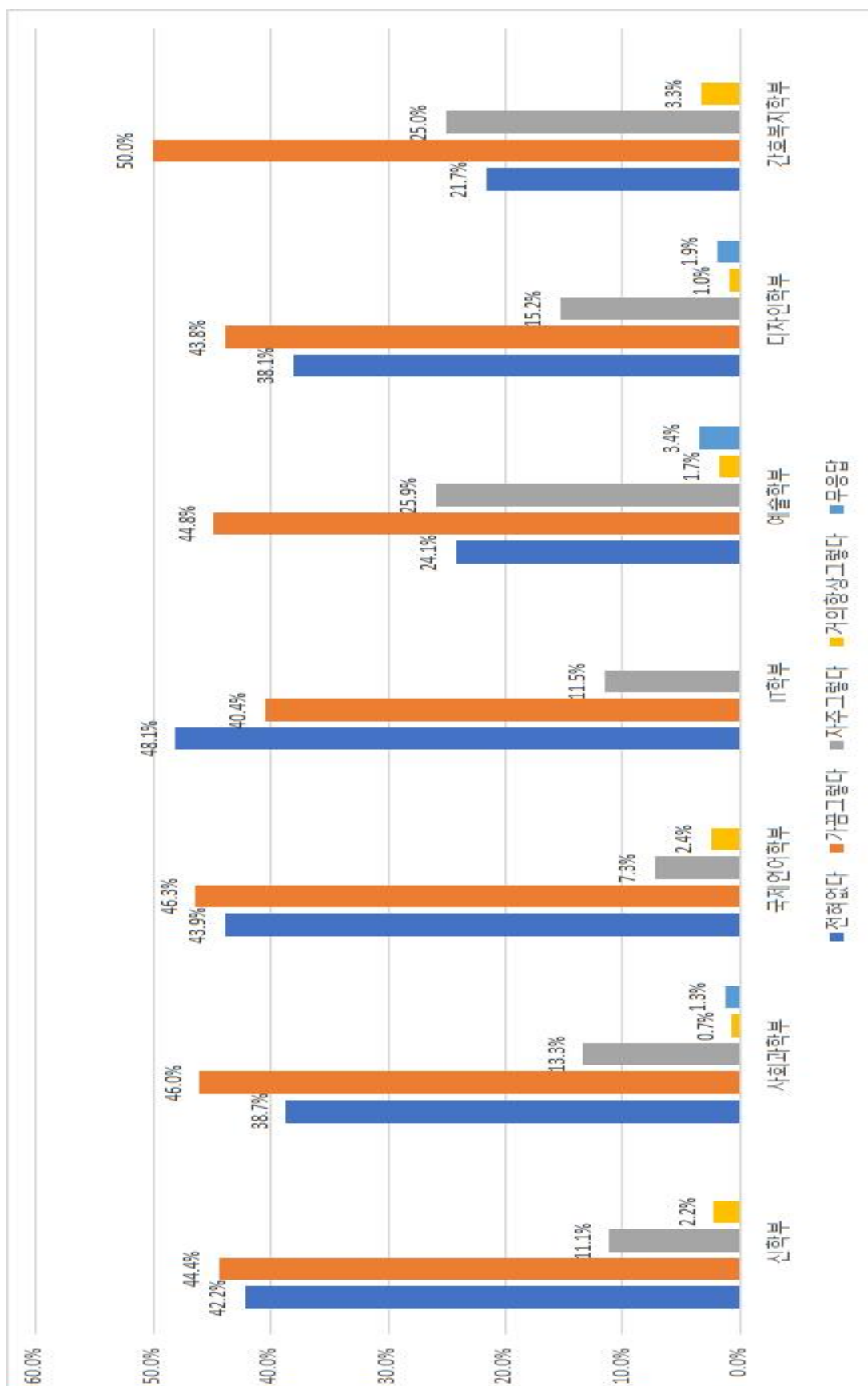
(2) 불안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 간 심리적 상태 중 불안에 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45.2%가 ‘가끔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전혀 없다(36.6%), 자주 그렇다(15.7%), 거의 항상 그렇다(1.4%) 순이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가끔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간호복지학부가 50.0%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국제언어학부(46.3%), 사회과학부(46.0%), 예술학부(44.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전혀 없다’가 46.1%로 가장 높았고, 41.0%가 ‘가끔 그렇다’고 응답했다. 여학생의 경우 47.4%가 ‘가끔 그렇다’, 31.5%가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표 62-2> 불안

단위:명, %

	전혀 없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무응답	전체
남	82	73	17	3	3	178
	46.1%	41.0%	9.6%	1.7%	1.7%	100.0%
여	105	158	63	4	3	333
	31.5%	47.4%	18.9%	1.2%	0.9%	100.0%
신학부	19	20	5	1	0	45
	42.2%	44.4%	11.1%	2.2%	0.0%	100.0%
사회과학부	58	69	20	1	2	150
	38.7%	46.0%	13.3%	0.7%	1.3%	100.0%
국제언어학부	18	19	3	1	0	41
	43.9%	46.3%	7.3%	2.4%	0.0%	100.0%
IT학부	25	21	6	0	0	52
	48.1%	40.4%	11.5%	0.0%	0.0%	100.0%
예술학부	14	26	15	1	2	58
	24.1%	44.8%	25.9%	1.7%	3.4%	100.0%
디자인학부	40	46	16	1	2	105
	38.1%	43.8%	15.2%	1.0%	1.9%	100.0%
간호복지학부	13	30	15	2	0	60
	21.7%	50.0%	25.0%	3.3%	0.0%	100.0%
전체	187	231	80	7	6	511
	36.6%	45.2%	15.7%	1.4%	1.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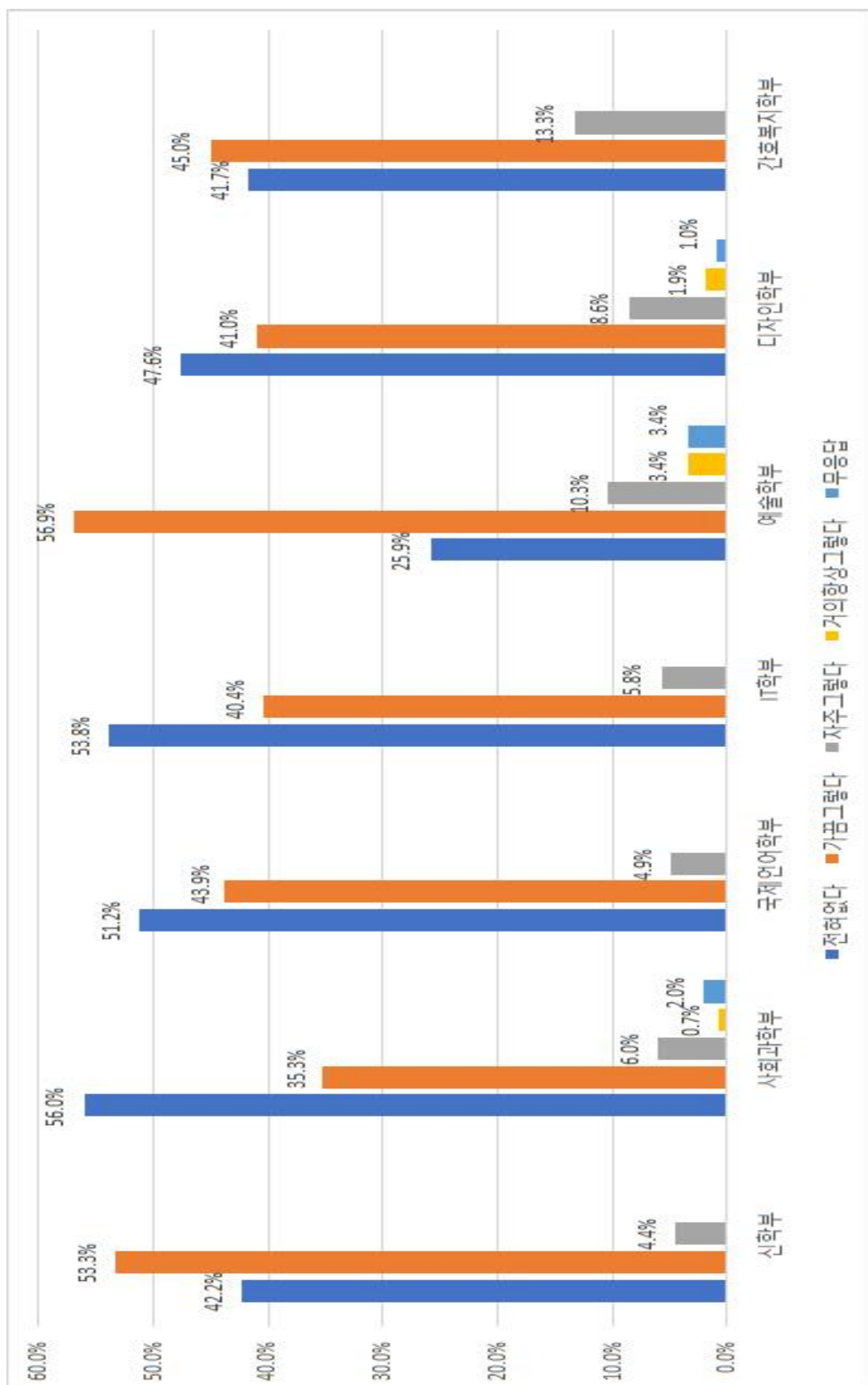
(3) 분노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 간 심리적 상태 중 분노에 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47.4%가 ‘전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가끔 그렇다(42.9%), 자주 그렇다(7.6%), 거의 항상 그렇다(1.0%) 순이다. 가끔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예술학부가 56.9%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신학부(53.3%), 간호복지학부(45.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 여학생은 58.4%, 41.1%가 ‘전혀 없다’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가끔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 33.7%, 여학생 47.7%로 나타났다.

<표 62-3> 분노

단위:명, %

	전혀 없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무응답	전체
남	104	60	9	2	3	178
	58.4%	33.7%	5.1%	1.1%	1.7%	100.0%
여	138	159	30	3	3	333
	41.4%	47.7%	9.0%	0.9%	0.9%	100.0%
신학부	19	24	2	0	0	45
	42.2%	53.3%	4.4%	0.0%	0.0%	100.0%
사회과학부	84	53	9	1	3	150
	56.0%	35.3%	6.0%	0.7%	2.0%	100.0%
국제언어학부	21	18	2	0	0	41
	51.2%	43.9%	4.9%	0.0%	0.0%	100.0%
IT학부	28	21	3	0	0	52
	53.8%	40.4%	5.8%	0.0%	0.0%	100.0%
예술학부	15	33	6	2	2	58
	25.9%	56.9%	10.3%	3.4%	3.4%	100.0%
디자인학부	50	43	9	2	1	105
	47.6%	41.0%	8.6%	1.9%	1.0%	100.0%
간호복지학부	25	27	8	0	0	60
	41.7%	45.0%	13.3%	0.0%	0.0%	100.0%
전체	242	219	39	5	6	511
	47.4%	42.9%	7.6%	1.0%	1.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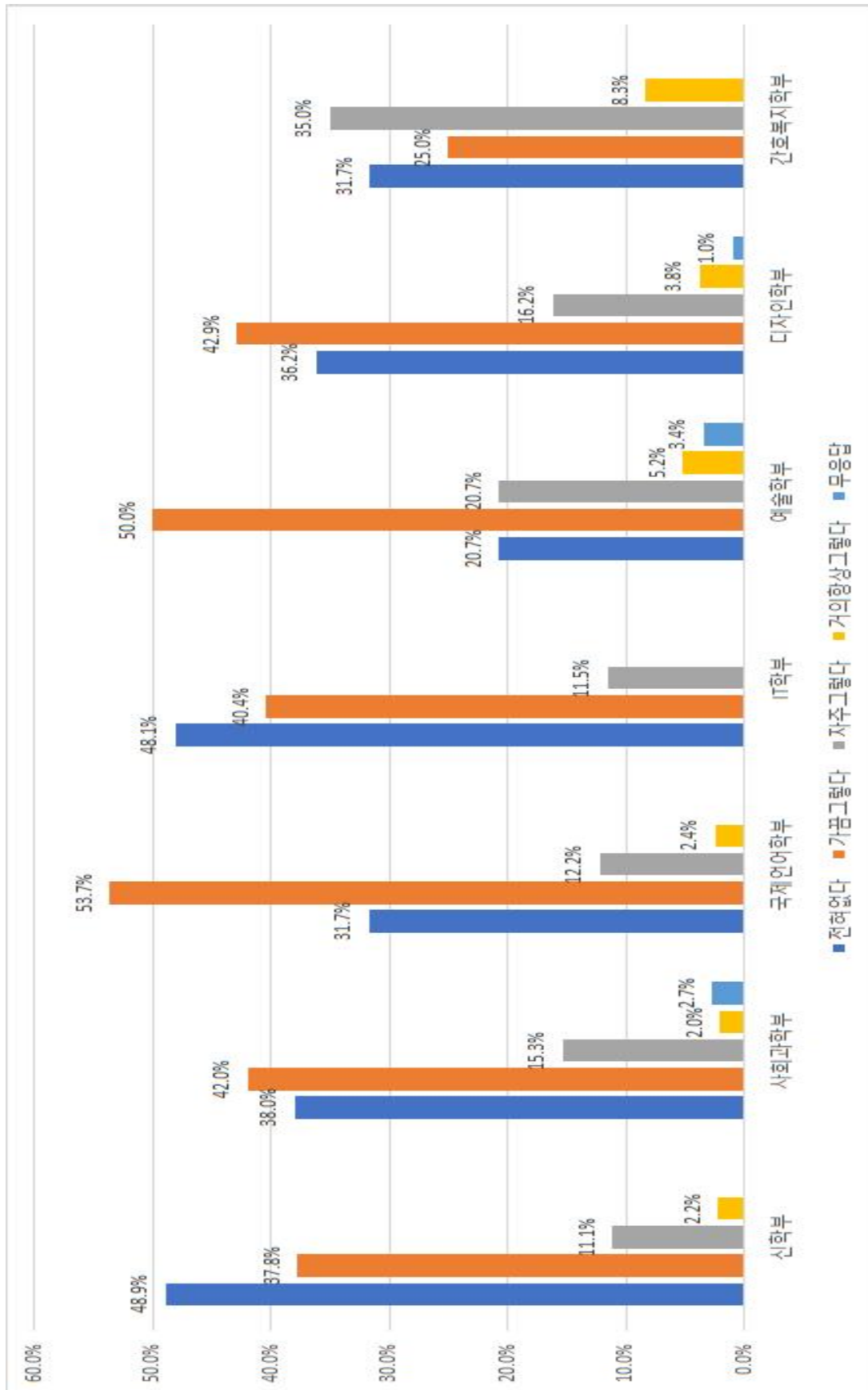
(4) 우울 · 무기력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 간 심리적 상태 중 우울과 무기력에 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41.5%가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전혀 없다(36.4%), 자주 그렇다(17.4%), 거의 항상 그렇다(3.3%) 순이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가끔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국제언어학부가 53.7%로 가장 높았고, 예술학부(50.0%), 디자인학부(42.9%), 사회과학부(42.0%) 순으로 나타났다. IT학부는 '거의 항상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과 '무응답' 비율이 0.0%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의 경우 우울과 무기력의 심리상태를 묻는 질문에 '가끔 그렇다'와 '자주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62-4> 우울·무기력

단위:명,%

	전혀 없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무응답	전체
남	84	67	22	1	4	178
	47.2%	37.6%	12.4%	0.6%	2.2%	100.0%
여	102	145	67	16	3	333
	30.6%	43.5%	20.1%	4.8%	0.9%	100.0%
신학부	22	17	5	1	0	45
	48.9%	37.8%	11.1%	2.2%	0.0%	100.0%
사회과학부	57	63	23	3	4	150
	38.0%	42.0%	15.3%	2.0%	2.7%	100.0%
국제언어학부	13	22	5	1	0	41
	31.7%	53.7%	12.2%	2.4%	0.0%	100.0%
IT학부	25	21	6	0	0	52
	48.1%	40.4%	11.5%	0.0%	0.0%	100.0%
예술학부	12	29	12	3	2	58
	20.7%	50.0%	20.7%	5.2%	3.4%	100.0%
디자인학부	38	45	17	4	1	105
	36.2%	42.9%	16.2%	3.8%	1.0%	100.0%
간호복지학부	19	15	21	5	0	60
	31.7%	25.0%	35.0%	8.3%	0.0%	100.0%
전체	186	212	89	17	7	511
	36.4%	41.5%	17.4%	3.3%	1.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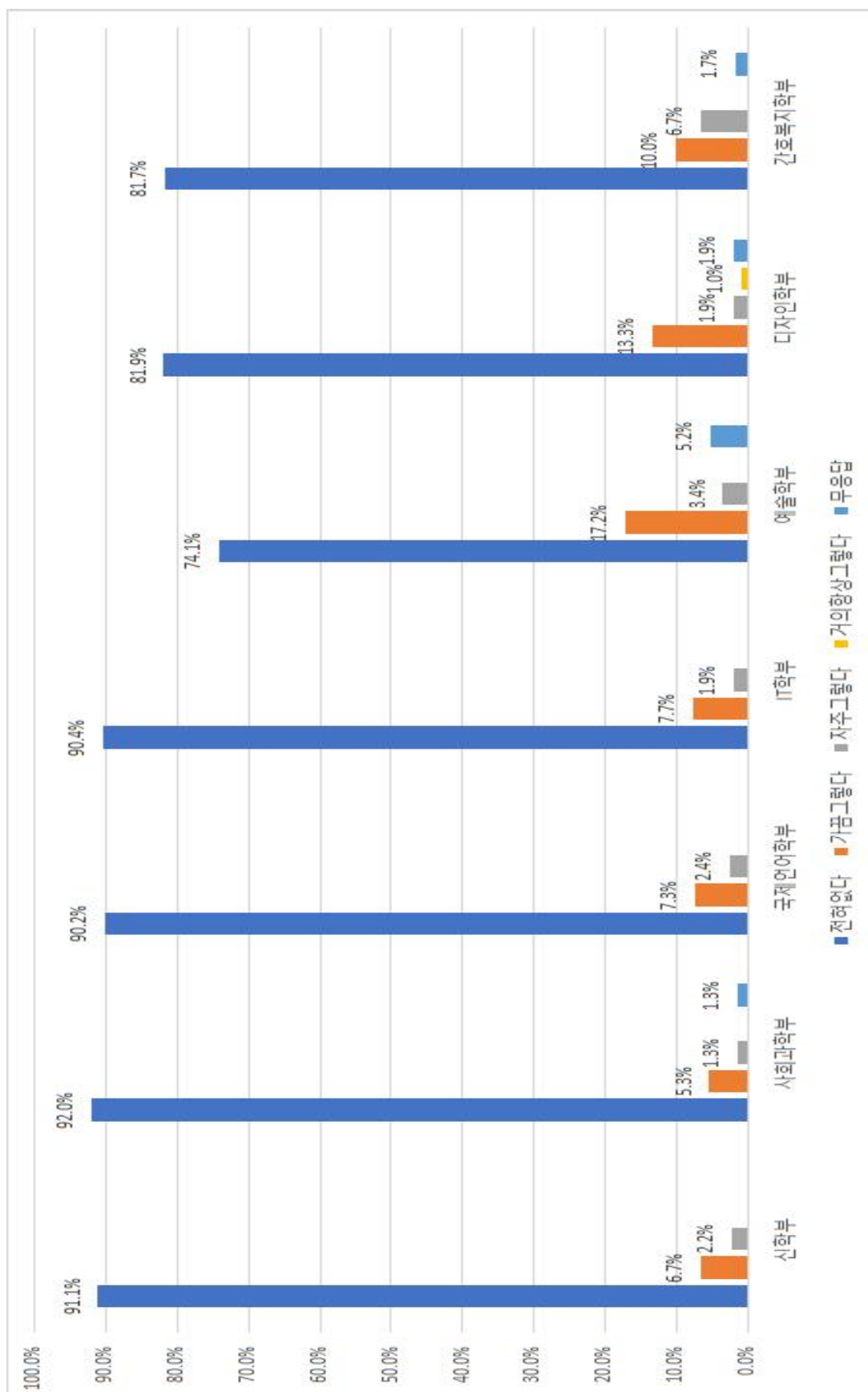
(5) 자살충동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 간 심리적 상태 중 자살충동에 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86.3%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이 가끔 그렇다(9.4%), 자주 그렇다(2.5%), 무응답(1.6%) 순이다. 자살충동이 '전혀 없다'의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사회과학부가 92.0%로 가장 높았고, 대부분의 학부가 비슷한 비율로 높게 응답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91.6%), 여학생(83.5%) 모두 비슷한 응답 비율로 '전혀 없다'가 가장 높았다.

<표 62-5> 자살충동

단위:명,%

	전혀 없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무응답	전체
남	163	8	4	0	3	178
	91.6%	4.5%	2.2%	0.0%	1.7%	100.0%
여	278	40	9	1	5	333
	83.5%	12.0%	2.7%	0.3%	1.5%	100.0%
신학부	41	3	1	0	0	45
	91.1%	6.7%	2.2%	0.0%	0.0%	100.0%
사회과학부	138	8	2	0	2	150
	92.0%	5.3%	1.3%	0.0%	1.3%	100.0%
국제언어학부	37	3	1	0	0	41
	90.2%	7.3%	2.4%	0.0%	0.0%	100.0%
IT학부	47	4	1	0	0	52
	90.4%	7.7%	1.9%	0.0%	0.0%	100.0%
예술학부	43	10	2	0	3	58
	74.1%	17.2%	3.4%	0.0%	5.2%	100.0%
디자인학부	86	14	2	1	2	105
	81.9%	13.3%	1.9%	1.0%	1.9%	100.0%
간호복지학부	49	6	4	0	1	60
	81.7%	10.0%	6.7%	0.0%	1.7%	100.0%
전체	441	48	13	1	8	511
	86.3%	9.4%	2.5%	0.2%	1.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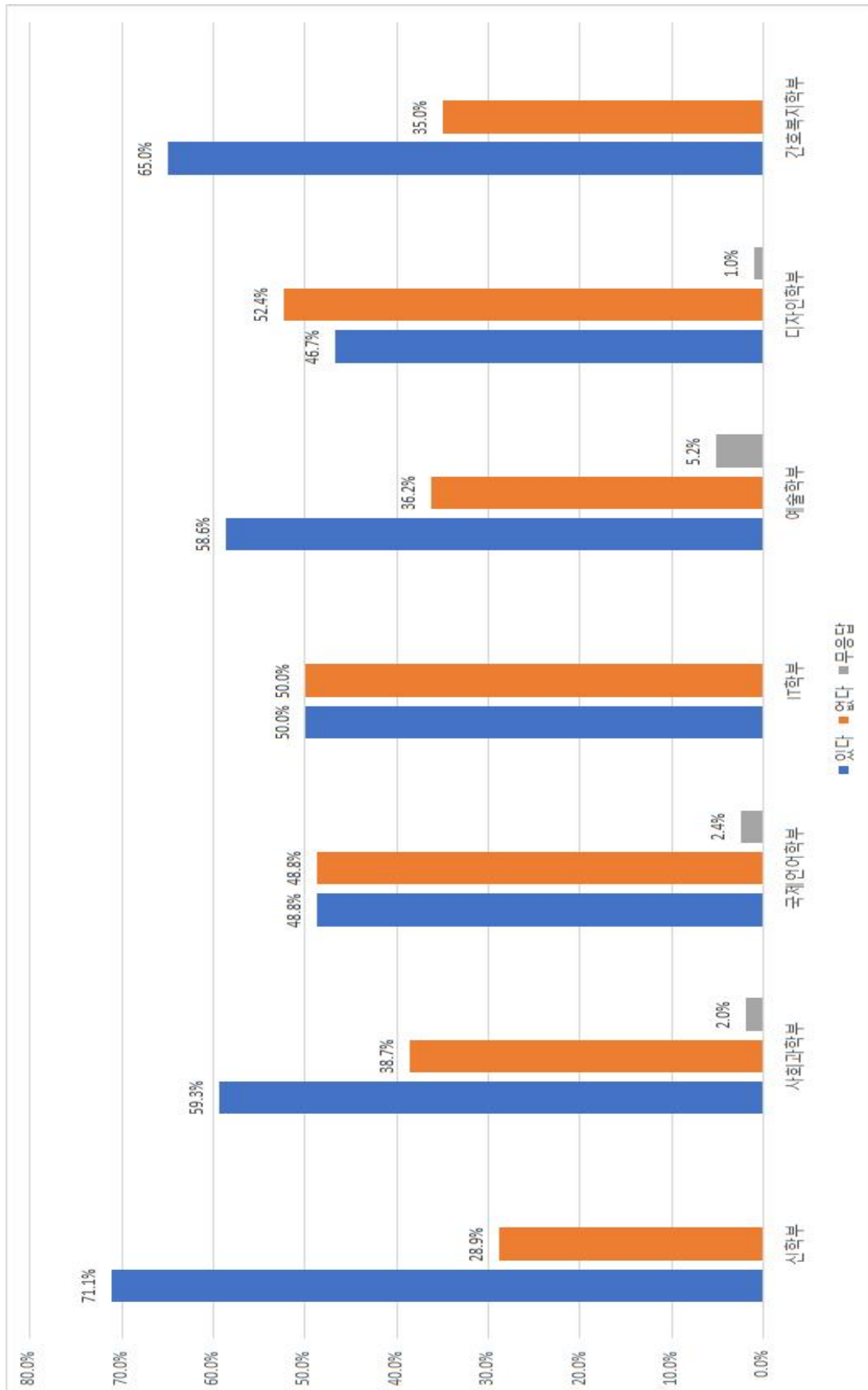
2) 심리상담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느낀 적 있는가?

신입생들에게 심리적으로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심리상담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신입생들의 56.6%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심리상담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신학부가 71.1%로 가장 높았고, 대부분의 학부도 높은 비율로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IT학부(50.0%)는 '있다'라는 응답과 '없다'라는 응답이 같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59.8%)은 남학생(50.6%)에 비해 심리상담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표 63> 심리상담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느낀 적 있는가?

단위:명,%

	있다	없다	무응답	전체
남	90	83	5	178
	50.6%	46.6%	2.8%	100.0%
여	199	131	3	333
	59.8%	39.3%	0.9%	100.0%
신학부	32	13	0	45
	71.1%	28.9%	0.0%	100.0%
사회과학부	89	58	3	150
	59.3%	38.7%	2.0%	100.0%
국제언어학부	20	20	1	41
	48.8%	48.8%	2.4%	100.0%
IT학부	26	26	0	52
	50.0%	50.0%	0.0%	100.0%
예술학부	34	21	3	58
	58.6%	36.2%	5.2%	100.0%
디자인학부	49	55	1	105
	46.7%	52.4%	1.0%	100.0%
간호복지학부	39	21	0	60
	65.0%	35.0%	0.0%	100.0%
전체	289	214	8	511
	56.6%	41.9%	1.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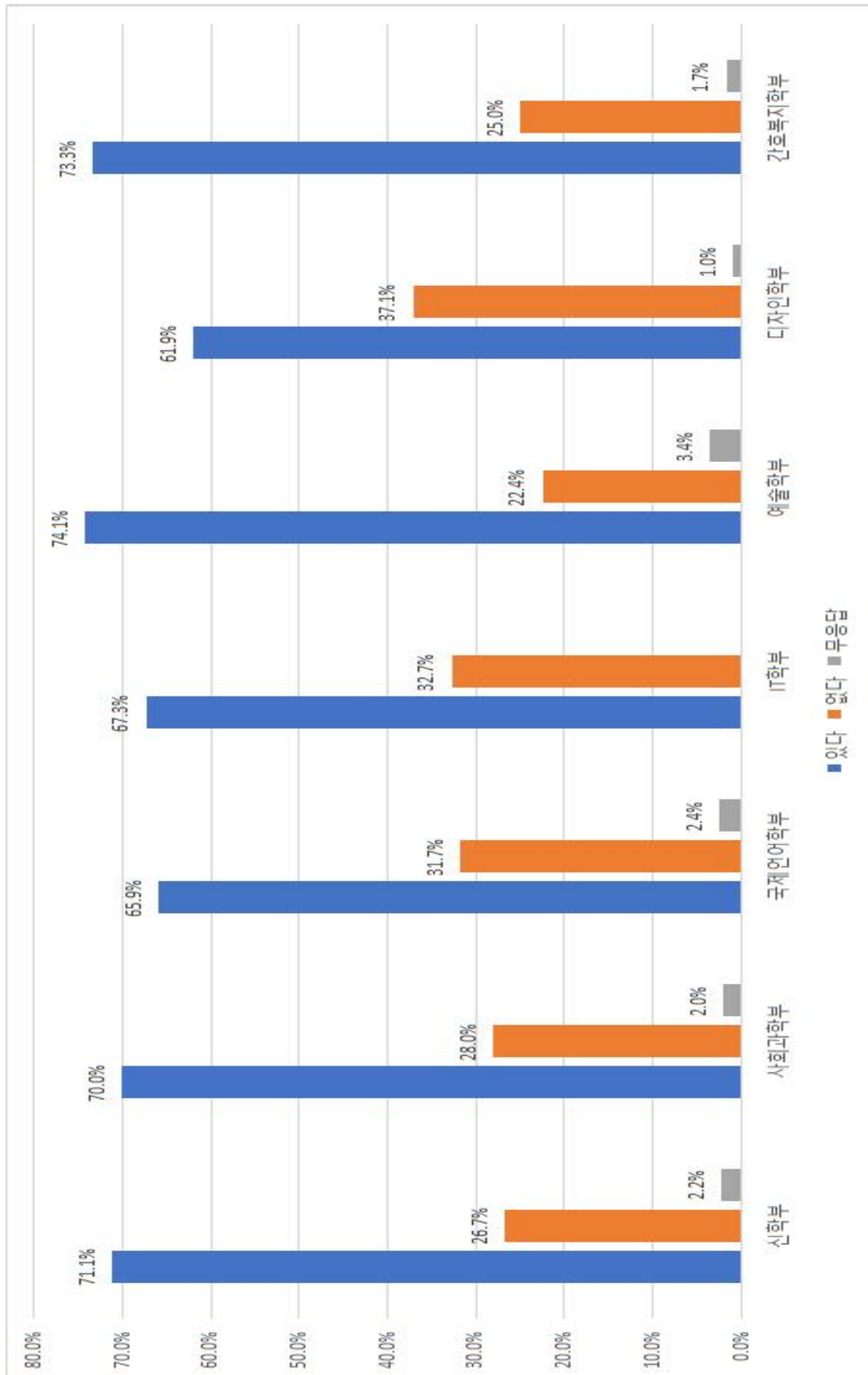
3) 심리상담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있는가?

대학 내 심리상담가가 있다면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신입생의 68.7%가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반면에 '없다'라는 응답에는 29.5%가 응답하였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심리상담가의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에 예술학부가 74.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간호복지학부(73.3%), 신학부(71.1%), 사회과학부(70.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65.7%), 여학생(70.3%) 모두 심리상담가의 도움을 요청한 의사가 있다는 응답에 높게 나타났다.

<표 64> 심리상담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있는가?

단위:명,%

	있다	없다	무응답	전체
남	117	56	5	178
	65.7%	31.5%	2.8%	100.0%
여	234	95	4	333
	70.3%	28.5%	1.2%	100.0%
신학부	32	12	1	45
	71.1%	26.7%	2.2%	100.0%
사회과학부	105	42	3	150
	70.0%	28.0%	2.0%	100.0%
국제언어학부	27	13	1	41
	65.9%	31.7%	2.4%	100.0%
IT학부	35	17	0	52
	67.3%	32.7%	0.0%	100.0%
예술학부	43	13	2	58
	74.1%	22.4%	3.4%	100.0%
디자인학부	65	39	1	105
	61.9%	37.1%	1.0%	100.0%
간호복지학부	44	15	1	60
	73.3%	25.0%	1.7%	100.0%
전체	351	151	9	511
	68.7%	29.5%	1.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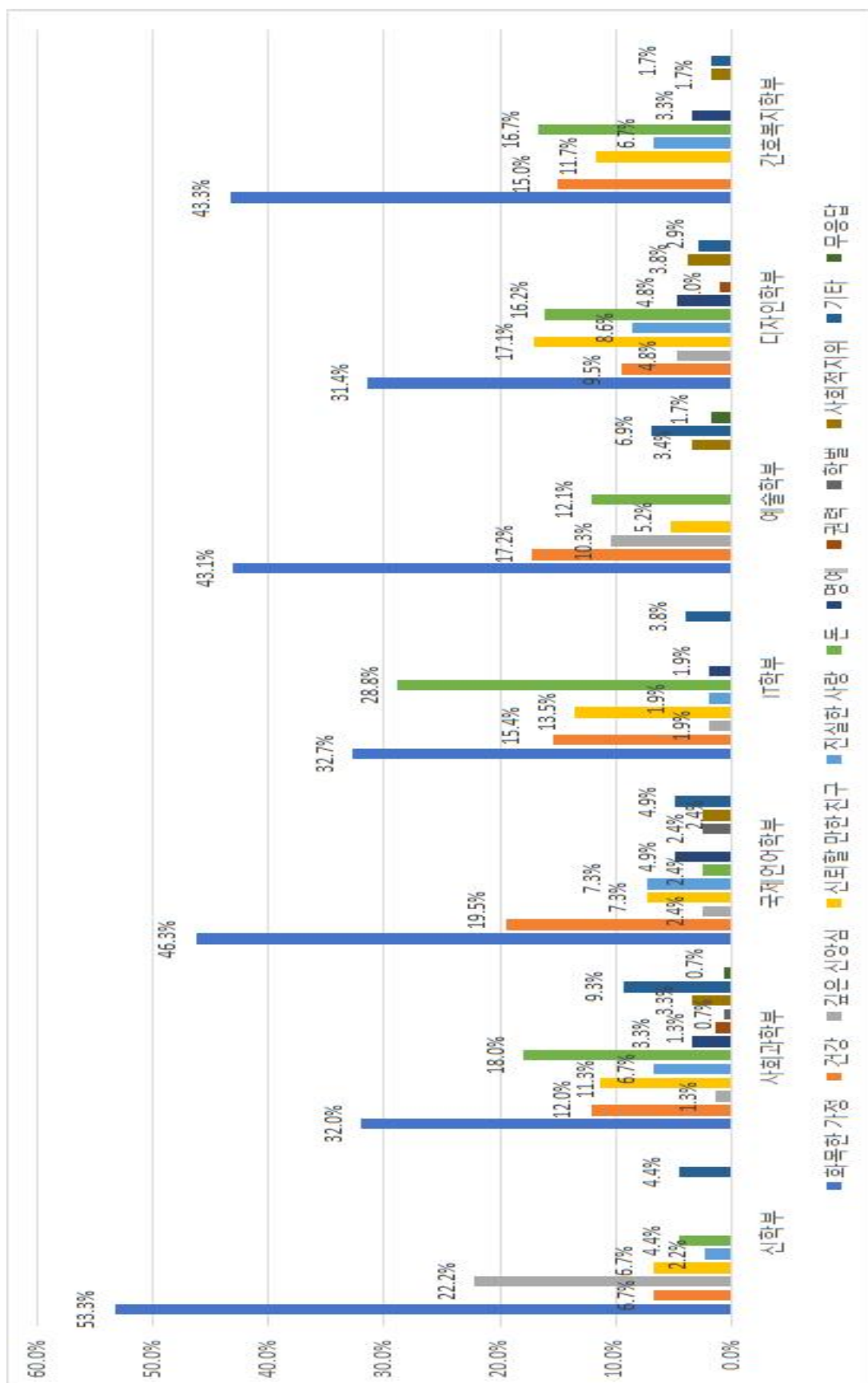
4)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에 대한 신입생의 응답 중 '화목한 가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돈(15.5%), 건강(12.9%), 신뢰할만한 친구(11.4%)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화목한 가정을 원한다는 응답에 신학부(53.3%), 국제언어학부(46.3%), 간호복지학부(43.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37.6%), 여학생(37.5%) 모두 높은 비율로 '화목한 가정'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65>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

단위:명,%

	화목한 가정	건강	깊은 신앙 심	신뢰 할만 한 친구	진실 한 사랑	돈	명예	권력	학벌	사회 적 지위	기타	무응 답	전체
남	67	21	13	20	9	23	8	0	0	5	11	1	178
	37.6%	11.8%	7.3%	11.2%	5.1%	12.9%	4.5%	0.0%	0.0%	2.8%	6.2%	0.6%	100.0%
여	125	45	12	38	19	56	7	3	2	8	17	1	333
	37.5%	13.5%	3.6%	11.4%	5.7%	16.8%	2.1%	0.9%	0.6%	2.4%	5.1%	0.3%	100.0%
신학부	24	3	10	3	1	2	0	0	0	0	2	0	45
	53.3%	6.7%	22.2%	6.7%	2.2%	4.4%	0.0%	0.0%	0.0%	0.0%	4.4%	0.0%	100.0%
사회과학부	48	18	2	17	10	27	5	2	1	5	14	1	150
	32.0%	12.0%	1.3%	11.3%	6.7%	18.0%	3.3%	1.3%	0.7%	3.3%	9.3%	0.7%	100.0%
국제언어학부	19	8	1	3	3	1	2	0	1	1	2	0	41
	46.3%	19.5%	2.4%	7.3%	7.3%	2.4%	4.9%	0.0%	2.4%	2.4%	4.9%	0.0%	100.0%
IT학부	17	8	1	7	1	15	1	0	0	0	2	0	52
	32.7%	15.4%	1.9%	13.5%	1.9%	28.8%	1.9%	0.0%	0.0%	0.0%	3.8%	0.0%	100.0%
예술학부	25	10	6	3	0	7	0	0	0	2	4	1	58
	43.1%	17.2%	10.3%	5.2%	0.0%	12.1%	0.0%	0.0%	0.0%	3.4%	6.9%	1.7%	100.0%
디자인학부	33	10	5	18	9	17	5	1	0	4	3	0	105
	31.4%	9.5%	4.8%	17.1%	8.6%	16.2%	4.8%	1.0%	0.0%	3.8%	2.9%	0.0%	100.0%
간호복지학부	26	9	0	7	4	10	2	0	0	1	1	0	60
	43.3%	15.0%	0.0%	11.7%	6.7%	16.7%	3.3%	0.0%	0.0%	1.7%	1.7%	0.0%	100.0%
전체	192	66	25	58	28	79	15	3	2	13	28	2	511
	37.6%	12.9%	4.9%	11.4%	5.5%	15.5%	2.9%	0.6%	0.4%	2.5%	5.5%	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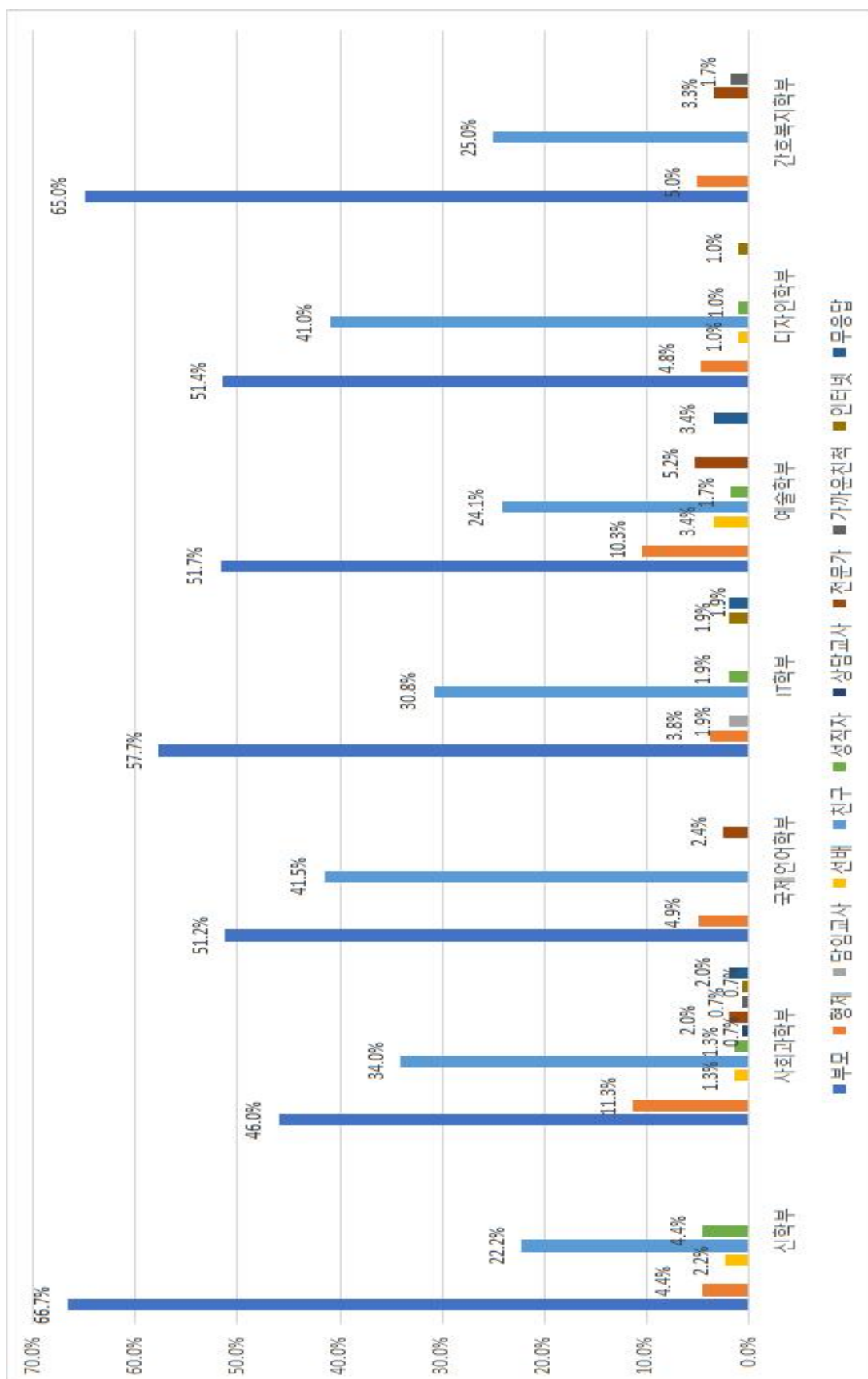
5) 문제 발생 시 의논 상대

문제 발생 시 의논할 상대는 ‘부모’라는 응답이 전체의 5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2017년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부모’(49.9%)라는 응답과 비슷한 비율이다. 그 다음은 친구(32.5%), 형제(7.2%), 전문가(1.8%)의 순이다. 문제 발생 시 의논상대가 ‘부모’라는 응답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신학부(66.7%), 간호복지학부(65.0%), IT학부(57.7%)의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로 보면 남학생(55.1%) 여학생(52.6%) 모두 문제 발생 시 의논상대로 ‘부모’라고 응답하였다.

<표 66> 문제 발생 시 의논 상대

단위:명,%

	부모	형제	담임교사	선배	친구	성직자	상담교사	전문가	가까운 친척	인터넷	무응답	전체
남	98	9	0	2	54	6	0	4	1	1	3	178
	55.1%	5.1%	0.0%	1.1%	30.3%	3.4%	0.0%	2.2%	0.6%	0.6%	1.7%	100.0%
여	175	28	1	4	112	1	1	5	1	2	3	333
	52.6%	8.4%	0.3%	1.2%	33.6%	0.3%	0.3%	1.5%	0.3%	0.6%	0.9%	100.0%
신학부	30	2	0	1	10	2	0	0	0	0	0	45
	66.7%	4.4%	0.0%	2.2%	22.2%	4.4%	0.0%	0.0%	0.0%	0.0%	0.0%	100.0%
사회과학부	69	17	0	2	51	2	1	3	1	1	3	150
	46.0%	11.3%	0.0%	1.3%	34.0%	1.3%	0.7%	2.0%	0.7%	0.7%	2.0%	100.0%
국제언어학부	21	2	0	0	17	0	0	1	0	0	0	41
	51.2%	4.9%	0.0%	0.0%	41.5%	0.0%	0.0%	2.4%	0.0%	0.0%	0.0%	100.0%
IT학부	30	2	1	0	16	1	0	0	0	1	1	52
	57.7%	3.8%	1.9%	0.0%	30.8%	1.9%	0.0%	0.0%	0.0%	1.9%	1.9%	100.0%
예술학부	30	6	0	2	14	1	0	3	0	0	2	58
	51.7%	10.3%	0.0%	3.4%	24.1%	1.7%	0.0%	5.2%	0.0%	0.0%	3.4%	100.0%
디자인학부	54	5	0	1	43	1	0	0	0	1	0	105
	51.4%	4.8%	0.0%	1.0%	41.0%	1.0%	0.0%	0.0%	0.0%	1.0%	0.0%	100.0%
간호복지학부	39	3	0	0	15	0	0	2	1	0	0	60
	65.0%	5.0%	0.0%	0.0%	25.0%	0.0%	0.0%	3.3%	1.7%	0.0%	0.0%	100.0%
전체	273	37	1	6	166	7	1	9	2	3	6	511
	53.4%	7.2%	0.2%	1.2%	32.5%	1.4%	0.2%	1.8%	0.4%	0.6%	1.2%	100.0%



6) 상담센터 이용 시 희망하는 것

신입생들이 학생상담센터를 이용할 경우 희망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신입생들의 41.7%가 ‘개인 심리상담’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진로상담(37.4%), 심리검사 및 해석(14.1%), 기타(2.9%) 순이었다. 개인 심리상담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간호복지학부(58.3%), 국제언어학부(51.2%), 신학부(48.9%) 순으로 높았고, IT학부와 사회과학부의 경우 ‘진로상담’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9.6%와 40.7%로 ‘개인 심리상담’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34.8%) 여학생(45.3%) 모두 높은 비율로 ‘개인 심리상담’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67> 상담센터 이용 시 희망하는 것

단위:명, %

	개인 심리 상담	진로상담	집단상담	심리 검사 및 해석	심리학 관련 학습	기타	무응답	전체
남	62	79	1	19	6	7	4	178
	34.8%	44.4%	0.6%	10.7%	3.4%	3.9%	2.2%	100.0%
여	151	112	1	53	7	8	1	333
	45.3%	33.6%	0.3%	15.9%	2.1%	2.4%	0.3%	100.0%
신학부	22	16	0	5	1	1	0	45
	48.9%	35.6%	0.0%	11.1%	2.2%	2.2%	0.0%	100.0%
사회과학부	59	61	0	19	4	4	3	150
	39.3%	40.7%	0.0%	12.7%	2.7%	2.7%	2.0%	100.0%
국제언어학부	21	12	0	5	2	1	0	41
	51.2%	29.3%	0.0%	12.2%	4.9%	2.4%	0.0%	100.0%
IT학부	13	31	1	2	1	4	0	52
	25.0%	59.6%	1.9%	3.8%	1.9%	7.7%	0.0%	100.0%
예술학부	24	14	0	16	1	2	1	58
	41.4%	24.1%	0.0%	27.6%	1.7%	3.4%	1.7%	100.0%
디자인학부	39	41	1	17	3	3	1	105
	37.1%	39.0%	1.0%	16.2%	2.9%	2.9%	1.0%	100.0%
간호복지학부	35	16	0	8	1	0	0	60
	58.3%	26.7%	0.0%	13.3%	1.7%	0.0%	0.0%	100.0%
전체	213	191	2	72	13	15	5	511
	41.7%	37.4%	0.4%	14.1%	2.5%	2.9%	1.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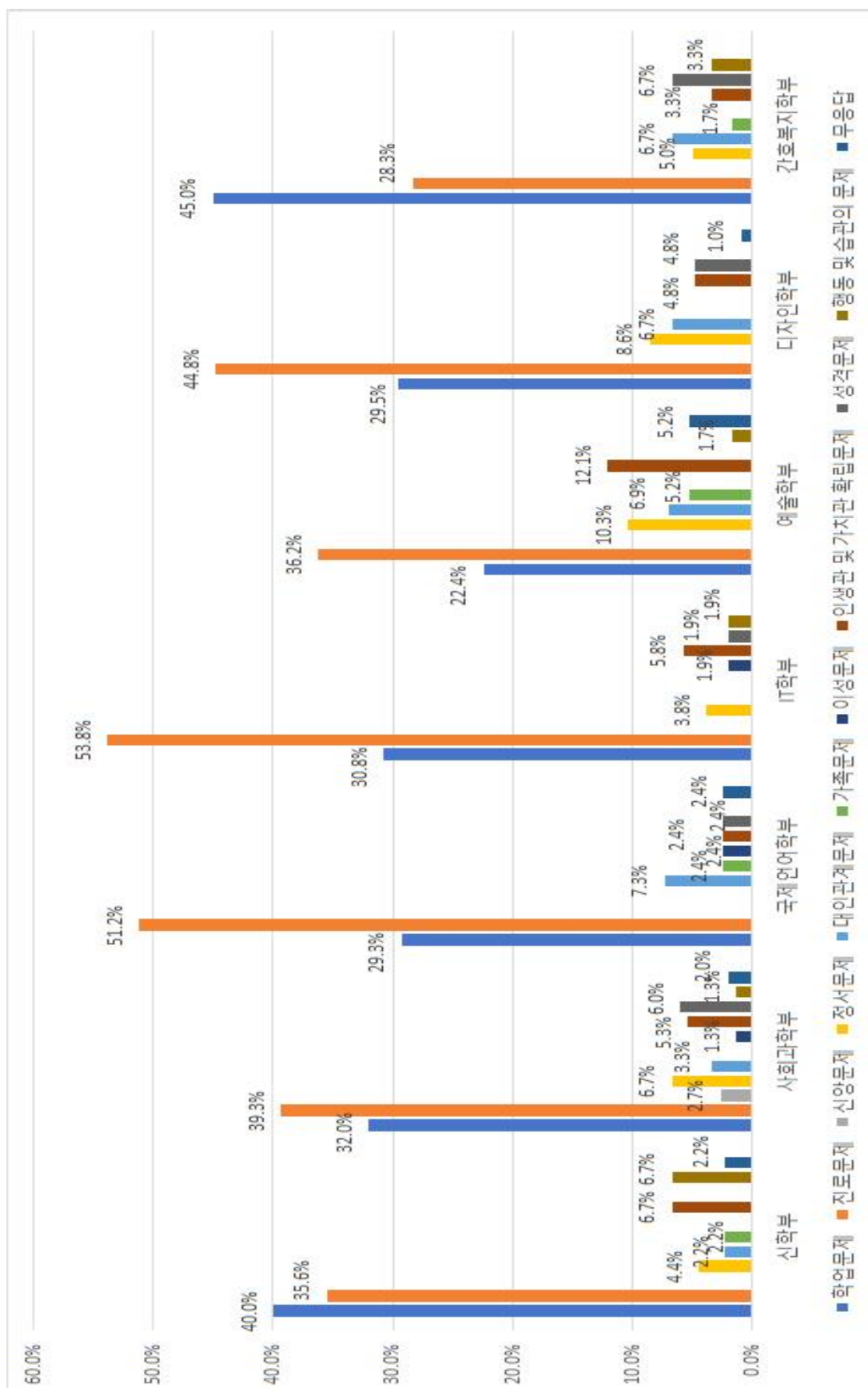
7) 개인상담 시 희망하는 내용

신입생들에게 학생상담센터에서 개인 상담을 받을 경우 희망하는 상담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진로문제를 상담하고 싶다는 응답이 40.9%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학업문제(32.3%), 정서문제(6.3%), 인생가치관(5.7%)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문제를 상담하고 싶다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IT학부가 53.8%로 가장 높았고, 국제언어학부(51.2%), 디자인학부(44.8%) 순이었다. 간호복지학부와 신학부의 경우에는 학업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5.0%와 40.0%로 진로문제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36.5%) 여학생(43.2%) 모두 높은 비율로 '진로문제'라고 응답하였다.

<표 68> 개인상담 시 희망하는 내용

단위:명, %

	학업 문제	진로 문제	신앙 문제	정서 문제	대인 관계 문제	가족 문제	이성 문제	인생관 및 가치관 확립 문제	성격 문제	행동 및 습관의 문제	무 응답	전체
남	66	65	4	8	6	1	2	11	4	6	5	178
	37.1%	36.5%	2.2%	4.5%	3.4%	0.6%	1.1%	6.2%	2.2%	3.4%	2.8%	100.0%
여	99	144	0	24	18	5	2	18	16	3	4	333
	29.7%	43.2%	0.0%	7.2%	5.4%	1.5%	0.6%	5.4%	4.8%	0.9%	1.2%	100.0%
신학부	18	16	0	2	1	1	0	3	0	3	1	45
	40.0%	35.6%	0.0%	4.4%	2.2%	2.2%	0.0%	6.7%	0.0%	6.7%	2.2%	100.0%
사회 과학부	48	59	4	10	5	0	2	8	9	2	3	150
	32.0%	39.3%	2.7%	6.7%	3.3%	0.0%	1.3%	5.3%	6.0%	1.3%	2.0%	100.0%
국제 언어학부	12	21	0	0	3	1	1	1	1	0	1	41
	29.3%	51.2%	0.0%	0.0%	7.3%	2.4%	2.4%	2.4%	2.4%	0.0%	2.4%	100.0%
IT학부	16	28	0	2	0	0	1	3	1	1	0	52
	30.8%	53.8%	0.0%	3.8%	0.0%	0.0%	1.9%	5.8%	1.9%	1.9%	0.0%	100.0%
예술학부	13	21	0	6	4	3	0	7	0	1	3	58
	22.4%	36.2%	0.0%	10.3%	6.9%	5.2%	0.0%	12.1%	0.0%	1.7%	5.2%	100.0%
디자인 학부	31	47	0	9	7	0	0	5	5	0	1	105
	29.5%	44.8%	0.0%	8.6%	6.7%	0.0%	0.0%	4.8%	4.8%	0.0%	1.0%	100.0%
간호 복지학부	27	17	0	3	4	1	0	2	4	2	0	60
	45.0%	28.3%	0.0%	5.0%	6.7%	1.7%	0.0%	3.3%	6.7%	3.3%	0.0%	100.0%
전체	165	209	4	32	24	6	4	29	20	9	9	511
	32.3%	40.9%	0.8%	6.3%	4.7%	1.2%	0.8%	5.7%	3.9%	1.8%	1.8%	100.0%



8. 자살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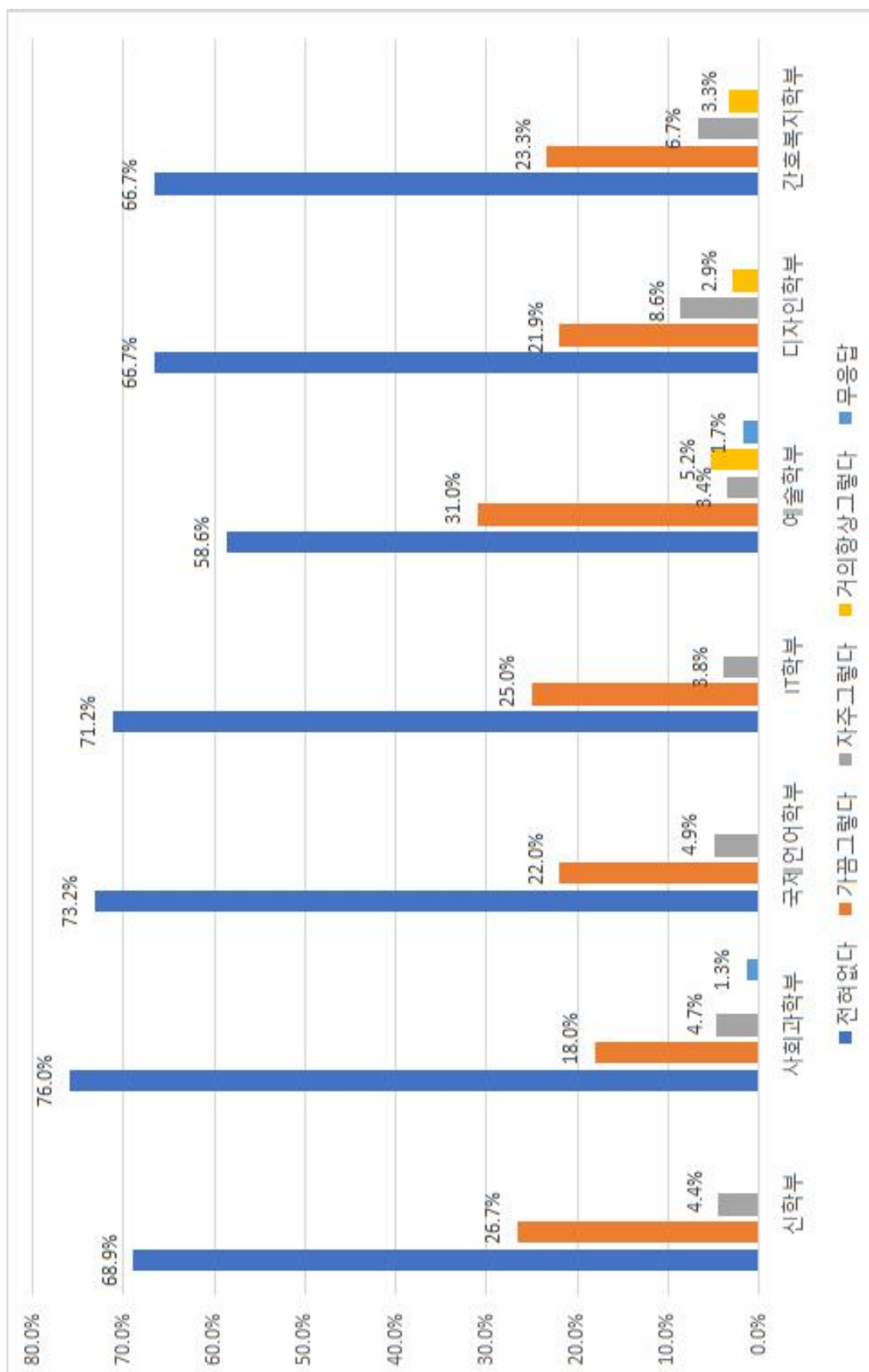
1) 고교시절 자살에 대한 생각 빈도

신입생들에게 고교시절에 얼마나 자주 자살에 대한 생각을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신입생들의 69.7%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가끔 그렇다는 응답에 22.7%가, 자주 그렇다는 응답도 5.5%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사회과학부(76.0%)를 비롯한 모든 학부에서 과반수 이상이 자살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응답했다. 가끔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예술학부(31.0%), 신학부(26.7%), IT학부(25.0%)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고교시절 자살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응답은 남학생(77.0%)이 여학생(65.8%)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가끔 그렇다는 응답 비율은 여학생(24.9%)이 남학생(18.5%)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69> 고교시절 자살에 대한 생각 빈도

단위:명,%

	전혀 없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무응답	전체
남	137	33	5	1	2	178
	77.0%	18.5%	2.8%	0.6%	1.1%	100.0%
여	219	83	23	7	1	333
	65.8%	24.9%	6.9%	2.1%	0.3%	100.0%
신학부	31	12	2	0	0	45
	68.9%	26.7%	4.4%	0.0%	0.0%	100.0%
사회과학부	114	27	7	0	2	150
	76.0%	18.0%	4.7%	0.0%	1.3%	100.0%
국제언어학부	30	9	2	0	0	41
	73.2%	22.0%	4.9%	0.0%	0.0%	100.0%
IT학부	37	13	2	0	0	52
	71.2%	25.0%	3.8%	0.0%	0.0%	100.0%
예술학부	34	18	2	3	1	58
	58.6%	31.0%	3.4%	5.2%	1.7%	100.0%
디자인학부	70	23	9	3	0	105
	66.7%	21.9%	8.6%	2.9%	0.0%	100.0%
간호복지학부	40	14	4	2	0	60
	66.7%	23.3%	6.7%	3.3%	0.0%	100.0%
전체	356	116	28	8	3	511
	69.7%	22.7%	5.5%	1.6%	0.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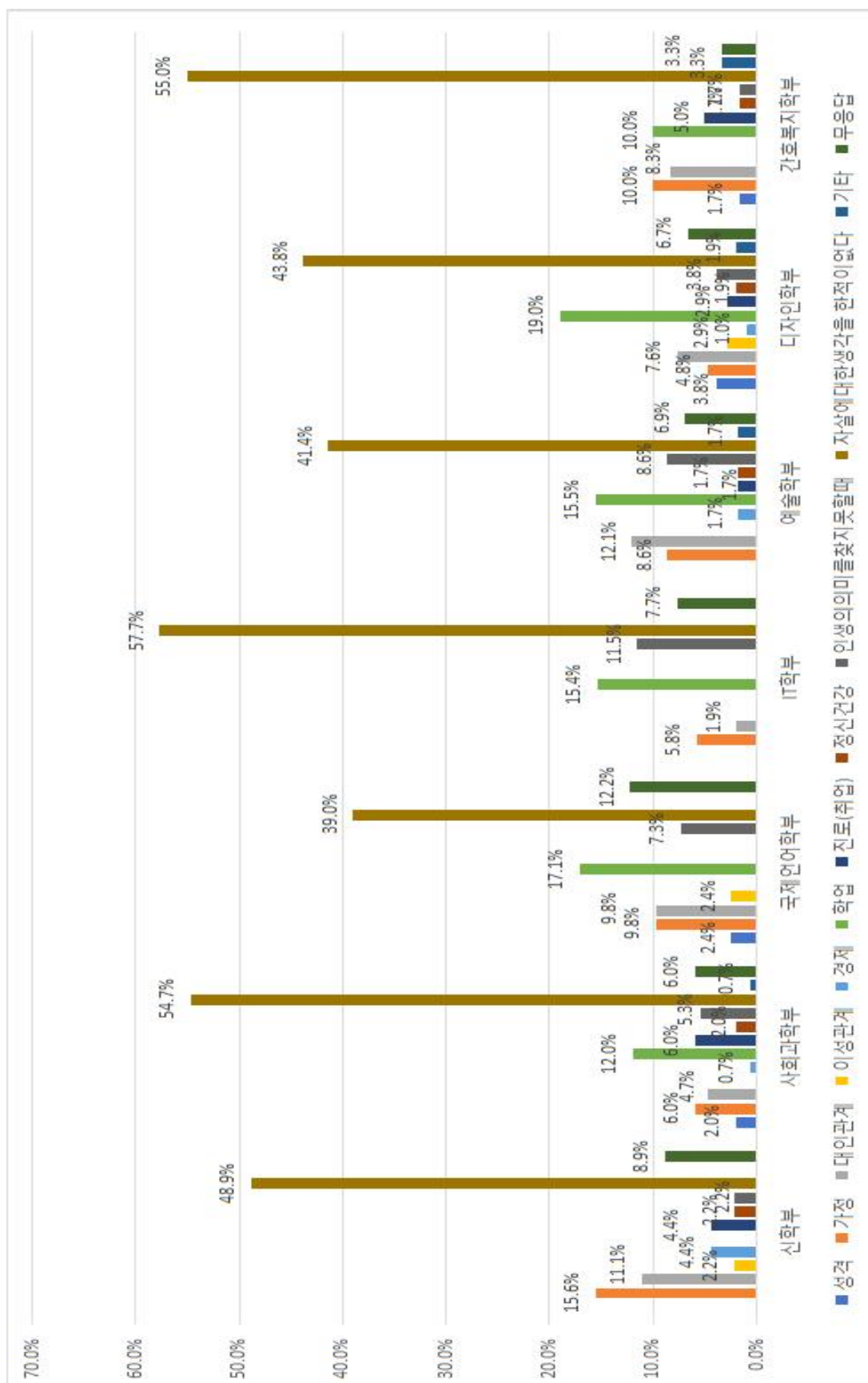
2)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문제

신입생들은 주로 어떤 문제를 겪을 때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신입생들의 13.3%가 학업문제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가정문제(7.6%), 대인관계문제(7.2%)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보면 학업 문제라는 응답에 디자인학부가 1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국제언어학부(17.1%), 예술학부(15.5%), IT학부(15.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6.7%)로 ‘대인관계문제’ 자살 생각을 하게 된다고 응답하였고, 여학생(17.1%) ‘학업 문제’로 자살 생각을 하게 된다고 응답하였다.

<표 70>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문제

단위:명,%

	성격 문제	가정 문제	대인 관계 문제	이성 관계 문제	경제 문제	학업 문제	진로 (취업) 문제	정신 건강 문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한적이 없다	기타	무응 답	전체
남	3	8	12	1	1	11	4	5	9	107	4	13	178
	1.7%	4.5%	6.7%	0.6%	0.6%	6.2%	2.2%	2.8%	5.1%	60.1%	2.2%	7.3%	100.0%
여	6	31	25	4	4	57	14	3	19	146	2	22	333
	1.8%	9.3%	7.5%	1.2%	1.2%	17.1%	4.2%	0.9%	5.7%	43.8%	0.6%	6.6%	100.0%
신학부	0	7	5	1	2	0	2	1	1	22	0	4	45
	0.0%	15.6%	11.1%	2.2%	4.4%	0.0%	4.4%	2.2%	2.2%	48.9%	0.0%	8.9%	100.0%
사회과학부	3	9	7	0	1	18	9	3	8	82	1	9	150
	2.0%	6.0%	4.7%	0.0%	0.7%	12.0%	6.0%	2.0%	5.3%	54.7%	0.7%	6.0%	100.0%
국제언어학부	1	4	4	1	0	7	0	0	3	16	0	5	41
	2.4%	9.8%	9.8%	2.4%	0.0%	17.1%	0.0%	0.0%	7.3%	39.0%	0.0%	12.2%	100.0%
IT학부	0	3	1	0	0	8	0	0	6	30	0	4	52
	0.0%	5.8%	1.9%	0.0%	0.0%	15.4%	0.0%	0.0%	11.5%	57.7%	0.0%	7.7%	100.0%
예술학부	0	5	7	0	1	9	1	1	5	24	1	4	58
	0.0%	8.6%	12.1%	0.0%	1.7%	15.5%	1.7%	1.7%	8.6%	41.4%	1.7%	6.9%	100.0%
디자인학부	4	5	8	3	1	20	3	2	4	46	2	7	105
	3.8%	4.8%	7.6%	2.9%	1.0%	19.0%	2.9%	1.9%	3.8%	43.8%	1.9%	6.7%	100.0%
간호복지학부	1	6	5	0	0	6	3	1	1	33	2	2	60
	1.7%	10.0%	8.3%	0.0%	0.0%	10.0%	5.0%	1.7%	1.7%	55.0%	3.3%	3.3%	100.0%
전체	9	39	37	5	5	68	18	8	28	253	6	35	511
	1.8%	7.6%	7.2%	1.0%	1.0%	13.3%	3.5%	1.6%	5.5%	49.5%	1.2%	6.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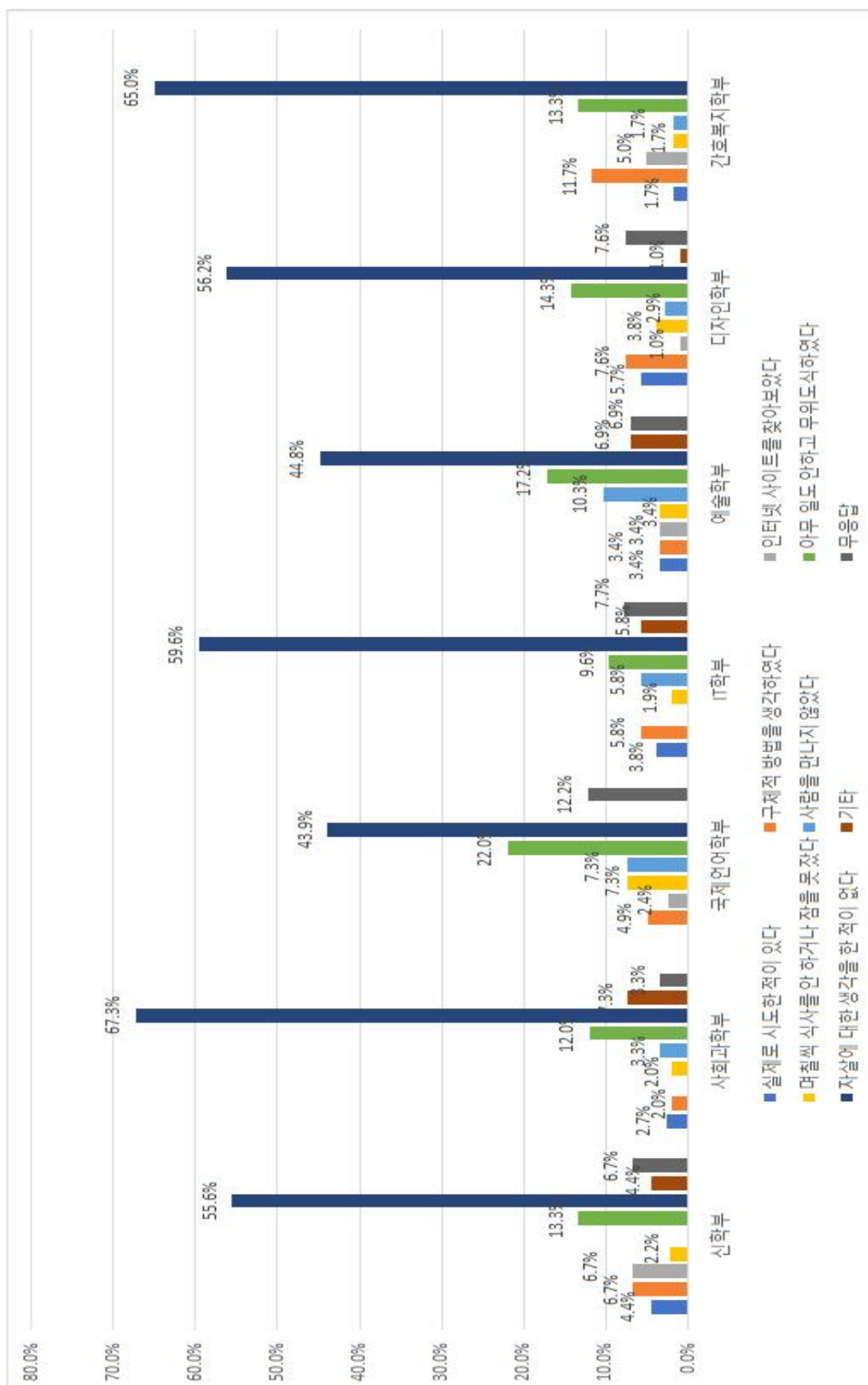
3) 자살 생각이나 충동이 있을 때 진행 정도

자살 생각이나 충동이 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진행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13.9%가 아무 일도 안하고 무위도식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구체적 방법을 생각하였다(5.5%), 기타와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4.1%), 실제로 시도한 적이 있다(3.3%)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부별로 보면 국제언어학부(22.0%)를 비롯하여 모든 학부에서 아무 일도 안하고 무위도식 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성별로 보면 무위도식 하였다는 비율은 남학생(11.2%)과 여학생(15.3%)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71> 자살 생각이나 충동이 있을 때 진행 정도

단위:명,%

	실제로 시도한 적이 있다	구체적 방법을 생각 하였다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았다	며칠씩 식사를 안하거나 잠을 자지 않았다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아무 일도 안하고 무위도식 하였다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한 적이 없다	기타	무응답	전체
남	5	4	3	4	7	20	120	4	11	178
	2.8%	2.2%	1.7%	2.2%	3.9%	11.2%	67.4%	2.2%	6.2%	100.0%
여	12	24	7	11	14	51	179	17	18	333
	3.6%	7.2%	2.1%	3.3%	4.2%	15.3%	53.8%	5.1%	5.4%	100.0%
신학부	2	3	3	1	0	6	25	2	3	45
	4.4%	6.7%	6.7%	2.2%	0.0%	13.3%	55.6%	4.4%	6.7%	100.0%
사회과학부	4	3	0	3	5	18	101	11	5	150
	2.7%	2.0%	0.0%	2.0%	3.3%	12.0%	67.3%	7.3%	3.3%	100.0%
국제언어학부	0	2	1	3	3	9	18	0	5	41
	0.0%	4.9%	2.4%	7.3%	7.3%	22.0%	43.9%	0.0%	12.2%	100.0%
IT학부	2	3	0	1	3	5	31	3	4	52
	3.8%	5.8%	0.0%	1.9%	5.8%	9.6%	59.6%	5.8%	7.7%	100.0%
예술학부	2	2	2	2	6	10	26	4	4	58
	3.4%	3.4%	3.4%	3.4%	10.3%	17.2%	44.8%	6.9%	6.9%	100.0%
디자인학부	6	8	1	4	3	15	59	1	8	105
	5.7%	7.6%	1.0%	3.8%	2.9%	14.3%	56.2%	1.0%	7.6%	100.0%
간호복지학부	1	7	3	1	1	8	39	0	0	60
	1.7%	11.7%	5.0%	1.7%	1.7%	13.3%	65.0%	0.0%	0.0%	100.0%
전체	17	28	10	15	21	71	299	21	29	511
	3.3%	5.5%	2.0%	2.9%	4.1%	13.9%	58.5%	4.1%	5.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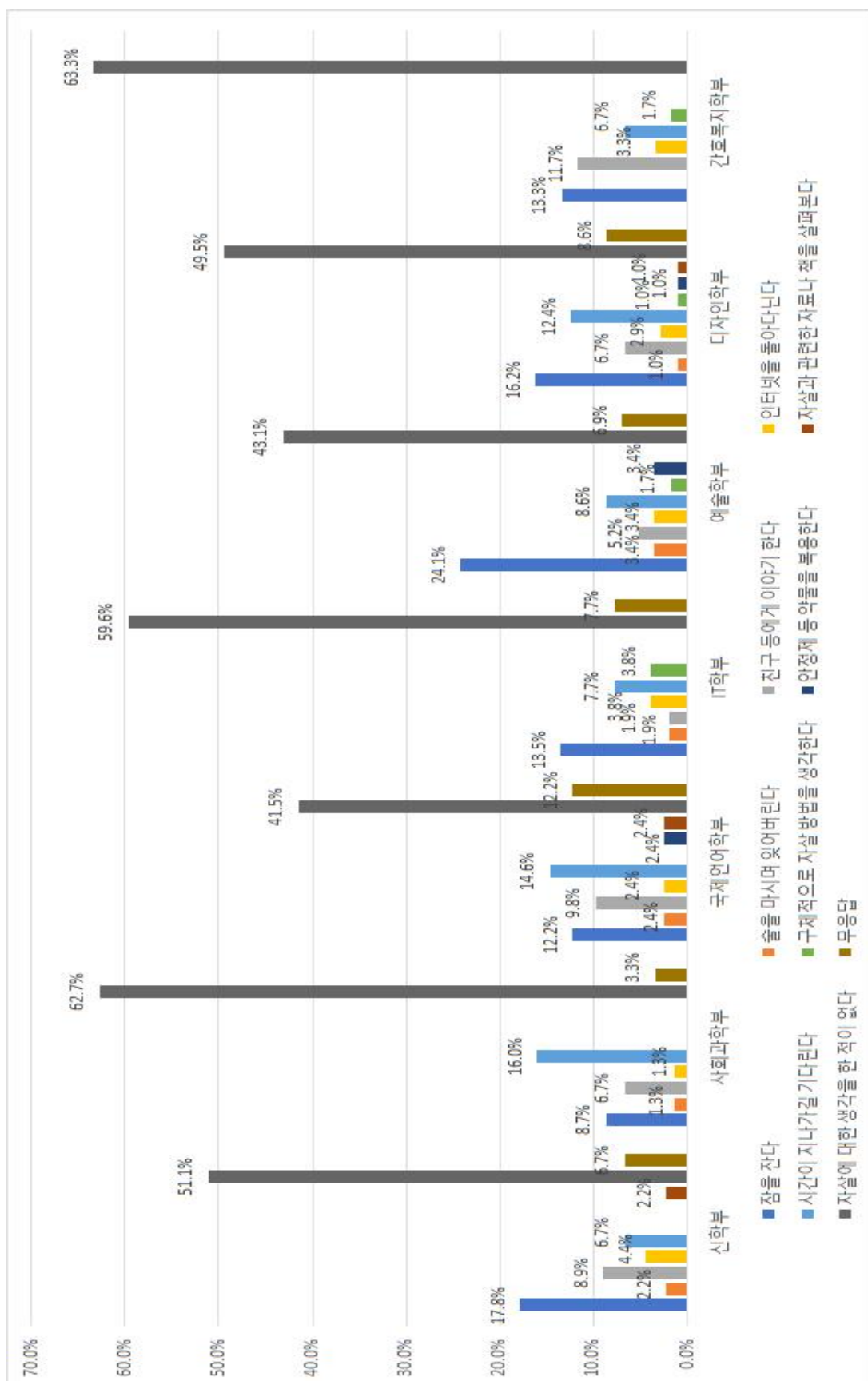
4) 자살 충동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신입생들에게 자살에 대한 충동이나 생각이 들 때 주로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14.1%가 잠을 잔다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린다(11.5%), 친구 등에게 이야기 한다(7.0%), 무응답(5.9%)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대처방법으로 잠을 잔다는 응답에 예술학부가 24.1%로 가장 높았고, 신학부(17.8%), 디자인학부(16.2%), IT학부(13.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9.0%)과 여학생(16.8%) 모두 잠을 자는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72> 자살 충동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단위:명,%

	잠을 잔다	술을 마시며 잊어버린다	친구 등에게 이야기 한다	인터넷을 돌아다닌다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린다	구체적으로 자살 방법을 생각한 다	인정제 등 약물을 복용한 다.	자살 관련한 자료나 책을살펴본다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한 적이 없다	무응답	전체
남	16	4	6	4	16	1	1	1	118	11	178
	9.0%	2.2%	3.4%	2.2%	9.0%	0.6%	0.6%	0.6%	66.3%	6.2%	100.0%
여	56	4	30	10	43	4	3	2	162	19	333
	16.8%	1.2%	9.0%	3.0%	12.9%	1.2%	0.9%	0.6%	48.6%	5.7%	100.0%
신학부	8	1	4	2	3	0	0	1	23	3	45
	17.8%	2.2%	8.9%	4.4%	6.7%	0.0%	0.0%	2.2%	51.1%	6.7%	100.0%
사회과학부	13	2	10	2	24	0	0	0	94	5	150
	8.7%	1.3%	6.7%	1.3%	16.0%	0.0%	0.0%	0.0%	62.7%	3.3%	100.0%
국제 언어학부	5	1	4	1	6	0	1	1	17	5	41
	12.2%	2.4%	9.8%	2.4%	14.6%	0.0%	2.4%	2.4%	41.5%	12.2%	100.0%
IT학부	7	1	1	2	4	2	0	0	31	4	52
	13.5%	1.9%	1.9%	3.8%	7.7%	3.8%	0.0%	0.0%	59.6%	7.7%	100.0%
예술학부	14	2	3	2	5	1	2	0	25	4	58
	24.1%	3.4%	5.2%	3.4%	8.6%	1.7%	3.4%	0.0%	43.1%	6.9%	100.0%
디자인학부	17	1	7	3	13	1	1	1	52	9	105
	16.2%	1.0%	6.7%	2.9%	12.4%	1.0%	1.0%	1.0%	49.5%	8.6%	100.0%
간호 복지학부	8	0	7	2	4	1	0	0	38	0	60
	13.3%	0.0%	11.7%	3.3%	6.7%	1.7%	0.0%	0.0%	63.3%	0.0%	100.0%
전체	72	8	36	14	59	5	4	3	280	30	511
	14.1%	1.6%	7.0%	2.7%	11.5%	1.0%	0.8%	0.6%	54.8%	5.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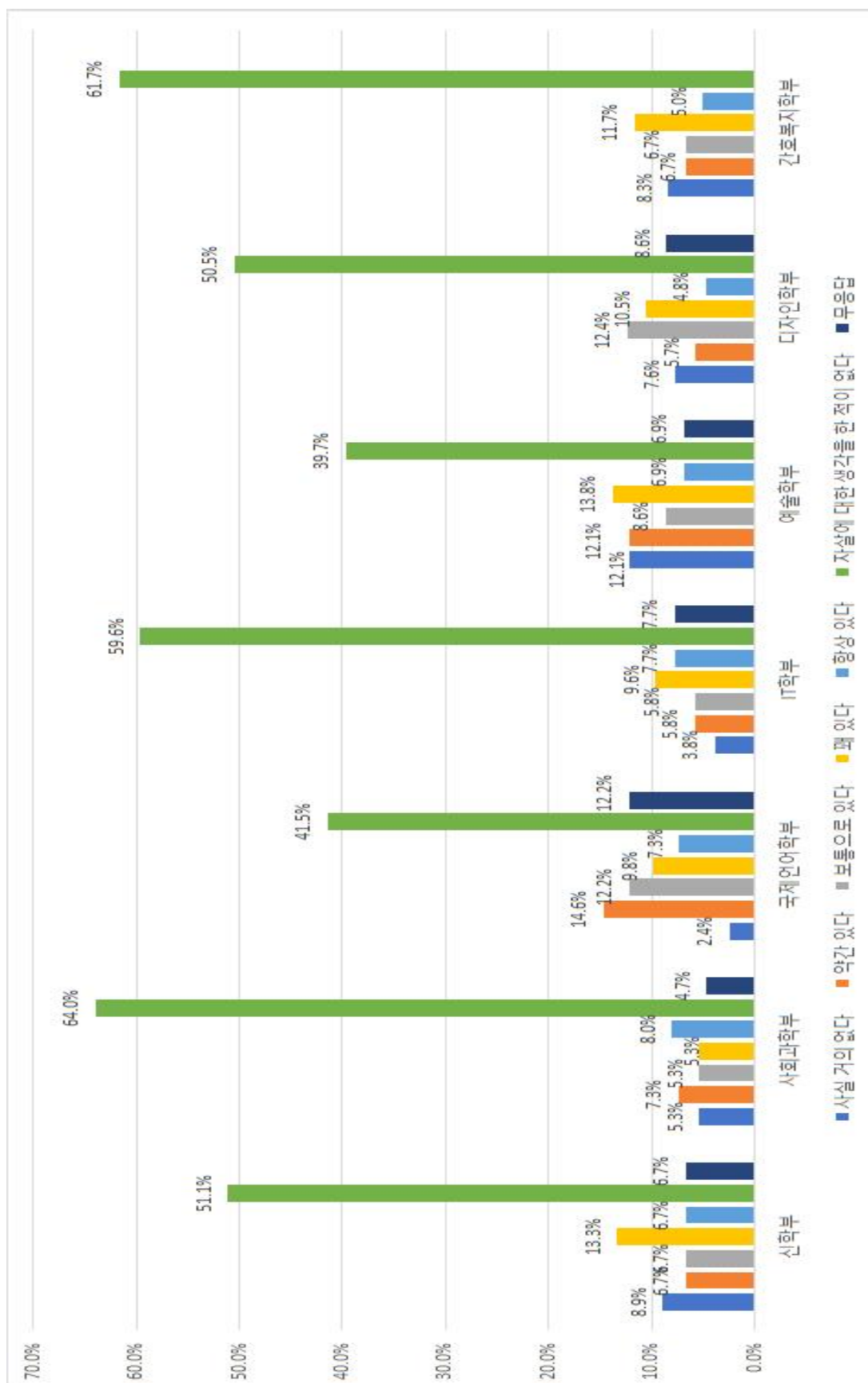
5) 전 문항에서 사용했던 방법의 효과

전 문항에서 사용했던 자살 대처방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꽤 있다는 응답이 9.6%로 나타났다. 이어서 보통으로 있다(8.0%), 약간 있다(7.8%), 사실 거의 없다(6.8%)의 순으로 나타났다. 꽤 있다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예술학부(13.8%), 신학부(13.3%), 간호복지학부(11.7%) 순으로 높았고, 예술학부, 신학부, 간호복지학부의 경우 꽤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간 있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무응답을 제외하고 남학생(7.3%)은 '항상 있다'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여학생(11.1%)은 '꽤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73> 전 문항에서 사용했던 방법의 효과

단위:명,%

	사실 거의 없다	약간 있다	보통으로 있다	꽤 있다	항상 있다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한 적이 없다	무응답	전체
남	8	9	11	12	13	113	12	178
	4.5%	5.1%	6.2%	6.7%	7.3%	63.5%	6.7%	100.0%
여	27	31	30	37	21	167	20	333
	8.1%	9.3%	9.0%	11.1%	6.3%	50.2%	6.0%	100.0%
신학부	4	3	3	6	3	23	3	45
	8.9%	6.7%	6.7%	13.3%	6.7%	51.1%	6.7%	100.0%
사회과학부	8	11	8	8	12	96	7	150
	5.3%	7.3%	5.3%	5.3%	8.0%	64.0%	4.7%	100.0%
국제언어학부	1	6	5	4	3	17	5	41
	2.4%	14.6%	12.2%	9.8%	7.3%	41.5%	12.2%	100.0%
IT학부	2	3	3	5	4	31	4	52
	3.8%	5.8%	5.8%	9.6%	7.7%	59.6%	7.7%	100.0%
예술학부	7	7	5	8	4	23	4	58
	12.1%	12.1%	8.6%	13.8%	6.9%	39.7%	6.9%	100.0%
디자인학부	8	6	13	11	5	53	9	105
	7.6%	5.7%	12.4%	10.5%	4.8%	50.5%	8.6%	100.0%
간호복지학부	5	4	4	7	3	37	0	60
	8.3%	6.7%	6.7%	11.7%	5.0%	61.7%	0.0%	100.0%
전체	35	40	41	49	34	280	32	511
	6.8%	7.8%	8.0%	9.6%	6.7%	54.8%	6.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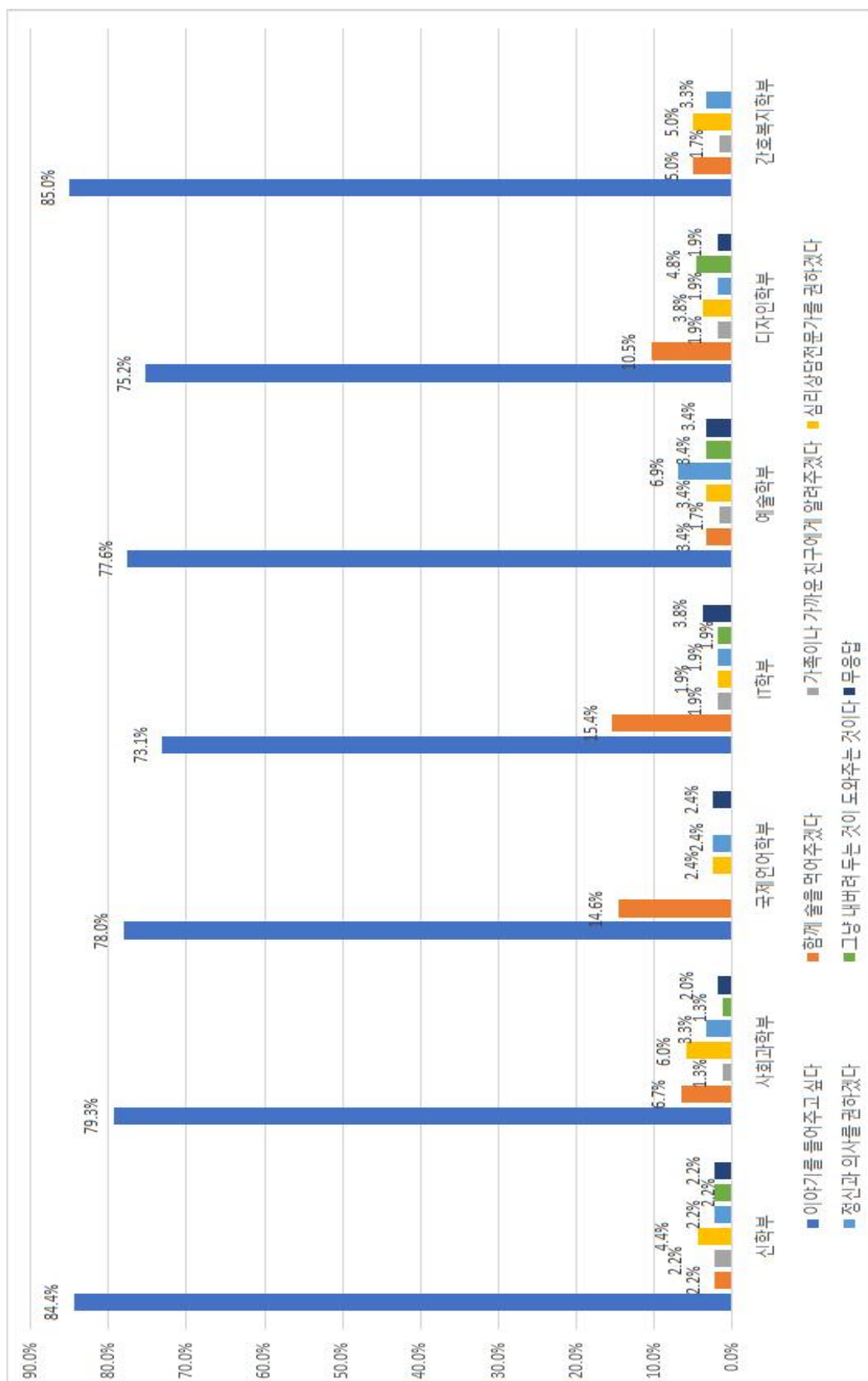


6) 자살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싶은가?

주위 사람이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지를 묻는 질문에, 신입생들의 78.7%는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함께 술을 먹음(8.0%), 심리상담가 권유(4.3%), 정신과 의사를 권하겠다(3.1%) 순으로 나타났다.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응답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간호복지학부가 8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학부(84.4%), 사회과학부(79.3%) 순이다. 성별로 보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도와주고 싶다는 응답에 여학생(83.5%)이 남학생(69.7%)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74> 자살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싶은가? 단위:명,%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다	함께 술을 먹어주겠 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알려 주겠다	심리상담 전문가를 권하겠다	정신과 의사를 권하겠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무응답	전체
남	124	25	2	10	6	7	4	178
	69.7%	14.0%	1.1%	5.6%	3.4%	3.9%	2.2%	100.0%
여	278	16	6	12	10	4	7	333
	83.5%	4.8%	1.8%	3.6%	3.0%	1.2%	2.1%	100.0%
신학부	38	1	1	2	1	1	1	45
	84.4%	2.2%	2.2%	4.4%	2.2%	2.2%	2.2%	100.0%
사회 과학부	119	10	2	9	5	2	3	150
	79.3%	6.7%	1.3%	6.0%	3.3%	1.3%	2.0%	100.0%
국제 언어학부	32	6	0	1	1	0	1	41
	78.0%	14.6%	0.0%	2.4%	2.4%	0.0%	2.4%	100.0%
IT학부	38	8	1	1	1	1	2	52
	73.1%	15.4%	1.9%	1.9%	1.9%	1.9%	3.8%	100.0%
예술학부	45	2	1	2	4	2	2	58
	77.6%	3.4%	1.7%	3.4%	6.9%	3.4%	3.4%	100.0%
디자인 학부	79	11	2	4	2	5	2	105
	75.2%	10.5%	1.9%	3.8%	1.9%	4.8%	1.9%	100.0%
간호 복지학부	51	3	1	3	2	0	0	60
	85.0%	5.0%	1.7%	5.0%	3.3%	0.0%	0.0%	100.0%
전체	402	41	8	22	16	11	11	511
	78.7%	8.0%	1.6%	4.3%	3.1%	2.2%	2.2%	100.0%



IV. 결론

본 연구는 2018학년도 한세대학교 신입생들의 개인 신상, 가정생활, 기타생활, 대학생 활, 핸드폰 및 인터넷 사용, 이성 및 성(性), 상담센터 이용, 자살관련 문항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서, 신입생들의 일반특성과 전반적인 대학생활 만족도를 비롯한 대학 생활 적응도를 이해하고 나아가 합리적인 교육 계획의 수립과 학생 생활지도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번 2018학년도 신입생들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요약

신입생 실태조사에는 신입생 총 603명 중에 511명이 응답하여 총 84.7%의 응답률을 보였다. 문항은 총 97문항이며, 그 중 상담실 관련 문항에서는 1문항이 5개 소문항으로 나뉘었다.

1)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

신입생 전체응답자 511명 중 설문에 가장 많이 참여한 학부는 사회과학부(150명)였으며, 성별로는 남학생 34.8%, 여학생 65.2%의 참여율을 보였다. 이 참여율을 작년비율(남녀 각각 30.1%, 69.9%)과 비교해보면 남학생의 비율은 조금 낮아진 반면, 여학생의 비율은 다소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응답자들의 만 나이의 비율은 금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만 18세가 5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만 19세(26.8%), 만 20세(10.0%) 순이었다.

개인 신상에 관하여는 모두 13문항으로 크게 '심리적 만족도'와 '경험 정도'를 질문하였다. 심리적 만족도는 6가지를 측정하였는데 '건강상태', '지적능력', '대인관계', '자신의 성격', '자신의 외모', '고등학교 생활'이다. 먼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26.0%), 매우 만족(23.7%) 순이었다. 건강상태에 대해 매우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학생(23.7%)은 작년(16.5%)에 비해 증가하였다. 대인관계에 대해서는 신입생들의 대부분이 만족(48.3%)한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매우 만족(24.9%)으로 응답하였으며 보통(24.7%)이 뒤를 이었다. 자신의 성격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보통(33.3%), 매우 만족(18%) 순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보통'이라 응답한 학생이 44.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만족(30.1%), 매우 만족(12.9%), 불만(10.4%) 순으로 나타났다.

경험 정도에서는 '흡연', '음주', '이성교제'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먼저 흡연 경험정도를 알아보면, 전체 응답자의 75.1%가 흡연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흡연경험은 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3.3%, '자주 한다'는 응답이 6.8%, '가끔 한다'는 응답이 3.3%로 나타났다. 신입생들의 음주 경험에 대해서는 전체의 87.8%가 음주 경험이 있으며, 전체의 75.5%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들의 이성교제에 대한 경험정도는 '이성교제의 경험은 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경험 없음(19.8%), 가끔 (13.5%), 하고 싶음(11.5%) 순으로 나타났다.

2) 가정생활과 관련된 사항

가정생활과 관련한 질문은 총 1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신입생들의 출신고교 지역은 경기·인천지역이 6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서울(25%), 대전·충청도(3.9%), 부산·대구·경상도(3.5%)와 광주·전라도(2.2%) 순으로 나타났다. 신입생들의 고교 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년도는 2018년도(66.5%)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17년도(21.9%), 2016년도(4.3%), 2015년(2.2%) 순이었다. 신입생들의 종교 분포를 살펴보면, 종교가 없다는 응답이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기독교가 35.4%였다. 종교가 있는 경우 기독교 다음으로 천주교가 5.7%, 불교가 2.9%로 나타났다.

부모 생존 여부에 대해서는 양친이 모두 생존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9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모친만 생존한 경우가 2.0%, 부친만 생존이 1.2%, 양친 별거한 경우가 0.9%, 양친 이혼이 0.6%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 비율은 회사원(38.6%), 기타(22.3%), 상업(10.6%) 순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직업 비율은 회사원(20.4%), 전업 주부(16.4%), 교육기관(5.7%), 공무원(4.7%)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해서는 신입생들 대부분이 자신의 가정이 '중하하', '중하', '중'에 속해있다고 응답해 평균보다 약간 낮은 경제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중하'에 속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46.6%로 가장 많았다.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동안의 학비 조달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모조달'이 전체의 80.4%로 가장 많았고, 학자금대출(11.5%), 기타(4.7%) 순으로 나타났다. 본교 입학 후의 신입생 거주형태를 살펴보면, 신입생들의 80.2%가 자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기타(11.5%), 기숙사(5.4%)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대비 기숙사의 응답 비율이 낮아진 반면 기타 응답 비율은 상승했다. 신입생들이 지각하는 자신들의 가정 분위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매우 화목하다'가 전체의 50.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비교적 화목하다(43.1%), 약간 불화(6.1%)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에 대한 불만 사항들을 조사한 결과 '불만 없음'이 전체의 5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부모와의 의견충돌(11.2%), 경제적곤란 및 용돈부족 8.6%, 가족들의 심한 간섭과 통제(7.4%), 부모사이의 불화(5.9%) 순으로 나타났다.

3) 기타 생활과 관련된 사항

기타 생활과 관하여는 6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재수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재수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7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재수 경험을 한 학생의 비율은 21.1%로, 2017년 18.5% 보다 2.6% 상승했다. 신입생들의 군 입대에 관하여 남학생은 178명중 169명이 이 문항에 응답하였다. 군 입대 예정시기로는 2학년 중에 군 입대를 하겠다는 응답이 62.9%로 가장 높았고, 1학년(17.4%), 입학전(5.1%), 3학년(4.5%), 졸업후(4.5%)로 나타났다.

신입생들의 월평균 용돈의 규모를 조사한 결과 '30만원 이하'가 2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10만원 이하' 20.5%, '26-30만원' 18.4%로 2017년과는 용돈 금액이

다르게 나타났다. 용돈을 사용하는 용도는 대부분 교통비와 식비(57.7%)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학업관련 서적구입비(19.7%), 오락·문화생활비(13.1%) 순으로 나타났다. 오락문화비율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하다가 2017년, 2018년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입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9.1%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응답하였고,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용돈마련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7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경험 쌓기(19.6%), 학비조달(5%), 생계유지(3.5%) 순으로 나타났다.

4) 대학 생활과 관련된 사항

대학 생활과 관련한 문항은 26문항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대학에 진학한 동기에 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56.9%는 ‘장래직업 준비’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고, 적성과 소질개발(14.3%), 학문과 진리 탐구(12.7%), 남들도 하니까(7.4%),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전체의 81%는 본교가 기독교 학교임을 알고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고, 본교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합격할 가능성(33.7%)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원하는 학과가 있어서(29.4%), 집에서 다닐 수 있어서(19.1%)순으로 나타났다. 본교에 대해 알게 된 경로에 대해서는 신입생의 22.9%가 대학진학정보지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학원(20.2%), 학교 선생님(18.0%), 대중매체(9.8%) 순이었다.

본교 입학에 만족하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신입생의 75.0%가 본교에 입학한 것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교 입학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편입을 생각하고 있다’(28.6%), ‘잘 적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다’(23%)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학부 선택 시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적성이 맞아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2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학문적 흥미가 있어서(20.2%), 합격할 가능성(20.2%)과 취업률·취업전망(10.0%) 순으로 나타났는데 2017년과 비교하여 취업률 및 취업전망이 높게 상승하여 대학생에게 취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영하고 있다. 지망학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대충 안다’고 응답한 학생이 61.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잘 안다’ 18.0%, ‘잘 모른다’가 16.8% 순으로 나타났다. 신입생들이 현재 지망한 학부를 선택한 시기는 ‘원서 접수기간 중’이라는 응답이 31.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고3초-원서접수 전’(30.5%), ‘고1-고2말’(23.9%), ‘중학교 또는 그 이전’(13.3%) 순으로 나타났다.

신입생들이 2학년으로 진학할 때 전공 선택에 있어서 학교로부터 받기 원하는 도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신입생의 34.1%가 관련분야 전문가와의 대화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전문적인 상담(27.6%), 전공 선택 관련 안내책자 발행(19.8%), 교수님과의 대화(12.7%)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교수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은 해박한 지식전달 (32.3%), 학생을 이해하고 개인적인 관심(26.0%)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해박한 지식을 전달(27.5%) 순으로 나타났다.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신청여부에 관한 질문에서는 '예'라고 응답한 학생이 59.9%, '아니오'라고 답한 학생이 39.5%로 나타났다.

신입생들이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전공 공부(51.1%)라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는 이성 및 대인관계(11.5%), '취미 등 다양한 활동'(9.6%), 취직준비(7.4%) 순으로 나타났다. 복수전공 이수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42.5%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고, 이수할 용의가 있다(38.2%), 이수할 용의가 없다(18.8%)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 졸업 후 진로계획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68.9%가 '취직'을 하고 싶다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는 대학원 진학(13.3%), 유학(9.2%), 사업(4.7%), 기타(3.1%)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 선택 시 어떤 점을 제일 먼저 고려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신입생들은 '적성'(37.0%)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고, 다음으로는 일의 내용(18.6%), 안정성(22.5%), 보수(9.6%) 순이라고 응답했다. 취업에 대하여 학교에서 어떤 서비스를 해주기를 원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직업 및 진로관련 정보제공(41.7%)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취업관련 교육(23.3%), 진로 관련 자기이해 도움(17.4%) 순이었다.

교내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신입생의 45.6%가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하였고, 반면 모르겠다는 의견도 36.6%로 나타났다. 동아리활동을 할 경우, 희망하는 동아리 영역은 '예술'이 12.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취미(9.8%), 스포츠(6.1%) 학술(5.3%) 순이었다.

대학생활에서 가장 걱정스러워 하는 것은 학업문제(26.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진로문제(22.1%), 대인관계(20.7%), 경제문제(12.3%) 순이다. 신입생들은 졸업 후 진로결정과 관련해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에 대한 질문에 '외국어 능력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21.9%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14.5%), '나의 흥미와 적성을 몰라서'(13.9%), '자신감 의욕이 부족해서'(13.7%) 순이었다.

5) 핸드폰 및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사항

핸드폰 및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사항은 3문항이었다. 신입생들의 핸드폰 이용시간은 3시간 이상(43.8%), 4시간이상(22.3%)순으로 나타났다. 핸드폰 및 인터넷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신입생들은 주로 정보검색(55.4%)과 채팅(22.9%), 게임(10.4%), 기타(6.1%) 순으로 나타났으며 채팅이 전년대비 높은 상승이 이루어졌다.

6) 이성 및 성(性)과 관련된 사항

이성 및 성(性)과 관련하여 15문항의 질문을 하였다. 먼저 이성교제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신입생의 33.9%가 지금은 없으나 교제를 원한다고 응답한 반면, 이성교제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36.6%를 차지했다. 이성과 교제할 경우 상대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35%가 '성격'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 순위는 외모

(14.9%), 느낌(8.6%), 기타(2.2%), 종교(2.2%) 순이었다.

이성 교제 시 상대와의 신체접촉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기타’라고 응답한 비율이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랑한다면 성관계까지 허용’(22.5%), ‘키스나 가벼운 포옹’(21.9%), 어깨동무 손잡기 정도(8.8%) 순으로 나타났다. 이성교제 시 혼전 성관계에 대한 신입생들의 견해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견해는 혼전 성관계에 대해 ‘모르겠다’는 응답으로 전체의 40.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찬성한다(38.0%), 반대(21.1%)순으로 2017년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신입생들은 피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필수적이다(61.6%)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관심 없다(18.0%), 방법을 알고 있다(11.4%), 필요성은 인정하나 방법을 모른다(6.7%) 순으로 나타났다. 낙태에 대한 신입생들의 견해에서는 응답자 중 39.5%가 ‘반대’라고 응답한 반면, 찬성하는 응답도 46.4%로 나타났다.

신입생들의 매체를 통한 음란물 접촉정도를 조사한 결과, 68.7%가 ‘별로 없다’라고 응답했으며, 한 달에 1-2회는 13.1%, 일주일에 1-2회는 11.9%, 일주일에 3-4회는 4.9%, 매일 한 시간 이상은 0.4% 순으로 나타났다. 신입생들의 컴퓨터, 전화 등 통신을 통해 원치 않는 음란물에 노출된 경험을 조사한 결과 ‘한두 번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혀 없다(34.9%), 여러 번 있다(16.7%), 많은 편이다(2.2%)순이었다. 원치 않는 음란물에 노출됐을 때의 대응방법으로는 응답자 중 77.5%가 ‘답변하지 않는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반면 관리자나 관리기관에 신고한다는 응답은 7.0%로 나타났다. 음란물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신입생 전체의 54.2%가 ‘아무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성적 긴장감해소에 도움(15.7%), 불쾌하다(12.3%), 금지되어야 한다(6.5%) 순으로 나타났다.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신입생의 52.1%가 ‘약간 불쾌한 경험’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여러번 불쾌한 경험(17.4%), 고통스러운 정도 ○(13.7%), 극심한 고통(12.1%) 순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신입생의 35.7%가 가해자에게 즉시 중지를 요청한다고 응답하였고 참는다(26.1%), 친구와 상의한다, 기타(13.9%)로 나타났다. 성폭력의 대처방법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처방법은 잘 모른다’는 응답이 52.1%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이 ‘관련기관을 알고 있어 필요시 도움 받을 수 있다’(17.4%), ‘관련기관 및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있다’(13.7%), ‘잘 알고 있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12.1%) 순이었다. 성교육시 가장 알고 싶은 것에 대한 질문에는 피임지식(34.1%)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지식(17.4%), 성예절(15.9%), 성폭력예절교육(14.1%) 순으로 나타났다.

7) 상담센터와 관련된 사항

상담센터와 관련해서는 총 9개의 큰 문항과 5개의 소문항으로 나뉘어져 있다. 먼저,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 간 심리적 상태 중 외로움에 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50.7%가 가끔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전혀 없다(34.6%), 자주 그렇다(12.3%), 거의 항상 그렇다(1.4%) 순이었다. 불안에 대한 질문에는 신입생들의 45.2%가 ‘가끔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전혀 없다(36.6%), 자주 그렇다(15.7%), 거의 항상 그렇다(1.4%) 순이었다. 분노에 대한 질문에는 신입생들의 47.7%가 ‘전혀 없다’라고 응답하였고, 가끔 그렇다(42.9%), 자주 그렇다

(7.6%), 거의 항상 그렇다(1.0%) 순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무기력에 대한 질문에는 신입생들의 41.5%가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전혀 없다(36.4%), 자주 그렇다(17.4%), 거의 항상 그렇다(3.3%) 순으로 나타났다. 자살충동에 대해서는 신입생들의 86.3%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이 가끔 그렇다(9.4%), 자주 그렇다(2.5%), 무응답(1.6%) 순으로 나타났다.

심리적으로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심리 상담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신입생들의 56.6%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대학 내 심리상담가가 있다면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신입생들의 68.7%가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문제 발생시 의논할 상대는 '부모'라는 응답이 전체의 5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7년 49.9%보다 더 높게 상승하였다.

학생상담센터를 이용할 경우 희망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신입생들의 41.7%가 '개인 심리상담'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진로상담(37.4%), 심리검사 및 해석(14.1%), 기타(2.9%) 순이었다. 개인상담을 받을 경우 희망하는 상담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진로문제를 상담하고 싶다는 응답이 40.9%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학업문제(32.3%), 정서문제(6.3%), 인생가치관(5.7%) 순으로 응답했다.

8) 자살과 관련된 사항

자살과 관련한 질문은 총 6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고교시절에 얼마나 자주 자살에 대한 생각을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신입생들의 69.7%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가끔 그렇다는 응답에 22.7%가, 거의 항상 그렇다는 응답에 5.1%가 응답했다. 또한 주로 어떤 문제를 겪을 때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신입생들의 13.3%가 학업문제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가정문제(7.6%)와 대인관계문제(7.2%)순으로 나타났다.

자살 생각이나 충동이 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진행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13.9%가 아무 일도 안하고 무위도식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구체적 방법을 생각하였다(5.5%), 기타, 사람을 만나지도 않음(4.1%), 실제로 시도한 적 있다(3.3%) 순으로 응답하였다. 자살에 대한 충동이나 생각이 들 때 주로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는 14.1%가 잠을 잔다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린다(11.5%), 친구 등에게 이야기 한다(7.0%), 무응답(5.9%) 순으로 나타났다. 전 문항에서 사용했던 자살 대처방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꽤 있다는 응답이 9.6%로 나타났다. 이어서 보통으로 있다(8.0%), 약간 있다(7.8%), 사실 거의 없다(6.8%)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위 사람이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지를 묻는 질문에는 신입생들의 78.7%는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함께 술을 먹음(8.0%), 심리상담가 권유(4.3%), 정신과의를 권하겠다(3.1%) 순으로 나타났다.

20. 가정의 분위기

- ① 매우 화목 ② 비교적 화목
③ 약간 불화 ④ 심한 불화

21. 가정에 대해 가장 불만스러운 점

- ① 부모 사이의 불화 ② 형제간 불화
③ 경제적 곤란 및 용돈 부족 ④ 대화부족
⑤ 가족들의 심한 간섭과 통제 ⑥ 편애 · 차별
⑦ 가족 중 환자가 있는 것 ⑧ 부모의 지나친 기대
⑨ 부모와의 의견충돌 ⑩ 불만 없음 ⑪ 기타

◆ 기타 생활 관련

22. 재수경험

- ① 없음 ② 재수 ③ 삼수 ④ 사수 이상

23. 군 입대 예정 시기(남자만)

- ① 입학 전 ② 1학년 ③ 2학년
④ 3학년 ⑤ 4학년 ⑥ 졸업 후

24. 한 달 용돈의 규모

- ① 10 만원 이하 ② 11-15 만원
③ 16-20 만원 ④ 21-25 만원
⑤ 26-30 만원 ⑥ 30 만원 이상

25. 용돈은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 ① 학업관련 서적 구입 ② 교통비, 식비
③ 취미관련 활동비 ④ 오락, 문화생활비
⑤ 대인관련 교제비 ⑥ 기본 생활용품비
⑦ 기타

26. 아르바이트의 희망여부

- ① 희망한다 ② 희망하지 않는다 ③ 모르겠다

27. 아르바이트를 희망한다면 이유

- ① 경험을 쌓기 위해 ② 용돈 마련을 위해
③ 학비 조달을 위해 ④ 생계유지를 위해

◆ 대학 생활 관련

28. 대학 진학의 동기

- ① 학문과 진리 탐구 ② 인격도야
③ 장래직업준비 ④ 적성과 소질 개발
⑤ 사회·경제적 높은 지위 획득 ⑥ 남들도 진학하니까
⑦ 기타

29. 본교가 기독교 학교임을 알고 지원하였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30. 본교에 대해 알게 된 경로

- ① 학교 선생님 ② 학원 선생님
③ 교회 성직자 ④ 가족이나 친척
⑤ 친구 또는 선배 ⑥ 대중매체
⑦ 대학진학 정보지 ⑧ 본교 홍보물
⑨ 기타

31. 본교 입학에 만족합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32. 만족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계획은?(31번에 아니오라고 답한 사람만 답하세요)

- ① 잘 적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② 상담실을 이용하여 전문가와 논의 하겠다
③ 편입을 생각하고 있다.
④ 자퇴나 휴학하고 수능을 다시 준비하겠다.
⑤ 아직은 잘 모르겠다.

33. 본교 및 자신의 학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은?

- ① 합격할 가능성 ② 학과 명성
③ 적성이 맞아서 ④ 학문적 흥미가 있어서
⑤ 취직률과 취업전망 ⑥ 미래 비전이 있어서
⑦ 주변 사람(부모님 등)이 권해서
⑧ 어릴 때부터 원했다 ⑨ 뚜렷한 이유가 없다

34. 학부에 대한 사전 지식

- ① 잘 안다 ② 대충 안다
③ 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35. 학부의 결정시기

- ① 중학교 또는 그 이전 ② 고1-고2말
③ 고3초-원서접수 전 ④ 원서 접수기간 중

36. 2학년 진학 시 전공학과 선택에서 학교로부터 받기 원하는 도움은?

- ① 전공 선택 관련 안내책자 발행
② 전문적인 상담
③ 관련분야 전문가와의 대화
④ 교수님과의 대화
⑤ 기타

37. 복수전공의 이수 동의

- ① 이수할 용의가 있다 ② 잘 모르겠다
③ 이수할 용의가 없다

38. 재학 중에 해외 어학연수 또는 교환학생 신청 여부

- ① 예 ② 아니오

39. 교수에게서 가장 기대하는 것

- ① 해박한 지식을 전달해 주었으면
- ② 접촉의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 ③ 자애롭고 품위 있는 태도로 대해 주었으면
- ④ 연구하는 교수가 되어 주었으면
- ⑤ 훌륭한 인생관을 가르쳐 주었으면
- ⑥ 학생을 이해하고 개인적인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 ⑦ 신앙의 모범이 되어주었으면

40. 대학 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은?

- ① 전공공부
- ② 이성 및 대인관계
- ③ 자격증 취득
- ④ 취직 준비
- ⑤ 대학 내(동아리, 총학 등)
- ⑥ 영어 공부
- ⑦ 취미 등 다양한 활동
- ⑧ 등록금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한 경제 활동
- ⑨ 인격 성장을 위한 활동이나 공부
- ⑩ 기타

41. 대학 졸업 후 진로 계획

- ① 취직 ② 대학원 진학 ③ 결혼
- ④ 사업 ⑤ 유학 ⑥ 기타

42. 직업 선택 시 제일 먼저 고려할 점은?

- ① 일의 내용 ② 안정성 ③ 적성
- ④ 후생복지 ⑤ 보수 ⑥ 지위
- ⑦ 근무시간 ⑧ 발전 가능성 ⑨ 직장의 규모
- ⑩ 근무지역 ⑪ 사회적 인지도

43. 취업에 대하여 학교에 가장 원하는 것은?

- ① 직업 및 진로관련 정보 제공
- ② 진로관련 자기이해 도움(적성, 흥미 등)
- ③ 취업관련 교육(영어, 컴퓨터 강좌, 면접 교육 등)
- ④ 진로 지도 및 상담 활성화
- ⑤ 시설확충(도서관, 영어컴퓨터 실습시설 등)

44. 교내 동아리 참여 동기

- ① 참가 하겠다 ② 참가하지 않겠다 ③ 모르겠다

45. 희망 동아리 영역

- ① 학술 ② 어학 ③ 과학(컴퓨터 포함)
- ④ 예술 ⑤ 이념 연구 ⑥ 취미 ⑦ 스포츠
- ⑧ 여행 ⑨ 종교 ⑩ 봉사 ⑪ 기타

46. 대학생생활 하는데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 ① 성격문제 ② 가족문제 ③ 대인관계문제
- ④ 이성관계문제 ⑤ 경제문제 ⑥ 학업문제
- ⑦ 진로(취업)문제 ⑧ 건강문제 ⑨ 병역문제
- ⑩ 성문제 ⑪ 기타

47. 졸업 후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 ① 나의 흥미와 적성을 몰라서
- ② 자신감이나 의욕이 부족해서
- ③ 외국어 능력이 부족해서
- ④ 전공이 취업에 적절치 않아서
- ⑤ 학교 명성이 없어서
- ⑥ 진로 및 직업정보가 부족해서
- ⑦ 어떤 직업이 유망할지 몰라서
- ⑧ 중요한 타인(부모나 형제 등)과의 갈등
- ⑨ 우유부단한 성격
- ⑩ 경제적 어려움

◆ 핸드폰 및 인터넷 사용

48. 하루 평균 핸드폰 이용 시간은?

- ① 거의 사용 안함 ② 30분 이내
- ③ 30분-1시간 ④ 1-2시간
- ⑤ 3-4시간 ⑥ 5시간 이상

49. 핸드폰 사용의 주된 용도는?

- ① 수업에 관한 정보검색 ② 인터넷
- ③ 오락 ④ 연락
- ⑤ TV · 오디오 · 비디오 등 멀티미디어 ⑥ 기타

50. 인터넷 사용의 주된 용도

- ① 정보검색 ② 이메일 ③ 채팅
- ④ 게임 ⑤ 동호회활동 ⑥ 파일받기
- ⑦ 전자상거래 ⑧ 기타

◆ 이성 및 성 관련

51. 이성 교제 여부

- ① 꾸준히 만나고 있는 친구가 있다
- ② 마음에 두고 있는 이성이 있다
- ③ 지금은 없으나 교제를 원한다
- ④ 관심이 없다

52. 이성 교제 시 상대 선택 기준은?

- ① 외모 ② 성격 ③ 취미
- ④ 경제적 능력 ⑤ 종교 ⑥ 느낌
- ⑦ 기타

(뒷 면 계 속)

53. 이성 교제 시 어느 정도까지 신체접촉을 허용하겠습니까?

- ① 전혀 허용치 않음
- ② 어깨동무, 손잡기 정도
- ③ 키스나 가벼운 포옹
- ④ 진한 스킨십
- ⑤ 사랑한다면 성관계까지 허용

54. 혼전 성관계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 ① 찬성 ② 반대 ③ 모르겠다

55. 피임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 ① 거부감이 든다
- ② 현재 필요치 않아 관심 없다
- ③ 필요성은 인정하나 구체적 방법은 잘 모른다
- ④ 방법을 알고 있으며 필요하면 할 수 있다
- ⑤ 원치 않는 임신 방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56. 낙태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 ① 찬성 ② 반대
- ③ 기타 _____

57. 만화, 비디오, 컴퓨터 및 매체를 통해 음란물을 어느 정도 접합니까?

- ① 별로 없다 ② 한 달에 1-2회
- ③ 일주일에 1-2회 ④ 일주일에 3-4회
- ⑤ 매일 한 시간 이상

58. 음란물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 ① 아무렇지도 않다
- ② 자극적이고 재미있다
- ③ 성적 긴장해소에 도움 된다 ④ 불쾌하다
- ⑤ 성범죄를 부추긴다 ⑥ 금지되어야 한다

59. 이전에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 ② 약간 불쾌한 경험이 있다
- ③ 여러 번 불쾌한 경험이 있다
- ④ 기간이나 정도가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 ⑤ 정신적, 신체적으로 매우 심한 고통이었다

60. 59번 문항에 대한 당신의 대응방법은?

- ① 참는다 ② 가해자에게 즉시 중지를 요청
- ③ 친구와 상의 ④ 학내기관, 관련기관에 도움요청
- ⑤ 법적 대응 ⑥ 여성단체와 상담
- ⑦ 기타

61. 성폭력의 대처방법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 ① 전혀 모른다
- ② 구체적인 대처방법은 잘 모른다
- ③ 관련기관을 알고 있어 필요시 도움 받을 수 있다
- ④ 관련 기관 및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있다
- ⑤ 잘 알고 있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62. 성교육을 받는다면 가장 알고 싶은 것은?

- ① 성지식 ② 피임지식
- ③ 이성교제 방법 ④ 성폭력 예방교육
- ⑤ 성 예절 ⑥ 기타

◆ 상담실 관련

63. 최근 3개월간 다음의 심리적 상태를 어느 정도 경험하였는지 표시하십시오.

		전혀 없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1)	외로움	①	②	③	④
2)	불안	①	②	③	④
3)	분노	①	②	③	④
4)	우울, 무기력	①	②	③	④
5)	자살충동	①	②	③	④

64. 심리적으로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심리상담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있었나?

- ① 있다.
- ② 없다 (없다면 그 이유는? _____)

65. 대학 내에 심리적 고민 해결과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가가 있다면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있는가?

- ① 있다
- ② 없다 (없다면 그 이유는? _____)

66.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

- ① 화목한 가정 ② 건강
- ③ 깊은 신앙심 ④ 신뢰할 만한 친구
- ⑤ 진실한 사랑 ⑥ 돈
- ⑦ 명예 ⑧ 권력
- ⑨ 학벌 ⑩ 사회적 지위 ⑪ 기타

67. 문제 발생 시 의논 상대

- ① 부모 ② 형제 ③ 담임교사
- ④ 선배 ⑤ 친구 ⑥ 성직자
- ⑦ 상담교사 ⑧ 전문가 ⑨ 가까운 친척
- ⑩ 인터넷

68. 만약 상담실을 방문하여 개인 상담을 받게 된다면, 상담을 희망하는 내용은?

- ① 학업문제 ② 진로문제 ③ 신앙문제
- ④ 정서문제 ⑤ 대인관계 문제 ⑥ 가족문제
- ⑦ 이성문제 ⑧ 인생관 및 가치관 확립문제
- ⑨ 성격문제 ⑩ 행동 및 습관의 문제

69. 상담실을 이용한다면 희망하는 서비스는?

- ① 개인 심리 상담 ② 진로 상담
- ③ 집단 상담 ④ 심리 검사 및 해석
- ⑤ 심리학 관련 학습 ⑥ 기타

◆ 자살 관련 문항

70. 고교시절 얼마나 자주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가끔 그렇다
- ③ 자주 그렇다 ④ 거의 항상 그렇다

71. 주로 어떤 문제를 겪을 때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까?

- ① 성격 문제 ② 가정 문제
- ③ 대인관계 문제 ④ 이성관계 문제
- ⑤ 경제 문제 ⑥ 학업 문제
- ⑦ 진로(취업) 문제 ⑧ 정신건강 문제
- ⑨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 ⑩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한 적이 없다.
- ⑪ 기타 _____

72. 자살 생각이나 충동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진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실제로 시도한 적이 있다
- ② 구체적 방법을 생각하였다
- ③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았다
- ④ 며칠씩 식사를 안 하거나 잠을 못 잤다
- ⑤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 ⑥ 아무 일도 안하고 무위도식하였다
- ⑦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한 적이 없다
- ⑧ 기타 _____

73. 자살에 대한 충동이나 생각이 들 때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 ① 잠을 잔다
- ② 술을 마시며 잊어버린다
- ③ 친구 등에게 이야기 한다
- ④ 인터넷을 돌아다닌다
- ⑤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린다
- ⑥ 구체적으로 자살 방법을 생각한다
- ⑦ 안정제 등 약물을 복용한다
- ⑧ 자살과 관련한 자료나 책을 살펴본다
- ⑨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한 적이 없다

74. 위에서 사용하셨던 방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습니까?

- ① 사실 거의 없다
- ② 약간 있다
- ③ 보통으로 있다
- ④ 꽤 있다
- ⑤ 항상 있다
- ⑥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한 적이 없다

75. 주위 사람이 심각하게 자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도와주고 싶습니까?

- ①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다
- ② 함께 술을 먹어주겠다
- ③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알려주겠다
- ④ 심리상담전문가를 권하겠다
- ⑤ 정신과 의사를 권하겠다
- ⑥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신입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7학년도 학생상담센터 활동 보고

학생인재개발처의 학생상담센터는 본교 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심리적 어려움을 좀 더 잘 이해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먼저 자기이해와 진로, 가정 및 대인관계 등을 돕기 위한 각종 심리검사 및 개인상담, 집단상담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의 문제해결을 돕고 있으며, 전문 상담 인력을 위한 인턴십 과정과 실습, 교육,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성폭력상담소를 겸하고 있어 교직원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교생 반성폭력 캠페인, 성폭력 신고 접수 및 사건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밖에도 지역연계 활동으로 군포·의왕 교육청 지원 청소년상담 및 교권침해 교원의 심리상담, 지역아동센터의 찾아가는 상담 및 지역 주민을 위한 상담, 그리고 교정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개인 상담 및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고 있다.

1. 상담 및 심리검사

1) 재학생 상담

(1) 개인상담

대학생활 중 겪게 되는 자신의 정체성, 대인관계 갈등, 정서 및 성격상의 문제, 신앙 및 가정의 위기, 진로 선택, 학업 및 학교생활 적응의 문제를 비롯한 심리적 문제를 상담 받을 수 있다.

(2) 집단상담 및 심리(영화)치료 프로그램 진행

전문상담가가 진행하는 집단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진행자와 집단원들의 역동적인 상호교류를 통하여 개인의 성격, 대인관계, 집단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문제나 주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문제해결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문제해결능력과 의사소통능력, 자신감 등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3)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도구를 통하여 개인의 성격, 적성 및 인성 등 심리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다. 본 상담소에서 실시하는 심리검사에는 성격검사(MBTI, 에니어그램, 표준성격진단검사, 방어기제검사)와 적성검사(홀랜드 적성탐색검사, 적성진단검사)가 있고, 기타 검사들로는 MMPI-2와 K-WAIS 등이 있다.

(4) 성희롱 고충 상담 및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학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접수를 받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며, 정기적으로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생복지위원회와 함께 성희롱 예방 주간에 성희롱 추방 캠페인을 도와주고 있다.

2) 지역 연계 상담

(1) 교육청 지원 청소년 상담

군포·의왕 교육청과의 협약을 통해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군포·의왕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와 대인관계 및 성격문제와 학교생활 적응 문제 등에 대해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2) 교육청 연계 교권 침해 교원 상담

군포·의왕 교육청의 교권 침해 교원의 심리 상담 기관으로 지정되어 교권 침해로 인한 피해 교원들의 심리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3) 인근 초등학교의 개인 상담 지원

본교 인근의 초등학교(당정초교)와의 협약을 통해 상담이 필요한 아동과 학부모의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4) 지역 아동 센터 지원 상담

도움이 필요하지만 여건이 어려운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하여 돕고 있다.

(5) 기타 기관으로 찾아가는 상담

기타기관(서울분류심사원, 고봉 중·고등학교, 여주교도소, 수원보호관찰소 등)과의 협약을 통해 상황에 따라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6) 지역 주민을 위한 상담

군포와 인근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심리검사와 개인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2. 상담실 이용 안내

■ 이용시간 : 월~금 (09:00 - 21:00), 토 (09:00 ~ 17:00)

■ 이용절차 : 심리검사는 검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한주 후에 해석 상담을 진행한다. 개인상담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면접 후 상담이 진행되며, 학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 예약 접수 후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집단상담은 매 학기 집단상담이 개설이 되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참여할 수 있다.

■ 문의 : 전화/ 031) 450-5173, 5056
e-mail / kimhs@hansei.ac.kr

3. 주요 업무 실적

1) 재학생 월별 방문자 수 (2017년 3월 ~ 2018년 2월)

(단위 : 명)

년도	월	심리검사 인원(검사횟수)	개인 상담 인원 (회기수)
2017년	3월	130(199)	109(173)
	4월	69(110)	88(180)
	5월	41(86)	79(173)
	6월	19(32)	59(110)
	7월	7(13)	19(46)
	8월	22(37)	48(90)
	9월	37(56)	48(90)
	10월	28(54)	39(97)
	11월	36(59)	113(237)
	12월	12(19)	35(58)
2018년	1월	3(5)	14(24)
	2월	2(1)	13(26)
합계		398(671)	572(1,304)

2) 교육청 심리검사 및 상담 (2017년 3월 ~ 2018년 2월)

년도	기간	인원(명)	검사횟수(건)
2017년	3월 ~ 4월	6	2
	5월 ~ 6월	2	-
	7월 ~ 8월	3	-
	9월 ~ 10월	10	3
	11월 ~ 12월	3	-
2018년	1월 ~ 2월	2	1
합계		26	6

3) 상담 및 심리검사 (2017년 3월 ~ 2018년 2월)

(1) 학부별 심리검사 방문자

(단위 : 명)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재 학 생	IT학부	1	5	2	1	1	1	4	3	5	2	4	3
	간호복지학부	5	12	9	9	2	3	8	6	11	5	2	-
	사회과학부	36	37	28	21	11	9	27	17	25	18	4	2
	디자인학부	6	10	7	8	3	5	17	7	18	9	5	3
	신학부	23	22	21	14	4	5	10	6	10	5	2	-
	예술학부	5	13	6	6	4	3	5	3	4	3	3	2
	국제언어학부	5	5	8	11	4	2	8	11	10	6	2	2
합 계		81	104	81	70	29	28	79	53	83	48	22	12

(2) 심리검사 종류별 실시 및 해석 (2017년 3월 ~ 2018년 2월)

(단위 : 건)

	M B T I	표 준 화 성 격	이 화 방 어 기 제	에 니 어 그 램	출 랜 드	증 앙 적 성	M M P I -2	M M T I C	M M P I -A	H T P	K F D	S C T	로 샤	지 능
IT학부	-	1	5	1	1	-	3	-	-	-	-	1	-	-
간호복지학부	7	5	3	-	4	-	12	-	-	-	-	4	-	-
사회과학부	23	13	-	5	16	-	39	-	-	16	-	30	-	-
디자인학부	12	5	4	4	4	-	19	-	-	5	-	16	-	-
신학부	13	5	11	3	6	-	24	-	-	8	-	13	-	-
예술학부	8	2	-	-	5	-	5	-	-	3	-	3	-	-
국제언어학부	6	-	2	1	6	-	10	-	-	1	-	5	-	-
합 계	69	31	25	14	42	-	112	-	-	33	-	72	-	-

(3) 개인상담 방문자 및 회기 (2017년 3월 ~ 2018년 2월)

(단위 : 명(회기))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재 학 생	IT학부	6 (9)	5 (12)	5 (10)	2 (4)	1 (1)	0 (0)	1 (1)	1 (4)	1 (3)	1 (3)	1 (3)	1 (1)
	간호복지 학부	3 (6)	3 (8)	4 (13)	4 (7)	1 (2)	5 (7)	14 (24)	4 (11)	4 (13)	4 (6)	3 (4)	2 (2)
	사회과학 부	52 (91)	43 (82)	23 (49)	23 (43)	6 (17)	7 (15)	15 (27)	16 (36)	15 (45)	19 (32)	6 (9)	3 (7)
	디자인 학부	7 (8)	4 (7)	3 (5)	2 (5)	6 (10)	3 (9)	3 (10)	2 (7)	2 (8)	2 (3)	0 (0)	0 (0)
	신학부	15 (27)	18 (44)	20 (38)	12 (23)	6 (17)	4 (9)	6 (13)	8 (21)	7 (21)	3 (5)	2 (5)	2 (5)
	예술학부	4 (5)	6 (7)	12 (26)	8 (14)	3 (5)	0 (0)	6 (10)	6 (16)	4 (8)	3 (4)	2 (3)	4 (8)
	국제언어 학부	15 (27)	9 (20)	12 (32)	8 (14)	2 (4)	6 (9)	3 (5)	2 (2)	2 (3)	3 (5)	0 (0)	0 (0)
합 계		102 (173)	88 (180)	79 (173)	59 (110)	19 (46)	25 (49)	48 (90)	39 (97)	35 (101)	35 (58)	14 (24)	12 (23)

4) 집단상담

프로그램명	지도	참가자	총시간
인형을 통한 심리상담프로그램	이미경	22	10시간
외로움과 뒹굴기	정송이	26	10시간
애니어그램 집단상담	이화성	150	10시간
힐링이 있는 컬러테라피 집단상담	이효정	33	10시간
영화를 통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임선정.이미숙	115	16시간
‘한세우리친친’또래상담집단	장미라.최순미	35	15시간

5) 특강

프로그램명	지도	참가자	총시간
신입생 대상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특강	정영주	432	2시간
전교생 대상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특강	정영주	35	2시간
전교생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특강	정영주	62	1시간
전교생 대상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특강	고명희	46	2시간
전교생 대상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특강(시청각)	장각자	1878	1시간
전교직원 대상 폭력통합 예방교육 특강(시청각)	김희수	166	2시간
전교직원 대상 폭력통합 예방교육 특강(집합)	고남숙	159	2시간

6) 집중 심리검사 주간 실시

일주일간 본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MBTI 검사를 실시하고 친구끼리, 연인끼리, 선후배끼리, 룸메이트끼리의 커플 해석을 통해 본 센터를 홍보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7) 연구

본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개인 신상, 가정생활, 기타생활, 대학생활, PC사용, 이성 및 성(性), 상담실 이용, 자살과 관련된 사항 등을 설문 조사한 후 연구 분석하였다. 또한 이전 5년간의 신입생 실태조사서를 비교 분석하였다.

8) 교육

본 학생상담센터는 인턴 수련생을 위한 교육과 실습을 진행하였다. 인턴교육은 심리검사, 상담기법, 상담사례 집단 Supervision이 진행되었다.

9) 출판물

신입생 실태조사를 근거로 한 자료를 연구 분석하여 매년 「신입생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행하며 2018년에는 제21권을 발간한다. 또한 최근 3년간의「신입생실태조사 보고서」를 비교 분석하여 본교 신입생의 특징을 파악 한 「신입생실태조사 비교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였다.

2018학년도 학생상담센터 운영 현황

구분	주요 활동 내용
3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2018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실시, 신입생 전체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월례회 및 레지던트·인턴 과정 슈퍼비전 진행(월 2회로 확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4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전교생대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통합 교육 1차 월례회 및 레지던트·인턴 과정 슈퍼비전 진행 심리(영화)치료 프로그램 진행 대학 성희롱 고충상담원 직무 연수 참석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5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집단상담 (찰흙으로 나를 표현하다) - 학부 대상, 5주 과정 월례회 및 레지던트·인턴 과정 슈퍼비전 진행 심리(영화)치료 프로그램 진행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6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전교직원 대상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통합 교육 1차 전국대학교학생생활상담센터 협의회 하계연차대회 참가 월례회 및 레지던트·인턴 과정 슈퍼비전 진행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7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월례회 및 하계 집중 슈퍼비전 진행 2018년 2학기 인턴 전문 상담사 양성과정 OT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8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학사경고자 전화상담 실시 대학 성희롱 고충상담원 직무 연수 참석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구분	주요 활동 내용
9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집중 심리검사주간 실시 월례회 및 레지던트·인턴 과정 슈퍼비전 진행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10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집단상담 III (집단상담) – 학부 대상 (6주과정) 집단상담 IV (집단상담) – 학부 대상 (6주과정) 전교직원 대상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통합 교육 2차 월례회 및 레지던트·인턴 과정 슈퍼비전 진행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11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전교생 대상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2019학년도 예산 계획 수립 월례회 및 인턴 과정 슈퍼비전 진행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12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전국대학교학생생활상담센터 협의회 동계연차대회 참가 연간 개인심리 검사, 상담 및 업무 종합 월례회 및 인턴 과정 슈퍼비전 진행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1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연간 활동 계획 수립 월례회 및 동계 집중 슈퍼비전 진행 2018년 인턴 수료식 2019년 인턴 전문 상담사 모집 및 선발
2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인턴 전문 상담사 양성 과정 OT 신입생 대상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신입생 OT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학생생활연구 발간규정

『학생생활연구』는 한세대학교 학생상담센터의 기관지로서 연 1회 간행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생활 분야, 상담학 분야의 연구 논문과 관련 자료 및 실증논문을 게재합니다.

본 학회지는 신입생 실태조사보고서로 1998년에 창간되었으며, 2018년 제 21권부터 학생생활연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연구자여러분들의 소중한 연구결과를 『학생생활연구』에 게재할 우수한 논문을 공모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 게재논문 선정논문

논문 공모 주제에 부합되는 논문을 대상으로 투고논문 심사기준에 의거 해당 전공분야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편집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 논문심사료 및 게재료논문

논문 투고자는 논문심사료(심사위원 3인 논문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논문의 분량은 15쪽을 기본으로 하며, 기본 게재연구 초과시 초과면수 1면당 10,000씩 추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원고체계

① 국문제목

② 투고자 성명 및 소속(한글)

③ 국문초록

④ 본문 (예,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결론 및 논의)

⑤ 참고문헌

⑥ Abstract

* 단, 질적연구에서는 ④ 본문 (예,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결론 및 논의)로 형식을 재구성 할 수 있습니다.

□ 게재신청서 작성

게재신청서의 내역을 빠짐없이 작성해주시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논문 신청, 수정, 게재 등의 실무를 담당하며 편집국과 연락을 취할 자
- 교신저자: 논문이 게재된 후 논문에 대한 내용 문의 등을 교신을 담당할 자
- 연구자: 논문 작성에 참여한 자. (작성 순서는 반드시 논문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기록)

□ 논문 제출처

본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분은 학회지 원고작성 세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한 후 한세대학교 학생생활연구 편집국에 문의하셔서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T.031-450-5173).

학생생활연구 투고규정

1. 학생생활연구에 게재할 수 있는 원고의 종류는 경험적 및 이론적 연구논문, 자료(연구용 및 상담 학사 관계) 및 논설이며, 주제가 '학생생활연구'가 지향하는 연구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2. 게재희망자는 한세대학교 학생생활연구 편집국을 통하여 제출하며, 학생생활연구의 절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논문투고, 심사료 및 게재료 입금, 편집위원회와의 의사소통, 출판 후 독자들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책임은 교신저자에게 있다. 다른 저자나 대학원생의 이름으로 교신이 진행될 경우의 혼란으로 인하여 저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책임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원고는 A4 용지 규격으로 한 페이지 당 한글로 약 1,800자, 영문으로 약 3,700자(약 550단어)가 들어감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5. 제출된 원고는 무기명으로 편집위원의 요건 사전심사와 심사위원 3명의 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된 논문의 게재 여부의 최종결정은 편집위원장이 한다. 본 학회지에 게재된 원고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짧은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게재하기로 결정된 원고의 체제와 길이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편집위원장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6. 모든 연구논문은 150단어(600자) 안팎의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포함해야 한다.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은 반드시 그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7. 경험적 연구논문에서 본문의 형식은 서론, 방법, 결과, 논의, 참고문헌 순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본문의 글자는 신명조체(크기 10)로 한다. 본문과 동일한 언어로 쓰여진 초록(신명조체, 크기 9)은 서론의 앞에, 다른 언어로 쓰여진 초록은 참고문헌 뒤에 첨가한다.
8. 자료는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간결하게 제시하며, 원문에서는 자료수집의 목적 및 자료를 이용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적는다.
9. 영문 초록은 페이지를 분리하여 제시한다.
10. 원고는 학생생활연구 원고 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출판지침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미국 심리학회가 발행한 APA Publication Manual 최근판을 참조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논문은 접수되지 않을 것이다.
11. 게재된 논문의 별쇄본은 20부에 한하여 저자에게 무료로 배부한다. 초과분의 별쇄본은 저자의 사전요청과 부담에 의하여 추가로 제공될 수 있다.